

對非正規戰史

(1945~1960)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머 리 글

우리 나라에서의 대비정규전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제주도 폭동사건을 효시로 각 지구에서 끊임없이 전개되었으며, 휴전 이후에도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대비정규전은 대체적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기간중, 그리고 휴전 이후의 3 단계로 대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전쟁 발발 이전의 대비정규전은 4·3 폭동사건 이전까지는 경찰이 이를 전담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여수·순천, 대구 반란사건과 북한에서 남파한 인민유격대의 침투 등으로 공비의 세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때부터 국군이 동원되어, 민·경·군의 협동체제에 의한 토벌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쟁기간 중에는 북괴군의 패잔병이 대거 공비와 합세하여 병참선을 차단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기에 이르자, 전선의 2개 사단을 지리산지구에 투입하여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건국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었던 비정규전은 사회질서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정규전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리된 기록이 미흡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공비토벌부대의 전투상보를 위시하여, 경찰사·공비연혁·대공 30년사·북괴도발 30년사·한국전쟁사, 그리고 참전장병·경찰관 및 지역주민의 증언과 그밖의 여러 문헌을 총정리하여, 대비정규전의 총괄적인 참고서적이 될 수 있도록 군사행동을 중심으로 한 단행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비정규전사는 이러한 취지에서 발행되는 최초의 책으로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간에 치른 대비정규전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후의 관련자료를 망라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을 편찬함에 있어서 공비토벌에 공헌한 많은 경찰과 애국단체 그리고 희생을 무릅쓰고 대비정규전에 참여한 지역주민에 관한 사항을 담지 못한 점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는 또 다른 분야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 책이 대비정규전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많은 애독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1988년 12월 1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장 윤 석 우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국방부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대비정규전사로서 1945년 광복이후부터 1960년 4.19까지 15년동안에 펼쳤던 대비정규전작전 중의 군사상황을 중심으로 수록한 것이다.
2. 작전상황은 대비정규전작전이 최초로 전개되었던 제주도를 비롯하여 지리산·오대산·태백산 등 작전지역 별로 묶어 작전부대 및 일자순으로 엮었다.
3. 군사용어는 합동군사용어사전(합동참모본부, 1980)을 기준하였으나 대비정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벌작전 당시 사용되었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공비들의 부대명칭도 그들이 사용하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토벌작전, 토벌부대, 소탕작전, 공비, 야산대.


○ 남부군, 김지회부대, 독수리병단, 전북도당유격대사령부.


제5지구당

4. 군개부호는 육군 독도법 교범(야교 21-26, 1981)에 따라 표기하였으며 당시에 있었던 특수한 부대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명칭이 긴 것은 약어를 사용하였다.

○  : 백야전전투사령부

○ 205  : 제205경찰연대

○ 2  : 제2경비대대

○ 2  117 : 제117예비연대 제2대대

5. 지명은 당시 호칭되던 것을 사용하고 그후 변경된 것은 괄호안에 표기하였다.

6. 중요지형이나 지점에는 ()에 군사지도의 좌표를 기입하였다.
7. 방향은 남·북을 축으로 하여 표기하고 온도는 섭씨를 사용하였다.
8. 연월일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 연월일: 1945년 8월 15일
 - 시 간: 오전 4시 - 04:00
 오후 2시 30분 - 14:30
 - 작전명령과 ()안의 연월일시는 1950. 8. 10 16:40과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차 례

제 I 장 공비의 발생

I. 광복 전후의 공산주의운동의 개황	I
가.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기원	I
나. 광복 전 국외에서의 공산주의운동	2
다. 광복 전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	3
라. 광복 후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	6
마. 좌익진영의 발호	12
2. 공산세력의 공비화	17
가. 파업·폭동의 시작	17
나. 군 내부에 대한 좌익계열의 침투	22
다. 제주도 폭동사건	26
라. 여수·순천 반란사건	31
마. 대구 반란사건	38
바. 인민유격대 침투	43

제 2 장 전쟁 전 공비 및 인민유격대 소탕작전

(1945. 8. 15~1950. 6. 25.)

개 요	47
I. 제주도 지구 공비소탕작전	52
가. 제 II 연대 작전(48. 5. 15~ 7. 23.)	52
나. 제 9 연대 작전(48. 7. 23.~12. 29.)	59

다. 제 2 연대 작전(48. 12. 29.~49. 2. 28.)	64
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작전(49. 3. 2.~ 5. 15.)	67
마. 해병대사령부 작전(49. 12. 28.~50. 6. 25.)	71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76
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 작전(48. 10. 30.~11. 30.)	76
나. 호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49. 3. 1.~ 5. 9.)	80
다. 진주 지구 해병대 작전(49. 8. 29.~12. 26.)	96
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49. 9. 28.~50. 3. 15.)	99
3. 오대산 지구 작전	107
가. 제 6 사단 작전	107
나. 제 8 사단 작전	121
4. 태백산 지구 작전	141
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전(49. 9. 1.~50. 3. 15.)	141

제 3 장 전쟁기간중 유격대 및 공비소탕작전 (1950. 6. 25.~1953. 7. 27.)

개 요	148
1. 제 3 군단의 후방지역작전	154
가. 개 요	154
나. 제 5 사단의 영남지구 작전(50. 10. 16.~11. 22.)	157
다. 제 9 사단의 대둔산 및 경북 서부지역 작전(50. 11. 23.~12. 17.)	163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167
가. 제 11 사단의 지리산지구 작전(50. 10. 4.~51. 3. 30.)	167
나. 제 8 사단의 호남지구 작전(51. 4. 15.~5. 11.)	176
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호남지구 작전(51. 11. 30.~3. 15.)	183
라. 제 1 사단의 토벌작전(52. 7. 13.~8. 4.)	219

3. 태백산 지구 작전	226
가. 해병대의 안동·영덕 지구 작전(51. 1. 23.~2. 13.)	226
나. 제 2 사단의 안동 지구 작전(51. 2. 17.~4. 25.)	231
다. 제 9 사단의 정선군 송계리 전투(51. 3. 12.~3. 18.)	238
4. 제주도 지구 작전	244
가. 해병대작전(51. 1. 14.~3. 31.)	244
나. 육군 무지개부대 작전(53. 2. 3.~5. 1.)	246

제 4 장 휴전 후 공비소탕작전

(1953. 7. 27.~1956. 12. 31.)

개 요	257
1. 박전투사령부의 작전(53. 12. 11.~54. 5. 25.)	263
가. 제 1 단계작전(53. 12. 11.~54. 2. 10.)	263
나. 제 2 단계작전(54. 2. 11~3. 31.)	292
다. 제 3 단계작전(54. 4. 1.~5. 25.)	315
2.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작전(55. 2. 1.~3. 31.)	338
가. 작전배경	338
나. 작전경과	340
다. 작전결과	341
3. 소멸기 공비소탕작전(55. 7. 1.~56. 12. 31.)	344
가. 작전배경	344
나. 작전경과	345
다. 작전결과	347

제 5 장 무장간첩침투 봉쇄작전

(57. I. I. ~ 1960. 4. 19.)

개 요	350
1. 육상침투 봉쇄작전	354
가. 개 요	354
나. 작전경과	355
다. 작전결과	367
2. 해상침투 봉쇄작전	368
가. 개 요	368
나. 작전경과	368
다. 작전결과	381

▣ 부 록

1. 주요 대비정규전 일지(1945. ~ 1960.)	385
2. 참고문헌	402
3. 색 인	404

▣ 요 도

1. 제주도 폭동시 상황도	53
2.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작전 요도	91
3. 공작산 소탕 작전 요도	115
4. 제 10 차 침투 김무현 부대 소탕작전 요도	120
5. 김달삼 부대 소탕작전 요도	125
6. 김상호 부대 소탕작전 요도	133
7. 제 21 연대의 이호제 부대 소탕작전 요도	137

8. 북괴군 인민유격대 침투 상황 요도	147
9. 개전직전 공비 분포도	149
10. 1950년 10월 말경의 공비 분포도	150
11. 제 5 사단 부대별 병력 배치도	159
12. 제9연대 작전 상황도	171
13. 제13연대 작전 상황도	173
14. 제20연대 작전 상황도	175
15. 백야전사 작전전 공비 분포도	185
16. 제 1 기 전반기 작전 요도	195
17. 제 1 기 후반기 작전 요도	197
18. 제 2 기 전반기 작전 요도	204
19. 제 2 기 후반기 작전 요도	205
20. 제 3 기 지리산 지역 작전 요도	211
21. 제 3 기 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212
22. 백야전사 작전 완료후 공비 분포도	218
23. 제 1 사단 작전전 국내 공비 현황	220
24. 제 1 사단 작전 완료후 국내 공비 현황	225
25. 정선 송계리지역 작전 상황도	243
26. 무지개부대 제 1 호 작전 요도	250
27. 무지개부대 제 2 호 작전 요도	250
28. 무지개부대 제 3 호 작전 요도	251
29. 무지개부대 제 4 호 작전 요도	253
30. 무지개부대 제 6 호 작전 요도	254
31. 무지개부대 제 7 호 작전 요도	255
32. 휴전후 공비활동 지역과 분포 상황	258
33.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277
34.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279
35. 신선봉·회문산 지역 작전 요도	282

36. 조개산·모후산 지역 작전 요도	283
37.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302
38.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304
39. 조개산·모후산 지역 작전 요도	306
40.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323
41.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325
42. 회문산·신선봉 지역 작전 요도	327
43. 공비의 활동지역 및 인원수(1955. 2. 1.)	339
44. 공비의 활동지역 및 인원현황(1956. 12. 31.)	348

▣ 표

1. 제 11 연대 편성표	55
2. 제 9 연대 편성표	59
3. 제주도 경비 사령부 편성표	61
4. 제 2 연대 편성표	64
5. 제주도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68
6. 해병대 편성표	72
7. 호남 방면 전투 사령부 편성표	77
8.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82
9. 호남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82
10. 해병 진주 주둔 부대 편성표	97
11. 유격 병단 편성표	101
12. 인민 유격대 제 2 병단 편성표	101
13.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103
14. 제 6 여단 편성표(1)	108
15. 제 6 여단 편성표(2)	112
16. 제 6 사단 편성표(1)	114
17. 제 6 사단 편성표(2)	117

18. 제 8 사단 편성표	122
19. 김상호 부대 편성 및 장비표	131
20. 태백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142
21. 제 3 군단 전투 편성표	155
22. 제 5 사단 전투 편성표	158
23. 제 9 사단 전투 편성표	164
24. 제 11 사단 전투 편성표	168
25. 제 8 사단 전투 편성표	177
26. 지구별 작전부대	178
27. 남부군 편성표(51.8.)	184
28. 백야전 전투사 전투 편성표	187
29. 제 1 사단 전투 편성표	221
30. 해병 독립 제 5 대대 전투 편성표	227
31. 남부군 편성표(50. 12.)	232
32. 제 2 사단 전투 편성표	234
33. 제 9 사단 전투 편성표	239
34. 해병 제주부대 편성표	245
35. 무지개부대 편성표	248
36. 박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1)	269
37. 박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2)	296
38. 한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	318
39. 남경사 전투 편성표	340
40. 공비출현회수 및 작전부대와 접촉회수	347

제 1 장 공비의 발생

1. 광복 전후 공산주의운동의 개황

가.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기원

1917년 11월 7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승리한 후 러시아 공산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지도적 지위에 서게 되었으며,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제3국제공산당)이 설립(1919. 3. 2)된 이후에는 각국 공산당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8년 1월 22일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 한인 김철훈 등이 주동이 되어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 를 조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6월 26일에는 이동휘(애국투사) 등이 주동이 되어 하바로프스크에서 '한인사회당' 을 창립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효시이다.

당시의 한국사회는 전 근대적 사회제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이라 공산주의 운동의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수 없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와 같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이 성립될 수도 없었다. 다만 해외로 망명한 애국지사들과 외국에 거주하던 교포들 중의 뜻있는 인사들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 자극을 받고 해외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조직을 가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 1. 광복 전후의 공산주의운동의 개황

애당초,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의 최초 동기는 공산주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서 출발한 것이었다. 당시 항일 독립운동가 중의 일부가 러시아에 의존하려 한 것은 독립운동을 위한 지리적인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유리하였고, 특히 레닌의 공산혁명정권이 '세계 식민지민족 해방운동'에 동조하면서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정책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광복 전 국외에서의 공산주의운동

광복 전 국외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이동휘가 주동이 되어 '한인사회당'을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세계정세와 일제 압력하에 있던 한국의 정황 등을 조심성있게 살피다가 1919년 8월 말에 하바로프스크를 떠나 '한인사회당' 간부와 함께 중국 상해로 이동하였다. 이 곳에서 이들은 자파세력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민족진영의 일부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하여 공산주의 모임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1921년 1월에는 '한인사회당'을 '고려공산당'으로 개편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동휘는 상해에 도착한 얼마 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임되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영도하는 '고려공산당'은 여전히 모스크바에 의지해서 독립의 숙원을 달성하는 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한편 '이르쿠츠크 공산당 한인지부'는 1919년 1월 22일에 '전로한인공산당'으로 개편되었다. 김철훈이 지도하던 이 공산당은 상해의 고려공산당과는 달리 러시아 볼셰비키 당에 예속되어 볼셰비키 혁명전선에 한인을 직접 동원하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였으며, 독립운동을 제2차적인 일로 취급하고 있었다.

1920년 7월, '전로한인공산당'은 러시아 각처에 산재해 있던 공

산주의 모임들을 규합하여 '전로 고려공산당' 으로 개편하였다.

이렇듯, '고려공산당' 은 '상해파' 와 러시아 '이르쿠츠크파' 로 나뉘어 서로가 공산주의 운동의 정통파라고 주장하면서 주도권 쟁탈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코민테른' 으로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1국 1당이라는 코민테른의 규약에 저촉된다하여 양파 모두가 정치단체로서만 인정되었을 뿐, 이른바 '조선공산당' 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이 밖에도, 김일성 일파가 1930년부터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만주에서 항일 유격투쟁을 펼쳤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독자적인 항일 독립투쟁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동만주유격대' 의 1개 소대로 활동한 것에 불과하였다. 1941년 김일성은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포기하고 소련으로 건너가 군사훈련을 받은 후 소련군 대위로 임관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극동민족부대 독립저격중대장' 으로서 독·소전쟁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참전하여 소령으로 특진하는 등 외국군 부대의 일원으로서 행동하였던 것이다.

다. 광복 전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

광복 전에 소련과 중국에서 일어난 한인 공산주의 운동이 국내 공산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러시아보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산주의 운동은 해외 한인 공산주의 운동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었다. 곧, 3·1운동의 열기가 국·내외에 고조되던 무렵에 주로 재일 한국인 유학생과 지식청년들이 동경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사상운동을 벌임으로써 비롯되었으며, 최초에는 민족주의 운동 또는 무정부주의 운동 등이 배합되어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이합집산적인 것이었다.

4 I. 광복 전후의 공산주의운동의 개황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과정을 보면, 1923년 12월 10일에 일본 '사회주의 동맹' 이 조직되었으며, 다음해(1924) 5월 27일 결사 금지의 법령으로 이 동맹이 불법화되자, 이 무렵 일본에 출입하던 동경 유학생 조봉암·김약수·원종린·임용택 등이 '흑도회' 를 발족시켰다. 그 뒤 이들은 '무정부주의 계열' 과 '공산주의 계열' 로 갈라진 것을 계기로 공산주의 계열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들은 다시 서울청년회(일명: 고려공산당계)와 화요회(조선공산당계)로 분리되었으며,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과 수차례의 개편과정을 거친 끝에 '한양청년회 동맹' 과 '경성청년회 연합회' 로 각각 그 세력을 규합하여 기반 확대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산주의 운동은 단체 조직의 초기부터 종파끼리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혈안이 되었을 뿐 항일 독립쟁취를 위한 선명한 노선 설정과 단결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의 창립과 해산: '코민테른' 에서는 조선공산당을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선공산당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때, 이들은 국내 공산주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 영내의 한인 공산당원을 중심으로 재조직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민족진영이 공산당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곧, 한국 독립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공산주의 노선에만 충실하고 코민테른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정당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러시아 한인 공산당인 '전로 고려공산당' 의 지도급 인물로 알려진 김철훈·한명학 등은 국내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국내 공산주의자와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서 '조선공산당' 을 조직하여 '코민테른' 에 가입할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게 되었다. 이리하여

러시아 영내의 유력한 당원들을 핵심으로 하여 통일된 조선공산당을 조직하려고 한 모스크바 당국의 계획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의 조선공산당은 러시아 영내파를 당 조직에서 제외해 버렸다.

이처럼 조선공산당과 러시아 공산당과의 불화는 창건 벽두부터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1925년 4월 17일 국내파 공산당인 '수요회'와 '북풍회'가 주동이 되어 서울 아서원에서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이때에 이들은 '수요회'계의 김재봉·박헌영·조봉암, '북풍회'계의 김약수, 상해파(고려공산당)의 주종건·유진희, 노동당계의 윤기덕을 간부로 선출하였고 당 책임비서로 김재봉을 선출하였다.

이해 12월, 신의주 사건으로 간부가 검거되고 조직이 노출되자 평소 불만을 품었던 '서울청년회'계가 일부 반대파를 규합하여 소련 및 상해파와 연락한 다음 서울 춘경원에서 새로운 공산당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들 '춘경원 공산당'은 김은국과 이영이 책임비서로서 당을 주도하다가 1926년 6월 10일 순종황제 국장이 거행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6·10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 탄로나 당 간부의 전부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 후 양파간에는 통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일본 수사당국의 계속되는 검거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코민테른은 1928년에 조선공산당의 활동이 모스크바 당국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이 당의 해산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공산당은 초기과정에서 3년 동안이나 당의 주도권 다툼에만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해체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인 1945년에 해방을 맞았다.

라. 광복 후 국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

(1) 남한에서의 좌익진영 활동

(가) 전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일 06:00, 서울 필동에 있는 일본총감 관저에서는 여운형과 일본총감 엔도(遠藤政務)가 회담하고 있었다. 총감은 일본의 패전을 정식으로 알리고 치안혼란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여운형에게 부탁하였다. 그 뒤를 이어서 그는 안재홍·송진우에게도 다른 방법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날 12:00, 일본국왕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방송으로 국민에게 알려지자 여운형은 일본총독 아베(阿部信行)의 요청에 따라 정권을 이양받고 서둘러 전국준비위원회(약칭: 전준)를 결성하고 위원회 사무실을 서울 계동에 두었다.

여운형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한 전국준비위원회는 총무부를 위시하여 12개 부서를 두었다. 그러나, 전국준비위원회에 임명된 간부는 대부분이 공산주의자 또는 그들의 동조자로서 해방의 환희와 치안이 혼란해진 이 시기를 틈타 조직 확장에 진력하였다. 그러다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이틀 전인 9월 6일에 돌연 남한이 '조선인민공화국' 임을 선포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전국준비위원회를 해산시켰다.

(나) 조선공산당의 재건

1928년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이후 각 지역에서 분산된 채 지하에 잠입하여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광복과

더불어 햇빛을 보게 되어 합법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광복 다음날인 8월 16일, 서울에서는 원래 서울계인 이영·정백·최익환 등이 주동이 되어 세칭 장안파로 알려지고 있는 공산당을 조직하는가 하면, 9월 8일에는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전신 화요계 일파(일명: 재건파)가 '조선공산당 재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그 후, 박헌영의 재건파는 9월 11일에 이르러 장안파를 흡수한 후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으며, 이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일반근로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고 서민생활을 급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선동함으로써, 해방 초기에는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㉔) 조선인민공화국의 급조와 인민위원회 조직

여운형(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좌익계열에서는 1945년 9월 4일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허헌이 와병한 것을 기회로 여운형·박헌영·허헌 등의 4명이 밀회하여 인민공화국 창립과 정부요인의 구성을 임의로 결정하였다. 곧 이어 9월 6일에는 서울 경기여고 강당에서 약 300명이 모여 대의원의 정당한 선출 없이 '전국인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이들은 건국준비위원회의 동조자를 설득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조직체를 창설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전국인민 대표자대회에서 정치강령 4개항과 시정방침 27개 항을 발표하였다. 이때의 이른바 인민공화국 조직을 보면, 중앙에 인민위원회를 두고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될 중앙위원회에는 독립투사·임시정부요인을 포함하여 55명을 선출하였는데 그 중의 39명이 공산주의자였다. 지방에서도 시·도·군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 역시 대부분이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 자

들이었다.

이틀 뒤인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즉시 군정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포고문을 통하여 주한 미군 당국은 남한에서는 미 군정청이 유일한 최고 통치기관이라 선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불법적인 단체로 규정하여 해산을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공산주의자들은 미 군정청을 설득하여 '제1차 전국 인민위원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곧, 11월 20일부터 3일 동안 허헌을 위시한 좌익계 중앙위원과 남북한 13개 도, 25개 시, 175개 군의 지방인민위원회 대표 약 600명이 서울시내 천도교 대강당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무렵, 중국의 중경에 위치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이 한국(45. 11. 23)하게 되자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망과 기대가 고조되어 갔다. 이에 당황한 조선공산당측에서는 임정요인과 제휴하여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단체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획책하였으나 임시정부측은 이를 일축하고 말았다.

그 후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제2차 전국인민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개최(46. 4. 23~24)하였으나, 공산당원들이 전국적으로 저지르고 있던 불법행동에 대한 미 군정당국의 제재와 일반대중의 불신 및 반발로 인하여 점차 그 활동영역이 제한되어 갔다. 게다가, 인민위원회 구성원들은 인민당(여운형 계), 공산당(박헌영 계), 사회노동당의 3파로 분리되어 이들 정당을 배경으로 하여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고 나섬으로써 이른바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체의 공식활동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직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㉞) 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및 좌익단체

광복 후 좌익계열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비롯하여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의 날조 등, 미군정하에서도 좌익정부 수립을

위하여 안간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책동은 우익진영의 반대로 그들이 노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정황 속에서 좌익과 우익의 분열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갔다. 1946년 1월 21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조선 임시정부의 수립 문제가 거론되자, 좌익진영에서는 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좌익진영의 행동 통일과 단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친공단체는 물론 중간노선의 정당과 단체들까지도 포섭하여 공산당의 세력우위를 시도하는 한편, 2월 15일에는 우익진영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민전)을 결성하였다. 이때, 이 민족전선의 중앙조직은 의장단 15명(여운형·허헌·박헌영 등)과 중앙위원 391명(그 중 상임위원 7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를 수립함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농업문제 연구위원회를 비롯한 8개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까지 구성하였다. 이리하여 많은 좌익단체가 민족전선 산하로 망라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정당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족전선 산하 정당 및 사회단체

단 체 명	창 설 일 자	주 동 인 물
조선인민당	1945. 11. 12	여 운 형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	1945. 11. 5	허 성 택
조선부녀총동맹	1945. 12. 22	유 영 준
조선민주청년동맹	1945. 12. 22	조 신 영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	1945. 12. 29	정 운 영
조선문화단체 총연맹	1946. 2. 24	김 양 하
남조선 신민당	1946. 7. 14	백 남 운

(2)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

(가) 소련군의 진주와 북한의 공산화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한 것은 1945년 8월 22일이었다. 이때 소련군은 포고문을 선포하고 군정의 실시를 선언하였다. 소련군은 “북조선 인민의 개인 및 공공재산을 소련 군정당국이 보호한다.”고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수많은 공장시설과 장비 등 소중한 생산자원과 식량·피복·면사·잡화·공업자료와 같은 각 분야에 걸친 막대한 물자를 닥치는 대로 소련으로 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표인 붉은 지폐를 무제한 발행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파탄상태로 몰아넣었다.

소련군의 북한점령정책의 기초는 먼저 북한사회를 소련화하여 공산기지로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 군정당국은 북한내의 민족진영과 국내파 공산당의 세력을 제거하면서 소련의 군적을 가진 김일성(본명: 김성주)과 소련에서 훈련시킨 일파를 정치 일선에 내세우고 북한내의 5개도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다음해(1946) 2월에는 권력구조의 핵심체라 할 수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에게 통치권을 대행시키면서 공산국가 특유의 일당독재체제를 굳히게 되었다. 이보다 앞선 1945년 10월 10일 북한에서는 ‘조선공산당 분국’이 창건되어 김일성이 당수격인 제1비서로 추대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이 기구가 북조선공산당으로 개편되었다.

이렇듯 소련의 비호하에 김일성은 정치 기반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그를 반대하던 세력이 무력화되자 소련 군정당국은 북한

정권을 담당할 ‘북한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나) 인민위원회와 인민회의의 창설

1946년 2월 3일 김일성은 북한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기관, 각 시·도 인민위원회 대표들을 평양에 집결시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2월 9일에는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23명의 상임위원도 선발되었다. 동 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인민회의’가 설립되어 정권을 이양할 때까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조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그 후 1년간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시키다가 1946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 15일에 이르는 기간 중 도·시·군·면 인민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47년 2월 21일에 소집된 인민위원회 대표자회의는 북조선 정권의 최고기관인 ‘북조선 인민회의’를 창설하고 의장에 김두봉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 ‘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최고 행정기관으로 결정하고 그 위원장에 김일성을 선출하였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소련의 사주와 비호를 받으면서 북한의 최고 실권자로 등장하여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공산정권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었다.

마. 좌익진영의 발호

(1) 신탁통치 반대 투쟁과 공산당의 표변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는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로써 한국독립의 준비단계로 삼는다.”는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가결하였다. 이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자주독립의 희망에 부풀어 있던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온 국민이 한결같이 신탁통치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으며, 우익진영은 물론 좌익진영까지도 반탁 운동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년 12월 31일부터 반탁 시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군정청 산하기관의 직원까지도 총사퇴,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반탁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반탁의 물결은 급속도로 전국에 파급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으로부터 “찬탁대회로 행동을 바꾸라.”는 밀령을 받고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명의로써 찬탁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그들의 표리부동한 정체가 백일하에 노출되었다. 특히 박헌영은 5년 후 조선이 소련연방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공산진영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변하여 1월 3일부터 어이없게도 찬탁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찬탁과 반탁의 대립에서 비롯된 좌·우익의 충돌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끝내는 같은 직장, 같은 학교, 같은 집안 형제끼리도 찬탁·반탁으로 나뉘어져 유혈사태까지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좌익진영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도에 달하였고, 흥분한 우익계열은 공산당 건물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2) 학병동맹사건

학병동맹은 일제 말기 일본군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내의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강제 징집하였을 때, 일본군대에 징집되었다가 해방 후, 귀국한 학도병들이 모여 1945년 8월에 조직한 단체였다. 이 동맹은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좌익분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 동맹원의 수는 3,500여 명이나 되었고 그들 모두가 대학을 다니던 지식청년들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하여 위세가 당당하던 이들은 학병에 끌려갔던 치욕의 날인 1월 20일을 학병 기념일로 정하고 기념일을 이틀 앞둔 1월 18일 기념행사 준비를 하느라 삼청동 사무실에 모여 있었다.

한편, 이날 서울 정동교회에서는 반탁 학생들에 의한 성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오후 5시경에 이 대회는 끝이 났다. 그러나 이 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여학생 1,100여 명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은 거리로 나와 미·소 양국 영사관을 필두로 조선포털, 반도호텔을 거쳐 을지로에 위치한 공산당 기관지 인민보사와 인민당 건물을 파괴하고 그 여세를 몰아 다시 안국동의 서울시 인민위원회와 부녀동맹사무소를 짓밟은 다음 신문로 1가에 이르렀다. 이때, 요란한 총성과 함께 총기와 폭약을 든 수십 명의 학병동맹원들이 비무장의 반탁학생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거리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좌·우익 학생들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는 급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습되었으며, 이때 사용한 총기·폭발물 등도 회수되어 그 이상의 유혈극은 일어나지 않았다.

(3) 정판사 위폐사건

해방 후 조선공산당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제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서울시 소공동 소재 근석 인쇄소와 그 건물 일체를 공산당원 박종락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조선 정판사를 설립하고 조선공산당 본부와 당 기관지인 해방일보사를 여기에 설치하였다.

정판사 사장 박종락은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과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1945년 9월 20일 정판사 서무과장 주언필 등 간부들과 공모하여 정판사가 보관하고 있던 지폐 원판(100원권)으로 5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인쇄하여 당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위조지폐가 시중에 나돌자, 백원권을 비롯한 지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상거래는 물물교환 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매점 매석 행위가 성행함은 물론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는 등 국가경제는 걸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다.

경찰은 1946년 5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뚝섬에 근거지를 둔 이원재 등 일당 7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근석 인쇄소 기계류와 석판·위조지폐 등을 압수한 것을 계기로, 위폐 범죄단에 대한 검거를 시작하여 관련자 15명을 검거하였다.

미 군정청은 위조지폐사건의 주동이 조선공산당 간부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선공산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근석빌딩의 폐쇄와 더불어 해방일보사를 폐간 조치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남한 경제를 혼란시킴으로써 혁명 여건을 조성하려는 일거양득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은 이에 대한 일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 군정

당국이 이 사건을 날조하여 공산당을 궁지에 빠뜨렸다고 국민을 선동하는 공산당 특유의 수법으로 대응하였다.

(4) 요인암살 및 테러 활동

이승만 저격사건 : 1946년 9월 12일 돈암장을 출발한 이승만의 자동차가 창덕궁 앞길에 다다랐을 때, 부근 골목에 잠복하고 있던 괴한 2명이 권총으로 이승만을 저격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검거된 범인은 평남 강동군 출신의 공산당원 김광명(22세)과 김영수였다. 이들은 이승만과 민족진영 요인을 암살할 목적으로 8월 초순 서울에 잠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병옥 경무부장 피격사건 : 1946년 10월 16일 서울 중구 다동 소재 미장 그릴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미 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을 향하여 잠복 괴한이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류탄은 불발이 되어 피해는 없었고, 경호하던 경찰은 즉각 괴한을 체포하였다. 범인 유주열은 조선공산당 산하단체인 민주청년 동맹원이었다.

장택상 경무총감 피격사건 : 1946년 11월 13일 수도관구 경찰청장 겸 제1경무총감 장택상이 서울 중구 장교동 자택을 떠나 출근하던 중 을지로 2가 한양 양복점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괴한 2명이 자동차에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장총감은 얼굴에 약간의 부상을 입었으며, 경호 경찰관 1명이 순직하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1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결과, 범인 김용암(21세)은 조선공산당 산하 민청요원임이 밝혀졌다.

이 외에도 조선공산당 산하단체의 조직원과 북한에서 남파된 공산당원에 의하여 부산경찰서장(권위상, 33세)이 총격을 당하여 순직한 사건을 위시하여 요인암살과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렇듯 이들 공산당의 무차별한 사회혼란의 조성으로 한국사회에는 점차 불안과 공포의 암운이 짙어 가고 있었다.

2. 공산세력의 공비화

조선공산당은 19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사회질서가 어지러운 시기를 이용하여 9월 총파업, 10·1 대구폭동 사건, 군부내 좌익세력의 침투 및 제주·여수·순천·대구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방경비대와 국립경찰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폭도 진압과 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이들의 음모와 파괴 활동을 분쇄하였다. 그때마다 반란 주모자를 비롯한 좌익세력에 부화뇌동한 분자들은 지리산·백운산·팔공산 등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결국에는 공비로 전락하게 되었다.

가. 파업·폭동의 시작

(1) 9월 총파업사건

1946년 9월 23일 서울 철도공작장을 비롯한 전국철도노조원들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철도노조원 처우개선 요구를 당국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실체는 조선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공산당은 내부적으로 그들끼리의 파벌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 박헌영의 반대파(문갑송·강진 등)는 좌익계열(공산당·인민당·신민당)을 합당하는 당대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전당대회 개최의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내분은 표면화되어 갔다.

이러한 정보를 포착한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는 박헌영의 반대파인 일명 ‘대회파’를 억압하는 한편, 박헌영 일파를 핵심으로 한 공산 3당의 통합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철도 총파업을 비롯한 폭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박헌영에게 지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헌영은 산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전평)에 지령하여 철도 총파업 본부를 영등포 공장에 설치하고 전국 철도노조에 다시 파업지령을 내리게 하였다.

1946년 9월 14일, 서울 철도공작창 종업원 3,700명은 처우개선과 해고 절대반대 요구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없다는 구실하에 9월 23일 밤 23:00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 파업은 같은날 부산 철도공장 파업에 이어 각 철도국 현장 종업원에게 급속도로 파급되어 38도선 이남의 전 열차의 운행이 중지되고 교통기관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들은 초기에는 합법투쟁이란 명목으로 식량 배급, 임금 인상 투쟁구호를 외쳤으나, 노조 파업조직의 단결과 투쟁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후부터는 본색을 나타내어 ‘정체는 인민위원회로 할 것’과 ‘북조선과 같은 노동법령을 시행하라’는 등 정치적 요구조건을 내걸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9월 25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지역에서 걸쳐 철도·통신·전기·출판·각종 생산기관·해운노조 등 노조기관의 전국적인 연쇄파업으로 확대되어 갔다.

미 군정청은 파업 주동자의 정체가 조선공산당의 지령과 선동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자, 담화를 발표하고 철도 종업원의 조속 복귀와 취업을 종용하는 한편, ‘노동조사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은 노조파업은 불법이라고 선언하였다.

9월 30일, 수도경찰청은 경찰관 3,500명을 동원하여 철도 종업원 총파업본부를 급습하고 농성중이던 노조원 1,800여 명을 검거하였

다. 이 대량 검거과정에서 경찰관과 파업노조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어 1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후 경찰은 검거한 자 중에서 주동자를 제외한 전원을 석방하여 직장에 복귀시켜 9월 30일 17:00부터는 인천·수원·동두천·개성 방면의 일부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였다.

(2) 10·1 대구 폭동사건

이 사건은 박헌영 일당에 의해 조종되었던 9월 총파업의 연장으로서 미 군정을 반대하고 공산당의 세력을 확대시킬 의도하에 일으킨 폭동이었다. 9월 총파업으로 말미암아 대구에서는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통신·전기를 비롯한 40여 개의 생산공장이 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하여 민심은 날로 동요되고 특히 운수계통의 마비는 식량을 위시한 생활 필수품의 수송 반입이 중단되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주게 되자 노동자들은 식량 증배와 임금 인상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경북도지부 산하로 집결하였고, 대구 시내 일반 시민들도 좌익의 선동과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겹쳐 노동자들의 식량 증배 요구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를 기회로 조선공산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주동이 된 '남조선 노동자 총파업 대구시 투쟁위원회'는 계획적인 파업지도와 민심 선동에 나섰다. 이 투쟁위원회는 그 산하에 노동자들을 집결시키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대구지방 선전부장(염필수) 등 11명이 이들을 이끌어 대로상에서 공공연하게 '적기'를 부르며 식량 증배와 임금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는데, 파업 노동자의 총수는 약 3천 명에 이르고 있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선동자들은 10월 1일 오전중에 대구시청 앞으로 쌀 배급을 받으러 가자고 시민들을 부추기면서 주로 부

녀자 1,000여 명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쌀 배급을 달라고 외치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계 곡물의 배급과 미국산 밀가루 옥수수 배급이 폐지되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동원한 부녀자들로 하여금 아우성을 치게 하는 등 식량 배급 요구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군중시위를 관망하던 대구 경찰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이를 진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날 17:30에 무장경찰 150명으로 진압에 나섰으나 극한적인 시위를 계속하던 군중과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때 시위는 해산되었으나, 좌익계열에서는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수없이 죽였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 이튿날(10. 2) 08:00, 대구 경찰서 앞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전날(10. 1) 경찰이 발포한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난동을 다시 일으켰으며, 좌익계열의 선동으로 흥분한 군중들은 경찰관의 가택을 파괴하는가 하면 경찰관과 그의 가족을 학살하는 폭도로 변해 버렸다.

한편, 공산당 산하 각 노조, 농민조합, 인민위원회, 부녀동맹, 민청 등의 시위 주동자 1,100여 명은 대구 의대를 비롯한 중학교 학생 400명을 추가로 동원하여 대구 경찰서로 몰려가 유치장을 개방하고 경찰무기를 탈취하여 13:00에는 경찰서를 점거하였다. 이때부터 무장폭도로 변한 군중들은 대구시를 완전 장악하고 대구와 달성군 관내의 30개 경찰지서를 점거한 다음 경찰 가족과 우익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미 군정청은 이날 18:00를 기하여 대구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미군을 투입하여 난동분자와 군중을 해산시키고 대구 경찰서를 위시한 공공기관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경비망을 벗어난 난동분자들은 시위의 확대를 꾀하면서 차량을 탈취하여 각 지역으로 분산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성주·칠곡·고령·영천·경산·의성·군위 등지에서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의 좌익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군중과 합세하여 지방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학살하였다. 대구 폭동의 여파는 영남·호남·경기·강원도 일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소 소요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광주에서는 10월 20일 01:00에 광주 경찰서가 난동군중에 의해 불에 탔고, 경기도 경찰국 관하 4개 경찰서와 7개 지서가 폭도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파괴되었다.

미 군정하의 형무소는 재소자의 80% 이상이 좌익계열의 폭도로서, 이들은 마치 형무소가 공산당의 집회소인양 착각하고 갖은 음모의 소굴로 이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형무소는 바로 이들 폭도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11일, 전주 형무소에서 죄수 418명이 폭도와 내통하여 감옥을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도주하였으며, 광주 및 공주 형무소에서도 탈옥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좌익진영이 조종하던 폭도들은 남한의 73개 시군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과 우익진영은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사전에 이들의 기도를 분쇄하여 대부분을 소탕하였으며 이들 중의 소수는 지하로 잠입하게 되었다.

10. 1 대구 폭동사건의 피해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 사망 : 39명

경찰관 부상 : 31명

민간인 사망 : 44명

민간인 부상 : 56명

재산피해 : 30억원

폭동 가담자 검거 : 7,000여 명

* 수감인원 : 1,500명

나. 군 내부에 대한 좌익계열의 침투

(1) 해방 후 사설 군사단체의 범람과 좌익 군사 조직의 활동

광복과 더불어 일군·만군·광복군에 소속되었던 한국인 군인들이 일본·만주·중국·동남아·남태평양 등지에서 속속 귀국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돌아가는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서로 모이다가 장차 국방군이 조직될 때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욕망을 가지는가 하면, 일부는 정치단체와 결탁하여 출세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당시 정당·사회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와 12월에는 그 단체 수가 205개에 달했고 군사단체만도 30여 개나 되었다. 그 중 규모가 큰 사설 군사단체는 일본군 출신의 '조선 임시군사위원회 치안대 총사령부(대표: 김석원)'와 학병 출신의 '학병동맹(대표: 왕익권)', '학병단(대표: 안동준)', '조선국군준비대(총사령: 이혁기)', 광복군의 '광복청년회(회장: 오광선)' 등이었고, 뒤에 발족한 육·해·공군 동지회(고문: 이청천, 회장: 김석원)는 1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국군학교(교장: 김원봉), 한국장교단 군사주비회(신하균), 대한무관학교(교장: 김구), 육군사관예비학교(교장: 오정방), 조선군사후원회, 한국광복군 후원회 등이 제멋대로 모병하여 훈련을 시키고 세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 중 좌익의 사주를 받고 있던 군사단체는 '조선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이었다.

조선 국군준비대는 서울 명동에 본부를 두고 태능의 군사시설을 훈련소로 사용하였고, 도지부까지 설치한 막대한 조직이었다. 김일

성의 조종을 받던 조선 국군준비대 간부들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군의 모체가 될 속셈으로 활동하였으며, 남한에 주둔한 미 제24군단을 축출할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 무렵, 김두한은 '대한민청'을 조직하여 청년 1만 수천 명을 지휘하는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되고 있었다. 조선 국군준비대는 김두한을 포섭하려 하였으나, 김두한은 그의 선친(김좌진 장군)이 만주에서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윤치영(이승만 비서실장), 조병옥(경무부장), 강택상(경기도 경찰총감)의 지원을 받아 태능에 있는 국군준비대 훈련소를 습격하여 1,800여 명의 국군 준비대 대원을 소탕하였다.

좌익의 또 하나의 단체인 학병동맹은 국군준비대 폭력사건이 돌발하기 전에 결성되었다. 이들은 박홍식(화신백화점 사장)이 제공한 제복에 학병이란 완장을 두르고 처음에는 치안유지에도 참여하여 한 때는 종로 경찰서까지 접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9월 19일 삼청회관으로 본부를 옮기면서부터 좌익 색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최홍희·김형일을 위시한 37명은 동맹에서 이탈하여 새로이 학병단을 조직하게 되었으며, 좌익세력만이 남게 된 이 학병동맹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어 반탁 시위대열을 습격하는 학병동맹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 군정장관은 모든 사설 군사단체의 즉시 해산을 명령하였고, 1946년 1월 14일자로 창설된 남조선 국방경비대만이 유일한 군사단체로 남게 되었다.

(2) 군사영어학교의 창설과 좌익세력의 동향

미 군정청은 한국군을 창설하기에 앞서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

를 창설하고 교관과 학생 모집을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큰 6개 사설 군사단체의 대표들에게 군사영어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지원 입교 시키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 같은 좌익 군사단체가 미 군정청이 추진하는 창군 예비활동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좌익계열 일부에서는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결국에는 건군의 주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그들의 신분을 감춘 채 이에 호응하였다. 이들은 학생시절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임관한 이후에는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의 이병주는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국군내에 세포조직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하재팔은 대구에서 국군준비대 참모장을 지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하였다.

(3)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좌익세력의 침투

1946년 1월 14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설치되고 그 이튿날부터 중대 창설이 시작되었다. 미 군정청에서는 국방경비대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우익·좌익세력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무분별하게 모병하였다. 그 결과 경비대내에 좌익 분자들이 대거 침투하여 세포조직과 정치공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비대의 이용준 고문은 군정청 군사국장에게 공산분자들이 경비대내에 침투할 것에 대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군사국장인 아고 대령은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군대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군기가 있기 때문이다..."고 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미 군정청의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는 좌익세력의 군내 침투를 방관한 셈이 되어 그 후 일어난

제주도 폭동사건, 여·순반란사건, 대구반란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당시의 미 군정당국 관계인사들이 한국사정에 얼마나 어두웠는가를 입증하는 실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제8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그리고 해안경비대의 통천정·고원정의 월북사건도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던 탓으로 발생되었던 사건이었다.

(4) 인민혁명군사건

1947년 9월, 중국군 출신의 김일광은 북조선 노동당 산하 남조선 군사 공작기구인 남조선 청년 특별지도부 최고책임자에 임명되어 본격적인 인민혁명군 조직공작에 가담하였다. 인민혁명군은 남한내의 좌익 비밀 군사단체로서, 이들은 군의 반란을 유도하여 정부 전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인민혁명군은 남조선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침투하여 동조자를 포섭하고, 이들을 규합하여 군 내부에 좌익세력을 부식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청 경무부 수사국은 이들의 지하 군사활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1948년 2월 22일 이들을 일망타진하였다. 이 사건의 관련자는 김일광, 이혁기를 중심으로 하는 42명의 좌익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군 출신이거나 현역 국방경비대 대원들이었다.

이들의 군 내부 침투와 관련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혁기의 군 포섭사건 : 이혁기는 1947년 9월 말경, 제8연대(춘천) 소속의 최용국 소위를 춘천시내 여관에서 접선한 후 경비대내의 세포조직책으로서 활동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1947년 12월 하순에는 통위부(미 군정청 국방담당 부서) 인사국의 김인중 특무상사를 포섭하는 한편, 대전에 있던 제2연대 소속의 이문교 소위와 연대하사관 남일주로 하여금 전 연대장 김종석 중령(남로당 자금조달

담당)의 남로당 자금조달 사건에 관련되어 도피중인 최수암 대신에 자금조달공작을 계속하도록 지령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2월 중순경에는 남충열(국방경비대 공작담당 책임자)을 자금공작조의 연락원으로서 파견하였다.

남충열의 국방경비대 공작활동: 남충열은 원래 학병 출신으로서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해방되어 이혁기가 총사령으로 있던 조선국군준비대에 입대하였다. 미 군정청의 지시로 국군준비대가 해산(1946. 1)되자 그는 월북(1947. 3) 하여 평양 정치학원에서 3개월간 공산주의 교양을 받고 월남하였다. 그 후 그는 전평에 가담하고 동년 7월에는 남로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1947년 10월 초순에 이혁기의 비밀 군사공작 권유를 받아들여 안일천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국방경비대원 최영규·김원봉·이영과 통위부 병기국 기사 이강수를 포섭하였다.

통위부 병기국 기사 이강수의 활동: 이강수는 일본군 출신으로 영등포에 있는 통위부 병기국 기사로 근무하던 중 남충열에게 포섭되었다. 그는 1947년 12월 중순경에는 병기국 병기 및 장교 현황을 제공하였고, 12월 하순에 병기국내 이수영 기사를 비롯하여 장교 4명과 하사관 6명을 포섭하였다.

다. 제주도 폭동사건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4·3 폭동사건은 해방 후 사회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소수의 공산분자들이 순박하고 가난한 섬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제주도를 공산화하려고 획책한 사건이다.

(1) 해방과 좌익세력의 득세

제주도는 1945년 8월까지의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광복후 일본과 중국대륙에서 많은 동포들이 귀환하게 됨으로써 불과 몇 달 사이에 3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일본군에 종군하였던 군인·군속·징용 노무자들과 중국에서 팔로군의 일원으로 전투를 경험한 좌익계 과격인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해방과 더불어 급진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공산주의 사상은 선량하고 순박하였던 섬사람들에게 비판의 겨를 없이 침투되기 시작하였다.

남로당은 제주도당 위원회 산하에 합동노조, 농민위원회, 민주애국청년동맹, 민주여성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남로당 군사부 직계로 이른바 제주인민해방군을 조직하였다. 사령관은 학도병 출신인 이덕구(32세)였으며, 역시 학도병 출신인 김달삼이 군사부 총책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한라산에 매몰한 무기와 탄약을 찾아내어 무장을 갖추는 한편,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들이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술을 가르쳤다. 이들 무장병력은 500여 명이었으나 동조자 1,000여 명을 합하여 총병력은 1,5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부대를 편성하여 산발적으로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를 살해하는 등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섬 전체를 위압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커 가고 있었다.

이렇듯, 제주도 주민의 8할이 좌경화되고 좌익분자들의 방해 행동으로 행정기능이 마비되자 미 군정청 산하 경무부에서는 1947년 2월 17일 서울 철도경찰본부와 충남 경찰국에서 500명의 경찰관을 선발하여 제주도 경찰국에 파견하였다. 그 뒤를 이어 해방 후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월남한 과격한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 800여 명을 제주도에 보내 좌익계열을 제압하도록 하여 치안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좌익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탕작전을 펼치게 하였다.

경찰과 서북청년단에 대항하여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는 대소 총돌을 유발하여 공공기관을 습격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였으므로 제주도 폭동사건의 불씨는 확산 일로를 치닫게 되었다.

(2) 3·1절 사건과 총파업

1947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찬탁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은 곧 폭동으로 변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예외없이 공산분자들은 3·1절 경축을 빙자하여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주도 하에 제주읍을 비롯한 도내 각 면소재지에 수천 명의 군중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3·1절 행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스크바 3상회의 절대지지’를 외치는가 하면, ‘양과자를 먹지 말자’는 등 반미 구호를 외쳐 경축대회를 공산분자의 찬탁시위 군중대회로 돌변시켰다. 폭도로 변한 좌익 시위대가 경찰서를 포위하여 습격할 기세를 보이자, 당황한 경찰관의 발포로 시위군중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로써 소요사태는 일단 진압되었다. 그러나, 남로당측은 그 이튿날부터 ‘3·1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을 선동하였으며, 3월 9일에는 행정기능이 마비되고 70여 개의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제주 경찰국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4월 15일에 사건 관련자 1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이 3·1절 사건을 계기로 좌익계에서는 민중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고, 한라산 공비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인민해방군의 무장조직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다음해 4·3폭동사건을 유발할 수 있을만큼 세력이 강화되어 갔다.

(3) 4·3 폭동사건의 발생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는 제주도의 향토방위를 위해 1946년 11월 26일 모슬포에서 창설되었으며 그 병력은 1개 대대에 불과하였다.

1948년 3월 말, 남로당 제주도 군사부 총책임 김달삼은 제9연대 내의 좌익 세포 조직책임 문상길 중위(중대장)와 비밀리에 모의하여 무장폭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인민해방군이 일시에 제주도내 전 지서를 습격, 방화하여 경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행정관서를 장악함으로써 제주도를 공산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1948년 4월 3일 02시를 기해 일제히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제주도내 14개 지서(총 15개 지서)가 이들의 기습을 받아 불에 타거나 파괴되었으며, 경찰관 13명이 살상당하고 민가 4채가 불에 탔다. 폭도들은 좌익세력과 대결하던 경찰관,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독립축성회, 국민회 등 우익인사들이 포함된 숙청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사무실을 습격하여 미처 피신하지 못한 청년당원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제주도민을 유혈의 참화 속에 몰아넣어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런 정황 아래에서, 4월 중순이 되자 남로당 제주도당부에서는 회의를 열고, 무장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자위대를 해체한 후 전투경험이 있는 핵심분자를 각 읍·면별로 30명씩 뽑아 3개 연대와 2개 독립대의 인민유격대를 편성하여 관할지역을 분할하였다. 또한 이들은 10명 이상으로 편성된 무장조를 부락마다 배치하여 동조 주민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이들로 하여금 폭도들의 작전을 돕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공비들은 4·3 폭동사건 초기에 무력으로 제주도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제주도의 치안질서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

로 휘말려 들어갔다. 따라서 그 해에 실시하도록 계획된 5. 10(1948) 총선거도 제주도만은 공비들의 계획적인 방해공작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4) 초기 진압작전

제주도에서 4·3 폭동사건이 발생하여 혼란상태가 지속되자, 경무부에서는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환 총경으로 하여금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관계는 경비대 창설 당시부터 생긴 알력으로 군·경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비들은 전투 경험이 많은 무장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의 단독작전으로는 많은 희생자만 발생할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한편,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9연대의 전투능력이 1개 대대에 불과하였으므로 4월 10일 부산에 주둔중인 제5연대 제2대대를 제주도로 공수하여 제9연대에 배속하였다. 제주도에 도착한 제5연대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남로당원)은 대대장병의 훈련상태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토벌작전을 보류한 채 경찰의 횡포와 서북청년단의 과격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주민들의 공비출현 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묵살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오일균은 제9연대내 좌익세포 문상길 중위와 은밀히 회합하고 남로당 군사부 총책 김달삼과도 내통하면서 군 내부의 좌익 세포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렇게 초기 진압작전이 미온적으로 진행되자,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5월 15일 수원에 있던 제11연대를 제주도에 투입함으로써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토벌작전: 제2장 참조)

라. 여수·순천 반란사건

(1) 발생원인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군부대대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 폭동진압 증원차 출동하는 부대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게 되어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하면서 여수·순천을 공산 천하로 돌변시킨, 건군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군대의 반란사건이었다.

남로당은 제주도의 폭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던 중에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1개 대대가 폭동진압차 제주도로 출동하게 되었다는 기밀을 탐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제14연대의 제주도 출동을 저지시키고 이 부대를 역으로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장차 전국 각 부대의 조직책에게도 같은 내용의 지령을 내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남로당 군부적화 특별공작 최고책임자인 이재복의 지령으로, 제1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남로당 조직책)가 주동이 되고 동 연대 김지희 중위(육사 3기, 대전차포 중대장)와 홍순석 중위(육사 3기, 순천 주둔부대 중대장)가 반란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휘관으로서 행동하기로 모의하였다. 국군 제14연대는 1948년 5월에 신편된 부대로서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박승훈(일군 대좌 출신, 일본 육사 제27기) 중령이 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이 연대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창설 당시부터 제4연대(그 후 제20연대로 개칭)에서 차출된 사상이 불온하고 말썽이 많은 이른바 문제사병과

초급장교들이어서 군대 내부 공산분자의 선동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체질을 지니고 있었다.

(2) 반란상황

여수지역 :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는 1개 대대가 제주도 공비특별작전 증원차 출동하기 위하여 여수항에서 선적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출동대대의 환송을 겸한 회식이 장교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지창수 일당은 이때에 거사하기로 기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뒤로 미루었다. 19:00경 회식이 끝나고 연대장이하 참모들은 다시 여수항에 나가 선적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출항 예정시간 19일 24:00) 연대 인사계 지창수는 김지회 중위와 다시 모의한 끝에 부대 출발 직전에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식사 후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고, 잔류부대인 제2대대는 출동부대의 출동준비를 돕고 있었다. 지창수는 연대 좌익세포 40여 명에게 사전계획대로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게 하고 20:00에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 출동대대 병력을 연병장에 집결시켜 놓고 아래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반란에 가담하도록 선동하였다.

-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남진중에 있다.
-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

이러한 지창수의 선동에 반대하고 나선 하사관 3명이 즉석에서 사살되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고, 비상나팔에 의해 영문도 모르는 채 집합한 출동병력은 겁을 먹고 맹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 상사는 “탄약을 이미 점령해 놓았으니 각자 탄약고에 가서 실탄을 최대한 휴대하라.”, “장교들을 모조리 사살하라.” 하고 소리쳤다.

이리하여 출동병력은 일시에 반란군으로 변하여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연대장은 선착장에서 반란 보고를 받고 먼저 부연대장(이희권 소령)을 들여 보낸 뒤, 환송차 여수에 온 제5여단 참모장(오덕준 중령)과 함께 연대에 들어가던 중 총성이 사방에서 나고 반란군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장은 사태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여수시내 어느 여관에 은신하였다가 구출되었으며, 여단 참모장은 그날로 해군 경비정으로 피신하여 목포 경유 육군본부로 가서 진상을 보고하였다.

반란 주동자들은 생각보다 쉽게 반란이 성공하자 연대 부근에서 반란군과 합류하기 위해 미리 대기중이던 여수지구 남로당 핵심분자 23명과 합세하였다. 얼마 뒤에 반란군 2개 대대 병력은 차량으로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봉산 지서를 습격한 것을 계기로 시내 도처에서 경찰과 교전을 벌였다.

1948년 10월 19일 20:00~20일 01:00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수 경찰병력은 반란군의 적수일 수가 없었다.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여 기세 등등해진 반란군은 여수시내를 완전히 휩쓸고 말았다. 이때 시내에서는 좌익단체 및 학생 600여 명이 인민공화국 만세와 인민해방군 만세를 외치면서 반란군을 환영하였다. 반란군은 무기와 탄약을 이들에게도 분배하고 좌익단체들의 선도로 09:00에는 각 관공서와 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을 점령하였다. 그 직후 이들은 붙들어 놓은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단체 요원, 지방유지 할 것 없이 반동분자라 하여 여수 경찰서 뒷뜰에서 총살하

는가 하면, 시민들을 위협하여 동원시키고 이른바 인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난동은 남로당 여수군 위원회가 지휘하였다.

순천지역 : 여수를 완전 장악한 반란군의 주력(2개 대대 병력)은 10월 20일 09:30 여수에서 열차편을 이용하여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순천에 주둔중인 제14연대 예하의 2개 중대는 홍순석 중위 지휘하에 여수에서 이동중인 반란군의 주력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여수의 군 반란 정보를 입수한 순천 경찰서는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 길목에 경찰 1개 소대를 배치하고, 순천교 제방에 경찰 주력을 배치하여 반란군의 순천 진입을 저지할 태세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조치도 반란군의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맥도 추지 못한 채 무너졌다. 게다가, 광주에서 급거 출동한 제4연대의 1개 중대는 순천교와 순천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중대내 좌익계 하사관들이 중대장과 반란을 반대하는 일부 사병을 사살한 뒤 반란군과 합류함으로써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10월 20일 17:00경 반란군은 순천의 전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고 좌익분자들과 중고등 학생을 선동하여 이들을 무장시켜 이들로 하여금 이른바 반동분자를 색출하게 하여 500여 명을 인민재판이란 미명 아래 학살하였다. 특히, 순천지역에서는 경찰관 400여 명이 반란군 진압작전을 펼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렇게 반란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게 되자 민심은 동요되고 소박한 주민들은 실제로 공산정권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으며, 반란군의 선동과 강압으로 이들에게 가담하는 자가 속출하여 무장폭도들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였다. 순천에서 세력을 확대한

반란군은 그 일부병력을 순천 근교의 고흥·별교·보성 방면으로 진출시켜 그 곳 경찰관서도 점령하였다.

(3) 토벌작전 및 반란군의 입산 공비화

정부에서는 10월 21일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통할 지휘하게 하는 한편, 10월 23일에는 여수·순천지구에게 명령을 선포하였다. 반란군 토벌에 동원된 병력은 5개 연대(제3, 제4, 제6, 제12, 제15연대) 이하의 10개 대대였으며 1개 비행대(경비행기 10대)와 함정들이 이를 지원하였다.

이 토벌작전으로 10월 23일 반란군의 주력은 순천에서 토벌부대에 쫓겨 구례 방면으로 이동하여, 백운산으로 입산하였고, 광양 방면의 반란군도 백운산으로 일단 입산하였다가 지리산으로 이동하여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때의 특기할 사항으로서는, 이때 본의 아니게 반란에 가담하게 되어 반란군이란 누명을 쓰게 된 순진무구한 병사들—반란군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경찰관을 응징하였으니 우리의 임무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귀향시켜 달라.”고 간청하였다 한다.

그러나, 반란 주동자들의 위협과 이미 반란군의 일원으로서 토벌대상이 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입산하였다 하는 것이다.

반군 토벌사령부는 반란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인 25일 순천·별교·보성·광양을 탈환하였으며, 여수지역은 27일에야 치안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9일 만에 완전히 진압되고, 그 후부터는 지리산·백운산 등지로 입산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토벌작전: 제2장 제2항 참조)

36 2. 공산세력의 공비화

반군 토벌사령부가 기간중에 실시한 토벌작전의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전과 및 피해(1948.10.21~10.31)

• 전 과

구 분		인원/수량	구 분		인원/수량
인원	사 살	363 명	장 비	박격포 (81밀리)	14문
	포 로	2116명 (장교 1명, 사병 1465명, 선동자 650명)		대 검	523개
장비	M-1 소총	911정		무전기	6대
	CAR 소총	142정		다이너마이트	4상자
	38식 소총	679정		자동차	30대
	99식 소총	863정		피복 적재 트럭	10대
	기관단총	1정		연 료	다 량
	자동소총	28정		식 량	
	포	8문		실 탄	
		기 타			

• 피 해

구 분	인 원	비 고
인원	사망	61명 장교 9명, 하사관 29명, 사병 23명
	부상	119명 장교 7명, 하사관 33명, 사병 79명
	실종	4명

당시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반란군에게 고하는 전단을 10월 22일 비행기로 작전 지역에 살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의 반란군에게 보내는 투항경고문

제군은 현재 불행히도 민족적 양심이나 군기를 무시하고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와 음모 정치가의 모략적 이용물이 되어 실로 천인공노할 죄과를 이미 저질렀고 또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제군은 정부의 기관을 폭력으로 점령한 후 제군 자신조차 신념이 없고 또 인민이 요구하지 않는 정치제도를 강요하고 양민과 어린 학생을 무력으로 규합하여 반란을 야기하였으니 그 반역적 죄상은 국법에 의하여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본관은 즉시 제군의 반역적 행동을 단시일내에 진압하기 위하여 총용하고도 애국적이고 압도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북은 남원·곡성, 서는 화순·보성, 동은 하동 방면으로부터 대부대가 추격중에 있을 뿐 아니라 지리산과 해안 일대를 완전 포위 봉쇄하는 동시에 일부병력은 이미 남해안으로부터 상륙중에 있다. 여수는 벌써 회복되었고 제군과 폭행을 같이하던 수백명의 반란군이 생포되거나 투항중에 있다. 잔여 제군의 운명은 시간문제이다.

제군에게 내리는 국가의 단죄는 필히 엄격할 것이며 추호의 관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관은 제군의 대부분이 전도요원한 청년이며 또 단순무지한 병사이며 동기도 피동적이었음을 안다. 또 결코 전체가 반도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제군의 대부분은 역시 충량한 국군이므로 지극좁은 제군들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하여 즉시 행동으로 표현할 것으로 믿고 있다. 더우기 제군의 운명을 정부에서 눈물로써 심려하고 있는 제군의 부모와 처자 또는 친척을 생각할 때 본관의 마음은 아프고 슬픈 바가 있는 것이다. 이제 본관은 제군에게 최후로 한 번 제군이 총살당하지 않는 여유를

38 2. 공산세력의 공비화

주는 것이니, 제군은 즉시 반성하여 급히 하기의 수단을 취한 후 항거를 중지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라. 이것만이 제군들이 나아갈 길이요, 제군의 가족이 바라는 방법이요,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태도이다.

1. 제군은 동지와 상의하여 단체로든지 또는 개인 단위로든지 제군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 현재 반란의 지도자를 즉시 총살하고 부대에 백기를 달아 귀순의 뜻을 표하라.

2. “1”항의 내용을 실천할 수 없는 부득이할 경우 반란군이 가지고 있는 총기·화약·탄약 그 밖에 군용품을 즉시 파괴한 후 탈주하여 토벌부대에 투항하라.

1948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 범 석

마. 대구 반란사건

(1) 발생원인

대구 반란사건은 건군 이후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이어,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두 번째의 군 반란사건이었다.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사건 발생 2년 전인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10·1 대구 폭동사건 당시에 이미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제주도 폭동과 여수·순천 반란사건도 이 사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방경비대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에 대구에서 창설되었다. 초창기의 지휘관은 좌익사상을 가진 최남근(2대, 5대) 김종석(3대)이었으며, 이들은 연대를 지휘하는 동안 10·1 대구 폭동사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했다가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사상적으로 또는 행실면에서 매우 불온한 청년들을 다수 입대시켜 그들을 비호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대내에는 좌경사상이 팽창하게 되고 연대장의 교화에 힘을 얻어 좌익세력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 아래에서 이 연대는 1948년 7월 10일 1개 대대가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한 데에 이어서, 8월 14일에는 2차로 350여 명이 다시 출동함으로써 대구에 잔류한 연대병력은 평소의 절반에도 미달한 실정에 있었다. 거기에는,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장의 지휘하에 1개 대대가 함양 방면으로 출동하여 반란군 소탕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대구에는 연대본부요원들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6연대의 내부사정을 파악한 이재복(남로당 군사담당 총책)은 제6연대 좌익세포 조직책임 광종진 특무상사(연대 인사계)에게 반란지령을 내렸다.

(2) 반란상황

(가) 제 1 차 반란(1948. 11. 2.)

제6연대의 본부요원은 부연대장(최경만 소령)이 지휘하고 있었고 현병대장 김진위 대위가 정보주임 대리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개 중대가 영천과 포항지구에서 경비임무를 수행중에 있었다. 광종진 특무상사와 정보과 선임하사 이정택 일등상사(좌익세포)는 연대본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출동중인 부대가 복귀할 때 그 부대내의 좌익세포들도 이에 호응하여 연쇄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거사를 기도하게 되었다.

1948년 11월 2일, 이정택 일등상사는 사전에 모의한 바에 따라 김진위 대위에게 광종진 특무상사가 연대내의 남로당 세포 책임자임을 맡고하였다. 김 대위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광 상

사를 헌병대로 연행하려 하였으나, 연행을 책임진 조창필 소위가 오히려 곱 상사의 총격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이들 일당은 여수·순천 반란군이 대구로 습격해 왔다고 선동하여 비상을 걸어 연대본부 병력을 집합시킨 다음 실탄을 분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정택은 평소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하사관 10여 명을 사살하고 본부요원들에게 반란에 가담하도록 위협하였다. 돌발적인 사태에 직면한 부연대장은 단신으로 시내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로 달려가 김진위 대위와 함께 헌병 10명을 지휘하여 연대본부로 들어갔으나 6명의 전사자만 내고 철수하였다. 이에 부연대장은 대구 주둔 미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출동한 미군과 더불어 다시 연대로 갔을 때에는 반란 병력 40여 명이 차량으로 김천 방향을 향해 도주한 다음이었다.

대구를 떠난 이정택 일당은 지방폭도와 합세하여 칠곡·동명·가산의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김천으로 진출하여 그 곳에 주둔중인 1개 중대와 합류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피해만 입고 팔공산으로 입산 도주하였다.

대구의 1차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제7연대(청주 주둔)는 제6연대 본부요원과 김천·포항지구에서 파견된 병력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다.

(4) 제 2 차 반란(1948. 12. 6.)

제6연대는 제1차 반란사건을 계기로 연대본부 안의 좌익분자들에 대한 숙군을 단행한 결과 112명의 좌익계열이 검거되었다.

그러나, 지리산 방면에 반란군 토벌차 출동중인 부대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연대는 이들 출동부대에 대하여 원대복귀를 명령하게 되었다.

지리산 동쪽 함양지구에서 여수·순천 반란군의 토벌작전에 임

하고 있던 제1대대장(차갑준 대위)은 복귀 명령을 접수하고, 출발에 앞서 대대병력 2개 중대와 배속된 연대 하사관 교육대를 합쳐 380 명에게 지급했던 실탄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대대내 좌익분자들이 반란군이 출몰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 대대장은 이러한 실정을 연대에 보고하고 대대가 고령에 도착하면 연대병력이 출동하여 강제로 실탄을 회수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연대본부에서는 1차 반란에 뒤이어 취해진 불순세력의 일망타진 등으로 제1대대 병력에 대한 무장해제를 실시할 만한 병력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12월 6일 복귀부대가 17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경북 달성군 월배 부근에 다다랐을 무렵에 후미 차량 1대가 낙오되었다. 대대장은 행군을 멈추게 한 다음 확인차 행군제대 후미로 갔을 때 낙오되었던 차량 1대가 어둡지도 않는데 조명등을 켜고 따라오고 있었다. 이 불빛을 신호로 대대 인사계 이동백 일등상사(좌익세포 책임자)가 “전원 하차하여 탄약차가 4번 차량이니 실탄을 분배받으라.” 하고 외쳤다. 그 직후 이들 일당은 각 차량에 분승한 장교 9명을 사살하고 다른 대원들에게는 반란에 참여하라고 으박 질렀다. 그러나 연대 하사관 교육대 하사관 28명을 포함한 42명만이 반란에 동조하고 나머지 사병들은 분산되었다. 급보에 접한 연대장은 연대본부에 있던 잔여병력과 헌병대 그리고 경찰병력을 현장에 급파하여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였다.

이들 반란군 일당은 도주하면서 달성 지서를 습격하고 팔공산으로 입산하였다.

(㉠) 제 3 차 반란(1949. 1. 30.)

제6연대 예하 제4중대는 포항에 파견되어 기지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군을 위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다. 이에 연대에서는 제4중대의 숙군을 위하여 제3중대와 임무교대시키기로 계획하고 이를 극비로 취급하고 있었다.

한편, 1차 반란 당시 주동자로서 팔공산으로 도주하였던 곽종진·이정택 일당은 포항 주둔 제4중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반란을 모의하다가 연대본부 연락병으로부터 극비로 되어 있는 중대 교대의 기밀을 알아내고 제4중대의 좌익세포인 재무계 선임하사관에게 반란을 일으키도록 지령하였다.

1949년 1월 30일 포항 근교 오천 비행장에 주둔중인 제4중대장(이영삼 중위)은 부대 교대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이날 저녁 재무계 선임하사관은 중대장을 시내 요정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그는 주석에서 몰래 빠져나와 좌익세포 일당과 합세하여 재무관 백달현 소위와 하사관 1명을 사살하였다. 그 직후 이들은 포항지역의 일반인 좌익분자들과 1차 대구 반란 주동자들을 영내로 인도하여 무기고를 점령하는 동시에 전 중대원에게 반란에 동조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러나 1차 및 2차 반란사건 이후 숙군선풍을 목격한 중대원들은 이에 불응하였으며, 20명만이 이에 동조하였다. 이리하여 30명으로 늘어난 이들 반란 집단은 포항 서쪽에 있는 고지를 경유하여 팔공산으로 입산하게 되었다.

대구 주둔 제6연대의 3차에 걸친 반란사건은 각 대대 및 중대가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란이 연쇄적으로 야기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좌익불순분자들만의 반란행위로 그치고 말았다. 물론, 얼마간의 동조자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수·순천반란사건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그 이유는 지리산 방면에 출동하였던 제1대대 병력들이 반란군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들이 양민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는 그들 좌익분자들의 기만과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6연대는 반란연대의 오명을 남기고 1949년 4월 15일 해체되어 제22연대로 개편되었다.

마. 인민유격대 침투

(1) 침투 경위

광복 이후 공산당은 1946년 초까지는 사회적 혼란과 미 군정청의 민주 일변도의 시책에 편승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합법적 정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46년 9월부터는 좌익계 신문의 정간과 지도급 인물의 체포령(1946. 9. 7.)이 내려진 것을 효시로 잇달은 제재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남로당 간부들은 대부분 월북하거나 지하로 잠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중의 일부는 당국에 자수하거나 우익으로 전향하게 됨으로써 좌익 조직체제는 점차로 와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남조선 각지의 붕괴된 지하당을 재건하고 산악지대로 도피한 좌익세력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공작과 후방교란을 위한 무장 유격대의 남파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북괴는 남파 유격대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평양 근교에 '강동정치학원'을 설치(원장:이호제)하고, 월북한 남로당원 전원을 수용하여 남한에 대한 적화공작과 유격전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훈련과정은 군사반이 2개월, 정치반이 6개월이었다. 이리하여 제1차 수료생이 배출되자 북괴는 남파하기에 앞서 38도선에 인접한 동해안의 '양양 인민유격대 훈련소'에서 재훈련을 시키면서 침투시기를 노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여수·순천 반란사건이 돌발하여 국군 토벌부대가 호남 및 경남지역에 집중 투입된 관계로 국군의 38도선 경비에 허점이 생기고 남한의 사회질서가 혼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무장 유격부대 침투의 호기로 판단한 북괴는 1948년 11월 중순에 이른

바 인민유격대를 제1차로 남파한 것을 효시로, 1950년 3월까지 10차에 걸쳐 총병력 2,345명에 달하는 유격병력을 남한에 침투시켰다. 이들 인민유격대의 침투상황은 다음과 같다.(토벌작전: 제2장 제3항 참조).

(2) 침투상황(1차~10차)

제1차 침투(1948. 11. 14.): 북괴는 1948년 11월 14일 인민유격대 180명을 양양에서 오대산 지구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산맥을 타고 태기산 부근까지 남하하였으나, 국군 토벌대에 의해 그 대부분이 소탕되고 잔여병력은 충북 제천 방면으로 도주한 후 공비와 합세하였다.

제2차 침투(1949. 6. 1.): 인민유격대가 제1차 침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충분히 검토한 북괴는 남로당과 긴밀한 연락하에 경북·호남·강원도 출신으로 비교적 지리에 밝은 좌익청년을 김일성 대학 또는 모스크바 대학에 진학시켜 준다는 감언이설로써 월북하도록 유인하여 강동 정치학원에 강제 수용하고 유격전술을 훈련시켰다. 북괴는 이와 같이 양성된 인민유격대 약 400명을 1949년 6월 1일에 오대산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이 제2차의 남파 유격대는 38도선에서 국군에게 포착되어 심한 타격을 받아 대부분 격멸되었고, 이때 살아 남은 잔여병력은 태백산맥을 타고 부상하던 반란군 및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준동하게 되었다.

제3차 침투(1949. 7. 6.): 1949년 6~7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북괴는 남한의 기존 정권을 타도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8월 하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런 정황 속에서 북괴는 7월 6일에 세 번째로 약 200명의 유격대를 역시 오대산

으로 침투시켰으나, 이때에도 국군과의 교전에서 대부분이 사살되고 겨우 살아 남은 30여 명만이 증봉산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제 4차 침투(1949. 8. 4.) : 북괴는 3차에 걸친 유격대의 침투가 모두 실패하자 제4차로 유격부대 중의 정예인 김달삼(제주도 4·3 폭동 주모자) 부대 약 300명을 1949년 8월 4일에 일월산(경북 영양군)으로 침투시켰다. 그러나, 김달삼 부대는 그 이남으로는 군·경 토벌부대의 작전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진로를 해상으로 돌려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상륙하였다. 이들은 휴대한 많은 무기를 지방공비들에게 분배하고 세력을 점차로 강화하면서 경북 영천군의 보현산에 거점을 구축한 다음 동해여단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그 후 이 유격대는 제7차로 남파된 유격대와 합류하여 이른바 인민유격대 제1군단을 편성하고 경북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제 5차 침투(1949. 8. 12.) : 북괴는 태백산맥을 통한 4차에 걸친 침투가 국군 토벌부대에 의해 노출되자, 철원지구에 새로운 유격대 근거지를 설치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북괴는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을 경유하여 경기도 일원으로 제5차 유격대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1949년 8월 12일 선발대 15명을 용문산까지 남파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제 6차 침투(1949. 8. 12.) : 1949년 8월 12일 제5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의 후속부대 40명은 명지산을 거쳐 용문산으로 남하하였으나 이들 역시 군·경 토벌대에 포착되어 20명이 사살되자 나머지 병력은 북상 도주하였다.

제 7차 침투(1949. 9. 20.) : 1949년 9월 20일 북괴 38경비여단 예하인 양구 주둔의 일부병력이 관대리에서 신남지구의 경비부대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호제(강동 정치학원장)가 직접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약 360명(이른바 유격대 제1군단)이 태백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도 국군 토벌부대에 의하여 대부분이 격멸되고 100여 명이 보현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와 합류한 후 경북 일대에서 준동하게 되었다.

제 8차 침투(1949. 9. 28.) : 인민유격대 약 50명이 북괴 38경비여단 일부병력의 엄호하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금옥치리로 침투하였으나 국군 제8사단에 의해 저지되자 북상 도주하였다.

제 9차 침투(1949. 11. 6.) : 북괴는 8차에 걸친 침투가 계속 실패하자 육로침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49년 11월 6일 인민유격대 약 100여 명을 경북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해상침투시켜 보현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시켰다.

제 10차 침투(1950. 3. 28.) : 1950년 3월 28일 양양·인제·양구에서 대기중이던 인민유격대 김상호·김무현 부대 약 700명은 오대산과 방대산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10차에 걸쳐 침투한 어느 유격대보다도 강력한 정예부대로서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국군의 적시적인 토벌작전으로 1개월 만에 완전히 소탕되었다.

제 2 장 전쟁 전 공비 및 인민유 격대 소탕작전

(1945. 8. 15. ~ 1950. 6. 25.)

개 요

해방 후, 미 군정당국은 남한의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정청 산하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예하에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발족시켰다. 이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능(현, 육군사관학교)에서 창설된 제1연대를 효시로, 동년 말까지 대전, 이리, 광주, 부산, 대구, 청주, 춘천 및 제주도 모슬포에 각각 1개 연대씩 총 9개 연대가 창설되어 경찰과 더불어 국내 치안유지의 일익을 담당하였다.

국방경비대의 공비소탕작전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도 지구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정식 발족하자, 때맞춰 북한에서 남파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가 창궐하였으므로 국군은 공비소탕작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작전은 주로 지리산·덕유산과 오대산 및 태백산·보현산 일대의 산간벽촌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때부터 1950년 6월 하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계속되었다.

제주도 지역 공비소탕작전: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이른바 4·3 폭동사건이라 부르게 된 폭동사건이 발생하였다. 남로당 좌익 세력 분자들이 도내의 주요 관공서 일부를 장악하고 난동을 부려, 제주도는 법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혼란사태가 야기되었다. 제주경찰과 제주지구 경비대인 제9연대가 폭동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경비대사령부에서는 수원에 주둔한 제11연대(본부와 1개 대대)를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켜 폭동진압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때, 제11연대는 제주도 주둔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부산에서 파견된 제5연대 제2대대를 배속받아 3개 대대로 증편한 후, 제주경찰과 합동으로 한라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한 약 1,500여 명에 달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연대는 그로부터 70 일간에 걸쳐 군·경 합동작전을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7월 24일 공비소탕작전을 일단 마무리짓고 수원으로 복귀하였다.

경비대사령부는 제11연대를 제주도에서 철수시키기 이전인 7월 10일, 대구 주둔 제6연대의 1개 대대를 제주도에 증원하여 15일부로 제9연대를 재편성하고 이 연대로 하여금 공비소탕작전을 계속 수행하게 하였다. 제9연대는 12월 29일까지 작전에 임하다가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대전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연대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다음해(1949년) 2월 말까지 잔여공비를 소탕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에서는 8개월 동안이나 군·경이 합동하여 공비소탕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준동은 여전하여 작전이 장기화될 여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이에 대처할 방책으로서, 1949년 3월 2일 제2연대를 주축으로 하여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국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육·해·공군과 경찰로 증강된 합동작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전투사령부는 새로운 작전형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동년 5월 15일 해

체되었으며, 제2연대는 독립제1대대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동년 8월 13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독립제1대대는 제2연대의 임무를 인수하여 동년 12월 28일까지 공비를 소탕하다가 해병대사령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이때부터 해병대사령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라산에 은거한 잔여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력에 비해 성과는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호남·지리산 지구 공비소탕작전: 여·순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21일 설치되었던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는 순천과 여수를 탈환하였으나, 반란 주모자와 350여 명의 동조자들이 지리산·덕유산·백운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여 깊은 산 속에 유격거점을 구축하게 되자, 이들을 계속 추적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1948년 10월 30일 여·순반란군토벌 전투사령부는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 사령부는 작전지역을 지리산을 기준으로 하여 남과 북으로 분할한 다음, 지리산을 비롯한 보성·별교·광양 지구에 출몰하는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겨울철로 접어들어 11월 30일에 해체되었다.

다음해(1949년) 3월 1일,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재설치하였다. 이 두 전투사령부는 5월 9일까지 부여된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여·순반란군 주모자였던 김지회와 홍순석 등 반란 핵심분자들을 사살하였다. 5월 9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남로당은 이 지역에 이현상을 사령관으로 하는 이른바 인민유격대 제2병단을 창설하였다. 이들은 지리산·덕유산·백운산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인근 일대에 출몰하면서 양민을 납치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9월 28일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이 지구 전투경찰대와 군·경 합동으로 다음해(1950년) 3월 15일까지 동계작전을 펼친 끝에 지리

산 일대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한편, 해병대사령부(실병력, 1개 대대 규모)는 육군과의 협조하에 1946년 8월 26일 진주로 진출한 뒤 12월 26일까지 하동·산청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에 임하였다.

오대산 지구 공비소탕작전: 오대산 지역의 작전은 1948년 11월 14일부터 1950년 6월 20일까지 전개되었으며, 작전목표는 북괴가 10차에 걸쳐 침투시킨 인민유격대 2,300여 명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처음으로 제6사단이 1949년 전반기까지 이들의 소탕작전에 임하였다. 그 후, 1949년 6월 20일 제8사단이 강릉에서 창설되면서 태백산맥 동쪽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은 제8사단이, 그 서쪽지역은 제6사단이 각각 담당하였다.

오대산 지역은 북괴 인민유격대가 남한에 침투하거나 또는 남한에서 유격활동을 하다가 북상 또는 월북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김달삼(제주도 4·3 폭동 주모자)과 이호제(평양 강동정치학원장) 등 거물급 공비두목들이 태백산맥을 타고 월북을 기도하다가 이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인민유격대와 무장공비들의 출몰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공비들의 주요 통로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태백산 및 경북 지구 공비소탕작전: 1949년 8월 4일, 태백산 및 경북 지구의 공비는 제3병단이라 개칭하고 김달삼 지휘하에 태백산을 거쳐 일월산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이들은 이 곳에서 이른바 남로당의 9월공세를 앞두고 남하중이던 이호제가 지휘하는 인민유격대(일명, 제1군단)와 합류하여 대대적인 유격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인민유격대 제1군단은 남하 도중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주력이 격멸되고 일부병력만이 간신히 군·경 토벌

부대의 포위망으로부터 탈출하여 제3병단과 합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500여 명으로 증강된 무장공비 제3병단은 경북 일월산에 거점을 구축한 뒤, 지서습격, 도로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사회혼란 조성에 광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군과 전투경찰은 이 지역에도 병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9일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충북 단양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제2사단 제16연대장 이정일(개명, 성가) 대령을 임명하여 이 지역 공비들에게 철퇴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지역내의 공비들은 안동 및 보현산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김달삼은 보현산에서 제3병단의 잔여병력을 수습하여 그 명칭을 동해연단(여단규모)으로 개편하고 유격활동을 계속하였다. 육군본부는 1950년 초 대전에 있던 제2사단에 안동지구 공비 소탕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안동으로 이동한 제2사단은 4월 초까지 안동 및 보현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토벌하였다.

이렇듯, 국군은 경찰 및 주민과 협조된 공비토벌작전을 펼친 결과, 태백산·일월산·보현산 일대에 거점을 둔 인민유격대와 이에 부화뇌동하던 공비들의 대부분을 사살 또는 생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지역에서 도주한 공비들은 오대산 지역으로 북상하였으나 월북하기 전에 국군토벌대에 의해 소탕되었다.

1. 제주도 지구 공비소탕작전

가. 제11연대 작전 (1948. 5. 15~7. 23)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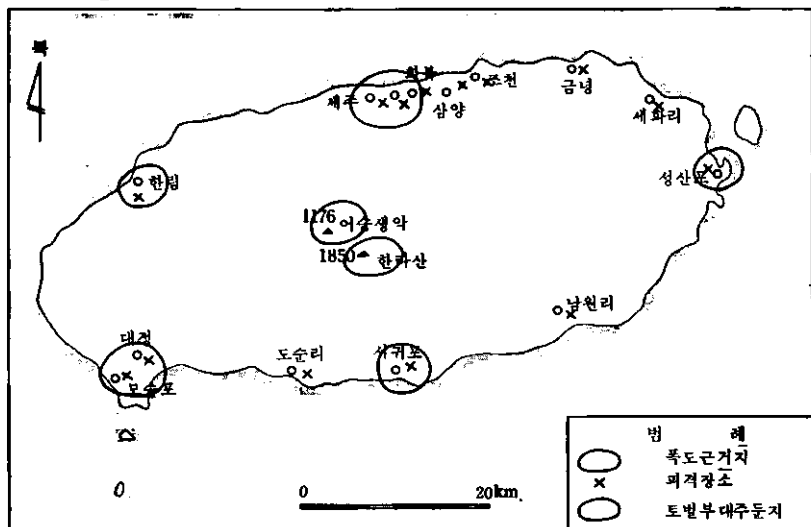
1948년 초 제주도내의 공비 병력은 약 1,500여 명에 달했으며, 남로당 제주도지구 군사부 총책 김달삼 일당이 주동이 되어 4·3 폭동사건을 일으켰다. 이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표면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한라산에 근거지를 만들고 동조세력을 규합하며 자진하여 입산하였거나 혹은 납치한 청년들에게 유격훈련을 시키는 등 그들의 무장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이들은 4·3 폭동사건 이전에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인민해방군을 해체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확고하고 전투경험이 많은 핵심분자를 읍·면별로 30명씩 뽑아 3개 연대와 2개 독립대대 규모의 인민유격대를 편성하여 관할지역을 분담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0명으로 편조한 무장조를 부락마다 배치하여 동조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아울러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돕는 가교역할을 강요하였다.

공비들은 4·3 폭동사건 직후부터 무력으로 제주도의 장악을 시도하고, 교통 및 통신 시설을 파괴하여 혼란을 조성함으로써 민심을 극도로 동요시켰다. 또한, 이들은 5·10 총선거를 폭력행동으로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선거등록사무가 일시 중단되는가 하면, 선거 당일에는 이들의 협박과 난동으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기권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선 거사무소가 습격당함으로써 극도의 혼란과 공포 분위기가 제주도 내를 뒤덮게 되었다.

요도 1 제주도 폭동시 상황도 (1948.4.3.)



(나) 토벌부대상황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어 향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그 병력은 1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4·3 폭동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4월 10일 부산에 주둔중이던 제5연대 제2대대를 제주도로 공수하여 제9연대로 배속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장병들의 훈련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토벌작전을 보류한 채 1개월간에 걸쳐 정

신교육만 실시하고 있었다.

제9연대장 김익렬 소령은 여러 차례 병력을 출동시켜 토벌작전에 임하였으나 공비를 포착할 수조차 없었다. 그 이유는 연대내의 남로당 조직책임 오일균 소령과 문상길 중위(중대장)가 조종하는 좌익계 하사관들이 사전에 작전계획을 공비들에게 누설시켰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은 공비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때때로 토벌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최초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이런 경우, 연대는 공비들과 조우할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공비들이 먼저 경비대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달아나기 일쑤였다. 이리하여 경비대는 공비와의 접촉을 전혀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황 아래에서 제9연대장은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 공비투목 김달삼과 비밀협상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와 같은 공비들과의 불법적인 협상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연대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이때, 오일균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보직만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책으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가 파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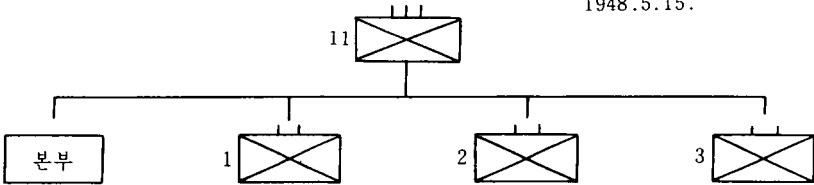
경비대사령부는 제주도내 공비토벌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5월 6일 후임 연대장에 경비대사령부의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였다. 박 중령은 일본군 학병 출신으로 태평양 전쟁 말기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한라산에 구축한 진지의 구조 내용과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비대사령부는 5월 4일 수원에서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창설하여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곧 이어 경비대사령부는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함으로써 제11연대를 3개 대대 규모로 대폭 증강하고 박진경 중령으로 하여금 이 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표 1

제II연대 편성표

1948.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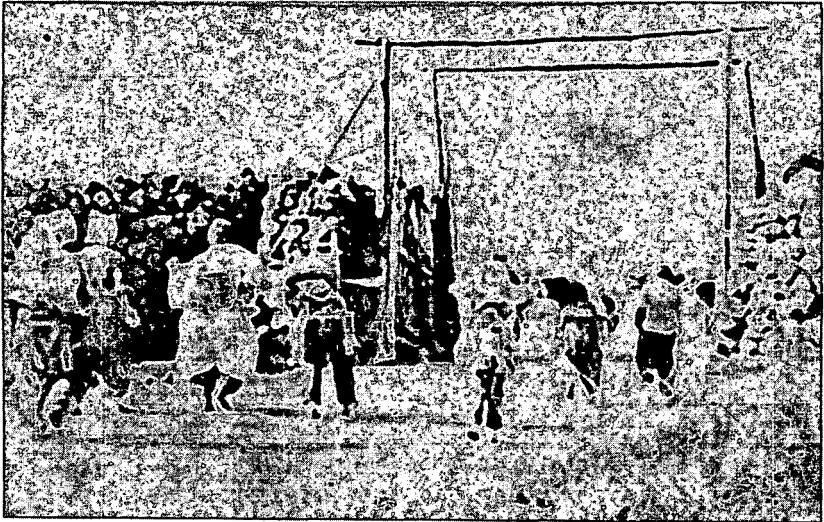


(2) 작전경과

(가) 초기작전 (박진경 중령 재임기간, 1948. 5. 15~6. 18)

제II연대장은 모슬포에 집결되어 있던 연대병력을 대대 및 중대 단위로 한림·성산포에 분산 배치하여 경비와 공비소탕작전을 병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우선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여 좌경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대 주둔지 단위별로 주민 선무공작에 주력하면서 입산공비들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이 이에 불응하자 2단계 작전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공비소탕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제II연대가 계획한 제I단계 작전은 주민 자체방위로서 각 부락 단위별로 마을 주위에 돌담을 구축하여 방벽을 만들고 자위대를 조직하여 자체경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며, 제2단계 작전은 본격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대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남로당 세포조직에 의하여 작전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공비들이 토벌부대를 교묘하게 피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 남로당 세포조직에 의해 연대장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주인이 마을 외곽에 구축한 돌담

연대장 피살: 공비두목 김달삼은 제II연대가 제9연대와는 달리 적극적인 소탕작전을 펴게 되자, 연대내의 남로당 조직책 문상길에게 연대장을 살해하도록 지령하였다. 이에, 문상길은 기회를 엿보다가 6월 18일 연대장의 진급 축하연이 있던 날 밤에 영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연대장을 살해하였다. 이 사건은 군내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군 관계기관에서는 군 내부에 부식된 좌익분자를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 하사관의 제보로 문상길 등 관련자 일당을 일망타진하였다.

(나) 후기작전(최경록 중령 재임기간, 1948. 6. 21.~7. 23.)

후임 제II연대장 최경록 중령은 전임 연대장의 살해범이 체포된 뒤, 우선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치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연대장은 우선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작전으로 인하여 폐허화된 지역의 주민과, 공비들에게 가담한 주민을 선무공작을 통해 하산시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공비의 가족에게는 사상선도 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일시적인 과오를 범하였거나 개전의 뜻이 분명한 주민들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연대장의 이러한 조치로 주민들은 하나 둘씩 공비들과 분리되어 갔다.

이에 따라 활동 근거지를 잃어 버린 공비들은 한라산의 밀림과 동굴 속에 은거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말았다.



제11연대 장병들의 선무공작 장면(1948. 4)

공비소탕작전 또한 중전의 경찰 위주로 실시되던 작전을 경비대가 주도하는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즉, 경비대는 공비의 주력이 있는 내륙지역 소탕작전을 담당하고, 경찰은 인구가 조밀한 해안지역 경비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11연대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게 되자, 김달삼은 하는 수 없이 '투쟁방향을 장기항전으로 전환시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들이 상용하던 습격과 매복을 비롯한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일체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전임 연대장의 살해범이 자기 부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그만두고 포로수용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이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은 대부분이 공비를 따라 입산했다가 하산한 피난민이었으며, 수용소장은 이들을 심사하여 분류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오일균은 이를 기회로 공비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을 혐의가 없다고 석방하는가 하면 반대로 무고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좌익분자라고 지목하여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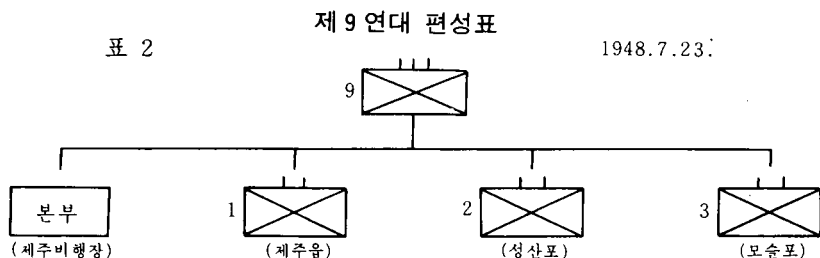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얼마 가지 못하여 양민의 제보로 백일하에 폭로되어, 오일균과 그의 일당은 남김없이 검거되었으며, 사형에 처해졌다.

제11연대의 복귀 및 제9연대의 재편성: 1948년 7월 24일, 경비대 사령부는 본래의 제11연대(연대본부 및 1개 대대)를 수원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제9연대를 재편성하여 이 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무부에서는 타도에서 증원된 경찰병력 2,000여 명을 7월 18일을 기해 원대복귀시켰다.

나. 제9연대 작전(1948. 7. 23. ~ 12. 29.)

(1) 작전배경

경비대사령부는 제11연대가 복귀함에 따라, 제5연대의 1개 대대 그리고 제6연대의 1개 대대로 제9연대를 재편성하고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 송요찬 중령을 임명하였다.



자료 : 공비연혁 육군본부 발행 1971.10.15. p.250

한편, 제주도 공비총책 김달삼은 군·경의 소탕작전이 강화되자, 1948년 7월에 제주도를 탈출, 월북하여 8월 21일 해주에서 열렸던 소위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하였다. 김달삼의 뒤를 이어 김성규(제9연대의 탈주병)가 군사부 총책 직을 맡게 되었고, 이덕구가 군사부사령관으로서 계속 공비들을 지휘하게 되었다.

(2) 작전경과

제9연대의 초기작전은 미군정이 끝나고 정부가 수립될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이 연대는 8월 한 달 동안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고, 9월 초부터 제11연대의 작전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라산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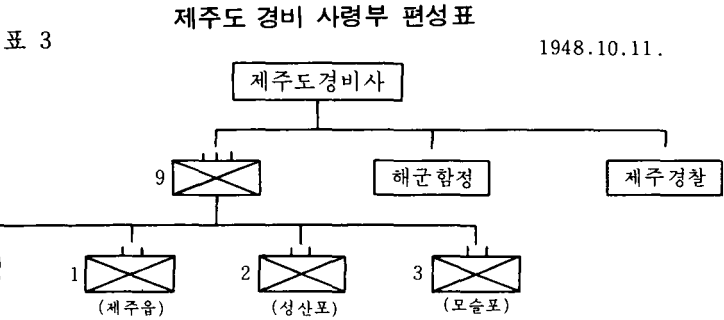
그러나 제9연대는 공비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토끼몰이식 방법으로 1주일 동안 한라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한 공비가족과 동조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벌부대의 작전행동을 탐지하여 이를 사전에 약정된 신호로 공비들에게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은 토벌작전이 성과 없이 끝난 연후에야 비로소 토벌작전에 앞서 주민과 공비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 선무공작에 힘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산속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을 전부 하산시켜 일단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한 다음, 성분을 심사, 분류하여 좌익분자로 판별된 자들에게는 사상선도 계몽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좌익분자들이 전향하면, 그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그의 동료들에게 선무공작을 펴게 하면서 귀순한 공비들의 신병 안전은 물론 생계대책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시일이 경과할수록 점차 많은 공비와 공비가족들이 하산하기에 이르러 나중에는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하였다.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 한라산 근거지에서 비밀리에 조직과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있던 공비들은 1948년 10월 1일 소련 혁명기념일을 기하여 다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도순 및 오동리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이를 필두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습격, 약탈, 살상 등 각종 만행이 자행되어 이날 하루 동안에 550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공비의 준동이 재개되고 이로 인한 혼란상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10월 8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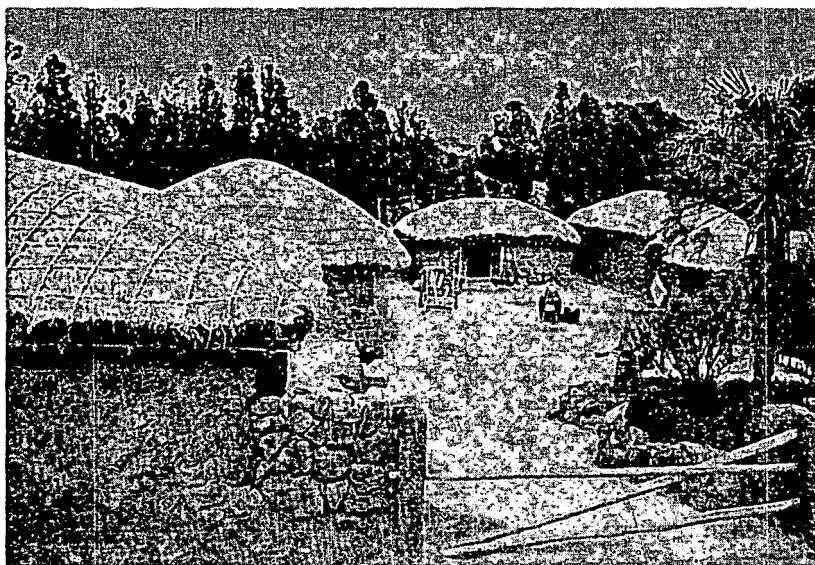
이어 11월에는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여단장 김상겸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창설되어 작전을 개시한 지 10일 만에 제 5여단 예하 제14연대가,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제주경비사령관은 제5여단장으로서의 문책을 받아 파면되었으며,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그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제주도 경비사령부의 작전개념은 대대별로 작전 책임지역을 할당하여 지역경비와 공비토벌작전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부대배치는 제1대대가 중앙지역인 제주읍에, 제2대대가 동쪽지역인 성산포에, 제3대대가 서쪽지역인 모슬포에 각각 위치하고 중대별로 전술책임지역을 할당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공비의 출현 규모에 따라 그때 그때 중대 단독 또는 대대 단위로 작전행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군 내부에 부식된 남로당 세포조직이 남아 있어, 이들이 여전히 작전계획을 은밀히 공비들에게 누설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경비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공비들은 여·순반란사건에 크게 고무되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작전의 주도



제주도 산간마을의 토속집

권을 잃은 경비대는 오히려 수세로 물리게 되어 방어태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여·순반란군의 제주도 침투에 대비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해안 봉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남로당 세포 소탕: 제9연대는 이 작전기간중 일부병력을 여·순반란군으로 가장시켜 조천 지구에 상륙하게 하여 이에 동조하는 공비 일당을 소탕하려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때 연대는 우연한 기회로 작전계획을 공비들에게 누설시키는 좌익세포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다.

이 작전계획은 제주읍으로부터 동쪽으로 10 km 떨어진 조천 지구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이근양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의 일부병력이 해상에서 여·순반란군으로 가장하여

상륙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즉, 제9연대는 정상적인 작전형태로서는 도저히 공비들을 포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수의 반란군으로 가장한 국군병력을 제주도에 상륙시켰을 경우 조천 지구의 공비들이 환영과 안내차 출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도의 보안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연대장은 이와 같은 극비계획을 경찰국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선이 혼선되어 연대 하사관 1명이 공비측 세포조 한 명에게 이 작전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도청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시 관련자와 연대 및 경찰서 교환수를 체포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공비들에게 주로 밤늦게 전화로 작전기밀을 누설시켰음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연대는 이에 관련된 연대내의 좌익세포 80여 명을 검거하게 되었다.

주요지역 작전: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1948년 10월 30일 제주읍을 기습하기 위해 제주 서쪽 10 km 지점의 고성에 집결중인 공비를 군·경 합동작전으로 격멸하고 200여 명을 생포하였다. 11월 2일에는 한림에 주둔하고 있던 제2대대 제6중대가 수 미상의 공비로부터 습격을 받아 교전하던 중, 이들의 유인에 빠져들어 중대장이하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직후 연대는 제5중대를 출동시켜 공비들의 집결지를 포위, 공격한 끝에 공비 100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11월 3일, 경찰토벌대는 남제주군 중문면 어두운마루에서 매복하고 있던 공비와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한 반면, 경찰관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가 30여 채가 불에 탔다. 또한, 11월 6일과 7일 사이에는 공비들이 서귀포를 점령하려고 기도하였으나, 군·경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남로당내에 침투한 첩보요원의 제보로 제주도 적화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그들의 지하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12월 28일에는 공비 100여 명이 남제주

군 남원면 위미리마을을 습격하여 월동을 위한 식량과 의류를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운 뒤 도주하였으며, 이 급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토벌대는 도주하는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하였다.

이와 같은 제9연대와 경찰의 효율적인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활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 1946년 11월 6일 모슬포에서 창설된 제9연대를 대전에 주둔한 제2연대와 임무교대시켰다.

다. 제2연대 작전(1948. 12. 29.~1949.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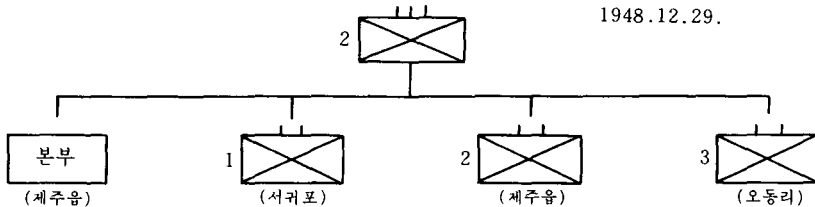
(1) 작전배경

제2연대는 1948년 12월 29일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이 때, 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연대본부를 제주 비행장에 위치시키고 제1대대를 남쪽 서귀포에, 제3대대를 북쪽 오동리에, 제2대대를 연대에비로 제주읍에 각각 배치하여 필요시 신속히 증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표 4

제 2 연대 편성표

1948. 12. 29.



이 무렵, 제주도내의 공비주력은 경비대와 경찰이 끊임없이 전개한 공비소탕작전으로 상당수의 병력이 귀순하거나 사살되어 표면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공비는 여전히 이덕구의 지휘하에 한라산 밀림지대에 거점을 두고 준동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병력은 소수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1948년 12월 31일 제주도에 발령했던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내의 공비병력은 1개 대대 규모 이상이나 되었으며, 이들은 암암리에 조직을 강화하고 있었다.

(2) 작전경과

제2연대는 제주도로 이동한 직후, 미처 지형과 공비 활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로부터 습격을 받게 되었다. 즉, 다음해(1949년) 1월 1일 새벽에 공비두목 이덕구가 지휘하는 공비주력은 제2연대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제주읍 남쪽 5 km 지점의 오동리 화엄사에 주둔중인 제3대대를 포위한 후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더우기, 이날 새벽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두운 시도조건이어서 공비들이 기습행동을 하기에 썩 좋은 날씨였다. 제3대대는 기습을 받은 초기에는 당황하였으나,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고 1시간에 걸쳐 교전한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비들은 1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산중으로 도주하였으며, 제3대대는 7명이 전사하였다.

제2연대장은 제3대대를 기습한 공비의 규모를 1개 대대로 판단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1월 4일부터 해군함정과 항공대의 경비행기를 지원받아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장은 각 대대로 하여금 한라산을 포위하여 지역수색을 전개하게 하였으나, 한라산에 대한 지형미숙으로 공비의 은거지 색출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선무공작으로 민심수습: 제2연대장은 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많은 주민이 한라산내의 동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공비소탕작전보다도 선무공작을 통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4·3 사건이 발생한 후 군·경이 계속적으로 펼친 공비토벌작전으로 인하여 해안에서 한라산쪽으로 4~8 km 이내의 마을을 제외한 산림지역에 산재한 대부분의 부락은 폐허가 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은 공비를 따라 산중으로 들어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토벌부대의 선무공작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에서 내려와 정착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산속에 남아 있었다. 제2연대는 이들 주민들을 공비와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갱생원(피난민 집단수용소)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주민 선무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에서 내려온 주민이 1,500명에 달하였다. 연대는 이들을 갱생원에 수용하여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한편 포로가 된 공비들도 처형하지 않고 사상계몽을 통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갱생시켰으며,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을 귀향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제2연대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제주읍, 모슬포, 성산포, 한림 등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연대는 공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새로 도입된 대전차포, 박격포, 중기관총, 로켓포, 소총 등의 신예무기를 전시함으로써 공비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들 무기에 의한 토벌이 전개되기 전에 하루 빨리 연락을 취하여 귀순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제2연대는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대민봉사의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대하도록 강조하면서, 귀순한 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등 온정어린 선무공작을 꾸준히 전개하자, 차차 주민들은 국군을 신뢰하게 되었다. 제2연대장의 민심수습대책이 주효하여 도민이 군부대를 믿고 의지하게 되자,

산중에 남아 있던 피난민들도 공비들이 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을 이어 하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들의 귀순도 점차로 늘어나, 공비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어 갔다.

그 후, 제2연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49년 1월 13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에서 공비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우는 등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해군과 항공대의 지원을 받으며, 2월 말까지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1949. 3. 2. ~ 5. 15.)

(1) 작전배경

제주도내의 약 300명으로 판단된 무장공비는 제2연대의 효과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도 파괴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군·경의 무기를 탈취하여 경비가 소홀한 부락을 습격하는가 하면, 청년들을 한라산의 비밀 야지트로 끌고가 훈련시켜 공비로 양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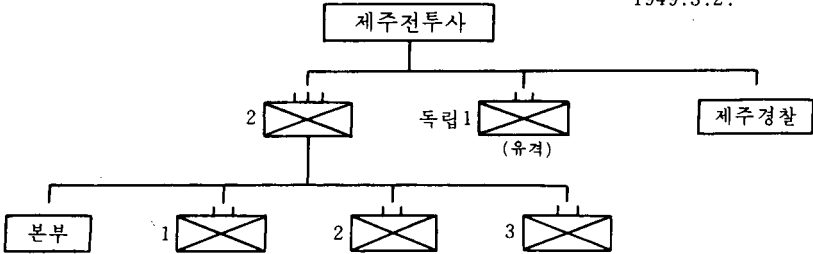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설치: 육군본부는 초목이 무성한 녹음기가 되면 한라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지역내 공비를 해동과 동시에 격멸하기 위하여 3월 2일에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전투사령관에는 유재홍 대령을 임명하였으며,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이 참모장을 겸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대유격전 전담부대인 독립제1대대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하였다.

제주도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표 5

1949.3.2.



(2) 작전경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는 먼저 선무공작을 전개하여 공비와 주민을 분리시키고 그 후에 토벌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개념에 의거하여 작전을 2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른 제1단계 작전인 선무심리전은 제2연대가 펼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었다.

전투사령관은 도내의 지도급 청년들로 선무공작대를 편성하여 산중에 들어가 아직도 하산하지 않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여 하산시키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용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주도청의 협조하에 구호미, 의류품들을 분배하였으며, 생활자금도 2배로 증가하여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하산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친척중에 공비가 있으면 귀순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귀순전단을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선무공작을 전개한 결과 귀순자가 많이 늘어났다.

제2단계 작전은 공비 근거지에 대한 토벌작전으로서, 제2연대를 주축으로 한 군 작전부대로 하여금 한라산 지역의 공비를 토벌하

게 하였다. 전투사령부는 각 대대별로 작전지역을 할당하여 책임 지역내에서 공비가 출현하면 각 대대가 그 규모에 따라 중대, 대대별로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군함정과 경비행기의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해안지역의 부락 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마을마다 15~16세의 주민들로 민보단을 편성하여 낮에는 농민을 보호하고 밤에는 공비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방위하게 하였다.

민·관·군 혼성부대 운용: 전투사령관은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민보단 1개 소대(25명)와 군인 1개 분대 그리고 경찰 1개 분대로 구성된 민·관·군 혼성부대 수개조를 편성하였다. 이 민보단소대는 도내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 면사무소와 군청 직원, 청년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에 걸쳐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필요시 소집하여 소탕작전에 참여시켰다.

이들 혼성부대는 공비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부대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제2연대 제1대대의 정수정 상사가 지휘하는 혼성부대는 공비의 아지트를 찾아내어 남녀 30여 명을 생포하고 총기와 일본도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상사는 생포한 자 중에서 공비의 세포책임 “고”모를 전향시켜 공비두목 이덕구와 김민성(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조직책)의 아지트를 알아내고, 지체없이 급습하여 김민성을 포함한 간부 일당을 사살하고 경기관총과 자동소총을 포함하여 수십 정에 달하는 총기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공비두목 이덕구는 때마침 일부 공비병력을 이끌고 출동한 다음이어서 그를 생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덕구의 사살: 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총책이던 김달삼은 제주도

를 빠져나가 이미 월북(1948. 7.)하였고, 남로당 제주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용관은 토벌부대와 교전 끝에 1949년 4월 20일에 사살되었다. 이렇게 그의 주요참모들이 대부분 사살되고 비밀 아지트마저 거의 발각되자, 이덕구는 그의 심복부하들과 같이 동분서주하면서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 대열에서 이탈하여 군·경에게 귀순하는 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비밀 아지트에 은닉된 다량의 무기가 군·경에게 피탈당하게 되었다. 특히, 한라산 서북쪽 6 km 지점의 어승생악에 위치한 그들의 비밀 병기창을 발각당해 소총 370정과 실탄 수천 발을 군·경에게 빼앗기고는 무력투쟁을 더 이상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이덕구는 육지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한 농부가 해안 부근의 밭에서 감자를 캐내어 먹고 있던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1949년 4월 하순 그는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렇게 되자, 공비의 활동은 김달삼 도주 후 군사부총책이 된 제9연대 탈주병 김성규와 이덕구의 후임인 김의봉을 주축으로 한 약 100여 명으로 감소되어 지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다하는 형세에 놓이게 되었다.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해체: 육군본부는 제주도의 공비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재기 불능상태에 이른 정황을 감안하여 1949년 5월 15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해체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5개월간의 토벌작전중 산화한 토벌부대 요원 119명의 위령제를 제주읍에서 거행하였다. 한편, 제주도민은 제2연대의 공적을 찬양하고 이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서귀포에 함병선 대령의 공덕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한라산 정상에 평정비를 건립하였다.

제2연대는 8월 13일 제주도 경비 임무를 독립제1대대에 인계하고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마. 해병대사령부 작전

(1949. 12. 28. ~ 50. 6. 25.)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으로 공비 간부들은 대부분 사살되었고 그 일부는 섬 밖으로 탈출하였다. 작전이 종료될 무렵에 한라산에 남아 있던 공비는 약 100명(무장 30명, 비무장 70명)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공비는 이덕구의 후임으로 제9연대에서 탈주한 고성구가 맡아 지휘하고 있었다. 이들의 화기는 M-1 소총, 99식소총, 칼빈소총이었으며, 무장공비 1명에 비무장공비 2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행동하였고 탄약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한라산의 동굴진지는 공비들의 최후 근거지로서 야전병원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공비들은 한라산 중턱을 연하는 순환도로(일명, 머리띠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에 4개 문(위병소)을 만들어 놓고 도처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민을 납치하고,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무기·탄약을 탈취하였으며, 마을을 급습하여 약탈·방화를 하는 등 치안질서를 교란하고 협박과 감언이설로 민심을 동요시켰다.

(나) 해병대의 제주도 배치

해군본부는 1949년 12월 26일 진주에 주둔하면서 4개월간 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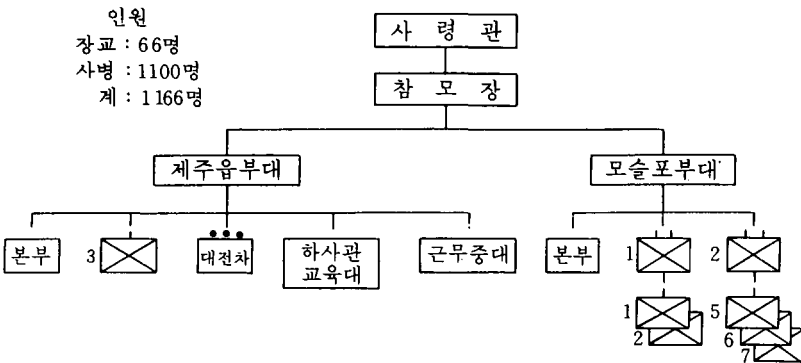
소탕작전을 펴고 있던 해병대사령부(사령관:신현준 대령)를 육군과의 협조하에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이 무렵 제주도에에는 1949년 8월 13일부터 육군 독립제1대대가 제주도의 경비 임무와 잔존공비 토벌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제주항에 도착한 해병대사령부는 다음날 육군 독립제1유격대대로부터 제주도 경비 임무를 인수하였다.

해병대사령부의 임무는 제주도내 잔여공비를 소탕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된 도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반 대민활동이었으며, 아울러 자체교육을 통한 부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해병대사령부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부대배치를 하였다. 제주읍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부대장:김성은 중령)를 두었으며, 주력을 모슬포로 이동시켜 모슬포부대를 편성하고 김동하 소령을 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모슬포부대(2개 대대)는 제1대대(2개 중대)를 북제주군에, 제2대대(3개 중대)를 남제주군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그 밖에 한림·서귀포·성산포에 정보대와 헌병대를 주둔시켰다.

표 6 해병대 편성표 1950.1.1~6.25.



(2) 작전경과

(가) 민심 수습작전

해병대사령부는 공비소탕작전에 앞서 도민의 민심수습이 선결과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 계몽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민심수습을 위하여 해병대는 도내에 산재한 무의촌에 해병 의무대를 파견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허물어진 도로 및 하수도 보수 같은 시설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도민을 돕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 1월 25일부터 약 1개월 동안에는 주민계몽을 위해 해군본부의 지원 아래 계몽강연도 실시하였다.

해병대는 이와 같은 대민지원 활동과 계몽을 꾸준히 끈기있게 펼친 결과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 점차로 이들이 품고 있던 군에 대한 원한과 공포심이 해소되어 갔다.

(나) 공비소탕작전

해병대사령관은 민심을 수습하고 도내 공비의 발호 실태를 파악한 다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한라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해병대는 공비토벌작전을 2개 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제923부대라 부르던 제I대는 정보참모 고길훈 소령이 지휘하는 정보대로서, 그 예하에 분대로 구성된 유격대(대장:서정남 소위)를 편성하여 한라산 서쪽 오백장군과 1394고지 부근의 세오름·돌오름을 중심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동하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제945부대)는 한라산 북서쪽의 제주·애월·한림 지구와 남부의 안덕·중문·서귀포·남원 지구를 담당하였다.

74 1. 제주도 지구 공비소탕작전

제1대의 상황: 1950년 2월 5일, 제1대는 중문리 북서쪽 16 km 지점의 돌오름, 무스개(자연동굴) 및 950고지에서 공비들과 최초로 교전하게 되었다. 제1대는 다음날(2. 6.)까지 계속된 이 교전에서 공비들을 포위하여,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공비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다.

3월 10일 15:00, 작전부대는 중문리 부근의 881고지 중턱에 있는 공비의 야전병원을 찾아내어 병원장 김포길과 남로당 제주도지구 서기장 강철을 사살하고 다수의 문서를 노획하였다.

한라산 서쪽 한대악 부근에서 활동하던 유격대(분대장: 김익태 중사)는 공비 40명과 조우하자 지체없이 이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은 유격대 병력이 소수인 것을 알아차리고 역으로 포위하면서 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유격대는 실탄이 떨어져 백병전을 치러야만 하였으나, 때마침 부근을 수색하던 다른 유격대(분대장: 전두대 상사)가 급거 이들을 지원하여 공비들을 격퇴하였다.

이 작전에서 유격대는 공비 7명을 사살하였다.

제2대의 상황: 3월 15일 제2대의 제6중대는 1394고지 남서쪽 2 km 지점에 있는 공비의 아지트에서 공비 1명을 사살하였으며, 17일에는 본부중대가 오백장군 일대에서 공비 2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22일에는 제6중대가 돌오름 남쪽에서 약 50명의 공비와 다시 조우하여 3시간 동안의 치열한 교전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5월 20일, 제2대는 지휘본부를 한라산 남쪽 쌀오름으로 이동시키고 공비 은거지역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였다.

이 작전은 6월 25일 북괴의 전면남침으로 인하여 6월 말에 종료되었다.

(3) 작전 후의 상황

북괴가 전면남침을 개시하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해병대사령관은 제주도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7월 15일 해병대사령부는 계속 남하하는 북괴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1개 대대(대대장: 고길훈 소령)를 군산·장항 지구에 투입하였다. 그 후 해병대는 제주도에서 신병 3,000여 명을 훈련시켜 연대로 증편한 다음, 9월 6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 작전

(1948. 10. 30. ~ 11. 30.)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여·순반란사건의 주모자인 김지희 및 홍순석은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잔여반란군 350여 명과 함께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은 지리산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고, 병력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덕유산·백운산 일원에 분산 은거시켜 장기항전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즉, 이들의 일부병력은 지리산 서쪽 노고단·반야봉을 경유, 백운산(1,218m)으로 이동하여 유격 근거지를 설정하였으며, 그 밖의 병력은 지리산 동쪽 용석봉·둔철산·정수산·감악산 일대에, 그리고 잔여공비는 지리산 북쪽 달궁·장안산·덕유산·천마산·칠봉산·삼도봉 일대에 분산하여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사전에 준비된 근거지를 전전하면서 구례·곡성·광양·무주·장수·남원·거창·산청·함양·진주·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남·북과 경남 지역의 일부를 위협하면서 지역내의 주민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나) 토벌부대상황

여·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반란군 토벌사령부가 1948년 10월 27일 여수를 최종적으로 탈환함으로써, 사건 발생 7일 만에 반란은 일단 진압되었다. 그러나, 반란군 잔여병력이 토벌부대에 쫓겨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토벌부대는 평양·구례·하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는 10월 30일 여수에 있던 반란군 토벌사령부 예하의 작전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는 한편, 토벌 전투지구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남원에 위치하게 된 북지구 전투사령관에 제2여단장인 원용덕 대령을 임명하고 이 사령부에 제2연대와 제3연대, 그리고 제6연대의 1개 대대 및 제15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하였다.

한편, 순천에 사령부를 설치하게 된 남지구 전투사령관에는 제5여단장인 김백일 중령이 임명되었으며, 제4연대와 제12연대의 2개 대대 및 제15연대의 1개 대대가 이 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공비소탕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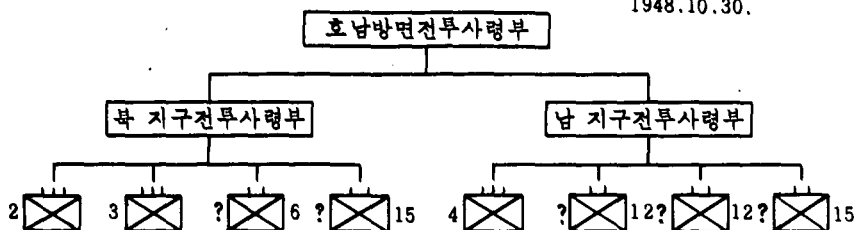
남·북지구 전투사령부의 전투지경선은 섬진강-구례-압록-삼지-육과-담양-고창을 연하는 선에 설정되었다.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7

호남방면 전투사령부 편성표

1948.10.30.



(2) 작전경과

(가) 구례 전투

1948년 11월 5일 제12연대장(백인기 중령)이 실종되었으므로, 군산에 있던 부연대장 백인엽 소령이 연대장 대리로서 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부연대장이 구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 제12연대는 공비두목 김지회부대로부터 연 3일 동안 피습을 받아 많은 손실을 입고 장병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11월 7일 공비에게 납치되었던 연대 하사관 교육대원들이 총기를 빼앗기고 복귀하였다. 바로 이날 후반야, 즉 8일 04:00경 김지회부대 주력이 월광을 이용하여 구례 국민학교 앞산인 봉성산(170m)에 배치된 1개 중대(중대장: 이동호 중위)를 기습한 후 국민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제12연대 본부를 포위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공비두목 김지회는 제12연대에게 결정타를 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날 밤의 공격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이, 이 교전에서 사로잡힌 공비에 의해 밝혀졌다.

부연대장은 갑작스런 기습공격을 받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였다. 그러다가 공비들의 집중사격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취침중인 장병들의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부연대장은 공비들의 사격술이 미숙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중화기중대장 송호림 중위로 하여금 81밀리 박격포 8문으로 봉성산에 화력을 집중하게 하는 한편, 각 소총중대를 진두지휘하여 과감하게 반격을 감행하였다.

제12연대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한 공비들은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오히려 역포위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05:00경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부연대장은 반란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복귀한 김두열 소위 이하 연대 하사관 교육대원들에게 추격을 명령하였다. 이들은 전날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하여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여 공

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각 중대와 더불어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반란군을 강타하였다. 반란군은 40여 명의 피해를 내고 도주하였다.

제12연대는 이날의 전투에서 공비 20여 명을 사살하고 20여 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1문과 기관총 7정 그리고 수십 정 의 소화기를 노획하였다. 이 밖에도 공비들이 타지역에서 약탈한 현금을 담은 포대 2개와 김지희의 처(조경순: 20세, 제주도 출신 간호원)가 소지하던 손가방을 획득하였다.

작전성과에 따른 주민의 호응: 제12연대가 구례 전투에서 반란군을 강타하였다는 상황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국군에 대한 주민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장면(1948. 12)

의 태도는 갑자기 달라졌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12연대장은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여 이들의 생계를 보장한 연후에 반란군을 토벌한다면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제12연대는 행정당국과의 협조하에 민심수습과 선무활동을 병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반란군에 대한 여러 가지 첩보를 제보하게 되고, 제12연대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을 펼치면서 반란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이들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작전을 통하여, 토벌부대들은 “대비정규전에 임할 경우 반드시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야만 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비 또는 유격부대와와의 교전에서 이겨야만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터득하였다.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는 계속해서 공비들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리산에 연하는 백운산·덕유산·회문산·입암산 일대의 유격 근거지를 포위공격하는 한편, 귀순을 권고하는 선무공작을 실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 호남·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1949. 3. 1.~5. 9.)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지리산 지역의 공비들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토벌부대가 일부 철수하자, 그들의 활동범위였던 구례·하동 일대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및 참모 (1949. 3.1)

서 벗어나 전남·전북의 동부지역인 광양·곡성·남원·장수·무주군과 경남 북서부 지역인 산청·함양·거창군, 그리고 진주 부근까지 행동반경을 확대하면서 발호하게 되었다.

(나) 토벌부대상황

1949년 해빙기를 맞아 육군본부는 지리산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색출, 격멸하기 위하여 3월 1일부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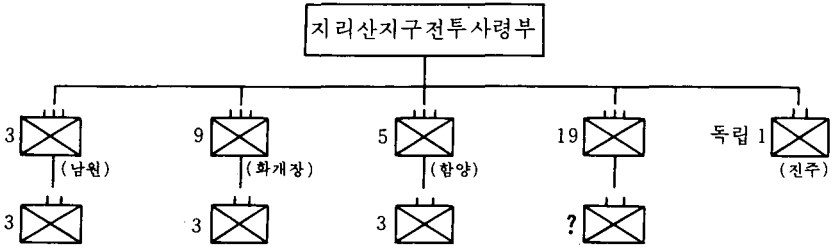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된 정일권 준장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였으며, 배속된 5개 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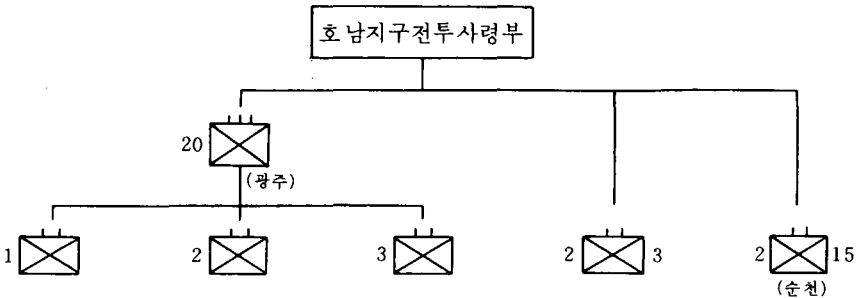
1949.3.1.



그리고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는 광주 주둔 제5여단장 원용덕 준장이 사령관에 임명됨에 따라 사령부를 광주에 설치하였으며, 육군본부로부터 역시 5개 대대를 배속받아 토벌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호남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9 호남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2) 작전경과

(가)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1949. 3. 1.~5. 9.)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공비소탕작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제1단계로 사령부는 3월 초순 작전부대를 남원·구례·화개장·하동·진주·산청 지역에 분산 배치하고 1주일간에 걸쳐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산악지역의 추위를 피하거나 식량을 획득하기 위하여 야산지대로 하산한 공비를 지리산으로 쫓아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야산 주변의 수색을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소규모적인 접전밖에 없었다. 제1단계 작전기간중 화개장 전투에서 제9연대 제3대대가 김지회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제2단계작전은 야산지대에 산재한 공비들을 지리산 일대로 몰아넣은 다음 이들을 격멸한다는 작전개념하에 3월 11일부터 전개한 작전이었다. 작전부대는 노고단·반야봉·천왕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맥의 남과 북을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공비의 은거 예상지역을 집중수색하였다. 이렇게 되자 공비들은 지대내의 근거지를 버리고 분산하여 함양·안의·거창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토벌부대는 이들을 추격하여 북상하였으나, 접촉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결짓고 말았다.

제3단계 작전은 3월 16일부터 실시되었다. 토벌부대는 거창·함양 등지로 이동하여 공비를 색출, 소탕하는 데 중점을 둔 작전을 전개하였다. 지리산 북동쪽 40 km 지점의 거창에 토벌부대의 거점을 둔 제3연대 제3대대(대대장:한웅진 대위)는 매일같이 산청·안의·위천 방면에 병력을 투입하여 수색을 반복하였다. 대대장은 수시로 대대병력을 한 지역에 집중투입하여 탐색활동을 계속하기도 하

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으며, 타지역을 담당한 대대 또한 이와 엇비슷한 정황 속에서 작전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리산 지역은 문명사회에서 격리된 육지 속의 외딴 섬과 같은 지역이었다. 산간벽지의 가난한 농촌이나 화전민 부락은 산중턱에 옛날부터 내려온 흙으로 만든 나지막한 토담집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속에서 사는 주민들은 수수, 조, 옥수수와 같은 밭곡식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 이 순박한 주민들은 해방 직후 건준(건국준비위원회) 지구위원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었으며, 그 중의 상당수가 사상이나 정치를 전혀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좌경화되어 좌익세포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정황 아래서 공비들이 입산하게 되자, 이들 좌경화된 주민들은 앞뒤 사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공비들을 은닉시켜 주었기 때문에 토벌부대가 이들 속에서 공비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토벌부대 장병들은 이토록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끈기있고 인내로운 선무공작을 통하여 주민들을 계몽, 선도하면서 이들이 군작전에 협조하도록 이끌어 갔으며,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펴 나갔다.

기간중에 있었던 주요 토벌작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천 전투: 1949년 초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토벌작전이 강화되었으나 공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각 지구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오히려 작전부대에 대하여 산발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거기에다 이 기간중 북괴군이 38도선 부근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발하여 분쟁을 일삼는 한편, 이미 남한에 침투한 북괴 인민유격대(1948. 11. 14, 1차 침투 180명)의 잔당이 강원도 일원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육군본부는 토벌부대의 일부병력을 타지역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지리산지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은 이 틈을 이용하여 3월 21일 지리산에 은거한 공비 500여 명을 이끌고 덕유산으로 이동하였다. 그 중의 일부병력이 경남 거창군 북상면 황점부락을 점령하였으며, 22일에는 목재운반 차량 2대를 강탈하였다. 이들 중 60명은 국군으로 가장하여 24일 06:00에 강탈한 트럭 2대에 분승하고 대형 태극기를 휘날리며 북상 지서를 목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북상 지서의 경찰관 7명은 국군이 덕유산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많은 병력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즉각 전투태세를 갖춘 다음 공비들의 차량을 정차시켰으나 그대로 도주하므로 사격을 가하였다.

공비들은 북상 지서의 경비가 철저함을 알아차리고, 북상지서 남쪽에 위치한 위천 지서로 목표를 바꾸어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위천 지서에 도착한 공비두목 홍순석은 “우리들은 덕유산에서 반란군을 소탕하고 거창으로 돌아가는 국군 제3연대의 병력이다. 반란군의 출몰이 심한데 지서의 경비태세가 매우 소홀하다.”하면서 지서근무 경찰관들을 전원집합시켜 무장을 해제하고 숙직실에 감금하였다. 그리고 나서 홍순석은 거창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령조로 전달하였다. “우리는 국군 제3연대의 선발대인데 지금 덕유산의 반란군 토벌을 마치고 거창으로 이동중에 있다. 현재 우리는 위천 지서에 있는데 주력부대 500명이 거창에 갈 터이니 식사와 숙소를 1시간 안으로 준비하고, 또 차량 8대를 징발하여 20분 내로 위천에 보내라. 그리고 차량인솔은 경찰서장이 직접 하라.”

당시 거창에는 제3연대 제3대대 본부가 있었으나 산청 방면에서 수색작전을 펴고 있었다. 거창 경찰서 사찰주임 유봉순 경위는 대대본부에 가서 통화내용을 알려주고 위천 지서에 있는 부대의 정체확인을 요청하였다. 때마침 작전을 끝마치고 귀대한 대대장(한용

진 대위)은 정보장교(김철순 중위)와 함께 거창 경찰서로 가서 위천 지서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반란군 지휘관 홍순석(중위)이 받았다. 그는 제3대대장에게 “너희들은 반란군이 아니냐? 우리는 제3연대의 토벌부대다. 너희들의 소속은 어디냐?”라고 되물으면서 오히려 토벌부대를 반란군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한웅진 대위는 “우리가 제3연대 장병이다. 너희들의 소속을 확실히 대라.”고 하니 까, 홍순석은 그때서야 “우리는 구례에 있는 제12연대다. 1시간 후에 거창에 가겠으니 거기서 이야기하자.” 하고 말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다. 이때 대대장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공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대대장은 고작 10 km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위천에 공비가 출현한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그 당시 거창 제3대대 본부에는 본부경비병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대대장은 만일의 경우 거창을 공비가 습격할 것에 대비하여 거창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날 밤 제10중대가 작전지역에서 복귀하자, 대대장은 다음날(26일) 새벽에 이 중대를 직접 지휘하여 차량을 이용, 위천으로 급히 출동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에는 공비들이 이미 인근 마을에서 보급품과 식량을 약탈하고 지서장을 납치하여 북상 지서를 경유 덕유산 쪽으로 철수한 다음이었다. 대대장이 중대병력과 함께 위천 지서에 도착했을 때, 납치되어 가던 위천 지서장이 도중에서 탈출하여 위천으로 되돌아왔다. 토벌부대는 다시 차량행군을 시작하여 북상 지서에 당도하였지만 이때에도 공비들은 북상 지서에 방화하고 떠나버린 후였다. 토벌부대는 단념하지 않고 8 km 정도 진출하여 월성리(황점 동쪽 3 km)에서 공비들이 버리고 간 트럭 2대를 발견하였다. 대대장은 토벌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계속 전진하다가 우마차에 약탈품을 싣고 가는 10여 명의 공비를 발견 사살하고 수명을 사로잡았다. 이때 생포한 공비를 심문한 결과, 김지회, 홍

순석의 일당 500여 명이 덕유산에 입산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위천 지서에서 전화한 자가 바로 홍순석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제3연대 제3대대는 마침내 공비의 두목 김지회와 홍순석의 행적을 포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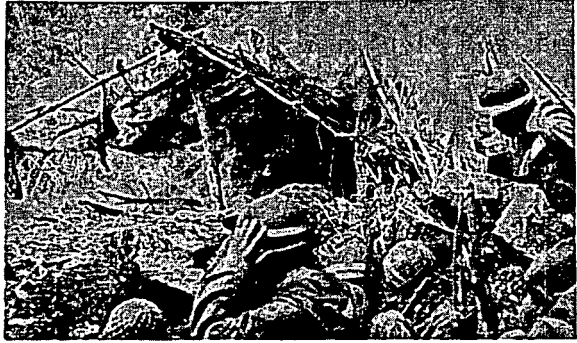
덕유산 포위작전: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공비들이 거창 북방과 덕유산을 근거지로 준동하게 되자, 예하 전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군·경 협동으로 덕유산을 포위할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포위작전에는 제3연대 제1대대, 제3대대, 제5연대 제3대대, 제9연대 제3대대, 그리고 독립제1대대 (일명, 서울유격대) 등 5개 대대 외에 경찰부대가 참가하였다.

3월 28일 밤, 분산되어 있던 각 대대와 경찰부대는 함양에 집결하여 다음날 밤 덕유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30일 아침 정일권 전투사령관은 작전부대를 진두지휘하여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전에서 토벌부대들은 인접부대와의 통신수단을



반란군을 포착하여 공격을 가하는 토벌부대 요원들

사전에 강구하지 않았던 탓으로 상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하에서 토벌부대끼리 조우하여 가벼운 총격전을 벌이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 약간의 피해가 있었다.



폭파된 반란군의 아지트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공비들은 토벌작전이 개시된 지 7시간 만에 2차에 걸쳐 거창을 습격하였다. 전투사령부는 공비들이 거창을 2회나 습격한 것은 토벌부대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양동이며, 이들은 필히 패관산에서 잠시 휴식한 후 지리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관산 전투: 3월 29일 밤,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가 덕유산을 포위하려고 부대를 배치하고 있을 때, 현지주민으로부터 안의(CQ 9424) 근방에 공비가 출현하였다는 첩보를 받았다. 제3연대 제3대대는 안의에 출동하여 이들을 추격한 끝에 9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공비의 주력이 패관산(CQ 8240, 지리산과 덕유산의 중간지점, 거창 남서쪽 30 km)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전투사령부는 지체없이 패관산 포위를 계획하고 주력부대를 이산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거창에서 함양으로 이동하여 패관산에서 지리산으로 연결된 통로의 길목인 남원군 운봉면 피바위고개를 차단하였다.

4월 4일 토벌부대들은 함양 북쪽 10 km 지점의 패관산(1,252m)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압축하여 천정동에서 공비들의 숙영지에 박격

포를 집중사격하여 저녁식사중인 100여 명의 공비들을 강타하고, 다음날에도 산발적이긴 하지만 공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이 전투에서 지휘체제가 와해될 만큼 큰 타격을 받은 공비들은 그 이후부터는 중대·대대 단위의 작전행동을 하지 않고 소규모 병력으로 흩어져 지리산으로 들어갔다.

공비두목 김지회·홍순석·사살:괘관산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김지회·홍순석 일당이 지리산으로 잠입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계속 추적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제3연대 제3대대는 남원군 운봉(CQ 6622)으로 이동한 이래 계속 피바위고개(CQ 7019)에서부터 운봉면과 산내면 일대에 대한 공비 수색작전에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4월 8일 제3연대 제3대대 정보과 선임하사관 김갑순 상사는 대원 2명을 대동하고 산내면 반선리(CQ 7114)에 들어가 이 마을 주막 여주인에게 화장품을 선물로 주면서 “이 곳이 공비들의 통로이니 그들이 오면 술도 주고 밥도 주면서 가능하면 그들을 재운 다음 입석리(CQ 7519) 대대본부로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다음날 03:00, 반선리 부락 청년단장이 뛰어와서 “지금 공비 30명이 술과 밥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제3대대장은 본부 요원 60명을 트럭 2대에 분승시키고 6km 떨어진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였다. 공비들은 차량이 달리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출동부대는 이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마침 달빛이 환하여 사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대대는 이 반선리 전투에서 공비두목 홍순석과 정치부장·후방부장 등 17명을 사살하고 문화부장을 위시한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홍순석은 농구화에도 토끼가죽으로 만든 잠바를 입고 있었으며, 자신의 인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생포된

공비들은 김지회와 그의 처(조경순)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들의 시체는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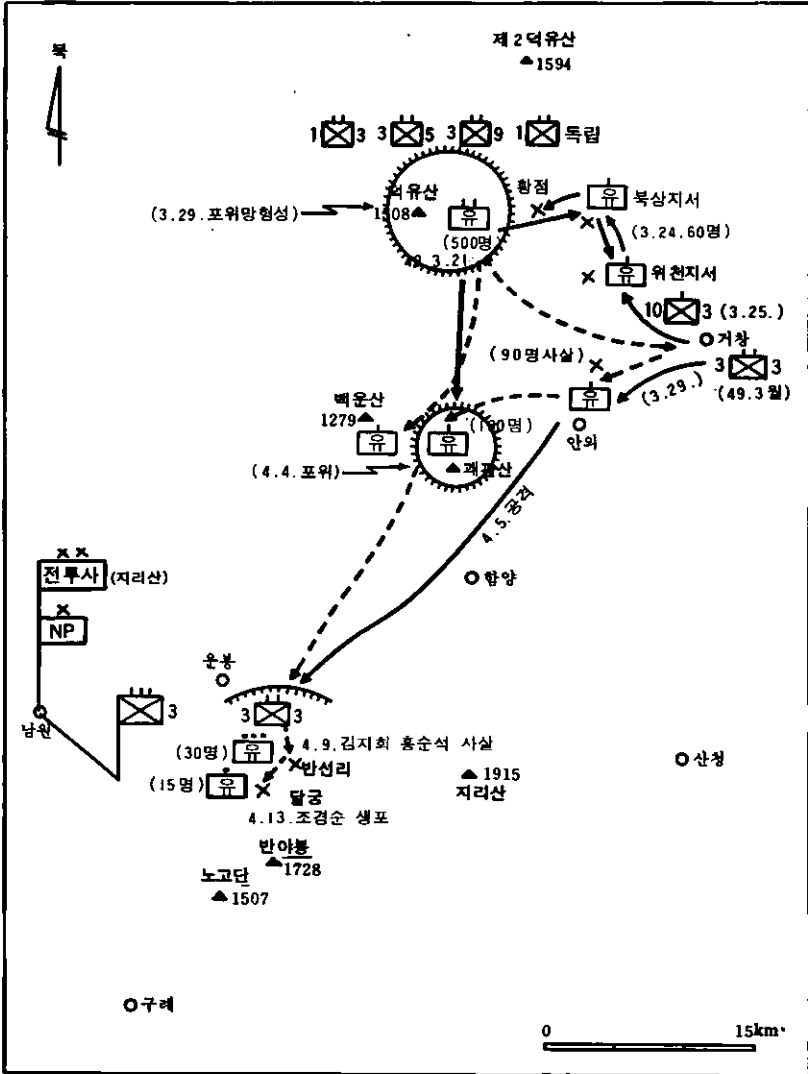
4월 13일, 제3연대 제3대대는 남원군 산내면 덕동리 달궁부락(CQ 6812, 반선리 남서쪽 5 km)에 여자를 포함한 공비 수 명이 출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대대정보과 김 상사는 2명의 대원과 경찰 2명을 대동하고 달궁부락에서 잠복했다가 마침내 김지회의 처 조경순을 사로잡았다.

김상사는 조경순을 심문하여 김지회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조경순 역시 반선리에서 헤어진 이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말을 들은 김 상사는 문득 반선리 전투에서 부상한 김지회가 도주하다가 어느 골짜기에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상하게도 때마침 반선리와 연장리 골짜기에는 까마귀 떼가 몰려 있었다. 이를 본 김 상사는 그 부근을 살살이 뒤진 끝에 인상착의조차 구분할 수 없는 시체 1구를 찾아내었다. 이 시체를 조경순에게 보여 주었더니, 그녀는 시체 등에 총상흔적이 있는 것(김지회는 화개장 전투에서 등에 부상하였다고 그의 처가 증언)을 확인하고 이 시신이 바로 김지회임이 틀림없다면서 흐느끼는 것이었다. 김지회는 반선리 전투(49. 4. 9)에서 홍순석과 같이 토벌부대의 기습을 받고 부상하여 단신으로 도주하다가 마을로부터 600 m 떨어진 야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처 조경순이나 그의 부하들이 행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리하여, 여·순반란사건의 주동자인 김지회, 홍순석은 호남·경남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다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지 6개월 만에 국군 건군사에 일대 오점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육군본부에서는 토벌작전에 공로가 큰 제3연대 제3대대장 한웅진 대위 이하 전장병에게 1계급특진의 영광을 주었고, 정보과 김갑순 상사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과 훈장이 수여되었다. 한편, 공비 일당을 신고했던 남원군 운봉면 반선리 부락의 주막 여주인은

요도 2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작전 요도 (1949.3.1~5.9.)



그 후 공비 잔당의 보복을 받아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이처럼 공비 출몰지역의 산간주민들은 군·경 공비토벌부대와 공비의 틈바구니에 끼여 생계마저 곤란한 여건하에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김지회, 홍순석을 사살하고 상금을 받는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과 한웅진소령

(나) 호남지구 전투사령부 작전(1949. 3. 1.~5. 9.)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는 달리 공비들의 접적이 적은 편이었다. 1949년 3월 하순, 제5사단 제20연대(여·순반란사건 후 제4연대를 개칭) 제2대대는 구례에서 광양으로 이동하여 백운산(CP 7385) 일대의 공비를 토벌하던 중, 공비 30여 명을 발견하고 그 중 10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여자공비(간호원) 20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제15연대 제2대대(대대장: 최남수 대위)는 백운산에서 공비의 은거지를 습격하여 소총, 쌀 등 다량의 식량, 무기 및 장구류를 습득한후, 철수하면서 매복조를 잔류시켰다. 이 잔류매복부대는 얼마 뒤에 이 곳에 나타난 공비를 사살하고 구례군의 공비 조직망이 수록된 문서를 획득하였다. 이 문서로 연대는 공비들과 내통하던 공산분자 다수를 검거하였다.

(3) 작전 후의 상황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정일권 준장은 반란주모자인 김지회·홍순석을 위시한 반란군 주력을 격멸한 뒤인 1949년 4월 18일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복귀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남원에 있던 제3연대장 함준호 대령이 임명되어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던 중 5월 9일 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토벌부대는 원대복귀하였다.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는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5여단이 1949년 5월 12일부로 사단으로 승격되고 원용덕 준장이 사단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호남지구 전투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잔여공비 소탕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여·순반란군 주동자 섬멸 후 실시한 작전관계관 좌담회

여·순반란군 주동자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격멸한 후 지리산지구 공비소탕 작전상황에 대하여 작전관계관들이 증언한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소개한다.

- 일 시: 1949년 4월 18일 21:30
- 장 소: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실
- 참석자: 사령관: 정일권 준장
작전참모: 공국진 소령

94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정보참모: 이유성 소령
군수참모: 박종민 소령
인사참모 겸 부관: 이극성 대위
법무심사관: 최영의 대위
통신참모: 유○○ 대위
사 회: 김덕균 특과원

사 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 작전은 산악전인만큼 저희들로서는 지극히 여러분들의 작전에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예상외로 공비들을 완전 섬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전 상황을 공 소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 소령: 작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작전은 3월 초에 시작하여 공비들을 포착하여 1주일이나 계속 교전하였고, 이어서, 3월 11일부터는 제2차 작전에 들어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각 고지를 점령하고 반도의 침입을 막는 한편, 국부적으로 적을 소탕하였습니다. 제3차 작전은 16일부터인데 적은 단양, 오부, 북상, 서하, 고계, 안익, 수동 등 각 지서를 습격하고 계속 거창을 습격하려다가 군의 진주로 덕유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령부는 28일 밤을 이용하여 주력은 화개, 하동, 진주를 거쳐 산청으로 가고, 일부는 함양에 집결하였다가, 29일 저녁에 야간기동으로 덕유산을 완전 포위하도록 하여, 30일에는 7시간이나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4월 4일에는 재차 지리산 작전이 시작되어 5일 새벽에 쾌관산을 완전히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으로 큰 타격을 주어 공비의 대부분을 박멸하고 전투를 일단락지은 것입니다.

사 회: 상당한 격전이 있었겠습니다.

사령관: 그렇지요.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10 일간에 785 km나 행군을 하였으니 하루 평균 200리 길이나 되었지요.

공 소령: 뛰어갔다는 것보다 날았지요.(웃음)

사 회: 전투중 유쾌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 소령: 4월 4일 패관산 북방 천정동에서 반도 100여 명이 저녁을 먹고 있는 것을 운곡리부대가 산마루에서 박격포를 집중사격하였더니 사방으로 도망가는 것이 볼 만하였지요.

공 소령: 9일 달궁부락에서 밥먹는 홍순석 등 16명을 사살한 것도…….

이 대위: 그 후 참모총장으로부터 전장병에게 표창이 있어 모두 감격했습니다.

사 회: 전투에 있어 편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의 신경이라고 할 통신참모 유 대위께서 ….

유 대위: 전투의 비결은 요망하는 병력을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곤란하다고 생각된 것은 사령부와 부대의 연결이 원만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 회: 다른 분, 달리 뭐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이 소령: 지리산 부근은 해방 후 건준(건국준비위원회)시절부터 적화되어 주민의 9할이 남로당에 가담하였고, 그 중에서도 구례 같은 곳은 1개 면에 5,000명에 달하는 남로당 세포조직이 있어 계몽운동이 매우 곤란했습니다.

최 대위: 좌우간 북괴의 인공기는 알아도 태극기는 모르고,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인지도 모를 뿐더러 대통령의 존함조차 모르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어쨌든 해방 후 경찰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며, 공출이고 무엇이고 이 사회와는 따로 떨어진 고장 같아요.

사 회: 그렇다면, 무지한 백성이니 선도 교화하기에는 오히려 용이할 것 아닙니까?

사령관: 그렇습니다. 60%의 적화분자가 요즈음에는 40%나 귀순하였고 자백한 자도 200~300명이나 됩니다.

사 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진주 지구 해병대 작전

(1949. 8. 29.~12. 26.)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고 토벌부대가 철수하자, 경남 서북부지역의 공비들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주민을 강제로 납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둔 군·경 토벌부대의 계속적인 선무공작으로 주민들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외면하게 되어 그들의 세력확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공비들은 농번기를 이용하여 지리산과 인접되어 있는 하동군 관내의 경찰지서와 부락을 습격하여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함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민심교란을 획책하였다.

진주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던 이들 공비의 수는 약 2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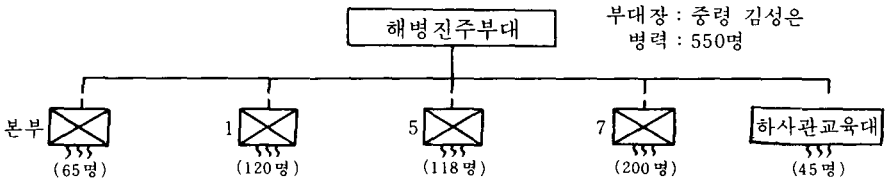
(나) 해병부대의 진주배치

1949년 4월 15일 해군에서 분리되어 창설된 해병대는 진해에서 7월 말까지 부대 기초훈련을 실시하였다. 초대 해병대사령관 신현준 대령은 육군본부와 협조한 끝에 전투훈련과 공비소탕작전을 통하여 전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해병 1개 대대를 진주에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8월 26일 진주부대를 편성하고 해병대 참모장 김성은 중령을 부대장에 임명하였다.

해병 진주부대는 8월 29일 제5중대장 안창관 중위가 지휘하는 선발대가 진주시로 이동하였고, 주력은 3일 후인 8월 31일 진주에

도착하여 진주사범학교 기숙사를 본부로 정하였다. 이때부터 이 부대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진양군·함안군·창녕군 일대를 경비담당지역으로 하여 이 지역에 출몰하는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과 주민 선무공작을 통한 민심수습에 전력하는 한편, 자체훈련을 통한 부대 전투력 강화에 힘쓰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병 진주부대는 약 2개월 동안 주민계몽을 위한 순회강연, 영화상영과 농번기 대민지원을 실시하면서 공비의 습격에 대비하고 주민을 계도하였다.

표 10 해병 진주 주둔 부대 편성표 1949.8.29.



자료 : 《해병 전투사》 1 권 해병대 사령부 1962.6.15. p.18

(2) 작전경과

1949년 10월이 되면서 진주시 주변에는 공비의 준동이 점차 활발해졌으며, 이들은 진주시를 해방한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진주시를 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0월 11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 김백일 대령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해병대에 전파하였다. 그 내용은 백운산(CP 7585)의 공비 약 300명이 진주시 습격을 기도하고 있으니 경찰과 협조하여 경계태세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다.

10월 12일 진주시 서쪽 12 km 지점의 진양군 수곡면 효곡리에 공비 약 80여 명이 나타나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면사무소에 방화한 후 도주하였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16일에는 진주와 하동 간에 있는 평원 지서 부근에 무장공비 4명이 출현한 데 이어, 18일에는 해병대원이 외곽초소 부근에서 경계상태를 살피고 있던 비무장공비 6명을 체포하였다.

이와 같이 진주시 주변에서 공비들의 출몰이 빈번히 일어나자 부대장 김성은 중령은 제1중대를 진주시 외곽에, 하사관교육대를 주둔지 북서쪽 고지에, 그리고 제5중대를 부대막사와 시내 주요지점에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대장은 정보대를 편의대로 편성하여 진주시 부근 마을에서 은밀하게 공비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진주시 피습: 10월 26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관과 해병대사령관이 해병 진주부대를 시찰하였다. 같은날, 해군본부에서 보낸 장병 위문단이 진주극장에서 해병장병과 진주시민 위안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해병 진주부대장은 10월 초부터 계속된 비상경계태세로 인하여 장병들의 심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알고 피로회복과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하여 그 동안 무장한 채 취침하게 한 관례를 깨고 이날 밤만은 맨 몸으로 편히 쉬게 하였다.

바로 이날, 즉 27일 01:40경 소화기와 중화기로 장비한 약 130여 명의 공비가 진주시를 습격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약 15명으로 추산되는 소수병력으로 먼저 해병부대 막사를 공격하여 해병의 관심을 그 곳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이들의 주력은 진주 경찰서와 형무소, 진양 군청, 재판소를 거의 동시에 습격하여 불을 질렀다. 잠시 긴장을 푼 순간 불의의 기습을 받게 된 해병대와 진주 경찰서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가 없었으며, 진주시내는 이름 그대로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공비들은 시가지에 붙은전단을 살포하고 정부를 비난하며 복귀를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등 거리는 그들의 세상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공비들은 뒤늦게 대항하게 된 해병대와 산발적인 접전을 계속하던 중, 새벽이 되자 사전에 선정한 진주시 외곽지대로 집결한 다음 화물차량을 강탈하여 도주하였다.

이 교전에서 해병대와 경찰은 6명의 공비를 사살한 반면, 해병대원 4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하였으며 민간인 6명이 사망하였다.

해병대의 제주도 이동: 해병대는 진주에 주둔한 4개월 동안 선무공작을 통한 민심수습과 치안질서 확립에는 다소 기여하였으나, 수 차례에 걸쳐 치른 공비와의 교전에서는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국방부는 12월 하순 제주도 주둔 독립제1대대를 해병부대와 임무교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 진주부대는 12월 26일 진주를 떠나 다음날 제주도로 이동하였다.

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1949. 9. 28. ~ 1950. 3. 15.)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호남·경남 서부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은 1949년 4월 초 그들의 두목 김지희와 홍순석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부분 사살되어 지휘체계가 와해되었으므로 각 지역으로 분산도주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이들 잔여공비 200여 명은 5월 초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된 그들의 병력을 집결시켜 재편성하였다. 그 직후부터 이들은 양민을 납치하거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등 온갖 수단을 다하면서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그 동안 토벌부대가 펼친 선무활동과 체험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정체와 수법을 알게 되어 그들의 유혹에 속지 않고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계몽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괴는 7월 1일을 기하여 북조선노동당과 남조선노동당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로당 계열 공산분자들은 남한에서 본격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게 되었다.

조선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중앙당 제14호실(대남유격사업 지도부)을 설치하고 그 직할로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하여, 남로당원을 이 곳에서 훈련시켜 인민유격대로 양성하였다. 이들 인민유격대는 주로 오대산 부근 38도선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하였으며, 1949년 7월까지 이미 7차에 걸쳐 1,500여 명을 남파시켰다. 이들은 남하 도중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사살 또는 생포되거나 북상도주하였으나, 잔여병력은 남한에서 지방공비와 합세하였다. 이들은 3개 병단을 편성하였으며, 각 병단마다 야산대를 조직하고 이른바 9월 공세를 퍼트리는 등 그들의 세력부식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특히, 지리산지구의 제2병단은 북괴가 직접 선발한 이현상(일명, 노동무)이 지휘하는 650명의 병력으로 편성된 막강한 전력을 가진 부대로 알려져 있었다.

이리하여, 지리산지구 공비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CP 7595) 일대 경찰지서 및 부락 습격을 비롯하여 광양군·보성군 등지를 기습하여 무기 및 탄약과 식량을 약탈하면서 또다시 사회불안 조성

과 질서파괴를 일삼게 되었다.

대남유격병단 편성과 지리산지역 제2병단의 편성 및 병력은 다음과 같다.

표 11 유격 병단 편성표 194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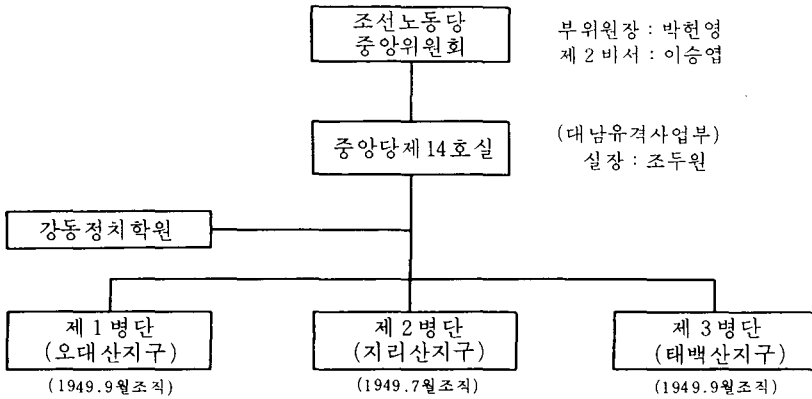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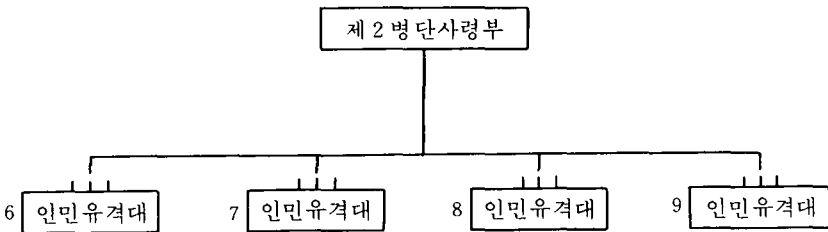


표 12 인민 유격대 제 2 병단 편성표

1949.10.1.



※ 각 군 단위 야산대 조직

자료 :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김점곤 저, 1974. p.213

제2 병단 병력 및 활동지역

부 대	무장병력	지휘관	근거지	활동지역	무 기
계	650명		지리산	전남북·경남 지역 13개 군	
제 2 병단 사령부		사령관 이현상	지리산		
제 6 연대	70명	연대장 이현상 겸임	지리산	남원군 구례군 북부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소화기 : CAR 및 M1, 99식소총 공용화기 : 경기관 총, 로켓포, 박격포
제 7 연대	250명	연대장 박 중	백운산	광양군 곡성군 북부 순천군 남부 구례군 북부	"
제 8 연대	130명	연대장 박동무	조계산	순창군 화순군 곡성군 남부 순천군 북부	"
제 9 연대	200명	연대장 정금모	덕유산	거창군 장수군 무주군	"

(나) 토벌부대상황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1949. 5. 9.)된 후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은 제5사단 예하 제15연대(순천)와 제20연대(광주) 및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경남 북부지역 함양군 및 산청군 공비토벌작전은 제23연대 제1대대(중전 제16연대 제1대대를 기간으로 49. 6. 10. 제23연대를 창설)와 8월 28일 진주로 이동한 해병 진주부대가 수행하고 있었다.

정부는 인민유격대의 계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정황을 감안하여 이 기회에 이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군·경 수뇌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22일 내무부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내무부장관(김효석), 국방부장관(신성모), 내무부차관(장경근), 참모총장(채병덕), 참모부장(정일권), 치안국장(이호)이 참석하여 다각도에 걸친 토의를 거친 끝에 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단행하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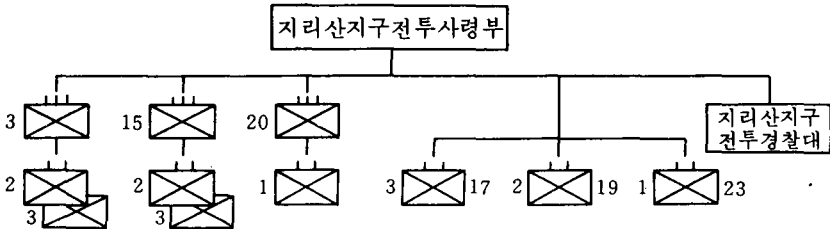
이에, 육군본부는 9월 28일부로 다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백일 대령(제5사단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치안국(현, 치안본부)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최치환 총경을 임명함으로써, 육군과의 합동작전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13

지리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1949. 9. 28.



(2) 작전경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토벌작전은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 전개되었다. 토벌부대는 공비들의 거점인 산악지대에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휘몰아쳐 공비들의 활동이 어렵게 된 계절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이 기간에 3단계로 구분한 작전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제1단계작전(1949. 10. 30.~11. 30.)은 기본공작기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CQ 7642)·덕유산(CQ 8767)·백아산(CP 3392)·회문산(CQ 2830)·입암산(CQ 0228) 일대의 공비 근거지와 주변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첩보수집과 주민계몽 및 대민지원 활동을 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2단계작전(12. 1.~12. 15.)은 토벌부대가 공세를 취한 전투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토벌부대는 군·경 합동으로 공비 은거지역을 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포위 및 수색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노고단 정상의 토벌부대 거점



토벌부대 장병들의 휴식장면(고지정상)

제3단계작전(1949. 12. 16.~1950. 2. 28.)은 복구기로서, 지역내의 농촌 재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심수습에 치중하고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사업과 사상선도에 최선을 다하였다.

(3) 작전결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5 개 월간에 걸쳐 토벌작전을 펼치면서, 지역내 잔여공비들의 보급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비들은 토벌부대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고 식량마저 얻기 어려운 처지로 빠져든 반면, 공비 준동지역의 주민들은 점차로 생활이 안정되어 갔다. 이런 가운데, 토벌부대가 실시한 귀순공작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많은 공비들이 연이어 토벌부대 또는 일반 행정기관에 귀순하기에 이르렀다.

작전기간중 공비들은 총 556회에 걸쳐 출몰하였으며, 출몰 연인원은 12,366명에 달하였다.

토벌부대가 올린 전과는 다음과 같다.

전 과

1950. 3. 15

공비사살	생 포	귀 순	아지트 파괴
365명	187명	4,964명	168개소



지리산지구가 평정되자 정부는 1950년 2월 5일부로 호남 일대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육군본부는 3월 15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를 해체하고 잔여공비 소탕임무는 광주 주둔 제5사단에 하 제15연대(순천)와 제19연대(남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리산의 험준한 지형을 수색하는 토벌부대 장병들

3. 오대산 지구 작전

가. 제6사단 작전

(1) 제8연대의 제 1차 침투 인민유격대 소탕작전 (1948. 11. 14. ~ 11. 30.)

가) 작전배경

1) 인민유격대의 침투상황

1948년 11월 14일, 북괴는 강동정치학원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1차로 수료한 남한 출신 인민유격대 180여 명을 강원도 양양군 서면으로 남파시켰다. 이들의 침투 목적은 남한내의 반란군 지원과 붕괴된 남로당을 재건하고 후방을 교란하여 남한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들 인민유격대는 험준한 태백산맥의 준령을 타고 오대산·계방산·홍정산을 경유하여 11월 15일에는 평창 북서쪽 30 km 지점의 태기산(1,261 m, DS 3760)까지 침투하였다.

2) 토벌부대상황

제6여단(제4여단을 1948. 11.20부로 개칭)은 여단본부 및 제7연대를 청주에 주둔시키고,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각각 배치하여 이들 2개 연대로 중·동부의 130 km에 달하는 38도선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단에비인 제7연대는 충북 일원의 공비토벌임무를 띠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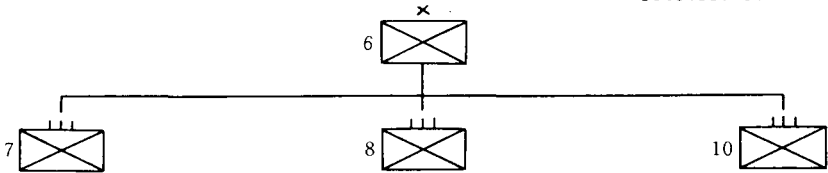
제6여단의 좌전방연대인 제8연대는 제1대대를 춘천에, 제2대대

108 3. 오대산 지구 작전

를 홍천에 배치하여 38도선 경비임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제3대대는 연대에비로서 원주에 집결하고 있었다.

제6여단의 편성 및 지휘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4 제 6 여단 편성표 (1) 1948.11.20.



제 6 여단 지휘관 현황

1948. 11. 20

부대	구분	지휘관	인적사항	비고
제 6 여단	여 단 장	유재홍	중령	1948. 8.29~1949. 1.15
제 7 연대	연대장 (4 대)	심언봉	소령	1947.10.22~1949. 6.17
제 8 연대	연대장 (6 대)	김형일	소령	1948. 8. 8~1949. 5.24
제10연대	연대장(초대)	백남권	소령	1948. 5. 1~1949. 5.24

* 1948년 4월 29일 수색에서 제 4 여단으로 창설, 동년 11월 20일 제 6 여단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 5월 12일 제 6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나) 작전경과

1) 태기산 전투

1948년 11월 16일, 제8연대는 태기산에 출현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3대대를 출동시켜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원주 및 횡성 경찰서 토벌대도 태기산으로 출동하여 군 토벌대와 합동으로 태기산을 포위하고 수

색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날, 군·경 합동토벌대는 태기산 일대에서 인민유격대 척후대로 보여지는 60여 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교전 끝에 4명을 사살하였다.

11월 18일 05:00, 횡성 경찰서 토벌대가 태기산 중턱에서 공비 150여 명과 교전하여 1명을 생포하였으며, 14:00에는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DS 3352)에서 다시 2명을 사로잡았다.

11월 19일 공비들은 군·경 토벌부대의 소탕작전으로 인하여 태기산 일대에서 집단 남하가 어렵게 되자, 침투방향을 180도 회전하여 태기산 북쪽의 흥정산(DS 3969)·보래령·응봉산(DS 3282)의 3개 방향으로 북상을 하다가 11월 20일에 다시 남하를 시도하였다.

군·경 토벌부대는 이날 작전지휘본부를 태기산 남쪽 안흥(DS 2539)으로 이동시켰으나 접적이 없자, 다음날(21일) 다시 평창 경찰서(DS 4635)로 이동하였다. 이 곳에서 남하하는 공비를 다시 포착한 군·경 토벌대는 원주-강릉 도로 이북지역에서 인민유격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인민유격대는 군·경 토벌부대의 차단선을 뚫고 남하하여 치악산(1,187m, DS 1735)·백덕산(1,350m, DS 3738)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평창군 진부면 박지산(1,394m, DS 6557)과 그 남쪽 정선군 북면의 갈매봉(1,262 m, DS 6551)을 경유하여 가리왕산(1,561 m, DS 6245)으로 들어가 분산된 병력을 집결 정리한 후, 영월군 관내의 마차 탄광(DS 5223)방향으로 진출하였다.

2) 영월 지구 전투

1948년 11월 23일 11:00경 태기산에서 활동하던 약 120명의 인민유격대는 영월군 북면 공기리(DS 5129)에 출현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주민을 납치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11월 27일 영월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육군본부는 제6여단장 유재홍 대령을 영월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제6여단장은 이날 영월 주둔 제8연대를 증원하기 위하여 원주 주둔 제7연대의 1개 대대를 영월로 이동시켰다.

11월 28일, 제8연대의 1개 중대는 마차리(DS 5223)에서 때마침 집결중인 공비를 발견하는 즉시, 배후에서 기습하여 13명을 사살하고 12명을 생포하였으며 소총 23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다.

이때 교전현장에서 탈출한 공비는 북쪽 사자산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3) 사자산 전투

영월 지구에서 토벌부대에 쫓겨 복상한 약 100명의 공비와 태기산 전투에서 패주한 약 120명의 공비는 영월 북쪽 종지령에서 합류한 후 영월군 수주면 북쪽 사자산(1,181m, DS 3539)에 은거하고 있었다.

11월 29일 08:00, 영월군 주천면에 투입된 제8연대의 1개 중대는 백덕산 남쪽 판운리(DS 3632)에, 원주·영월 경찰서 소속 3개 경찰대는 백덕산 북쪽의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DS 3743)에 각각 산개하여 사자산을 남쪽과 북쪽 양면에서 포위한 후 포위망을 압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은 산 정상에 암석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저항하였으므로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군·경 토벌부대는 일단 포위망을 풀어 공비들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로 유인한 다음, 제8연대의 1개 중대와 경찰 3개 소대로 다시 포위망을 형성하고 일제히 공격을 감행한 끝에 사살 12명과 소총 노획 13정의 전과를 올렸다.

4) 잔비소탕

사자산 전투 후 패잔공비들은 충북 제천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충북 경찰에 의해 대부분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이로써, 제1차로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는 제8연대와 경찰의 협조된 합동작전으로 약 1개월 만에 대부분 소탕되었다.

제8연대 제3대대는 그 후 여단직할 유격대대로 개편되어 영월 지역에서 계속 공비 토벌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제10연대의 북상공비 소탕작전(1949. 2.)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여·순반란사건의 패잔병과 남로당계 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에서 실시된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으로 인하여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1949년 2월에 북괴로부터 “오대산에서 무기공급을 받으라.”는 지령을 받자, 이들은 지리산·일월산(ER 0973)을 거쳐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여 오대산으로 잠입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월산에서 경북지구 토벌부대에 포착되어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잔여공비 150여 명은 분산되어 2월 한 달 동안에 경북과 강원도의 경계선을 넘어 태백산(1,561m, DS 9305)으로 들어갔다. 이 곳에서 이들은 병력을 수습하고 식량을 준비한 후 오대산으로의 진출을 기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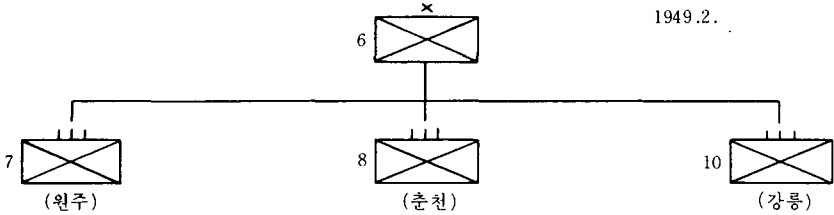
2) 토벌부대상황

제6여단(여단장:김백일 대령)은 38도선 동부지역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이 여단 예하 제8연대는 2월 10일 원주에서 춘천으로, 제7연대는 청주에서 원주로 각각 이동하였고, 2월 22일에는 여단본부도 청주에서 원주로 이동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10연대만은 강릉에 계속 주둔하면서 태백산맥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제 6 여단 편성표 (2)

표 15

1949. 2.



(내) 작전경과

태백산 지역에서 식량을 약탈한 공비들은 함백(DS 7418)을 경유하여 고양산(DS 7940)·중봉산(1,284m, DS 9243)을 거쳐 발왕산(1,458m DS 7162)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비의 동정을 파악한 제10연대장(백남권 중령)은 강릉-원주 도로에 병력을 배치하여 이들 공비들의 북상을 저지할 계획을 세웠다. 2월 말, 제10연대장은 병력을 계획된 국도 주변에 배치하여 공비들의 북상경로를 차단하고 이들의 은거지인 발왕산에 대한 수색을 은밀하게 개시하였다.

토벌부대의 불의의 수색으로 은거지가 노출되어 버린 발왕산의 공비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간신히 도주한 일부 공비들이 강릉-원주 간 도로를 횡단하였으나 이 곳에 배치되어 대기중이던 제10연대 병력에 의해 전멸되었다.

(3) 제8연대의 제4차침투 인민유격대 소탕작전
(1949. 8. 4.~8. 11.)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북괴는 1차로 남파한 인민유격대와 남로당 계열의 지방공비가

군·경 토벌부대의 소탕작전으로 전멸될 위기에 이르자, 1949년 6월 1일 두 번째로 400명의 인민유격대를 침투시켰다. 이들은 남하 도중 38도선 부근에서 국군 경비부대와 접전하는 동안 상당한 손실을 입고 겨우 100여 명의 병력만이 오대산을 경유, 고양산-중봉산-태백산을 거쳐 남하하였으며, 지방공비와 합세한 후 동해안 일대에서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7월 6일, 복괴는 3차로 약 200명의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였으나 군·경 토벌부대의 소탕작전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으며 간신히 살아 남은 30명은 북상 도주하였다.

복괴는 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였으나, 이들이 남하 도중 군·경 토벌부대에 의해 대부분이 격멸되자, 8월 4일에는 4차로 김달삼(제주도폭동 주모자)이 지휘하는 인민유격대의 정예분자 약 300명을 동부지역 산악지대로 침투시켰다. 이들은 춘성군과 홍천군 경계선 일대의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서쪽 5 km 지점의 가리산(1,051m, DS 0891)을 거쳐 홍천군 화촌면 공작산(887m, DS 1374)까지 남하하였다.

2) 토벌부대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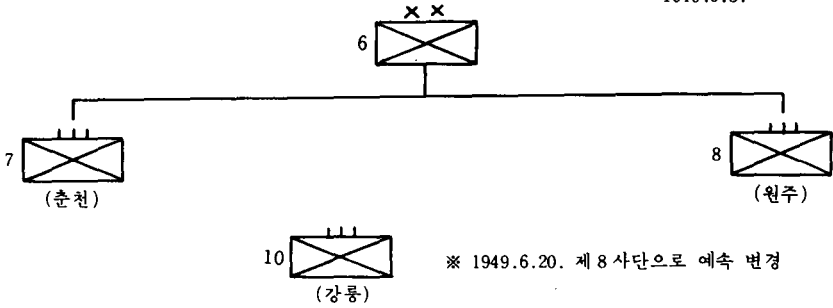
제6사단(제6여단이 1949. 5. 12부로 승격)은 춘천과 홍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8연대에서 2개 대대의 월북사건이 발생(1949. 5. 4.~5.)하자, 제8연대를 원주 주둔 제7연대와 임무교대시켰다. 초대 사단장 김백일 대령은 월북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유재홍 대령이 그 후임으로 부임(5. 12.)하였다.

제6사단은 6월 20일 제10연대(강릉)가 제8사단으로 예속이 변경됨에 따라 제10연대가 담당하고 있던 38 km에 달하는 동해안 지역 38도선 경비임무를 제8사단에 인계하였다. 이로써 제6사단의 경비 지역은 중동부지역의 약 90 km로 축소되었으며, 제7연대가 전방연대로서 경비를 담당하고, 원주로 이동한 제8연대는 부대정비를 끝

114 3. 오대산 지구 작전

마침 다음, 교육훈련과 오대산 서부지역에서의 공비소탕작전을 병행하고 있었다.

표 16 제 6 사단 편성표 (1) 1949.9.3.



제 6 사단 지휘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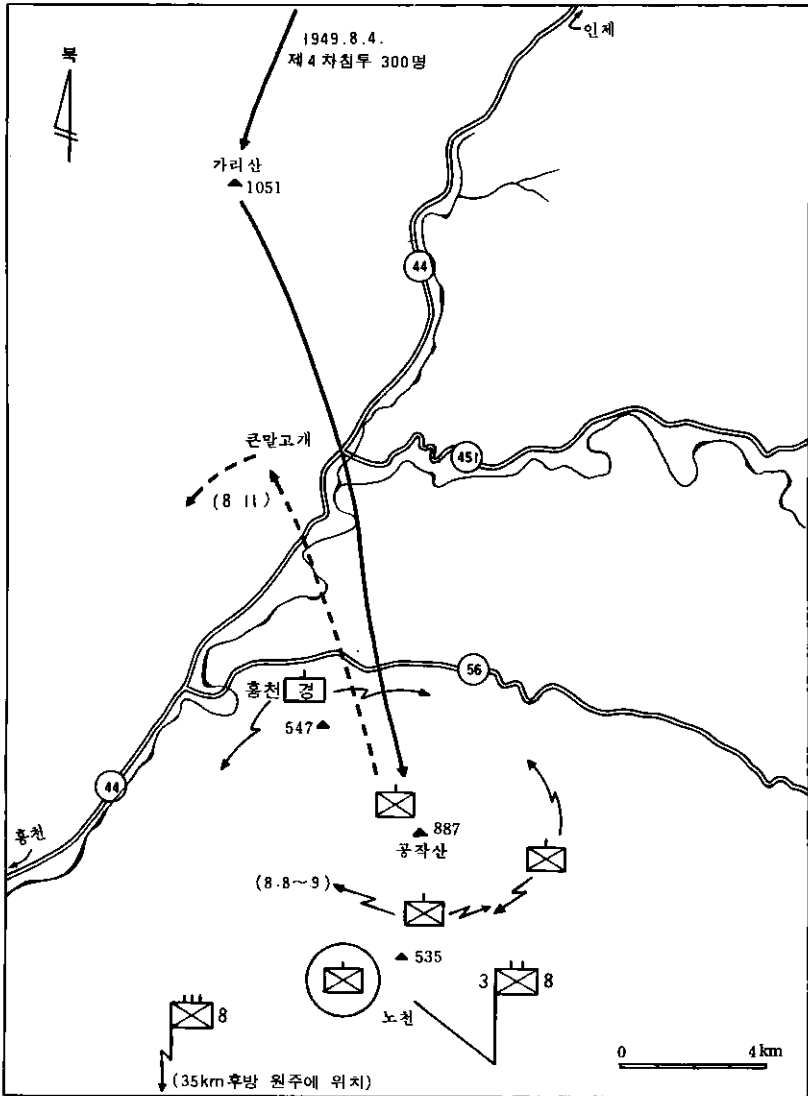
부대	구분	위 치	인적사항	비 고
사 단 장		원 주	유재홍 대령	1949. 5. 12
제 7 연대장		춘 천	고시복 중령	1949. 6. 18
제 8 연대장		원 주	이춘경 중령	1949. 5. 25

(나) 작전경과

제6사단장은 강원도 경찰국으로부터 남하하던 인민유격대가 홍천군 화촌면 공작산에 출현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 제8연대장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이들을 격멸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제 8연대장은 홍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3대대를 8월 8일 공작산으로 출동시켰으며, 제3대대는 공작산 남쪽 10 km 지점에 위치한 홍천

요도 3

공작산 소탕 작전 요도 (1949.8.11.)



군 동면 노천 지서에 대대지휘소를 설치하였다.

대대는 공작산 동쪽 5 km 지점의 공작고개 일대에 1개 중대를, 공작산 남쪽 535고지(DS 1370)에 1개 중대를 각각 배치하여 인민유격대의 남하 예상통로를 차단하였다. 한편, 홍천 경찰서 토벌대는 공작산 북서쪽인 내삼포리(DS 0710)에서 팔봉리에 이르는 능선을 점령함으로써 공작산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8월 9일 02:00, 포위망 안에 들어 있던 인민유격대는 포위망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먼저 불의의 일격을 가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군·경 토벌부대의 반격을 받게 되어 오히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투력이 격감된 이들은 8월 11일 03:00 남하를 단념한 듯 공작산으로부터 탈출하여 내삼포리의 평지를 횡단하고 홍천강을 건너 큰말고개(DS 0984)로 도주하였다. 그 후 이들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에 의해 섬멸되었다.

(4) 제8연대의 제10차침투 김무현부대 소탕작전

(1950. 3. 26.~5. 2.)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강원도 지역의 공비는 오대산, 계방산, 태기산과 태백산맥의 오지인 평창군과 정선군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준동하고 있었다.

북괴는 경북 보현산(DR 9701) 일대에서 전멸 직전의 위급한 국면을 가까스로 극복한 김달삼부대의 복상을 엄호하기 위하여, 10차로 김무현·김상호가 각각 지휘하는 2개 부대의 인민유격대 700명을 동부지역으로 동시에 남파하였다. 이 부대들은 남한에서 월북한 좌익 극렬분자로 편성된 부대이며, 김무현부대 350명은 방대

산 지역으로, 김상호부대 350명은 오대산맥을 타고 남하하였다. 그 중 김무현이 지휘하는 인민유격대는 1950년 3월 26일 인제군 기린면 치전동(DS 4504) 부근에서 38도선을 넘어 방대산(1,436m, DS 4394)을 경유하여 침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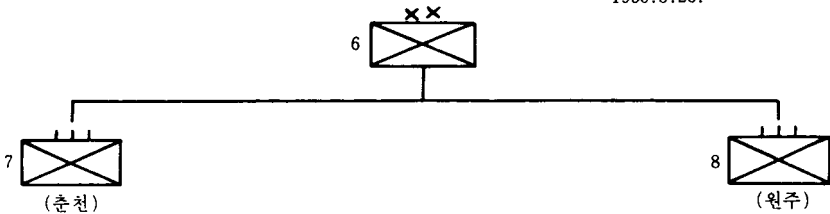
2) 토벌부대상황

제6사단은 1월 15일 신상철 대령이 3대 사단장으로 부임하였고 유재홍 대령은 제2사단장으로 전임되었다.

이 무렵, 사단은 제7연대가 춘천에 위치하여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제8연대는 원주에 주둔하면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고 있었다.

제6사단의 편성과 지휘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제 6 사 단 편 성 표 (2) 1950.3.26.



제 6 사 단 지 휘 관 현 황

부대	구분	위 치	인적사항	비 고
사 단 장		원 주	신 상 철	1950. 1. 15
제 7 연대장		춘 천	임 부 택	1949. 12. 19
제 8 연대장		원 주	이 춘 경	1949. 5. 25

(내) 작전경과

1) 울전리 및 매봉산 전투

1950년 3월 하순 제6사단은 방대산에 출현한 인민유격대가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선 홍천 경찰서와 협조하여 경찰 1개 중대 규모의 공비토벌대를 방대산 남쪽 개인산(1,324m, DS 4789) 일대의 소개인동과 대개인동에 배치하여 침투로를 차단하게 하였다. 제8연대의 1개 대대는 방대산 남쪽 16 km 지점의 문암산(1143m, DS 4481)과 매봉산(DS 3282)에서 남하하는 인민유격대를 포착 격멸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한편, 인민유격대는 개인산 일대의 경찰토벌부대의 차단선을 뚫고 맹행봉(DS 1214)을 거쳐 울전리(DS 4083)까지 침투하였다.

4월 3일 새벽에 군·경 작전부대는 울전리를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에 맞선 인민유격대도 울창한 산림과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토벌부대에 저항하였으므로 쌍방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같은날 09:00 인민유격대는 군·경 토벌부대의 끈질긴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자 분산 도주하였다.

4월 15일, 군·경 토벌부대는 울전리에서 도주한 인민유격대가 그 서쪽 8 km 지점에 있는 매봉산(1,103m, DS 3282)으로 잠입한 다음 그 곳에서 병력을 재집결시키고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을 포착하였다.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 울전리에서 매봉산으로 이동한 토벌대는 매봉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인민유격대들도 급히 편성한 진지에서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일진 일퇴를 거듭하게 되는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김무현부대는 주력이 격멸되었으며, 잔여병력 100여 명이 4월 21일 야음을 이용하여 포위망을 뚫고 다시 남쪽으로 도주하였다.

2) 홍정산 전투

제8연대장은 매봉산에서 도주한 인민유격대의 일부가 남쪽으로 도주하자, 이들을 서울-강릉 도로 북방에서 포착 격멸할 복안을 세우고 토벌부대를 평창군 진부리(DS 6165)와 봉평(DS 4563)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4월 26일, 남원에 있던 제5사단 제19연대는 원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예속되었다.

이로써 3개 연대 편제로 증강된 제6사단은 원주에 위치한 제8연대 본부를 홍천으로 이동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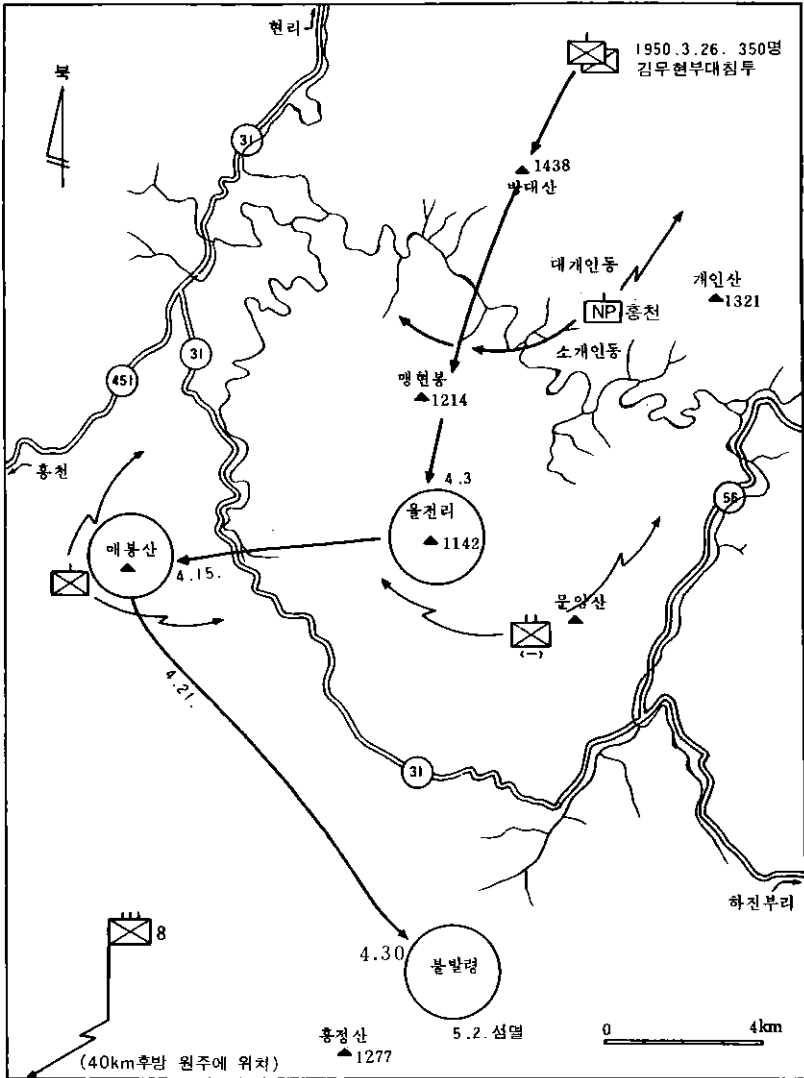
4월 30일, 토벌부대는 패주한 공비들이 매봉 남서쪽 15 km 지점의 불발령(DS 4071) 일대에서 재편성중에 있는 사실을 주민의 제보로 파악하게 되었다. 제8연대장은 매봉 배치한 토벌부대를 신속히 홍정리(DS 4067)로 이동시켜 불 주변의 홍정산(DS 3969)과 1052고지(DS 3973), 장곡리(DS 387 배치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였다.

5월 2일 새벽, 토벌부대는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자 인민유격대는 홍정리 계곡을 통하여 남쪽으로 도주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대기하고 있던 토벌부대에 포착되어 공비두목 김무현을 비롯한 인민유격대 잔당 전원이 섬멸되었다.

이와 같이, 열 번째로 남파된 김무현 일당은 군·경 합동작전으로 1개월여 만에 모두 소탕되었다.

요도 4 제10차 침투 김무현 부대 소탕작전 요도 (1950.5.2.)



(대) 작전 후의 상황

제6사단은 제19연대가 예속변경된 후 제8연대를 사단 우전방연대로서 홍천 북방의 38도선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한국전쟁 발발 5일 전인 6월 20일에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8연대는 제2연대와 임무교대하였다.

강원도 경찰국은 북괴 인민유격대의 남파에 대비하기 위하여 4월 20일부로 2개 전투경찰대대를 편성하고 그중 제8대대를 영월에, 제9대대를 춘천에 각각 배치하였다.

나. 제8사단 작전

(1) 제21연대의 김달삼부대 소탕작전

(1950. 3. 16. ~3. 23.)

(개)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1950년 3월 1일 경북지구에서 활동하던 이른바 인민유격대 제1군단은 부대를 개편하여 주력을 제58부대라 호칭하고 이호제(7차침투)로 하여금 이 부대를 지휘하여 경북 영덕군 창수면 방향으로 남하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43부대라 부르게 된 인민유격대 제1군단의 일부병력은 김달삼(4차 침투)의 지휘하에 북상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들의 북상 목적은 탄약과 식량의 부족으로 유격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월북하여 무기공급을 받은 후 인민군과 합세하는 데 있었으며, 태백산맥을 따라 오대산을 경유하여 월북할 것을 기도하고 있었음이 3월 11일 독경산 전투에서 사로잡은 인민유격대원의 진술로써 확인되었다.

인민유격대 제43부대는 3개 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부대의 병력은 고작 60여 명이었고, 경기관총·소총·권총(간부들만 휴대)을 장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 부대 전투력은 외형상으로는 보잘 것없었지만, 대원 전원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세뇌되어 있었고, 게다가 선동이나 파괴공작 같은 유격전에는 매우 숙달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유격전 수행능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2) 토벌부대상황

제8사단은 강릉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38도선 동부지역의 36 km에 달하는 38도선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오대산 및 태백산 동부지역에서 준동하는 인민유격대를 토벌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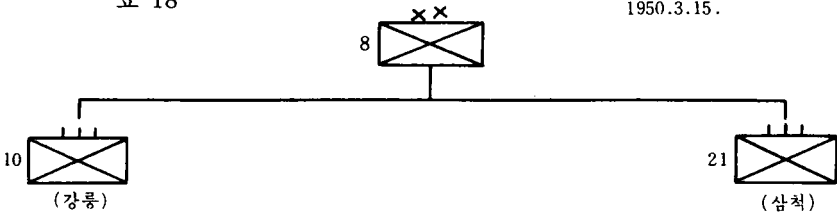
제10연대와 제21연대 간의 전투지경선은 강릉-대관령-진부-장평을 연결하는 서울-강릉 도로에 설정되어 있었다. 제10연대는 도로 북쪽의 38도선 경계를 담당하고, 제21연대는 그 남쪽의 태백산맥 동부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사단 후방지경선은 강원도와 경북의 도 경계선이 구획된 태백산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연결된 산줄기를 연하여 설정되어 있었다.

제8사단의 전투편성과 지휘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 8 사 단 편 성 표

표 18

1950.3.15.



제 8 사단 지휘관 현황

부대 \ 구분	지 휘 관	인적사항	비 고
제 8 사단	사단장(초대)	이형근 준장	1949.6.20~1950.6.10
제10년대	연대장(4대)	고근홍 중령	1950. 3. 15
제21연대	연대장(3대)	김용배 중령	1949. 9. 17

(나) 작전경과

제8사단장은 경북지구에서 활동하던 인민유격대가 북상하여 월북을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동 사단은 제1단계로 중봉산-죽지령에서 이들을 포착격멸하고, 만약, 인민유격대가 이 선을 넘어 북상할 때는 제2단계로 고양산(DS 9243)-임계(DS 8649)에서 격멸할 태세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었다.

3월 17일 07:30, 제21연대는 삼척군 도계읍 점리(ES 0122) 민가에 공비 2명이 침입하여 식사중이며, 마을 뒷산에는 공비 70명이 은거중이라는 현지주민의 제보에 접하자 지체없이 계획된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날 13:30 제21연대 제6중대는 최초 공비가 출현한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1 km 떨어진 지점에서 100여 명의 공비가 북상중인 것을 목격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병력이 열세한 점과 그가 위치한 지형이 전술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한 끝에, 어설픈 행동을 개시하다가 공비들을 격멸할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때부터 공비들이 이동한 경로를 따라 추적하던 제6중대는 19:00경에 점리 북쪽 7 km 지점에 위치한 덕향산(ES 0128) 부근 하사

머리(DS 9928)에서 무장공비 10여 명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추격하였으나 놓치고 말았다.

다음날 제21연대는 인민유격대 제43부대의 지휘관 김달삼 이하 56명이 16일 점리에서 지방공비와 합류하여 덕항산에 집결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곳에서 병력을 수습한 후 월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3월 20일 10:00, 토벌부대는 공비들이 덕항산 서북쪽 12 km 지점 매막재를 통과하여 북상중인 것을 포착하자, 지체없이 이를 포위한 다음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이들은 포위망을 빠져나가 북서쪽 반론산(DS 7644) 방향으로 북상하였다.

제21연대는 연대 전투지휘소를 삼척에서 임계(DS 8649)로, 제1중대를 반론산 서쪽 여량(DS 7646)으로 각각 이동시켜 이들 공비들이 이용할 퇴로의 길목을 차단하고, 그 주변 일대에서 탐색전을 벌이게 하였다.

한편, 제10연대도 제9중대를 정선군 북면 구절리(DS 7682)에 배치하여 공비들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로를 차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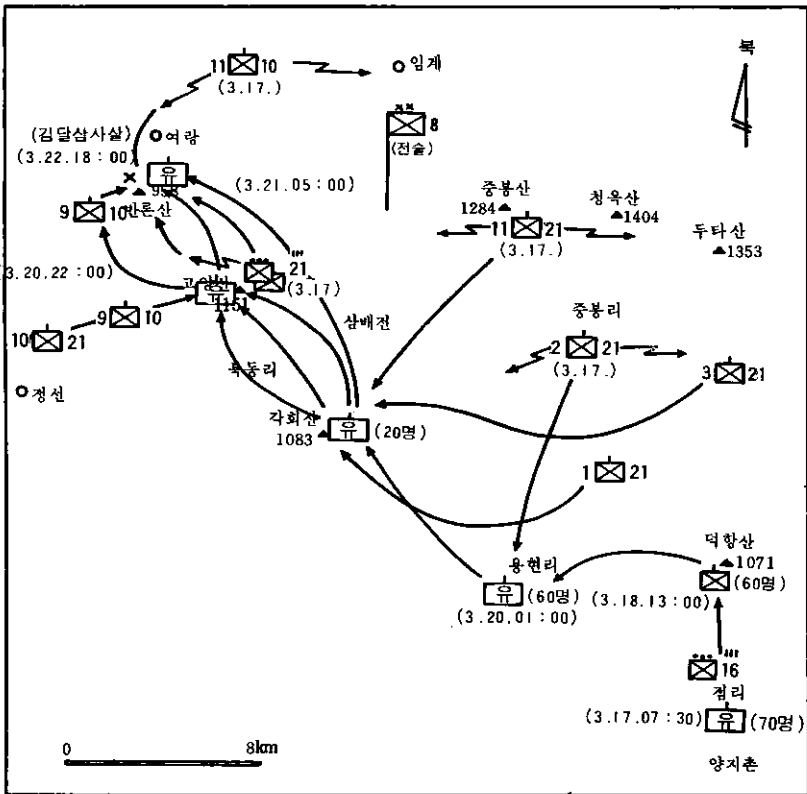
이날 11:00, 북상중이던 공비들은 정선 동쪽 15 km 지점의 각희산(DS 8334, 1,083m)에서 3개조로 분산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보고에 접한 제10연대는 이들의 북상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구절리에 배치한 제9중대를 각희산 북서쪽 10 km 지점의 하작동(DS 7536)으로 진출시켰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18:00가 되자 고양산 동남쪽 3 km 지점의 958고지(DS 8238)에 약 50명의 공비가 출현하였다. 이를 확인한 제8사단은 제21연대의 4개 중대(제 1·2·3·7중대)와 제10연대 1개 중대(-1)로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나, 공비들은 교묘하게 포위망을 뚫고 반론산 방향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제8사단은 이처럼 토벌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그 동안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벌부대의 포위망 형성속도보

다도 인민유격대 제43부대의 복상속도가 빠른 데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들의 퇴로를 원거리에서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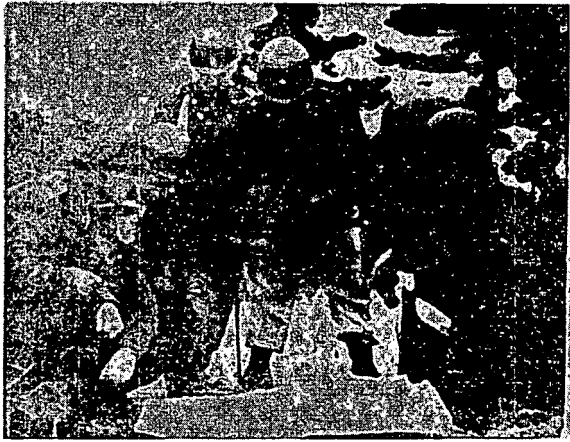
이에 따라, 토벌부대의 주력은 반론산을 목표로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해 그 주변 고지와 3차로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10연대 제9중대는 정선 북쪽 여랑리(DS 7646)로 이동하여 사단에비로 전환되었다.

요도 5 김달삼 부대 소탕작전 요도 (1950.3.16~22.)



3월 22일, 토벌부대는 인민유격대 제43부대가 집결한 반론산을 포위하고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의 전투에서 제43부대 병력은 그 대부분이 사살되거나 혹은 생포되었으며, 김달삼은 그의



김달삼부대 토벌을 위해 작전계획을 검토하는 제8사단장

참모들과 함께 18:00경 포위부대의 포위망 속에서 사살되었다.

전투간에 포위망에서 탈출한 제43부대의 소수병력은 반론산 동쪽 청옥산(DS 8643) 방향으로 도주하였으나, 토벌부대의 끈질긴 추격으로 다음날 이들 역시 섬멸되고 말았다.

제8사단은 3월 17일 책임지역내에 침투한 김달삼부대를 포착하여 작전을 개시한 지 1주일 만에 이들을 완전소탕하고, 제주도과 경북 지역에서 폭동과 파괴활동을 지휘함으로써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김달삼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교전이 끝난 뒤 시체를 검증한 결과, 김달삼의 시신에서 러시아어로 작성된 작전계획서를 찾아냄으로써 인민유격대의 남파는 북파가 단독으로 자행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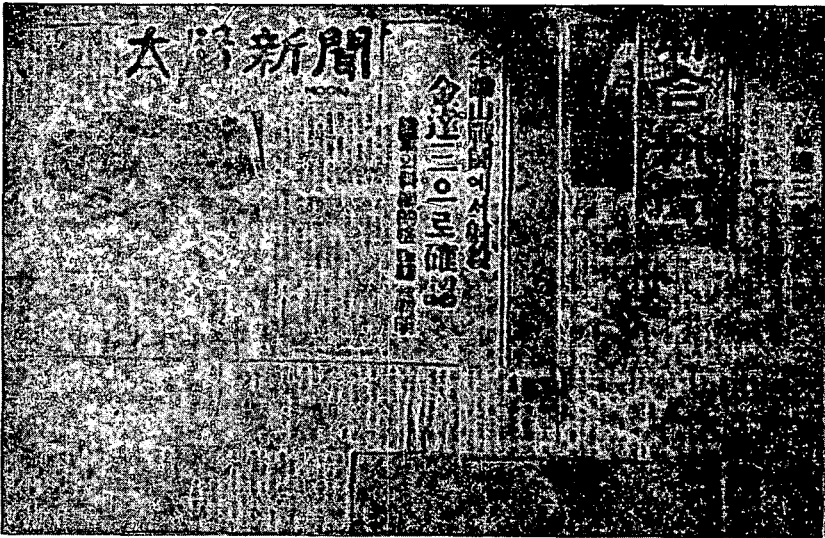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전과를 세운 제21연대 제2중대와 제11중대의 중대원 전원과 토벌작전에 참가했던 정선군 여량리 청년단원들에게는 훈·표창과 상금이 수여되었다.

제21연대의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전과 및 피해

1950. 3. 23

전 과		피 해	
사 살	생 포	전 사	부 상
54	6	4	4



김달삼 사살 확인보도, 태양신문과 연합신문의 기사내용

공비토벌을 위한 제8사단 작전명령 사본

보병 제8사단 사령부

장원 강릉(DS 9077)

1950. 03. 161030

작전명령 제17호

1. 육본 전보에 의하면 3월 13일 울진군 문지면 대여리 의구산에 침투한 김달삼부대 약 70명(완전무장)은 하기 경로로써 월북을 기도, 북진중에 있음.

· 제1경로: 매봉산(DT 121158) - 매봉산(12081605) - 죽지령(11951625) - 중봉산(11951631) - 고양산(11711628) - 태기산(11251649) - 계방산(DT 11-431669) - 아칠산(11411683) - 월북

· 제2경로: 매봉산(12081605) - 죽지령(11951625) - 중봉산(11951631) - 석병산(11841648) - 노군산(11711643) - 대관령(11701660) - 두칠봉 - 매복산 - 월북

2. 사단은 북상중인 적을 포착 섬멸하려 함.

가. 보병 제21연대장은 죽지산령, 고양산 일대를 철저히 유동 수색하는 동시에 북평 제1대대 임계중대로 하여금 수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함.

나. 보병 제10연대장은 선제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38선 일대에서 수색하는 동시에 경계에 완벽을 기하라.

다. EEI(첩보 기본요소)

(1) 보병 제21연대장은 매일 17:00까지(급하면 수시로) 태백산 전투 사령부와의 경계선 부근, 특히 삼척군 소달면 및 하장면에서 실시한 수색결과를 보고하라.

(2) 보병 제10연대장은 매일 17:00까지(급하면 수시로) 북위 38도선 부근 특히 장리 수족산 및 설악산맥 일대의 수색을 보고하라.

(3) 보병 제21연대장은 수시로 임계 지구 민심의 동향을 특히 감

시 보고하라.

- (4) 각 연대장은 특히 해안경계를 강화하며 수시로 항해선박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여 그 종합결과를 매일 17:00까지(급하면 수시로) 보고하라.

3. 행정사항

유동수색대의 보급은 3끼식 1주일분을 휴대하라.

4. 여는 사단사령부에 재함.

사단장 육군준장 이 형 근

공비들에게 권고하는 제8사단의 귀순 권고문

친애하는 김달삼 군

본관은 귀군의 귀순을 중심으로 권고하며 환영한다.

본관은 과거 통위부 참모총장 재직시 귀군이 제주도에서 아군 부대장을 통하여 본관과 면담할 것을 요청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제반사정으로 면담을 못 하고 귀군과 같은 우국청년을 구출치 못한 채 도미한 것을 상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천도는 결코 무심치 않아 귀군과 본관이 굳게 약속할 날은 도래하였다.

금번 귀군이 휘하부대와 귀순하여 온다면 본관은 귀관 및 휘하장병의 생명은 물론 신분 일체를 절대로 책임지고 보장할 것이며, 본관 예하 전장병은 본관과 더불어 중심으로 환영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는 바이다.

친애하는 김달삼 군

귀군이 취할 길은 단 둘이 있으니 하나는 본관과 더불어 전도를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요, 하나는 반도의 오명 아래 천추의 유한을 품고 귀중한 생명을 희생할 뿐이다.

따라서, 귀군이 귀순을 원한다면 광동(점리 북서 1 km) 혹은 중봉리(광

동 서쪽 1 km)에 있는 이 부대에 연락자를 파견하면 그편에 세부방법을 알리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귀군을 완전 포위하고 대기중인 아 정예부대 수천의 장병이 최후의 수단으로써 혈투를 머금고 단호히 섬멸할 것이다.

친애하는 김달삼 군

본관도 귀관과 같은 단군의 피가 끓는 청년이다. 본관은 충정으로 귀관을 살리며 굳게 손잡고 우리의 전도를 개척하여 나갈 것을 원하며, 또한 반드시 본관을 믿고 일대 용단으로서 귀순을 결심하여 줄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1950년 3월 20일

동해사단장 육군준장 이 형 군

(2) 제10연대의 인민유격대 김상호부대 소탕작전

(1950. 3. 28. ~ 4. 9.)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북괴는 1950년 3월 중순 김달삼부대가 경북 보현산 지역에서 강릉-서울간 국도 이남까지 북상하여 오자, 이들 부대의 월북을 엄호하기 위하여 김상호를 부대장으로 한 약 350여 명의 인민유격대를 3월 24일 양양에서 남파시켰다. 이들은 이날 22:00 야음을 이용하여 38도선을 넘어 태백산맥을 따라 침투하였다.

3월 26일 이들은 38도선 이남 15 km 지점의 응복산(DS 6292)을 통과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오대산으로 남진하여 그 곳에서

숙영하였다. 이들 병력들은 오대산까지 이동하는 동안 김상호가 직접 지휘하였으며 이 곳에서 3개 중대로 재편성되었다. 그리하여 1개 중대는 동대산(DS 6580, 1,434m)을 거쳐 동쪽으로, 1개 중대는 노인봉(DS 6881, 1,388m)과 황병산(DS 7178, 1,288m), 그리고 나머지 1개 중대는 오대산 남쪽 탐동리 무명고지(DS 5975, 1,359m)로 각각 침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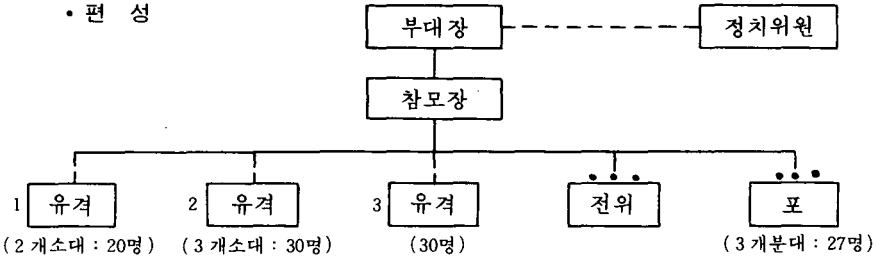
김상호부대의 편성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김상호 부대 편성 및 장비표

1950.3.27.

표 19

• 편 성



• 장 비

M-1 소총	99식소총	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소화기실탄
212정	78정	8정	14정	9정	3문	2~4발 (개인당)	100발 (개인당)

2) 토벌부대의 상황

제8사단은 1950년 3월 23일 북상하던 김달삼부대를 반론산 일대에서 섬멸하자 곧 토벌부대를 철수시켜 38도선 경계와 후방지역 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즉, 제10연대는 서울-강릉 도로 이북의 책임지역에서 38도선 경계 및 지역내 공비 소탕임무를 수행하고, 제21연대는 그 이남에서 사단 후방지경선(강원도계)까지

의 책임지역내에서 주요시설 경비와 공비소탕작전을 병행하고 있었다.

(내) 작전경과

3월 28일 14:00, 제10연대 수색소대는 평창군 진부면 동대산에서 남하 침투한 김상호부대 소속의 공비 100여 명을 포착하였다. 사단은 이들 공비를 토벌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제10연대를 우선 투입하여 노인봉·황병산·탐동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다음날에는 제10연대 제7중대가 노인봉에서 3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한 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제10연대는 계속해서 제2대대 및 제3대대 병력을 투입하였고, 제21연대도 제1대대와 제3대대에서 각각 2개 중대씩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제8사단이 전개한 김상호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은 4월 9일까지 13일 동안 주로 오대산과 황병산 일대에서 전개되었으며, 토벌부대는 이 기간중에 20여 회에 걸쳐 20~100명 단위로 출현하는 김상호부대와 치열한 접전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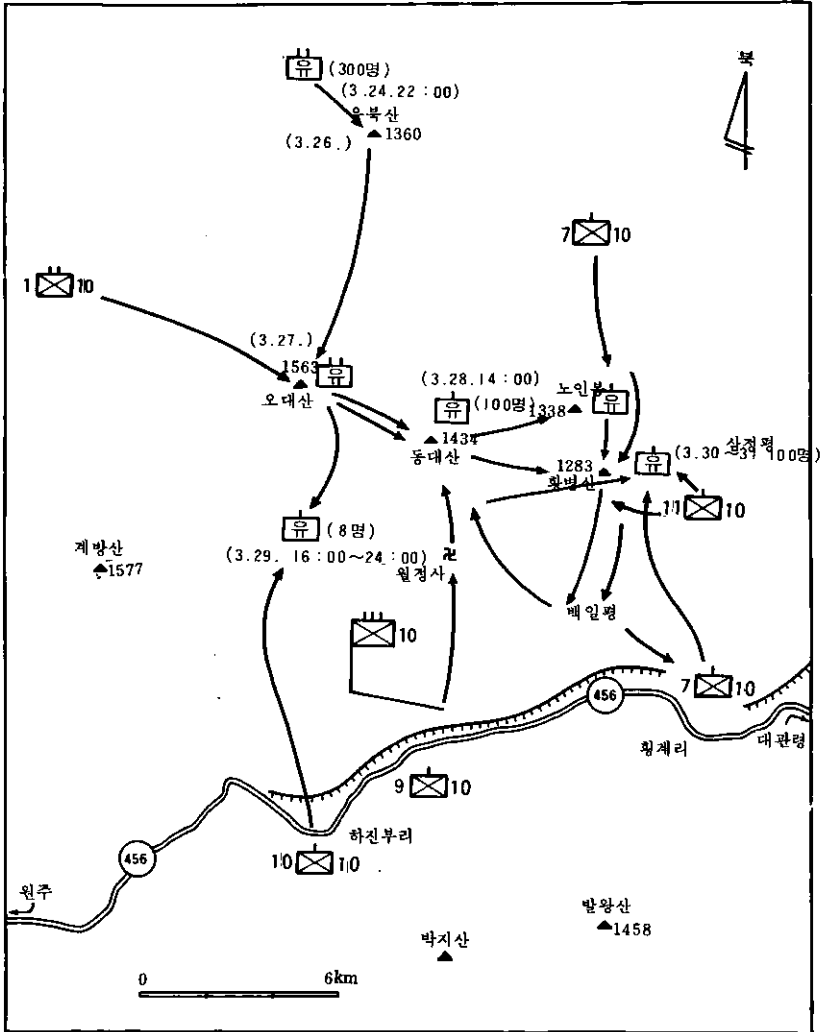
토벌작전 결과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전과 및 피해 1950. 4. 9

단위 : 명

전과		피해	
사살	생포	전사	부상
246	51	12	22

요도 6 김상호 부대 소탕작전 요도 (1950.3.24~4.9.)



(3) 제21연대의 이호제부대 소탕작전

(1950. 4. 5. ~ 4. 9.)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1949년 9월 20일 북괴 인민유격대 이호제부대 약 360명은 섬멸될 위기에 직면한 김달삼부대를 증원할 목적으로 침투하였다. 이들은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하던 중, 오대산 일대에서 군·경 토벌부대에 포착되어 주력이 격멸되고 약 100여 명만이 간신히 교전지역에서 탈출하였다. 그 후 이들 패잔병들은 경북 보현산(DR 9701)에서 준동중인 김달삼부대와 합류하여 이른바 인민유격대 제I군단에 흡수되어 경북 일대에 출몰하면서 약탈·방화·학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1949년 가을부터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자, 인민유격대 제I군단은 다시 소단위부대로 분산되었다. 이때 이호제부대는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 월북할 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여 다음해 3월에는 삼척군으로 진출하였다. 그 얼마 뒤 이들은 도계읍 동쪽 12 km 지점의 사금산(DS 1317, 1,092m)에서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토벌부대와 조우하여 교전을 치른 끝에 분산되었다. 이 이후, 20여 명으로 병력이 감소된 이호제부대는 소총과 권총밖에 장비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유격부대로 전락되어 있었으며, 거기에다 보급품은 현지조달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른 산악전투로 인하여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기동력이 뛰어났고 간부들의 사상적 무장이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원들의 일부는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월북하였다가 강동정치학원에서 단기간의 유격교육을 받

고 남파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대의 사기가 높다고만은 할 수 없었다.

2) 토벌부대의 상황

제21연대는 남쪽에서 부상하는 이호제부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북평에 주둔한 제1대대(대대장: 윤태현 소령)를 정선 북동쪽 20 km 지점의 임계(DS 8749)로 이동시켰다. 바로 이 무렵 오대산 일원에서는 제10연대가 김상호부대(10차침투 인민유격대)와 교전하고 있었다.

(내) 작전경과

4월 5일 13:00 이호제부대 무장공비 20여 명이 삼척군 미로면 활기리(ES 0535)에 출현하였다. 제8사단은 제21연대 제1대대를 주축으로 한 토벌부대의 원활한 작전통제를 위하여 제21연대 부연대장 김영로 소령을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전투사령관은 다음날 임계에 전투지휘소를 설치하고 토벌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제1대대장은 작전 초기에 이호제부대의 퇴로를 신속히 차단하여 죽곡 일대에서 이들을 격멸할 복안을 세웠다. 이를 위하여 그는 활기리와 청옥산(DS 9643)의 중간지점인 뱃재(ES 0237, 죽치령)와 큰재(ES 0132)에 제2중대를 배치하고 제3중대를 그 동쪽의 뱃재와 성지바위(ES 0637)에 이르는 계곡에 투입하였다.

4월 6일, 제3중대는 뱃재 부근을 수색하다가 약 30명의 공비를 목격하자 즉시 일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은 응전하지 않고 재빨리 북상하여 두타산(ES 0041, 1,353m)을 거쳐 그 서쪽 청옥산(1,404m)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제1대대장은 제3중대로 하여금 공비들을 계속 추적하게 하는 한편, 제2중대와 중화기중대를 청옥산에 투입하였다.

다음날 제2중대는 청옥산을 수색하던 중 잠복중인 공비를 먼저

목격하여 선제공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제3중대는 중봉산(DS 9243, 1,259m) 북쪽 8 km 지점의 외도전(DS 9250)에서 내도전(DS 9347)을 거쳐 사림리에 이르는 중봉산 북쪽에서 중봉산 방향으로 탐색과 매복을 병행하였다.

제1대대장은 청옥산 일대에서 이호제부대와 접근하게 되자, 이산 남쪽 10 km 지점의 삼척군 하장면 광동리(DS 9532)에 배치한 수색대와 중화기중대 그리고 대대 본부중대를 청옥산에서 북서쪽 10 km 떨어진 지점의 임계리로 이동시켜 이들 중대로 하여금 예상되는 퇴로의 길목을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8일 19:00, 이호제부대 병력으로 보이는 공비 30여 명이 번천리(DS 9938)에 출현하였다.

이를 확인한 토벌부대는 중봉산 일대에서 이들의 퇴로 차단을 겸한 수색을 반복하였다.

수색소대와 중화기중대는 다음날 16:00 중봉리(DS 9539)에서 이호제부대와 조우하여, 교전 끝에 부대장 이호제와 그의 작전참모를 사살하였으며, 그 후 도주하는 패잔병을 추격하여 거의 모두를 격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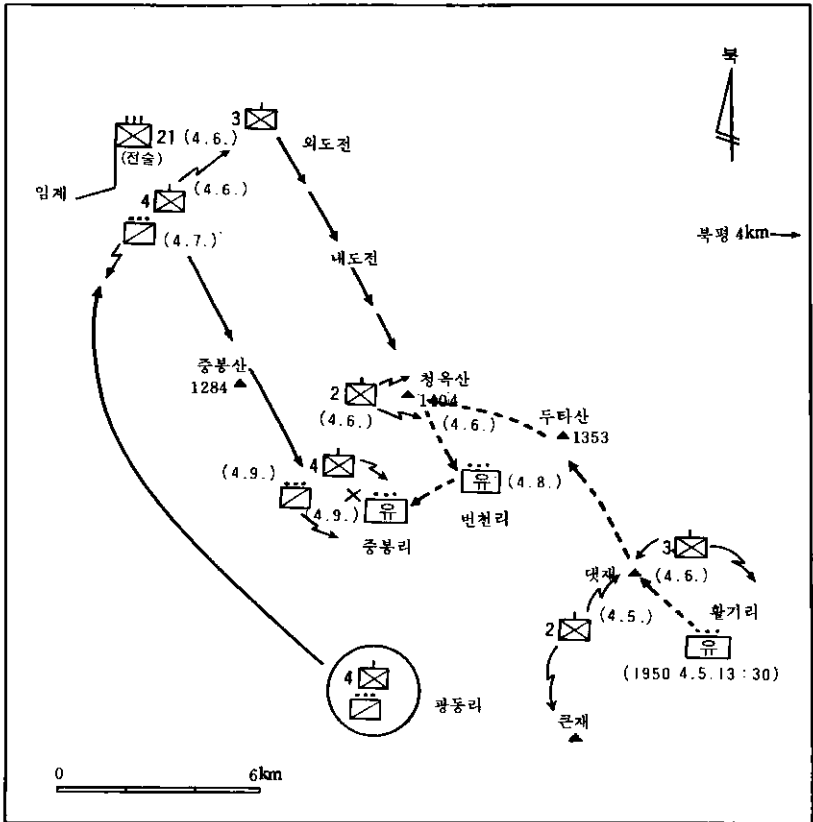
이로써 제8사단 제21연대는 4월 5일 책임지역내에 침투한 이호제부대를 5일간에 걸쳐 펼친 끈질긴 소탕작전으로 이들의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작전기간 중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전과 및 피해

전 과				피 해	
사 살	소 화 기	지 도	기 타	전 사	부 상
12명	4 정	15매 (1:5만)	카메라 1 대	2 명	2 명

요도 7 제21연대의 이호제 부대 소탕작전 요도 (1950.4.6~9.)



작전이 종료된 후 제21연대 제1대대는 북평(동해시)으로 복귀하였다. 그러나 제3대대는 제9중대와 제11중대를 임계와 장성(현재, 태백시)에 각각 잔류시켜 탄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 경비와 대관령·삼당령 일대에서 출몰하는 패잔병의 소탕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4) 제21연대의 분조침투유격대 소탕작전 (1950. 6. 10.~6. 20.)

(가) 작전배경

1) 공비준동상황

북괴는 10차에 걸친 인민유격대의 남침 공작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들을 남파한 사실이 백일하에 폭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즉, 북괴는 소련간첩으로 유명한 오진우를 교장으로 하는 제3군관학교를 1949년 가을에 함경북도 회령에 설치하고, 강동정치학원의 대남유격대 양성사업을 이 학교에서 수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북괴는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이 곳에서 4,000~6,000명의 유격대를 양성하고 제766군부대를 창설하여 전면남침의 일환으로 6월 중순 간성 지구에 집결 대기시켰다. 제766군부대는 특수임무를 띤 유격부대로서 제3군관학교에서 양성되었다. 오진우 총좌(대좌)가 지휘하는 이 부대는 1949년 가을부터 중공에서 반입한 미제 무기로 장비하고, 유격전과 선동·파괴공작과 같은 비정규전을 전개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 부대는 북로당 출신 간부와 강동정치학원에서 배출한 남한 출신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950년 봄에는 비정규전과 정규전의 배합작전 수행을 위해 중공군 출신 한인계 장병의 일부도 배치되었다.

북괴는 전면남침을 위한 초기작전 계획에 따라 6·25를 10여 일 앞두고 이들 비정규전부대의 일부를 약 30여 개의 분조(5~7명)로 나누어 오대산·계방산·방대산 일대로 침투시켰다. 이때 남파된 비정규전부대들은 동해안의 국군 제8사단 병력을 분산시키고, 이 사단 후방지역을 교란시킬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음이 6·25 직전에 계방산 일대에서 사로잡은 북괴군 비정규전부대 대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2) 토벌부대 상황

제8사단은 1950년 6월 10일 초대 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이임하고 2대 사단장으로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을 역임한 이정일 대령이 취임하였다.

이 사단은 제10연대와 제21연대가 월북을 기도하던 김달삼, 이호제부대와 이들을 엄호하려고 남파된 김상호, 김무현 부대 등 북괴 인민유격대를 태백산맥 일대에서 격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부대의 사기가 매우 높았다.

(내) 전투경과

제8사단장은 북괴의 비정규전부대가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침투하자, 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제10연대 제1대대를 소탕작전에 투입하고 사단예비인 제21연대로 하여금 서울-강릉 도로 북쪽에서 이들의 통로를 차단하도록 조치하였다.

제21연대는 연대본부를 삼척에 두고 있었다. 연대는 제2대대에 1개 중대(제3대대 제10중대)를 배속시켜 증강된 1개 대대를 6월 15일 진부리(DS 6164)로 출동시켰다. 목적지에 도착한 제2대대장은 제5중대와 제7중대를 웅복산(DS 6291, 1,281 m)과 대궁산(975 m) 동남쪽에, 제6중대를 계방산(DS 5375, 1,577 m) 남쪽에 그리고 제8중대와 제10중대를 대관령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때 제8사단은 험준한 산악지대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북괴 비정규군 통로의 길목마다 소대단위 병력을 배치하여 매복과 수색을 병행하는 작전개념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은 크게 주효하여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 일간에 걸쳐 도처에서 치른 교전으로 북괴 비정규전 병력 55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이들 포로의 진술을 통하여 침투병력의 규모는 30개조,

약 200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무렵 38도선에 배치된 부대들은 연일 북괴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할 징후를 포착하고 있었다. 제8사단장은 토벌작전을 종결지을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10연대 제1대대와 제21연대의 일부병력을 철수시키고, 제21연대 제2대대 3개 중대로 하여금 소탕작전을 계속하게 하였다. 이 3개 중대는 북괴군의 전면남침이 개시될 때까지 계방산·대관령 일대에서 토벌작전에 임하다가 6월 26~27일 사이에 원대복귀하였다.

4. 태백산 지구 작전

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1949. 9. 28. ~ 50. 3. 15.)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대구에 주둔하던 제6연대의 1, 2차 반란주모자들은 포항 주둔 제6연대 제4중대 남로당 세포들이 3차반란(1949. 1. 30)을 일으키자 이들과 합류하였다. 약 80명으로 증가된 이들 반란군들은 그 직후 태백산맥을 타고 북상하면서, 당시 태백산(DS 9204, 1,561 m), 문수산(DR 8392, 1,206 m), 일월산(ER 0872, 1,219 m) 일대에 거점을 두고 준동하던 공비들과 합류함으로써 이들의 병력은 280여 명으로 대폭 증강되었다.

8월 4일에 이르러, 경북 지구 공비는 지휘체제를 재정비하여 제 3병단을 편성하였다. 이 무렵, 김달삼(제주도 4·3폭동 주모자)이 지휘하는 인민유격대는 태백산을 거쳐 일월산까지 침투하여 지방공비를 규합하는 한편, 북괴가 해상으로 수송한 무기를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에서 인수하여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남로당의 9월공세를 전개하기 위하여 경북 일대에서 지서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반행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나) 토벌부대의 상황

1949년 8월 말, 태백산 지구 및 경북 지구의 공비소탕작전은 제2사단 제16연대(충주)와 제3사단 제22연대(대구), 제8사단 제21연대(삼척), 그리고 독립제1대대(영월)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육군본부는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북 단양에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제2사단 제16연대장 이정일 대령을 임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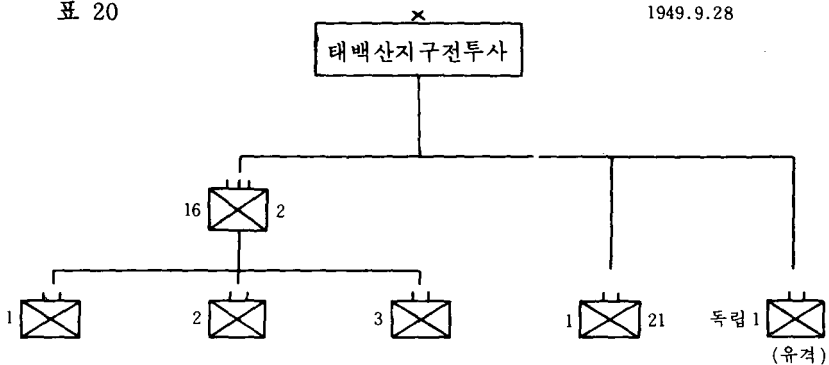
이 사령부는 제2사단 제16연대의 3개 대대와 제8사단 제21연대의 1개 대대 그리고 삼척 주둔 독립제1대대 등 5개 대대를 배속받아, 단양·제천·영월·정선·삼척·예천·안동·울진군의 총 8개 군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태백산 지구 전투사령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태백산 지구 전투 사령부 편성표

표 20

1949.9.28



(2) 작전경과

작전개념: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은 산간벽지에 있는 화전민들의 가옥이 모두 지방공비와 북괴 인민유격대들의 은거지로 이용되고 공비들이 주민과 밀착하여 식량을 공급받고 주민들을 이용하여 통신연락과 군·경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정황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지에 무장공비가 출현하여 식량과 식사 그 밖의 여러 가지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렇듯, 주민들이 강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관계당국에서는 그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공비에게 협조하였다 하여 좌익분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해당주민은 입산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어, 결국에는 사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 공비의 일당이 되어 버리는 일이 허다하였다.

전투사령관 이정일(개명, 성가) 대령은 이와 같은 정황을 깊이 분석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무엇보다도 먼저 공비와 주민을 분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내다보고, 다음과 같은 작전개념을 세우고 이에 따라 토벌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산간벽지의 가옥들은 파괴 또는 소각하는 대신 일정지역에 50호 단위로 집단부락을 만듦으로써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와 산간벽지 주민과의 접촉을 단절시킨다.
- ② 인민유격대의 준동지역내에 있는 지방 공산세포조직을 와해 시킴으로써 이들에 대한 현지 지원세력을 제거한다.
- ③ 토벌작전은 대대단위로 실시한다. 단, 토벌작전 임무를 부여 받은 대대는 예상되는 침투경로상의 요소마다 매복조와 경계

분초를 설치한 후에 대대주력으로 공비들을 포위 격멸한다.

집단부락 설치: 이 작전개념에 따라 집단부락 설치사업이 10월 초순에 착수되었다.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방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이장과 마을청년단의 양해와 협력 아래 도로변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단부락을 만들기로 하였다. 부락과 부락간의 연락은 릴레이 식으로 전달하고, 만약 어느 집단부락내에 불순분자나 공비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락 전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집단부락 조성사업을 1개월 동안에 종결짓기를 희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한 달이 지났어도 전혀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산간부락 주민들의 대부분이 공비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공비의 일원임이 밝혀졌다.

전투사령관은 이와 같은 현지실정을 파악하자 강권을 발동하여 20일 이내에 집단부락을 설치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한편, 만약 이 조치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주민은 공비로 간주한다는 계엄포고문을 공고하였다. 이리하여 집단부락 조성작업이 강행되었으나, 지방민의 여론이 비등하자 이 문제는 국회로 비화하게 되어 이 곳 출신 국회의원들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을 파면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 이청천(본명, 지대순)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조사단이 구성되어 신태영 육군참모총장과 이호 치안국장이 현지조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의 정황은 이호제가 지휘하는 7차 북괴인민유격대 360명이 태백산에 침투하였으므로,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산하의 토벌부대가 이들과 격전을 치른 끝에 30여 명을 사로잡고 박격포, 기관단총을 비롯한 많은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조사단이 현지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때마침 장성 지구에서 토벌부대가 이호제부대의 주력을 추격하면서 교전 중에 있었다. 현지조사단은 다방면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서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이 취한 대책을 대신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산고 끝에, 집단부락이 조성(총이주 가옥 수:3,000호)되자, 북괴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은 그들의 행동근거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침투경로마저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상황이 이처럼 불리하게 변화되자, 태백산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던 인민유격대와 공비들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행동할 수가 없게 되어 안동 지구로 몰려들게 되었다.

김달삼, 보현산에서 동해여단 편성: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매우 효율적인 토벌작전으로 인하여 주력을 상실한 김달삼부대는 194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각 지역에서 패잔병을 수습하면서 영천 북쪽 20 km 지점에 있는 보현산(1,124m)으로 이동하였다. 이리하여, 보현산에 집결한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 병력은 360여 명이 되었다. 김달삼은 이 병력으로 동해여단을 편성하여 경북 일대에서 다시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7차로 남파된 이호제부대 잔여병력 100여 명을 수습함으로써 병력이 500명으로 증가하자 동해여단을 제1군단으로 재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군·경 토벌부대의 협조된 소탕작전에 의해 그 후 격멸되었다.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해체: 육군본부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작전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이 지역내에서 공비들이 준동하지 않게 되자, 1950년 3월 15일부로 이 전투사령부를 해체하는 동시에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제2사단 제25연대에 부여

하였다.

작전기간중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총 합 전 과

사실	M-1소총	CAR소총	장총(소제)	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수류탄	각종실탄
73명	17정	12정	23정	3정	11정	4정	53발	1,600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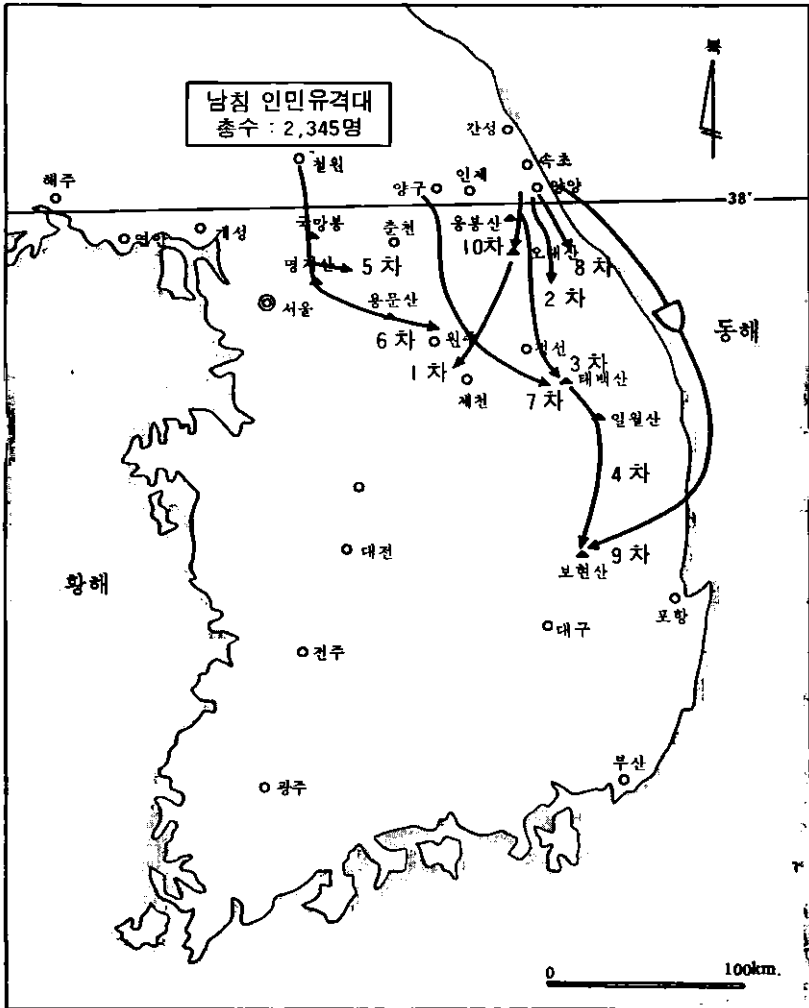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김달삼부대와 이호제부대는 각각 분리되어 병력 및 장비의 보충을 받기 위하여 태백산맥을 타고 월북을 기도하였으나, 북상 도중 강원도 정선군 반론산 및 청옥산 일대에서 군·경 부대에 의하여 대부분이 격멸되었다.(3항 나. 참조)

북괴 인민유격대의 침투는 1948년 11월 14일의 1차침투를 효시로 하여 1950년 3월 28일까지의 1년 반 동안에 10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침투병력은 총 2,345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군·경의 협조되고 효율적인 토벌작전에 의해 2,000여 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는 300여 명의 인민유격대가 살아 남은 셈이 되지만, 시체가 확인되지 못한 것과 북으로 도주한 병력도 여기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남한내에 은거하는 인민유격대 병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1950년 6월 25일 북괴군이 전면남침을 감행한 초기에 공비들이 준동하거나 비정규전을 전개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북괴는 인민유격대를 남파함으로써 국군 4개 사단과 경찰병력의 일부로 하여금 후방지역에 분산 주둔하면서 대비정규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38도선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한사회의 혼란 조

성과 대비정규전에 투입된 국군부대들이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마저 가지지 못하게 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었던 것이다.

요도 8 북괴군 인민유격대 침투 상황 요도 (1948.11.14~1950.3.28.)



제 3 장 전쟁기간중 유격대 및 공비소탕작전

(1950. 6. 25. ~ 1953. 7. 27.)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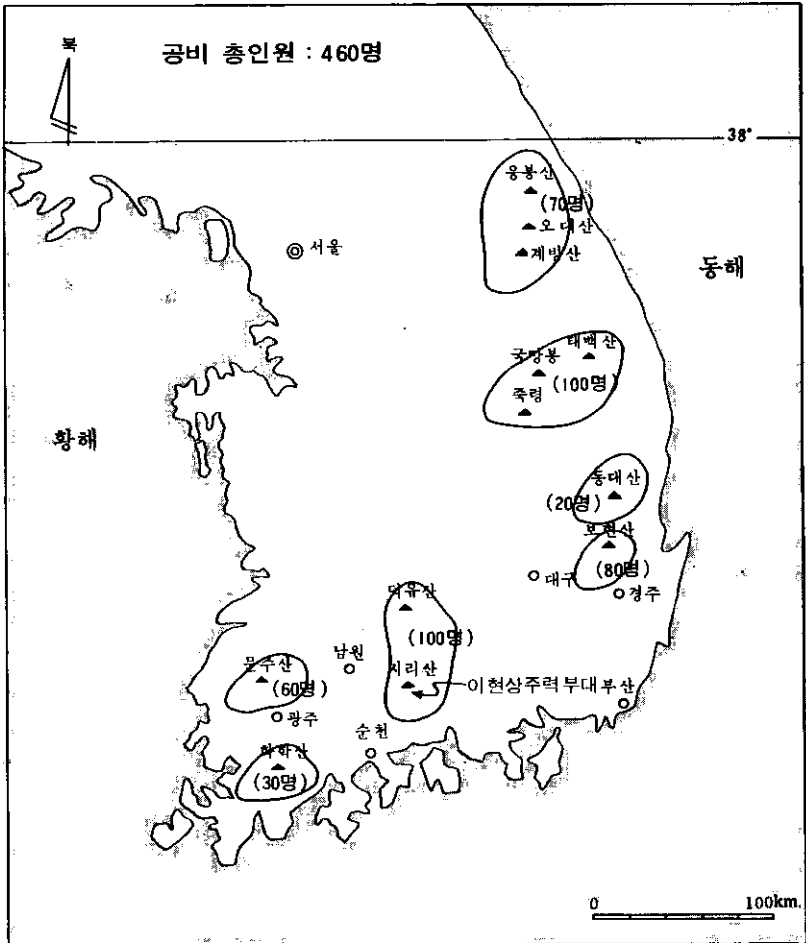
북괴는 그들이 전면남침을 개시하게 되면 남한 각 지역에서는 지하에 잠적했던 남로당원과 지방공비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한국군의 후퇴작전을 방해하면서 후방교란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군과 경찰은 전쟁 전에 이미 남로당을 발본색원하고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여 3,000여 명에 달하던 공비들의 대부분을 격멸하였다. 이리하여 전쟁 발발 직전에는 그들 중의 460명 정도가 조직이 와해된 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북괴가 남침 당일 동해안의 임원진에 상륙시킨 제766군부대도 태백산맥을 통해 경북 보현산까지 침투하였으나, 국군과 경찰에 의해 격멸되었으므로 그들의 후방교란작전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전쟁기간중 전선 후방지역에서 활동한 공비는 북괴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공세가 좌절되고,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전선에서 감행한 총반격으로 북괴군이 압록강 선까지 후퇴하는 과정에서 미처 후퇴하지 못한 패잔병들로 구성되었다. 즉, 1950년 9월 27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부대와 낙동강 전선에서 북상한 유엔군부대가 평택 북방 서정리에서 연결하게 되자, 마산·창령 전선에 투입되었던 북괴군 제4·제6·제7·제9·제10사단은 그들

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이때 이들의 주력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타고 퇴각하였으나 패잔병 10,000여 명은 호남·영남 지역의 지방공비와 합류하여 지리산 일대에 활동근거지를 구축한 후 비정규전부대를 조직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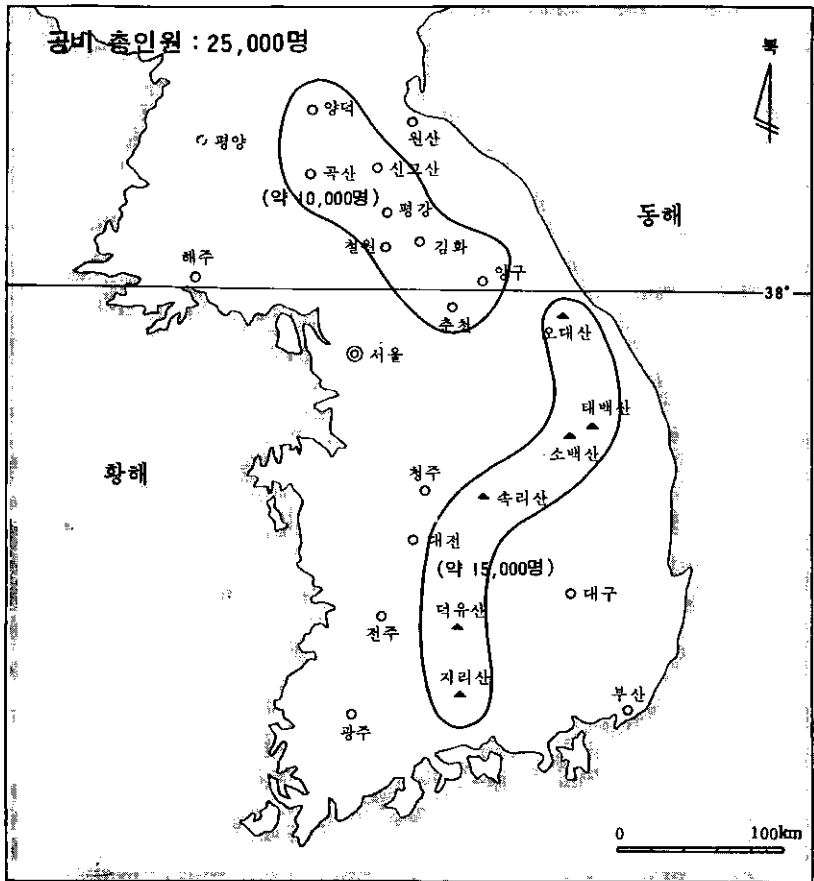
요도 9

개전직전 공비 분포도 (1950.6.24.)



국군이 한·만 국경선 부근까지 진격하고 있던 1950년 10월경, 이들 비정규군부대의 규모는 38도선 이북지역인 양구·평강·곡산·양덕 일대에 약 10,000명, 38도선 이남의 오대산·소백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 일대에 약 15,000명으로 도합 25,0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철의 삼각지대(철원·평강·김화)에 소

요도 10 1950년 10월 말경의 공비 분포도 (1950.10.31)



위 제2전선을 형성한 비정규군부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부대시설과 물자를 파괴하며 작전병력을 습격하는 등 국군과 유엔군 작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국군은 1950년 10월 초에 접어들면서부터 병참선이 연장되고 점령지역이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북괴군의 패잔병을 주축으로 한 공비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치안유지가 점차로 어려워지게 되자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정규작전부대를 후방지역에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국군은 후방지역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을 창설하고 동년 10월 중순부터 강원도와 영남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에서 조직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 후, 북괴가 남파한 남부군(일명, 조선인민유격대 독립제4지대)이 출현하게 되자, 호남·지리산 일대에서 치열한 소탕작전이 전개되었으며, 태백산 지구와 제주도에 서도 패잔병과 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제3군단의 후방지역작전: 1950년 10월 미 제9군단이 후방지역작전을 담당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청천강 선으로 이동하게 되자, 동년 10월 중순 국군 제3군단이 창설되어 육군본부 직할로 있던 유격사령부와 그 예하의 6개 유격대대 그리고 제2·제5·제9·제11사단을 배속받아 후방지역 공비소탕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 제3군단은 전선 후방에서 준동하던 북괴군 제5·제8·제11·제13사단 낙오병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소탕하는 데 주안을 두고, 강원도 평강(제2사단), 안동(제5사단), 충남 대둔산(제9사단), 호남지역(제11사단)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3군단의 공비소탕작전은 동년 12월 10일 동 군단이 양평으로 이동하여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종결되었다.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호남·지리산 지구의 비정규전부대는 낙동강 전선까지 남하하였다가 퇴로가 차단된 북괴군 패잔병과 지방공비가 주축이 되어 지리산 일대에 거점을 구축하고 유격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제3군단에 배속된 제II사단이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1951년 4월에는 제8사단이 투입되었다. 그 후 육군은 남한 공비의 총책인 이현상이 이끄는 남부군의 출현으로 인하여 후방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11월 말에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그 이듬해 3월 중순까지 수도사단, 제8사단, 서남지구 경비사령부,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병력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위세를 떨치던 남부군을 비롯한 지방공비의 대부분이 격멸되었다.

1952년 7월 중순, 또다시 공비의 준동이 재개되자 제I사단이 호남지구에 투입되어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태백산 지구 작전: 중동부 산악지역인 안동·영덕 지역에서도 패잔병 집단과 지방공비가 합세하여 북상통로를 따라 월북을 기도하면서 안동-영덕 간의 도로 차단을 위시한 차량 행군체대의 습격과 식량약탈, 주민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경북 및 강원도 일대를 교란하고 있었다.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유엔군 사령관은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I해병사단을 포항에, 한국 해병 독립제5대대를 안동에, 한국 해병제I연대를 영덕으로 각각 이동시켜 군 보급로 확보와 공비소탕작전에 임하게 하였다.

그 후, 제2사단이 1951년 2월 중순 경북 안동 지역으로 이동하여 3개 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그리고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 예하 2개 경찰대대를 통합지휘하여 경북·충북 일대에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비들은 토벌부대의 포위망을 뚫고 태백산맥을 따라 계속 북상하면서 강원도 정선 일대에서 출몰하였다. 제9사단은 1951년 3월 중순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일대에서 이들을 맞아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북상공비의 대부분을 격멸하였다.

제주도 지구 작전: 제주도 4·3 폭동사건이 발생한 후 1년여에 걸친 공비토벌작전으로 한라산에 잠복하고 있던 제주도 지역 공비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수도 서울이 재차 피탈된 것을 계기로 또다시 도내 여러 곳에서 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군은 1950년 1월 중순 제주도 지역에서 개전 직전에 공비토벌을 담당할 경험이 있는 해병 1개 중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이때 해병대는 제주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아 군·경 합동으로 2개월 반에 걸쳐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철수하였다.

그 후 공비들의 활동이 재차 빈번해지면서 각종 군사시설이 위협을 받게 되자, 1953년 2월 초순 육군본부는 대비정규전 전담부대인 육군 무지개부대를 투입하여 3개월에 걸친 토벌작전을 전개한 끝에 제주도의 공비를 완전소탕하였다.

1. 제3군단의 후방지역작전 (1950. 10. 16. ~ 12. 17.)

가. 개 요

(1) 제3군단의 창설

1950년 9월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으로 인하여 퇴로가 차단당한 북괴군의 패잔병들은 그때까지 후방 산악지역에서 방황하던 공비들과 합세하였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전투력을 재정비하고 병참선을 차단하거나 전투근무지원시설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 무렵, 미 제8군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진작전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군예비로서 후방지역에서 활동하던 미 제9군단을 청천강 전선에 투입하게 되었다.

이에, 육군은 1950년 10월 15일 후방지역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을 창설(작전명령 제216호)하고 유격사령부(6개 유격대대)와 제2사단·제5사단 그리고 신편중에 있던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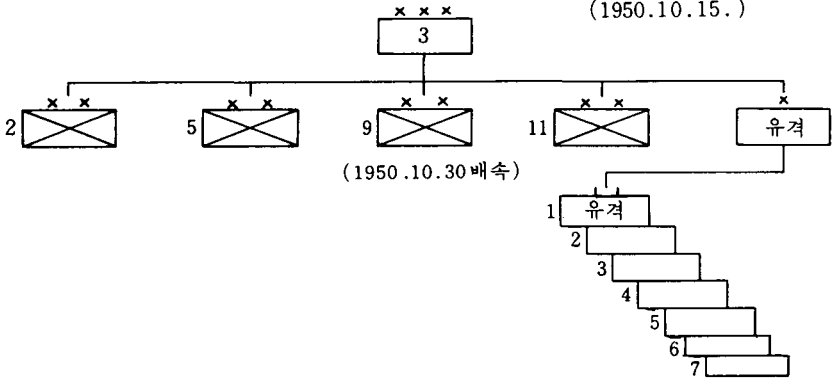
이에, 제3군단은 미 제9군단이 수행하던 공비토벌작전과 병참선 확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3군단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1

제 3 군단 전투 편성표

(1950.10.15.)



지 휘 관 현 황

구분 부대	지휘관	인적사항	비 고
제 3 군 단	군단장	육군준장 이형근	1950. 10. 15
제 2 사 단	사단장	육군준장 함병선	1950. 11. 7
제 5 사 단	사단장	육군대령 민기식	1950. 10. 8
제 9 사 단	사단장	육군준장 장도영	1950. 10. 25-31
		육군준장 김종오	1950. 10. 31. 11. 2
		육군준장 오덕준	1950. 11. 2-12. 30
제 11 사 단	사단장	육군준장 최덕신	1950. 9. 25
유격사령부	사령관	육군대령 김관오	1950. 10. 20

(2) 작전경과

제3군단의 후방지역 공비토벌작전은 전선 후방지역에 이른바 제2전선을 형성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하던 북괴군 제2군단(제5·제8·제11·제13의 4개 사단)을 격멸하고 이들 부대의 낙오병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제3군단은 사령부를 원주에 두고, 제11사단에게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제9사단에게 전북과 충남의 접경지역에 있는 대둔산 지역 공비토벌작전을 각각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유격대사령부는 배속변경에 구애됨이 없이 중·동부(춘천-삼척)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격사령부 예하부대의 배치상황

- 춘천 지역: 제7유격대대.
- * 화천 발전소에 일부병력 파견.
- 홍천 지역: 제2유격대대.
- 횡성 지역: 제1유격대대.
- 한계 지역: 제5유격대대.
- 삼척 지역: 제6유격대.

그 후, 유격대사령부는 북괴군 비정규전부대의 동정을 살피면서 횡성에 배치한 제1대대를 원주로 이동시켰다. 11월 11일에는 다시 홍천과 원주에 배치되었던 제1·제2유격대대를 춘천으로 이동시켜 화천·양구 방면으로부터 남하하는 패잔병과 공비들의 진출을 차단하고 군 주보급로의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다.

제3군단은 사령부를 원주에서 대전으로 이동시켰으며, 11월 17

일에는 제2사단과 제5사단이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배속변경되었으나 제2사단 제31연대만은 군단에 계속 배속되어 춘천으로 이동하여 양구·화천 부근에서 남쪽으로의 침투를 기도하던 북괴군 비정규전부대에 대비하게 되었다.

12월 10일, 제3군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의하여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양평으로 이동하여 전선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호남지구의 제11사단은 제3군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어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실시하게 되었다.

제5사단의 영남지구 공비토벌작전과 제9사단의 대둔산 및 경북서부지구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 제5사단의 영남지구 작전

(1950. 10. 16. ~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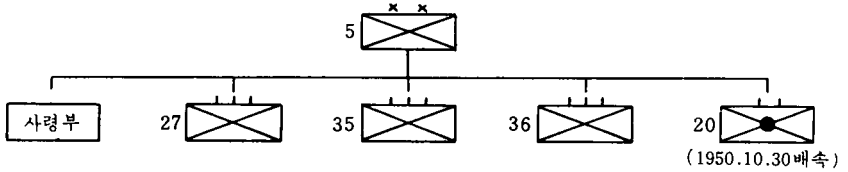
(1) 개요

이 작전은 제5사단이 1950년 10월 16일 제3군단에 배속되어 11월 22일 배속이 해제될 때까지의 1개월간에 영남지구에서 준동하던 북괴군 패잔병과 공비를 상대로 펼친 전투이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19일 창설되었으나 북괴와의 초기전투에서 전투력이 와해되어 1950년 7월 4일에 해체되었다. 제5사단은 1950년 10월 8일 대구에서 재창설되어 초대 사단장에 민기식 대령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날에 제27연대, 제35연대, 제36연대의 3개 연대가 창설되어 사단에 예속되었다.

제5사단의 전투편성 및 지휘관 인적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 제 5 사단 전투 편성표 1950.10.16.



지휘관 인적사항 및 창설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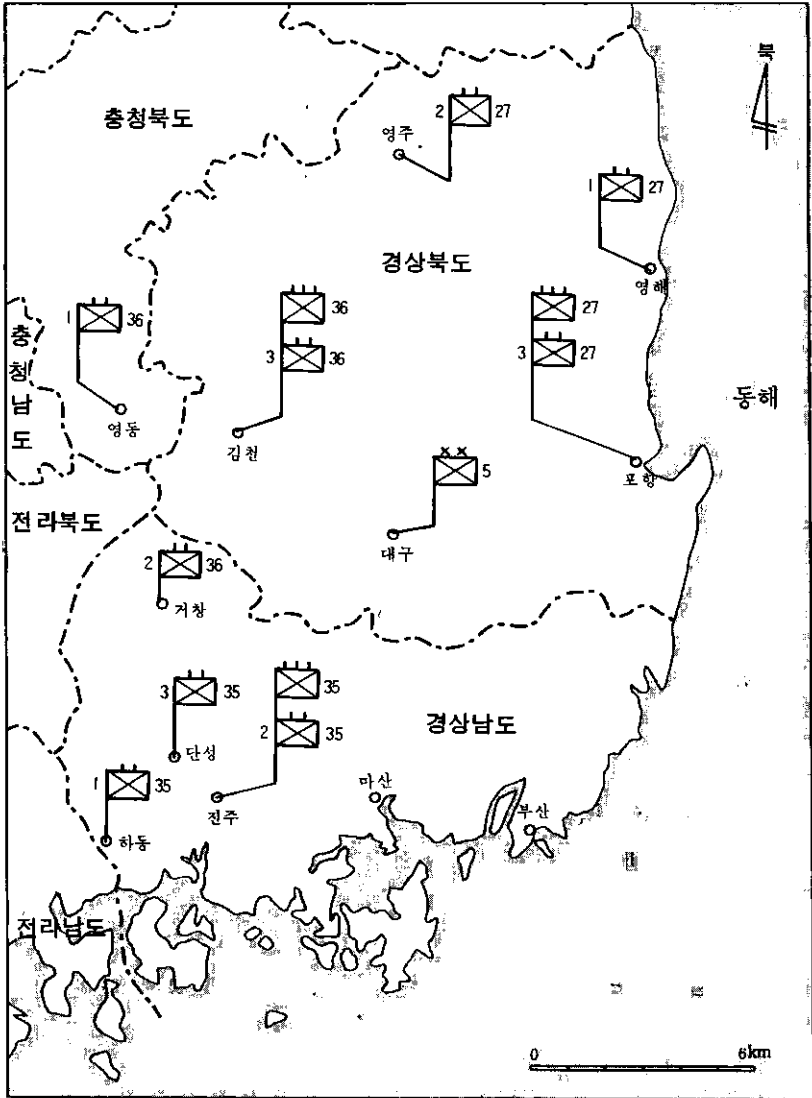
부 대 명	지휘관	인적사항	비 고
사 단 사 령 부	사단장	대령 민기식	대구에서창설 (50. 10. 8)
제 27 연 대	연대장	대령 이상철	"
제 35 연 대	연대장	대령 김성철	마산에서창설 (50. 10. 8)
제 36 연 대	연대장	대령 서종철	부산에서창설 (50. 10. 8)
포병 제20대대	대대장	중령 심학인	대구에서창설 (50. 10. 30)

(2) 작전경과

사단은 영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사단지휘소를 대구에 두고 사단 작전명령 제1호에 의거 제27연대를 포항으로, 제35연대를 진주로, 제36연대를 김천으로 각각 이동시켜 작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5사단의 부대별 병력배치는 다음 요도와 같다.

요도 11 제5사단 부대별 병력 배치도 (1950.10.16.)



지리산 지구의 제35연대 작전: 제35연대는 진주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를 하동에, 제2대대를 진주에, 제3대대를 단성(DQ 0506)에 배치한 뒤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하동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11월 10일 08:35 창촌리(DQ 0001)를 포위하여 공비와 교전하면서 묘동을 점령하였다. 이때 대대는 23:00경 청암에서 공비(패잔병) 30명과 교전하였다. 다음날(11. 11.) 06:00에 대대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제1중대는 화개(CP 7596)로, 제2중대는 청암(CP 9191)으로, 제3중대는 악양(CP 8292)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14일 17:00 화개 일대에서 저항하던 공비 40여 명은 화개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런 상황하에 제1대대는 연대 작전명령에 따라 17일 05:00 악양·청암·옥동 방면에 병력을 재배치하여 소탕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11월 10일 진주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공비 색출을 위하여 진주 북방으로 이동하였으며, 20:00에는 칠성·자양·창촌·호리·당상리·힘촌·신앙동·장기를 점령하고 창촌 북쪽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다음날, 제5중대는 312고지를 확보하고 제6중대는 계속 부근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제3대대는 11월 10일 단성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일부병력을 응석봉(CQ 9813) 중턱에 계속 주둔시켰다. 11월 14일 24:00 제9중대는 단성으로 복귀하여 경계에 입하였다.

제35연대는 지리산 지구 공비토벌작전을 11월 17일부로 일단 종료하였다.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진주에 집결하고 제3대대는 마산으로 이동하였다.

포항·영주 지구의 제27연대 작전: 제27연대는 포항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영해(제1대대), 영주(제2대대), 포항(제3대대)에 3개 대대를 배치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영해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두고 11월 13일 05:00에

청양동 일대와 풍악을 연결하는 지역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이때, 제1중대는 재산면 현동리(DR 9772)에서 공비 거점지대를 수색하였으며, 제2중대는 명조에서, 제3중대는 문수산에서 각각 탐색하였다.

11월 14일 08:00, 제1중대는 재산에 주둔하면서 남전리와 청양산을 수색 끝에 공비를 목격하였으나 이를 격멸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제1대대는 공비가 준동하던 지대를 반복수색하거나 잠복조를 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였으나, 11월 17일 12:00에 제1중대가 산천장 방면에서 공비 약 50명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였을 뿐, 최초로 기대한 성과는 거둘 수가 없었다.

영주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한 제2대대는 11월 14일 15:30에 도제리에서 150여 명의 공비와 교전한 끝에 2명을 생포하였다.

11월 15일 14:00, 제5중대는 죽령을 수색하여 수 명의 공비를 사살하였으며, 제7중대는 남문리와 맥기능선에 공비 약 20명이 출현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출동하였으나 중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공비들이 이미 맥기능선 하단으로 분산 도주한 다음이었다.

제3대대는 포항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제2대대 작전지역에서 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11월 9일 05:00 작전행동을 개시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10중대는 구룡산 중턱에서 약간의 중화기와 소화기로 무장한 공비 300여 명과 조우하여 치열한 교전 끝에 이들의 대부분을 격멸하였다.

또, 제11중대는 선달산 중턱에서 공비 약 90명에게 선제사격을 집중하면서 이들을 구룡산 중턱으로 몰아붙여 포위한 다음 격멸하였다.

11월 13일 06:00, 제9중대는 공비 약 60명이 가삼리 부근에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는 즉시 출동하여 가삼리 남쪽 2 km 지점 일대에서 공비 10명을 생포하였다. 같은날 06:00 제11중대는 세전리·어수리를 수색하던 중 공비 약 10명을 추격하여 1명을 생포하였다.

다음날 08:00, 제9중대는 금정리 일대에서 공비 16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포위하여 전원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6일 13:50에는 제9중대 1개 소대가 래동리에서 공비 16명과 1시간에 걸쳐 교전을 치른 끝에 이들 전원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천 지구의 제36연대 작전: 제36연대는 김천으로 이동하여 이곳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를 영동에, 제2대대를 거창에, 제3대대를 김천에 각각 배치하였다. 연대는 거창에 배치된 제2대대가 부상중인 공비를 포착하자, 이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제1대대에 이들의 부상통로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천에 있던 제3대대는 연대계획의 일환으로 점촌으로 이동하여 속리산·보은·상주를 연하는 선상의 예상되는 공비통로를 차단하였다.

이 지역은 전북·경남·충북·경북의 4개 도가 인접한 지역이며,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으로 연결되는 길목으로서 공비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이와 같은 연대의 차단선 형성이 크게 주효하여 부상하는 공비들은 속리산으로 집결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공비가 이 차단선에서 국군부대에 의해 격멸되었다.

제5사단은 1950년 11월 하순 영남지역 공비소탕작전을 완료하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작전기간중 전과 및 피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 전 과

구 분		인 원 및 수 량
인 원	사 살	936 명
	생 포	126 명
장 비	소 화 기	224 정
	기 관 총	15 정
	야 포	3 문
	박 격 포	5 문
	로 켓 포	5 문
	수 류 탄	163 발
	소화기실탄	42,500 발
	각 종 포 탄	2,729 발

· 피 해

인 원	전 사	6 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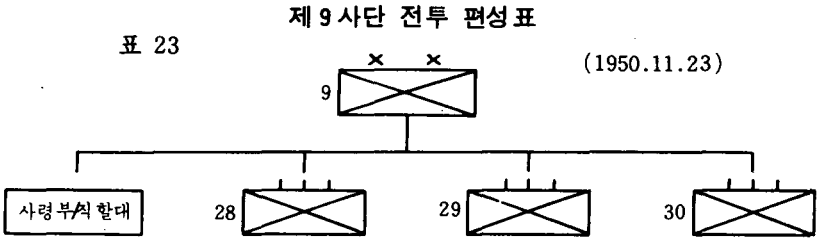
다. 제9사단의 대둔산 및 경북 서부지역 작전 (1950. 11. 23. ~ 12. 17.)

(1) 개 요

제9사단은 1950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창설된 지 1개월 만인 11월 23일에 제3군단 작전명령 제10호(50. 11. 20.)에 따라 충남 대전에 대둔산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한 후 12월 17일까지 공비토벌작

전을 실시하였다.

당시 제9사단의 전투편성과 작전 담당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휘관 인적사항

부 대	지휘관	인적사항	근 무 시 간	비 고
제 9 사 단	사 단 장	육군준장 오덕준	50.11.12-12.30	
제28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이창정	50.10.26-12.10	후임 (이주일대령)
제29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고백규	50.10.29-51.4.24	
제30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고시백	50.10.25-12.13	후임 : 조성화중령

연대별 작전담당지역

부 대	담 당 지 역
제 28 연 대	대둔산 및 충남지구
제 29 연 대	경북 김천 및 왜관지구
제 30 연 대	경북 상주·영주 및 문경지구

(2) 작전경과

제28연대 작전: 1950년 11월 15일 제28연대장은 공비 토벌임무를 띠고 대둔산과 충남지역 일대를 수색하던 중, 금산군 남이면 하금리(CQ 6092)에 1개 대대 규모의 공비가 암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 이에 연대는 제3대대(대대장: 이성열 대위)로 하여금 11월 16일 17:00에 성곡리(CQ 6391)로 출동하여 이들을 소탕하게 하였다.

한편, 상용리에서는 북괴군 유격대(패잔병)와 면당부가 위치하여 보급투쟁과 양민 납치를 자행하고 있었다. 연대는 이를 격멸하기 위하여 상용리로 출동하여 부근 일대에 대해 수색작전을 전개한 결과 20일 새벽 금산리의 공비 은거지를 발견하고 이를 급습한 끝에 무장공비 200여 명을 격멸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는 이 지역 일대에 노동당 충남도당 위원회와 유격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음을 포로의 진술에 의해 알게 되었다. 이를 색출하기 위하여 연대는 계속 수색작전을 전개하다가 신고운사와 영음사 부근에서 수 미상의 공비와 교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공비들은 많은 시체를 유기한 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CQ 6931)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 밖에도 연대는 11월 23일에 대둔산 지역의 대평리·고중리·춧대봉 등 산중에 구축되어 있던 공비의 은거지를 파괴하여 그들의 활동기반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제30연대 작전: 제30연대는 11월 19일에 충주를 떠나 다음날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 국민학교에서 제5사단 제27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당시 상주 지구의 공비들의 병력수는 소백산맥 일대를 근거지로

하는 북괴군 패잔병과 지방공비를 합쳐 총병력이 1,700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월동준비와 인원보충을 위해 산간부락의 급습과 약탈 및 납치를 일삼고 있었다. 연대는 이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제9사단은 대둔산과 경북 서부지역에 대한 공비토벌 작전임무를 마치고 제11사단에게 임무를 인계한 후 12월 18일 원주를 경유하여 강릉으로 이동하였다.

제9사단이 195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여 일에 걸쳐 실시한 공비토벌작전에서 얻은 전과는 다음과 같다.

전 과

구	분	인 원 및 수 량
인 원	사 살	2,125 명
	포 로	259 명
	귀 순	12 명
	계	2,396 명
장 비	소 화 기	612 정
	권 총	4 정
	기 관 총	5 정
	로 켓 포	1 문
	전 화 기	2 대
	무 전 기	2 대
	1/4 TON 차량	2 대
	2 1/2 TON 차량	2 대
	백 미	329 석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가. 제11사단의 지리산 지구 작전

(1950. 10. 4. ~ 51. 3. 30.)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1950년 9월 중순, 한국군과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인하여 퇴로를 차단당한 호남지구 일대의 패잔병 약 10,000여 명은 이 지방의 공비와 합류하여 비정규전 태세를 갖추고 유격활동을 개시하였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들이 전남도당 유격대를 조직하고 총사령부를 설치하는 한편, 그 예하에 화순·보성유격대, 화순탄광유격대, 나주동부유격대, 영광유격대, 광산유격대, 장흥·광양·장성유격대, 남해여단, 어버이부대, 담양유격대, 제522부대, 제523부대, 제524부대와 총사령부 직속으로 제1·제3·제8·제15연대, 포부대, 제540부대, 제550부대를 조직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당 유격대를 조직하여 유격대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예하에 전주시당 벼락병단, 독수리병단, 카추샤병단, 번개병단, 보위병단, 기포병단, 칠보부대, 허사령부대, 탱크병단·임실·남원·순창·정읍·부안군당, 백암부대, 비호부대·제206부대 등 각종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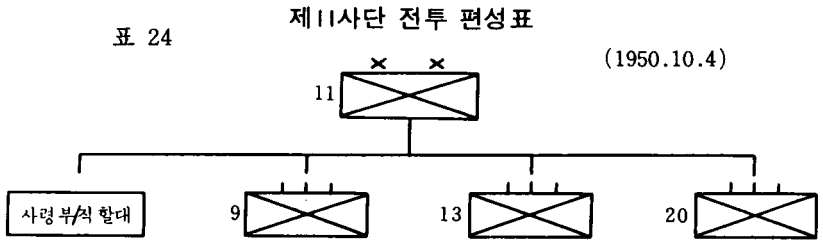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덕유산·회문산·속리산·불갑산·백아산·화학산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호남지구 각처에서 국군 및 유엔군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지서습

격,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살인, 방화와 같은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라남도의 2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암암리에 인민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유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나) 토벌부대 상황

제11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제207호)에 따라 1950년 10월 10일 대구를 출발하여 14일 12:00 남원에 도착하였다. 이때 사단은 5개 경비대대(제3, 제5, 제6, 제7, 제8경비대대)를 배속받았다.

사단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지휘관 인적사항

부 대	직 책	인 적 사 항	비 고
제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최덕신	1950. 9. 25 초대사단장부임
제20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박기병	
제13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유홍수	1950. 11. 6 이후
		육군대령 최석용	1950. 11. 7 이후
제 9 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김희준	1950. 1. 22 이전
		육군대령 오익경	1951. 1. 23 이후

(2) 작전경과

제11사단은 예하 3개 연대에 공비소탕임무를 부여한 후 전남(제9연대), 전북(제13연대), 지리산 지구(제20연대)에 각각 분산 배치하는 한편, 배속된 5개 경비대대와 경찰 그리고 청년방위대로 하여금 주보급로 및 주요시설 경계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9연대 토벌작전: 1950년 11월 18일 06:00, 제9연대(제1대대 제외)는 상주를 떠나 김천을 경유, 21일 15:00 진주에 도착하여 진주 농업대학교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이때부터 토벌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남원으로 이동(11. 4.)을 완료한 제1대대는 11월 20일 남원군 대전리 일대에서 패잔병이 주축이 된 공비 1개 대대와 교전하여 공비 사살 532명, 생포 98명, 각종 소총 99정, 기관총 2정, 직사포 1문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 후, 11월 23일과 24일 사이에 제1대대는 함양으로 이동하여 패관산·덕유산에서, 제2대대는 광양으로 이동하여 백운산에서, 제3대대는 단성(DQ 0306)으로 이동하여 지리산에서 각각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대대는 11월 28일 문제리 부근에서 공비를 포착하여 27명을 사살하고 35명을 생포하였으며 총기류 18정을 노획하였고, 제3대대는 11월 30일 거창 남쪽 덕산리(DQ 0037)에서 공비 500명과 교전하여 공비 사살 32명, 생포 12명, 직사포 1문, 박격포 1문, 소화기 3정, 접차 1대, 그리고 이외에도 백미 30가마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세웠다.

제2대대는 다음해(1951) 2월 10일 백운산 및 계족산(CP 6580) 일

대에서 공비 300명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여 사살 44명, 생포 1명, 은거지 파괴 5개소 및 소화기 다수를 노획하는 작전성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많은 전과를 올리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이동간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많은 피해를 본 부대도 있었다. 즉, 11월 28일 출장 목적으로 연대를 출발한 41명(장교 3명 포함)은 연치(CQ 6323)에서 공비의 기습을 받고 전사 31명 부상 5명의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제9연대는 12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속된 작전에서 와룡리(DQ 0232), 입석리, 덕산리, 시천면, 휴천면, 내곡리, 관풍령 등에서 10여 회에 걸쳐 연 1,750여 명의 공비들과 조우하여 격전을 치른 끝에 공비 사살 263명, 생포 49명, 소화기 53정, 중화기 6정(문)의 전과를 거두었다.

제9연대는 2월 19일에 일단 작전을 종결지었다.

이때, 연대 전술지휘소는 진주로, 제1대대는 함양, 제2대대는 광양, 그리고 제3대대는 거창으로 각각 이동하여 차후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그 후 공비의 준동은 소강상태를 이루었으나,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화순군 백아산(CQ 3392) 지역에 공비 160여 명이 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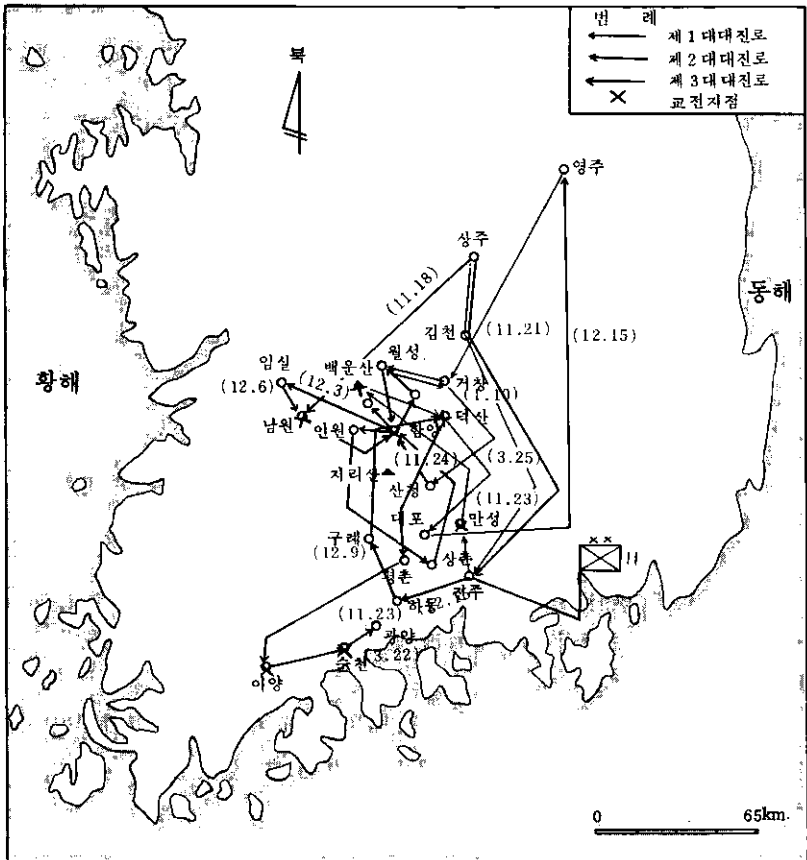
제9연대는 광양에 있던 제2대대를 출동시켜 무려 10시간의 격전을 치르는 교전을 펼친 결과 공비 74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20정과 백미 32가마 소 6마리를 노획하는 전과를 세웠다.

백아산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마치고 광양으로 복귀하던 제2대대는 3월 22일 23:00에 공비 약 500명이 순천을 습격한다는 급보를 받고 순천으로 긴급 출동하여, 3시간의 시가전을 치른 후 전남도당 문화부장을 포함한 5명의 공비를 사살하였다. 이 습격에서

공비들은 순천 헌병조사대가 주둔한 건물과 전매소를 소각하고 백운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4월 6일 제9연대는 6개월간의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성공리에 종결짓고 전선에 투입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요도 12 제 9연대 작전 상황도 (1950.10.4~1951.3.30)



제13연대 토벌작전: 제13연대는 1950년 10월 7일 진주를 거쳐 함양으로 이동하였다.

10월 12일 연대 주력은 북괴군 패잔병이 주축이 된 공비 4,000여 명이 준동하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 백전리와 서산면 부근의 산악지대에서 진주-남원 간의 보급로를 확보하고 제9연대, 제20연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였다.

10월 18일, 제13연대는 전병력이 함양에서 남원으로 이동하여 연대 전술지휘소를 전주에 설치한 후 경찰의 전북도내 치안유지를 돕게 되었다. 그리고 각 대대전술지휘소는 금산(제1대대), 진안(제2대대), 청주(제3대대)에 각각 설치하고,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덕유산 부근의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동안에 연대 전술지휘소도 전주에서 진안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연대는 일부병력을 변산으로 이동시켜 부안군 산내면 변산 일대의 잔여공비를 완전히 소탕하였다.

공비들은 군·경의 계속적인 토벌작전으로 큰 타격을 받고 각처에 분산되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었으나, 북괴군과 중공군의 재공세에 힘을 얻어 도처에서 산발적으로 토벌부대와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적극적인 작전행동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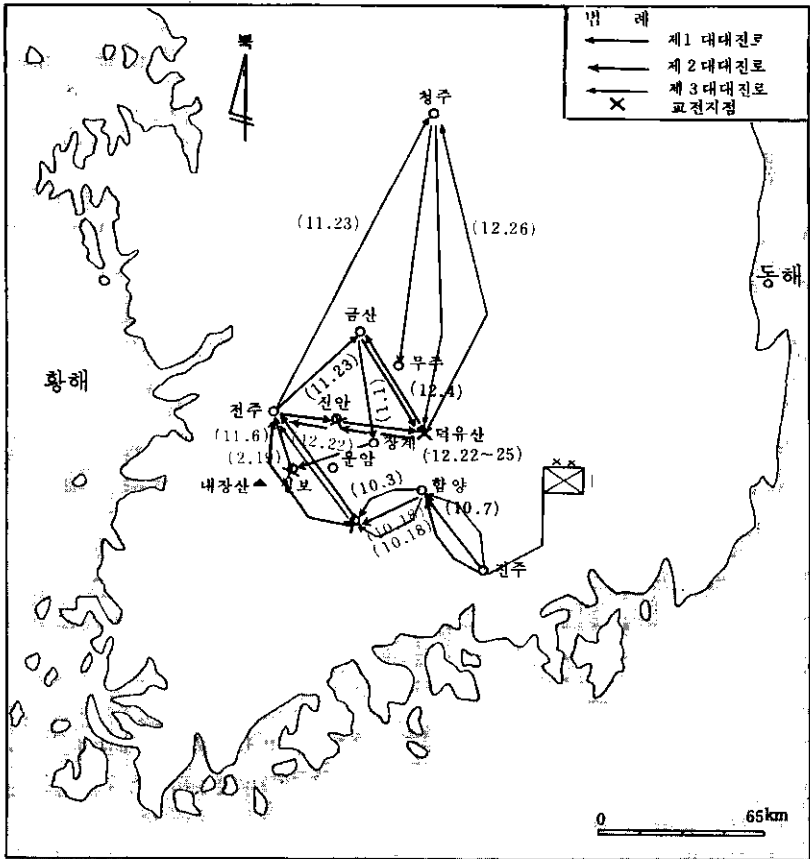
이에, 연대는 1951년 1월 1일부터 책임지역내의 주보급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면서 예하 3개 대대를 건제순으로 장계, 전주, 무주에 재배치하고 연대 전술지휘소도 전주로 이동시켰다.

1월 20일, 제1대대는 지역내에 배치된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완주군 구이면 구장리 및 백여리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고 장계로 복귀하였다.

연대는 2월 1일부터 18일까지 책임지역내의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하였으며, 제1대대는 칠보 발전소 경계를 강화하였다.

요도 13

제13연대 작전 상황도 (1950.10.4~1951.3.30)



제20연대 작전: 연대는 1950년 10월 4일 삼랑진에서 진주를 경유,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여중에 연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제1대대는 담양 부근에 거점을 두고 남원-광주 간의 도로를 차단하고 산간마을에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게 되었다.

제2대대는 광주에서 비학리로 이동하여 10월 8일 울곡리-영동-마산리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후, 장성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내게 하였다. 특히 10월 19일 13:00에는 구장성 부근 산악지역에서 공비들과 격돌한 끝에 상당한 수의 공비들을 격멸하였다.

제3대대는 10월 30일부터 영암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한 결과, 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던 공비들을 영암 북쪽 월출산 방향으로 격퇴하였다.

그 후, 연대는 담양, 순창, 화순, 장성, 나주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를 소탕하고 1951년 2월 9일에는 제1대대와 제2대대를 회문산에 투입하였다.

당시 회문산에는 1,350여 명의 공비집단이 거점을 구축하여 준동하고 있었다.

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한 연대는 목표내의 공비들을 강타하여 이들을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함평군 해보면에 있는 불갑산의 공비 350여 명을 격멸하였다.

제II사단은 1950년 10월 4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180일 동안 전개한 공비토벌 작전기간중 호남지구 공비의 조직적인 활동을 분쇄하였다.

그리하여, 사단은 이들로 하여금 촌락으로부터 깊은 산중으로 분산 퇴주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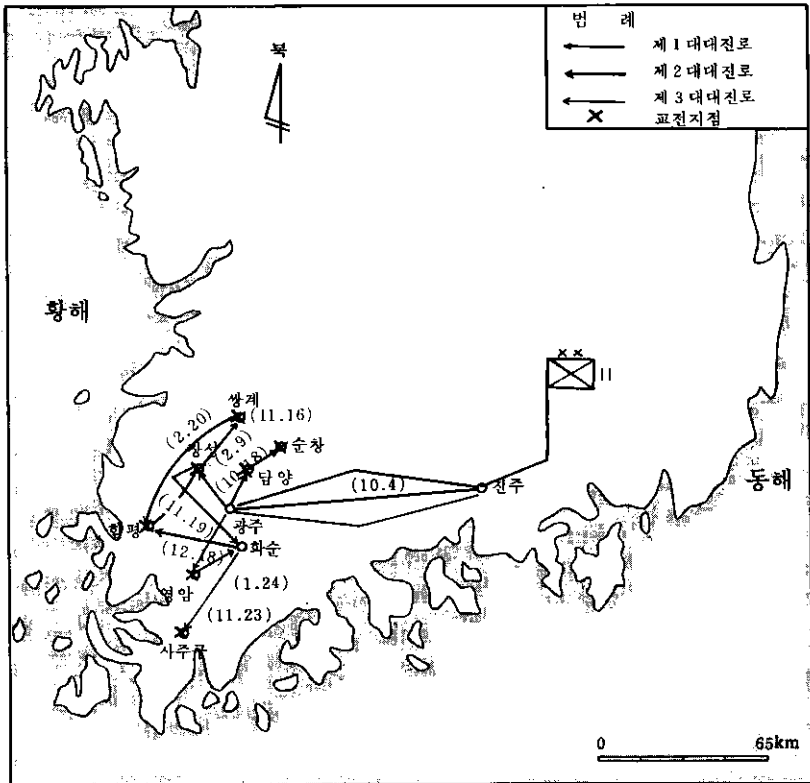
작전기간중 전과는 공비 사살 1,950명(추정), 생포 및 귀순 2,178명과 각종 기관총과 소화기 261점을 노획한 반면, 전사 531명, 실종 85명, 부상 843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제II사단은 1951년 4월 6일에 제8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대구

로 이동하였다.

세칭 거창사건도 동 작전기간 중에 일어났다. 이는 1951년 2월 10~11일간에 거창군 신원면에서 동 사단 제9연대 제3대대(대대장: 한동석소령)가 신원지서의 협조를 받아 공비들과 대통하였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을 집단처형함으로써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었으며 국회조사단의 현지 조사후 관계관들은 의법 처리되었다.

요도 14 제20연대 작전 상황도 (1950.10.4~1951.3.30)



나. 제8사단의 호남지구 작전(1951.4.15.~5.11.)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1951년 초 호남지구 공비들은 국군 제11사단이 6개월간에 걸쳐 실시한 토벌작전(1950. 10. 4.~51. 3. 30.)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분산 도주하였으므로 전투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군·경 부대의 토벌작전이 약화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분산된 병력을 재수습하고 파괴된 은거지를 구축하는 등 전투력 향상에 주력하였다.

당시, 금산·정읍·순창·부안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의 수는 약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지방공비와 북괴군 낙오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활동지역은 주로 금산 지구·국사봉(정읍) 지구·부안 지구 일대의 산악지역이었다.

지역별로 이들의 유격활동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산(CQ 6395) 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들은 충남유격사령부를 위시하여 검산부대, 함돈부대, 압록강부대, 해방부대, 제572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병력은 무장공비 765명, 비무장공비 620명, 도합 1,38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금산 서쪽 대둔산 일대의 산악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식량을 약탈하고 양민을 납치 또는 학살하는 등 금산·논산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국사봉(CQ 1833, 전북 정읍군과 순창군의 경계지점)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는 전북도당 유격대사령부(도당위원장: 방준표)를 위

시하여 번개병단, 카추사병단, 비호부대, 기포병단, 정읍군당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병력은 무장공비 540명, 비무장공비 776명 도합 1,31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들은 정읍·순창 일대에서 경찰관서의 습격과 식량약탈, 양민납치 및 학살 등을 자행하였으며, 특히 순창군 회문산 지구 공비들과 접선하면서 정읍-장성 간 도로를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읍-장성 간 도로를 차단하고 정읍-순창-임실 간 도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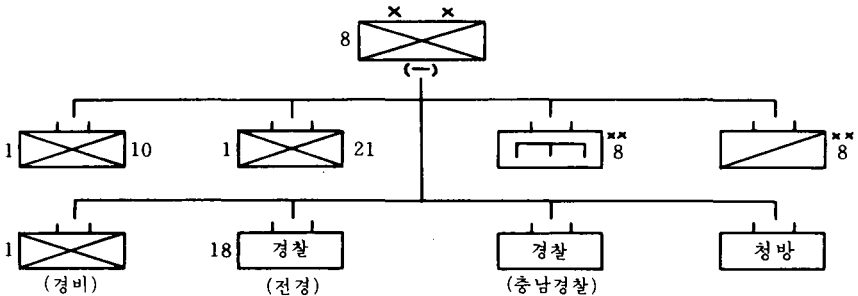
또한 부안(BQ 9455) 지구에서 준동하던 공비는 무장공비 150명, 비무장공비 200명, 도합 350여 명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국사봉 지구 공비의 일부가 이동하여 합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토벌부대상황

제8사단은 1951년 2월 횡성 지구 전투를 치른 후 제천을 경유 대구로 이동하여 전력을 보강한 다음,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사단은 육군본부 작전지시에 따라 당시 호남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고 있던 제II사단과 교대차 1951년 4월 3일 전북 전주로 이동하였다. 당시 사단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제 8 사 단 전 투 편 성 표

표 25



지휘관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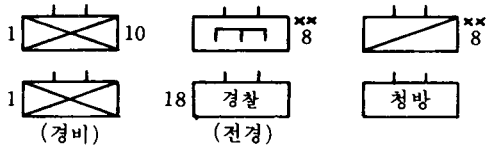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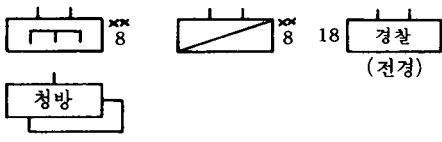
부 대	직 책	인 적 사 항
제 8 사 단	사 단 장	준장 최영희
제 10 연대 제 1 대대	대 대 장	중령 박치옥
제 21 연대 제 1 대대	〃	소령 임창모
사 단 공 병 대 대	〃	소령 소정우
사 단 수 색 대 대	〃	소령 박서권
제 1 경 비 대 대	〃	대위 강차완
제 18 전 경 대 대	〃	경감 차일혁
충 남 경 찰 토 별 대	〃	경감 박병기
청년방위대제 153지대	지 대 장	소령 김세철

이때 사단은 예하 제10연대 제1대대, 제21연대 제1대대, 사단공병대대, 사단수색대대와 배속부대인 제1경비대대, 제18전투경찰대대(전북), 충남경찰토벌대 그리고 청년방위대 일부병력을 통합지휘하여 금산·국사봉·부안지구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작전지구별 작전부대는 다음과 같다.

표 26 지구별 작전부대

지구별	작 전 부 대	비 고
금산지구		금산지구 전투사령관 : 대령 김용수 (부사단장)

<p>국사봉지구</p>		
<p>부안지구</p>		

(2) 작전경과

(가) 금산 지구 전투(1951. 4. 16.~19.)

제8사단은 1951년 4월 16일 금산 지구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를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사단 예하 제21연대 제1대대와 사단공병대대(배속 충남 경찰토벌대)는 대둔산 북쪽 5 km 지점의 덕곡리(CQ 4703, 논산군 벌곡면)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대둔산 동쪽 2 km 지점의 최초목표인 662.7고지(CQ 5199)를 탈취하였다. 얼마 후 토벌대는 최초목표로부터 남쪽으로 5 km 떨어진 외일양리(CR 5394)에서 공비 100여 명과 교전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5월 17일, 사단은 전술지휘소를 양촌(CQ 3898)에서 당천리(CQ 4287, 경천)로 이동시킨 후 06:00에 제21연대 제1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의 일부병력으로 대둔산(CQ 4898)을 목표로 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날 10:50 토벌대는 대둔산 지역내의 공비거점을 발견하여 이를 파괴하고 대둔산 정상을 점령하였다. 계속해서 토벌대는 대둔산

부근의 581고지, 700고지, 760고지를 점령하고 부근 일대를 확보하였으며, 공병대대는 원동산, 운대산으로 도주한 공비 250여 명에게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19일 05:30에는 제21연대 제1대대와 공병대대가 운암산을 포위하여 공비들과 격돌한 끝에 다수의 공비를 사살 혹은 생포하였다.

제8사단은 운암산 지역 소탕작전을 끝으로 금산 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일단 마무리지은 다음 사단공병대대를 전주로 이동시키고 충남 경찰토벌대 및 제18전투경찰대대를 원대 복귀시켰다. 이 전투에서 사단은 공비 사살 38명, 포로 37명의 전과를 획득하였으며, 토벌부대의 피해는 전사 10명 부상 16명이었다.

(나) 국사봉 지구 전투(5I.5.4.~5.9.)

제8사단은 1951년 5월 4일 국사봉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를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 사단지휘소를 국사봉 북쪽 5km 지점의 시산리에 설치하고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단은 최초 국사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4면에 부대를 배치하여 일부부대로 국사봉 지역을 포위 압박하게 하는 한편, 일부부대로 하여금 퇴로를 차단하면서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조치하였다.

제8사단의 최초 병력배치 상황

- 제10연대 제1대대: 신영리(CQ 1918: 국사봉 남쪽 15 km 지점).
- 사단공병대대: 능다리(CQ 2136: 국사봉 북동쪽 5 km 지점).
- 사단수색대대: 회문산(CQ 2830)
- 제1경비대대: 무성리(CQ 1839: 국사봉 북쪽 5 km 지점).
- 제18전투경찰대대: 목남(국사봉 남서쪽 18 km 지점).
- 청년방위대 제153지대: 쌍암리(CQ 0832: 국사봉 서쪽 8 km 지점).

제10연대 제1대대는 5월 5일 02:30에 행동을 개시하여 북쪽으로 진출하면서 여분산(CR 2327) 남쪽의 4I6·4I8고지를 점령하였다. 그 후 동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한 이 대대는 장성군 백학산(백양사 뒷산, CR 0724) 동쪽의 동산리와 금월리 일대에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면서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다. 이어서 8일과 9일에는 사단수색대대와 협조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백학산 서쪽의 가인봉(CR 0623) 일대까지 진출하는 동안 공비들과 교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사단공병대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먼저 국사봉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7일 장군봉(CQ 1529)을 점령한 공병대대는 다음날까지 그 부근 일대를 수색하였으며, 9일에는 내장산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사단수색대대는 5일 순창 지역에서 가장 높은 회문산(CQ 2830, 839m) 일대를 수색하고, 6일에는 전북도당 유격대사령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여분산(CQ 2327)을 공격한 후 이 산 서쪽을 수색하였다. 5월 8일에 백학산 동쪽으로 이동한 수색대대는 부근 일대를 수색하다가 다음날 제10연대 제1대대와 협조하면서 백학산 북쪽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제1경비대대는 시산리 일대를 수색한 후 6일에는 국사봉 서쪽의 고당산(CQ 1434)을 점령하였다. 이 곳에서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장산 방향으로 수색하던 이 대대는 9일 내장산 북쪽 5 km 지점의 부전리(CQ 0933)에 집결한 후 칠보 발전소로 이동하여 경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18전투경찰대대는 동쪽으로 용추봉(CQ 2125) 일대까지 수색하면서 공비의 남쪽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 후, 제18전투경찰대대는 사단공병대대와 함께 내장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에 참여하였다. 한편, 청년방위대 제153지대는 내장산 북쪽 3 km 지점의 내장리(CQ 0832) 일대에서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공비의 퇴로 차단임무

를 수행하였다.

제8사단은 5월 9일 토벌부대가 내장산과 백학산의 수색을 완료한 상황을 확인한 다음 국사봉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종결지었다. 이 작전을 통하여, 제8사단은 공비 사살 410명, 공비 생포 573명, 무기 노획 소화기 29정, 은거지 파괴 339개소 등 다대한 전과를 올린 반면 피해는 경미(전사 1명, 부상 2명)하였다.

(대) 부안 지구 전투 (1951. 5. 10.~5. 11.)

제8사단은 국사봉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자, 계속 부안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위하여 1951년 5월 10일 08:00에 부안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단공병대대와 제18전투경찰대대 그리고 청년방위대 2개 중대를 작전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공병대대는 5월 10일 14:00에 정읍을 출발하여 하서면 백련리로 이동하여 638고지(CQ 8347)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였다. 다음날 09:30 공격을 개시한 이 대대는 신전(CQ 8247) 일대를 수색한 후 사자동(CQ 8047)을 점령하였으며, 계속하여 쌍선봉(CQ 8946)의 공비들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수색대대는 같은날 07:00에 반화동(CQ 8646)으로 이동하여 09:30에 공비 근거지인 조운암(CQ 8346)을 점령하였다. 그 직후부터 공격을 재개한 수색대대는 월명암(CQ 8045)에서 공비들과 교전하였으며, 전진을 계속한 끝에 334.6고지와 용등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제8사단은 11일 17:00에 부안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종료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전주로 이동시켰다. 이에 사단공병대대와 사단수색대대는 잔여공비 소탕작전 임무를 전북경찰에 인계한 후 전주로 복귀하였다.

이 작전에서 제8사단은 공비 사살 87명, 생포 17명의 전과를 획득하였으며 피해는 전사 1명, 부상 3명이었다.

제8사단은 1951년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약 1개월간에 걸

친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에서 공비 사살 535명, 포로 624명의 큰 전과를 세웠으며 피해는 전사 12명, 부상 21명이었다.

5월 19일 사단은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전주를 떠나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호남지구 작전 (1951. 11. 30.~1952. 3. 15.)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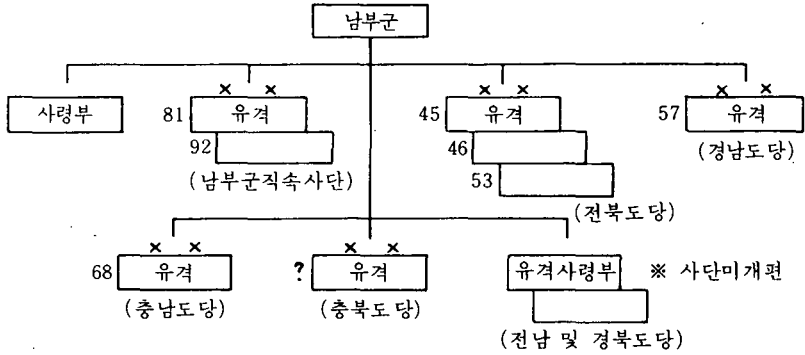
호남지구와 경북 동해안지구에서 출몰하던 공비들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실시한 국군 3개 사단(제11사단, 제8사단, 제2사단)의 토벌작전으로 대부분이 격멸되었으나, 산악지대로 분산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수목이 우거지는 6월이 되면서부터 이들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하고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전투력 보강에 온갖 힘을 다하기에 이르렀다.

1951년 8월, 남한공비의 총책으로 알려진 이현상은 지리산 북쪽 논골(남원군 산내면)에서 제2차 6개 도당회의(전라남·북, 경상남·북, 충청남·북)를 개최하였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하여 각 도당 유격사령부를 사단으로 승격 개편하고 이를 그가 직접지휘하는 남부군사령부 통제하에 들게 함으로써 지휘체제의 단일화가 이룩되었다.

이때가 남부군의 전성기였으며 그 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27 남부군 편성표 1951.8.



육군본부는 호남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의 수를 총 4,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중 핵심적이고 전열이 정비된 부대는 남부군 원래의 직속부대인 제81사단, 제92사단과 경남도당 사단인 제57사단, 그리고 전북도당 사단(3)들이었다. 이들 부대는 여·순반란군 출신중 생존해 있던 인원과 북괴군 전투부대의 낙오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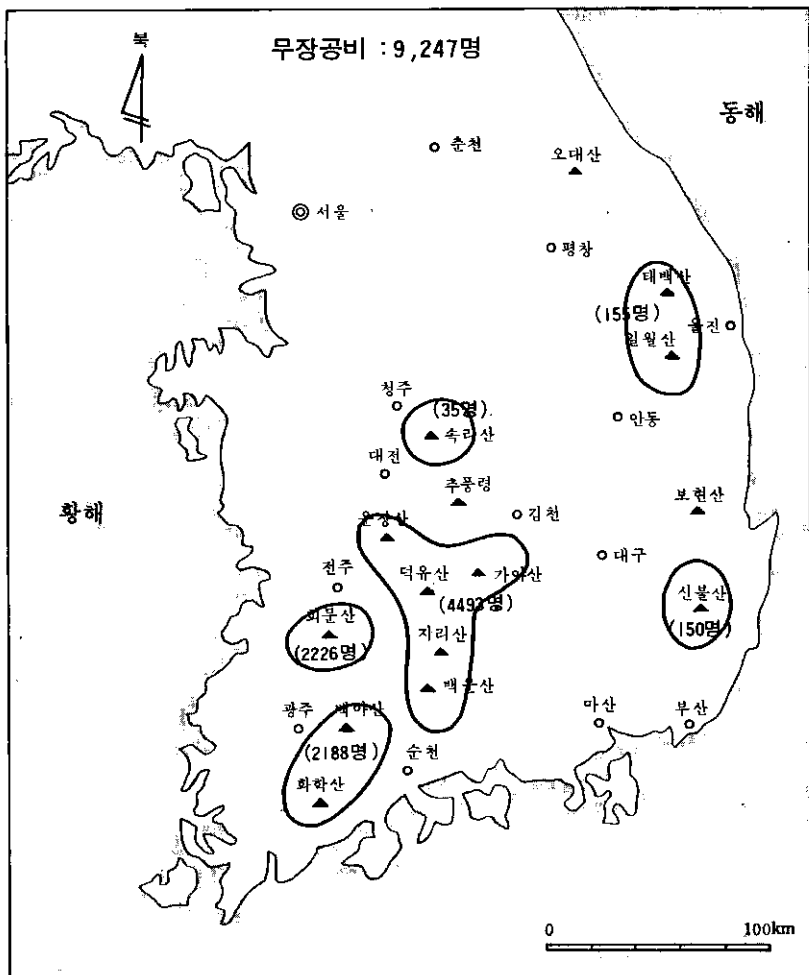
이들은 동년 9월 초순부터 종래 소수병력으로 목표를 기습한 후 분산 잠적하던 상용전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이들은 집단병력으로 소도시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촌락을 일정기간 동안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양민을 납치하는 등의 대담한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들 공비들은 수시로 지리산 부근의 운봉·곡성·하동 등지에 출몰하여 여러 가지 행동으로 양민들을 위협하였는데, 그 중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월 3일, 제57사단 소속 공비 300여 명이 백주에 내대리(산청군 시천면)에 나타나 부락민을 강제로 동원하여 추수한 다음 '현물세

라는 명목으로 곡물을 약탈하였다. 29일에는 남부군 직속부대로 보이는 공비들이 하동 북방 약양(CQ 8349)면을 3 일간이나 내습하여 부락민 1,000여 명으로 추수한 다음, 역시 '현물세' 명분으로 곡물을 약탈해 갔다.

요도 15 백야전사 작전전 공비 분포도 (1951.11.26)



또한, 남원-구례-순천에 이르는 전라선 철도를 파괴하고 군용 열차를 습격하여 무기와 보급품을 약탈하는 등, 이들의 횡포는 극에 달하였으며 이에, 민심은 극도로 동요되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호남지구 토벌작전 직전의 국내공비 분포도는 요도 15와 같다.

(내) 백야전 전투사령부 설치

1) 개요

육군본부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와 군 보급로의 경비,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호남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를 섬멸할 목적으로 국군 2개 사단으로 편성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토벌부대로 설정하였으며, 부대장에는 백선엽 소장(당시 제1군단장)을 임명하였다.

당시 수도사단은 동부전선에서 담당지역을 제11사단에 인계하고 속초로 집결한 후, 해상이동으로 여수에 상륙하였고, 제8사단은 중동부전선에서 담당지역을 제7사단에 인계하고, 육로이동으로 전주에 도착, 호남지역작전지구로 진입하였다.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작전지시(제113호)에 의거 1951년 11월 25일 대구에서 전주로 이동하고 11월 26일부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김용배 준장)로부터 서남지구 공비 토벌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와 배속된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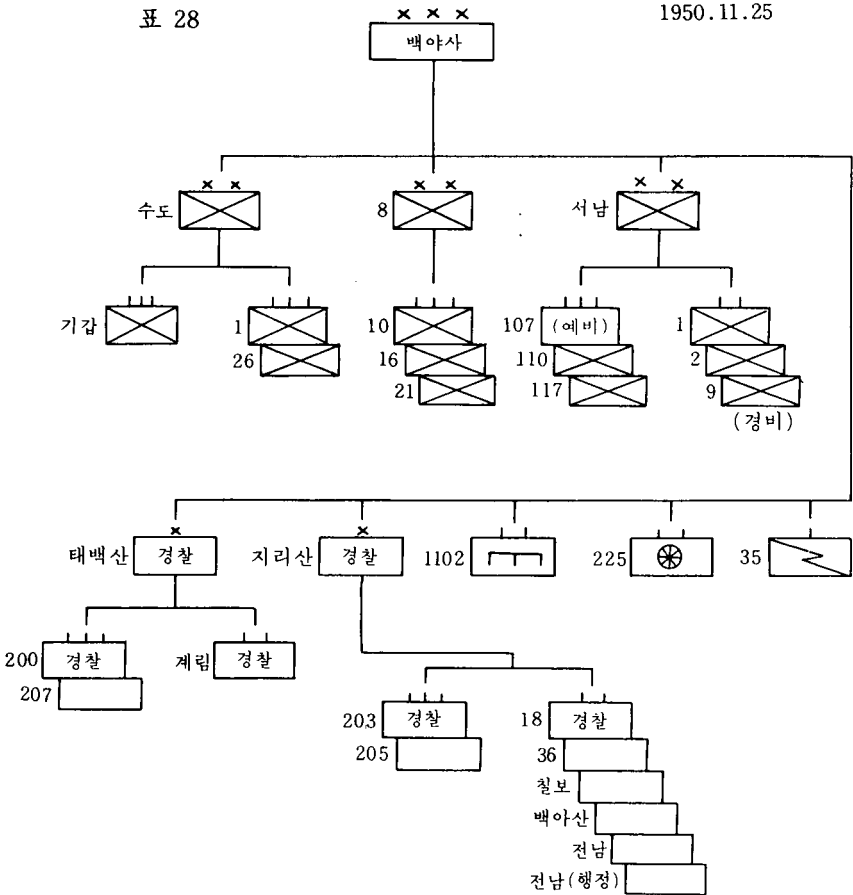
이때 수도사단은 11월 28일 21:00부로, 제8사단은 11월 27일 12:00부로, 그리고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중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와 경찰부대는 이보다 앞서 11월 26일부로 백야전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었는데,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전투편성과 지휘관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백야전 전투사 전투

표 28

1950. 11. 25



지휘관 인적사항

구 분	부 대	지 휘 관	비 고
백야전전투사령부	사령관	중장 백선엽	
수 도 사 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	
	기갑연대장	대령 이 룡	
	제 1 대대장	소령 이봉직	
	제 2 대대장	소령 박익군	
	제 3 대대장	대위 박명경	후임:대위 한석기
	제 1 연대장	중령 박춘식	
	제 1 대대장	소령 윤종호	후임:소령 함용익
	제 2 대대장	소령 이종륙	
	제 3 대대장	소령 박로웅	후임:소령 김승길
	제 26 연대장	대령 이등화	
	제 1 대대장	소령 차문석	
	제 2 대대장	소령 박기순	
	제 3 대대장	소령 우교봉	
제 8 사 단	사단장	준장 최영희	
	제 10 연대장	대령 정 강	
	제 1 대대장	소령 차만석	
	제 2 대대장	소령 이기만	
	제 3 대대장	소령 임병근	
	제 16 연대장	대령 이재일	
	제 1 대대장	소령 이정호	
	제 2 대대장	소령 한병갑	

구 분	부 대	지 휘 관	비 고
제 8 사단	제 3 대대장	소령 정순기	
	제21연대장	대령 전부일	
	제 1 대대장	소령 김광철	
	제 2 대대장	소령 김동희	
	제 3 대대장	소령 임창모	
서남지구전투 사령부	사령관	준장 김용배	
	제107예비연대장	중령 김해일	
	제110예비연대장	중령 김재명	
	제117예비연대장	중령 노영목	
	제 1 경비대대장	중령 유근춘	후임 대위이종익
	제 2 경비대대장	소령 김상홍	후임 중령 하정환
	제 9 경비대대장	소령 차동준	
치 안 국	남원치안국전방사령부	경무관 최치환	치안국장대리
태백산지구 전 투 경찰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이성우	
	제 200 경찰연대장	총경 이동순	
	제 207 경찰연대장	총경 문학등	
	계림경찰대대장	경감(임시) 서태환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신상목	
	제 203 경찰연대장	총경 조석원	
	제 205 경찰연대장	총경 김원용	
	제 18 경찰대대장	경감 차일적	후임 경감 이병선
	제 36 경찰대대장	경감 김석완	
	칠보경찰대대장	경감 이학희	후임 경감 최송기

구 분	부 대	지 휘 관	비 고
기 타	백야산경찰대대장	경감 김동진	후임 경감 김기주
	전남전투경찰대대장	경감 주재선	후임 경감 주형래
	전남(행정) 경찰대대장	김감 민병찬	
	제1102야전공병대대장	중령 박정제	
	제225자동차수송대대장	소령 김 홍	
	제35야전통신중대장	대위 한철등	
계	사단급이상부대 : 3		
	전투경찰연대 : 4		
	전투경찰대대 : 7		
	지원부대 : 3		

2) 작전계획

육군은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설치에 따라 수도사단과 제8사단을 속초와 춘천에서 호남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작전계획 제26호(1951. 11. 16.)를 하달하였다.

육군본부 작전계획의 요지

I. 백야전전투사령부

가.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다음 4개 단계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하라.

- (1) 제1기작전: 공비들의 강력한 거점인 지리산 지구에 전 부대로 공격을 감행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10일로 예정이다.
- (2) 제2기작전: 2개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을 감행하며 일부부대는 전

북지역의 강력한 공비거점에, 다른 일부부대는 경남지역내 공비 거점에, 각각 투입하라. 작전완료 일정은 12월 30일로 예정한다.

(3) 제3기작전: 제1, 제2기 작전지역에 대한 재수색으로 잔적을 격멸하라. 작전의 완료일정은 1월 10일로 예정한다.

(4) 제4기작전: 일부부대로 하여금 공비가 침투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공비를 격멸하도록 조치하라.

나. 각 부대는 항시 어떤 지역에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의명 전방지역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2. 서남지구 전투사령관은 현 담당지구의 작전지휘권을 백야전 전투사령관에게 인계하고 그의 지휘하에 들어가라.

3.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풍기-상주, 충주-상주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4. 치안국장

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충주-대전-전주 선과 천안-강경 선을 차단하라.

나. 의명 24시간내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5. 협조지시

가. 작전은 엄격한 통제하에 기동타격부대와 저지부대 그리고 거점수비대로 구분 실시하되, 기동타격부대는 주력을 포착 격멸하는 데 사용하고, 저지부대는 충분한 중심을 두고 배치하여 적의 퇴로를 차단 저지하면서 기동타격부대를 지원하라.

나. 각 지구 공비의 거점이 괴멸되면 기동타격부대는 분산된 잔적을 격멸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활용, 타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할 준비를 하라.

다. 각 단계별 작전에 있어서 저지부대는 기동타격대를 신속히 후속하여 공비의 재편성을 방지하라.

이상과 같은 작전계획이 하달됨에 따라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양개 사단의 6개 연대를 기동타격대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된 경비부대와 예비연대 그리고 경찰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예하부대에 작전계획 제I호(5I. II. 20)를 하달함으로써 드디어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2) 작전경과

(가) 제1기 작전(195I. 12. 2.~12. 14.)

1) 작전계획

백야전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지침에 따라 먼저 수도사단을 지리산 남쪽에, 제8사단을 지리산 북쪽에 각각 배치하여 지리산 지역을 크게 포위한 다음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부대로, 그 밖의 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공비의 근거지를 일거에 분쇄하고 아울러 반복수색으로 그 잔당을 색출 격멸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목표지역의 중추지역을 점령하기로 한 5일간을 전반기작전으로, 지역내 반복수색을 하는 기간을 후반기작전으로 구분하였다.

백야전 전투사령부가 하달한 작전계획 제I호(5I. II. 20.)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계획의 요지

1.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수도사단·제8사단과 서남지구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서남지구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섬멸하려 한다.
2. 수도사단
 - 배속: 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
 - 가. D-1일 06:00까지 최종 집결지에 은밀히 집결,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고 D+5일까지 목표 "B(지리산 남쪽)"를 점령하라.
 - 나. 배속된 저지부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 도주하는 공비를 포착 격멸하라.
3. 제8사단
 - 배속: 제110예비연대, 제107예비연대
 - 가. D-1일 06:00까지 최종 집결지에 은밀히 집결하여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고 D+5일 이전에 목표 "A(지리산 북쪽)"를 점령하라.
 - 나. 배속부대를 사용하여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분산 도주하는 공비들을 포착 격멸하라.
4. 서남지구 전투부대
 - 가. 저지부대로 편성된 일부부대를 수도 및 제8사단장이 선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 지휘권을 이양하라.
 - 나. 회문산 지구에서 현재 작전중인 경찰 2개 대대를 저지진지 "R"에 배치하여 복상이 예상되는 공비를 저지하라.
 - 다. 예하부대를 재배치하여 거점수비에 임하도록 하라.
5. 수도 및 제8사단의 기동타격부대는 각 담당지역내의 공비를 포위 격멸한 연후에 분산된 공비를 각개격파하라.
6. 작전지역내에서의 민간인 통행을 통제하며 정찰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적정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라.
7. D일 H시는 12월 2일 06:00로 예정하되 후달한다.

8.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전술지휘소는 전주에 위치하며 작전중 전방지휘소는 남원에 설치한다. 각 부대는 다음과 같이 지휘소를 설치하라.

- 수도사단: 순천(D일 H시 이후 구례).
- 제8사단: 전주(작전중 전방지휘소: 남원).
-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남원.

이상과 같이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작전명령이 하달되고, 정부에서는 1951년 2월 1일에 서남지구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협조하였다.

그리고 정부 각부처 관계관이 남원에 파견되어 작전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지원하게 되었다.

2) 작전실시

수도사단: 수도사단은 전 부대가 여수와 마산에 상륙을 한 후 예하 3개 연대가 원지동(기갑연대), 하동(제26연대) 구례·광양(제1연대)에 집결하였다. 수도사단장은 작전개시일까지 통제선 “A” 외곽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들을 구축하여 목표지역내로 몰아넣은 다음 이를 격멸할 작전개념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도사단은 각 연대에게 12월 1일(D-1일)중에 최초통제선인 “A”지역까지 진출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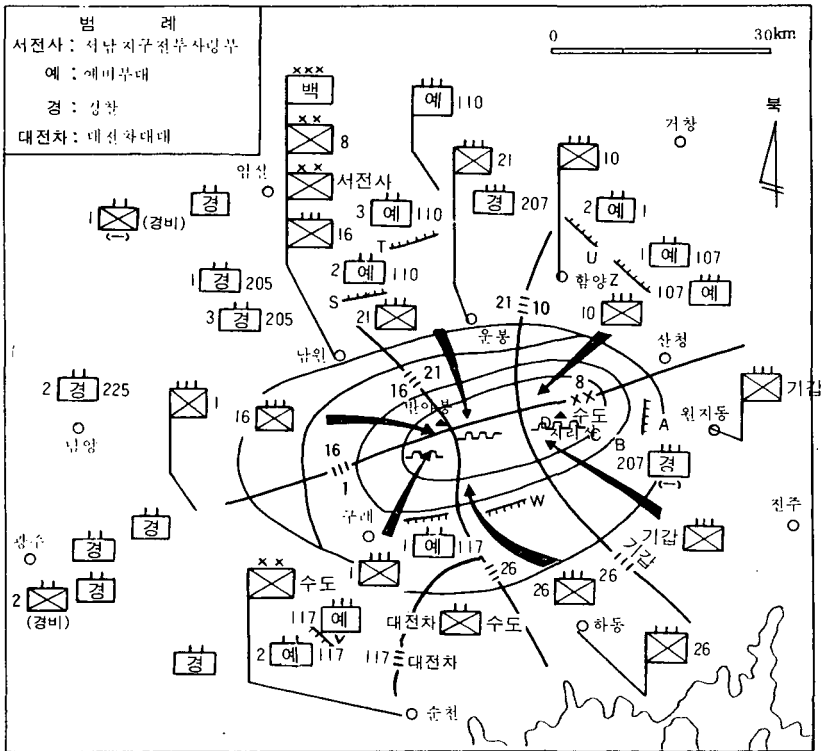
12월 2일 06:00, 수도사단은 제1연대를 서, 기갑연대를 동, 제26연대를 중앙으로 한 3개 연대 병진으로 목표 “B”지대내의 공비를 포획 섬멸하기 위하여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단에 배속된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는 응석봉(1099 고지)과 저지진지 “X”로,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는 하동에서 제26연대를 후속하다가 저지진지 “W”를 목표로 하여 진출하였다.

그리고, 전술지휘소를 구례에 개설한 제117예비연대는 저지진지 “Y”와 다른 저지진지 “V”를 점령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작전을 전개하였다.

공격 첫날인 12월 2일 수도사단은 제8사단과 협조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예하 3개 연대는 구곡산·내대리·984고지·형제봉·송정리·파도리를 잇는 선까지 진출하였다.

요도 16 제 1기 전반기 작전 요도 (1951. 12. 2~6)



다음날 기갑연대는 통제선 “B”와 “C” 사이에서 공비의 은거지 색출에 주력하였으며, 제26연대는 목계리(청암면)－운수리(화개면)로 진격하다가 등촌리에서 공비를 추격하였다. 제1연대는 불당마을 동쪽에서 공비 300여 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공비들은 4명의 시체를 유기한 채 도주하였다. 그리고, 배속부대인 제117예비연대의 수색대는 이날 차단진지에서 공비 7명을 사살하였다.

이어서 4일과 5일 통제선 “B”와 “C”, “C”와 “D” 일대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었다. 이 전투에서, 기갑연대는 거림－세석, 법계사－1398 고지로 진출하였고, 2 일간의 전투에서 사살 34명, 생포 510명의 전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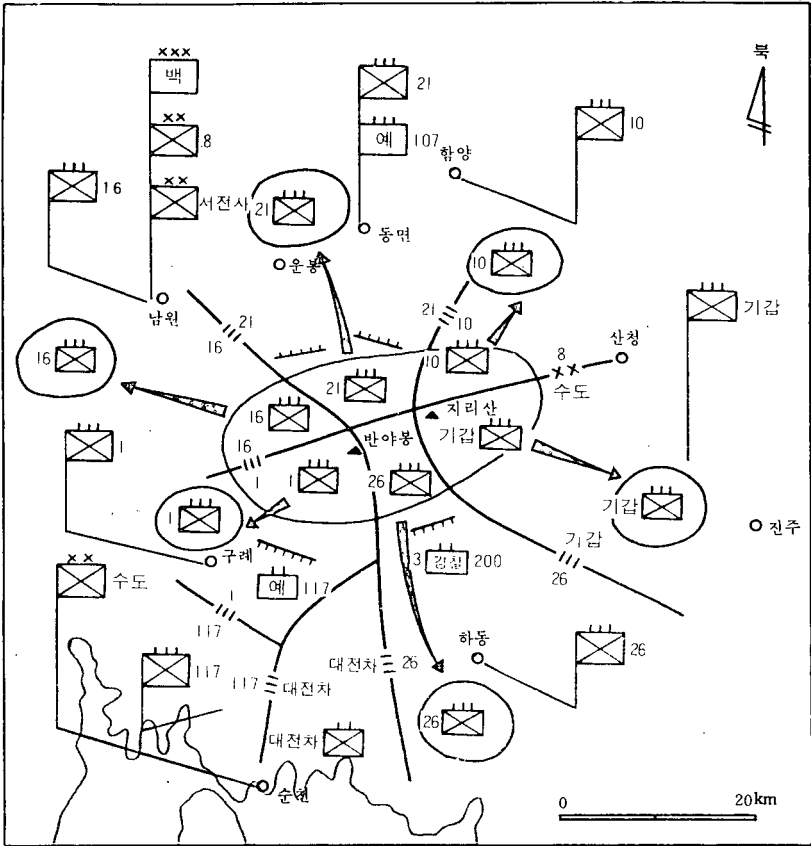
사단의 충양에 배치된 제26연대는 산청 및 하동 군계와 도계(전남과 경남)를 따라 수색작전을 전개하면서, 대성리(화개면)로 진출하는 동안에 공비 사살 72명, 생포 79명, 화기노획 30정과 백미 72가마를 노획하였다. 한편, 사단에 배속된 각 부대도 작전계획에 따라 행동하면서 기동타격부대의 작전을 지원하였다.

수도사단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 일간에 걸친 목표 “B”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7일부터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3호(51. 12. 4.)에 의거하여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제1기 후반기 작전은 사단 담당지역인 목표 “B”지역 일대에 대한 반복수색작전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14일까지 계속되었다.

제1기 작전기간중 수도사단은 공비 사살 505명, 생포 969명, 귀순 4명, 은거지 파괴 57개소, 소총 176정, 광격포 3문, 기관총 3정, 수류탄 25발을 노획하였으나 수도사단에서도 전사상자 2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제2기 작전을 위하여 기갑연대는 순천에, 제26연대는 구례구에, 제1연대는 구례에 각각 집결하였다. 한편, 배속부대 중 제200경찰연대 제1대대와 제117예비연대가 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었다.

요도 17 제 1기 후반기 작전 요도 (1951.12.7~15)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이들 부대들로 하여금 천왕봉-반야봉-노고단 등의 작전지역에서 잔여공비 소탕작전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제8사단 : 제8사단은 춘천에서부터 육로로 이동하여 사단 전술지휘소를 전주에 설치하였으며, 예하 3개 연대는 함양(제1연대), 남원(제16, 제21연대)에 집결하였다. 12월 1일 제8사단은 백야전 전투사

령부 작전계획 제1호에 따라 지리산을 남북으로 양분한 북쪽지역인 목표 “A”를 공격하기 위하여 통제선 “A”까지 은밀히 이동하였다. 다음날 06:00 제8사단은 3개 연대 병진-좌에서 우로 제16연대, 제21연대, 제21연대 순으로 전개-으로 수도사단과의 협조 아래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초일(12월 2일) 제8사단은 천마산(곡성 동쪽 8 km)·650고지(남원 동쪽 7 km)·734고지(운봉 남쪽 5 km)·덕두산(1150고지, 동면 남쪽 3 km)·삼봉산(1187고지, 함양 서남쪽 8 km)·380고지(함양 남쪽 5 km)·왕산(923고지, 산청 서쪽 5 km)을 연하는 통제선 “B”를 점령하였다.

사단에 배속되어 저지임무를 수행하게 된 제110예비연대의 제2, 제3대대는 사단 기동타격부대의 공격에 호응하여 저지진지 “S”, “T”를, 제107연대 제1, 제2대대는 천마산(함양 동쪽 13 km)을 중심으로한 남북 일대의 저지진지 “U”, “Z”를 각각 점령하여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다음날 제8사단은 통제선 “B”에서 공격을 재개하여 만복대(남원 동쪽 12 km)·세골산(1,198고지, 운봉 남쪽 7 km)·부운리(남원군 동면 남쪽 7 km)·문정리(함양군 휴천면)·방곡리(산청군 금서면)·938고지(응석봉 서쪽 5 km)로 진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어서 4일에는 포위망을 3~5 km 압축하였으며, 6일에는 최종목표인 벽소령, 1,248고지(벽소령 동쪽 2 km), 1,134고지, 1,806고지(천왕봉 서쪽 2 km)를 점령함으로써 제1기 전반기 작전이 종결되었다.

제8사단은 7일부터 제1기 후반기 작전으로 전환하여 목표지역 “A”에 분산 은거중인 공비를 탐색하기 위하여 공격 역순으로 진출하면서 14일까지 반복수색을 계속하였다. 이 제1기 후반기 작전에서 제8사단은 공비 사살 271명, 포로 8명, 은거지 파괴 50개소, 소화기 60정, 박격포 1문, 경기관총 6정을 노획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지역내 공비의 1차적인 소탕작전을 성공리에 종

결지은 제8사단은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지시(제3호, 1951. 12. 7.)에 의거, 사단 전술지휘소를 운봉에서 남원으로 이동시켜 제2기 작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때, 제16연대는 남원에, 제21연대는 동면에, 제10연대는 함양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정비에 임하였다.

그리고, 사단에 배속된 제110예비연대의 2개 대대는 배속이 해체되어 운봉 북쪽 2 km 지점의 호기리(남원군 이백면)로 이동하였고 제107예비연대의 2개 대대는 남원에 집결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1951년 9월 이래로 남원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전투사령부에는 3개의 예비연대(제107, 제110, 제117연대)와 2개의 경비대대(제1, 제2대대) 그리고 4개의 경찰연대(제200, 제203, 제205, 제207연대) 및 7개의 경찰대대[제18, 제36, 칠보, 백아산, 전남, 전남(행정), 계림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찰부대들은 국립경찰의 독자적인 편성인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이었다.

치안국은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안국 전방사령부를 설치하고 2개의 경찰전투사령부와 경남, 전라남·북의 3개도 경찰국의 공비토벌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전투경찰부대 중의 제200경찰연대와 제207경찰연대 및 계림경찰대대는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에, 제203경찰연대와 제205경찰연대, 6개경찰대대는 지리산지구 경찰사령부에 예속되어 있었다.

12월 1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 제1, 제2대대를 순천으로부터 화개장(하동군)으로 진출시켜 저지진지 “R”을 점령토록 하고 잔여부대로 예상되는 공비의 준동에 대비하여 주요지역을 경비하도록 하였다. 부대별 작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 2. 호남·지리산 지구 작전

- 제1경비대대: 전술지휘소 평사리, 섬진강 발전소 경계.
- 제2경비대대: 전술지휘소 광주 비행장, 광주 비행장 경비와 나주·월명리(정읍·동북쪽)·영산포 등의 거점 경계.
- 제107예비연대 제3대대: 전술지휘소 금산, 금산지역 경계와 퇴로 차단.
- 제205경찰연대: 전술지휘소 남원, 남원·순창간에서 공비퇴로 차단.
- 제207경찰대대: 전술지휘소 함양, 진안, 일대 경계.
- 제18경찰대대: 전술지휘소 무산, 무산 일대 경계.
- 제36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전주, 전주 지역 경계.
- 칠보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시산리, 섬진강 발전소 경계와 서쪽지역 차단.
- 백아산경찰대대: 전술지휘소 원동리, 백아산에 주둔하면서 공비의 재입산을 방지.
- 전남경찰대대: 전술지휘소 광주, 광주지역 경계.
- 전남(행정)경찰대대: 광주지역 경계.

제1기 작전 기간중 토벌부대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전단 살포 3, 222,000매, 지상방송 연 31시간, 공중방송 연 4시간을 실시하였다.

제1기 작전 기간중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종합전과는 공비 사살 1,715명, 생포 1,710명, 귀순 132명, 소총 509정, 자동화기 86정, 수류탄 676발, 백미 769석, 벼 416가마에 달하였으며, 잔여공비들은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형과 은거지를 버리고 토벌부대를 피해 분산 잠적하였다.

(내) 제2기 작전(1951. 12. 16.~1952. 1. 4.)

1) 작전계획

12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지리산 일대에 은거하던 공비(남부군이 주축)들은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한데다가 근거지마저 잃게 되자,



지리산지구에서 생포된 공비들

교묘히 포위망을 벗어나 노령산맥의 고지대를 목표로 분산 도주한후, 지방공비와 합류하여 재기를 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전북도당의 제45사단과 충남도당의 제68사단이 주축을 이룬 운장산(1,126고지, 전주 동북쪽)지구의 1,6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병력은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령병단 소속의 제6연대와 제46사단 제407연대와 제408연대는 임실-회문산

-장군봉-신선봉 일대에서 합류하여 1,000여 명의 병력으로 서해안으로 통하는 거점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전남 내륙지방에서는 화순·곡성 군당의 기간요원과 전남 유격총사령부 산하의 분산된 병력 약 1,000여 명은 주로 백야산-모후산 일대에 분산 잠적하여 가급적 토벌부대의와의 접전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비들의 동정을 파악하게 된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분산된 이들을 근거지별로 각개격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투사령부는 제2기작전은 거점을 포위공격하는 전반기 작전(12. 19.~28.)과 공비의 잔당을 수색 격멸하는 후반기 작전(51. 12.

30.~52. I. 5.)의 2개 단계로 구분하고, 수도사단과 제8사단 그리고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 하여금 지역별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계획 제2호의 요지

1. 수도사단은 제203경찰연대, 제207경찰연대 및 제18경찰대대를 통합지휘하여 운장산 지구의 공비를 격멸하라.
2. 제8사단은 제107예비연대와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 및 제205경찰연대를 비롯한 4개 경찰대대(제36, 칠보, 백야산, 계림대대)를 통합지휘하여 회문산 지구와 백야산 지구의 공비를 격멸하라.
3.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제110예비연대, 제117예비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병력으로 지리산 지구의 재집결을 기도하는 공비를 격멸하라.

이와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한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제2기 작전의 공격개시 일시를 12월 19일 06:00로 결정하고 새로 배속된 제9경비대대를 수도사단에 재배속하였다.

또한, 대전에 있던 제1302보급중대를 남원의 공병 보급소에 병합하는 한편, 제1102 야전공병대대를 동원하여 순창·담양·갈담·정읍의 4개소에 경비행기(L-19) 착륙장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전투지원태세를 강화하였다.

2) 작전실시

수도사단 : 구례 부근에 집결한 수도사단은 12월 15일부로 현지 작전임무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인계하고 전주 북동쪽에 있는 운장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기갑연대는 음대리(운장산 동쪽)로, 제1연대는 진안으로, 제26연대는 고산(운장산 남쪽)으로 각각 이동하여 12월 17일까지 병력을 전개 완료하였으며 사단 전술지휘소는 전주로 이동하였다. 또한 배속부대도 제9경비대대는 대둔산에, 제203경찰연대는 영동에, 제207경찰연대는 안의에, 제18경찰대대는 무주에 병력을 배치하여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게 되었다.

수도사단은 12월 19일 06:00에 3개 연대로 포위망을 형성하였으나 공비들이 이미 주봉(운장산) 쪽으로 잠적하였으므로 접전이 없는 가운데, 62개소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운장산 중턱까지 진출하였다. 이날의 전과는 공비 사살 3명, 생포 7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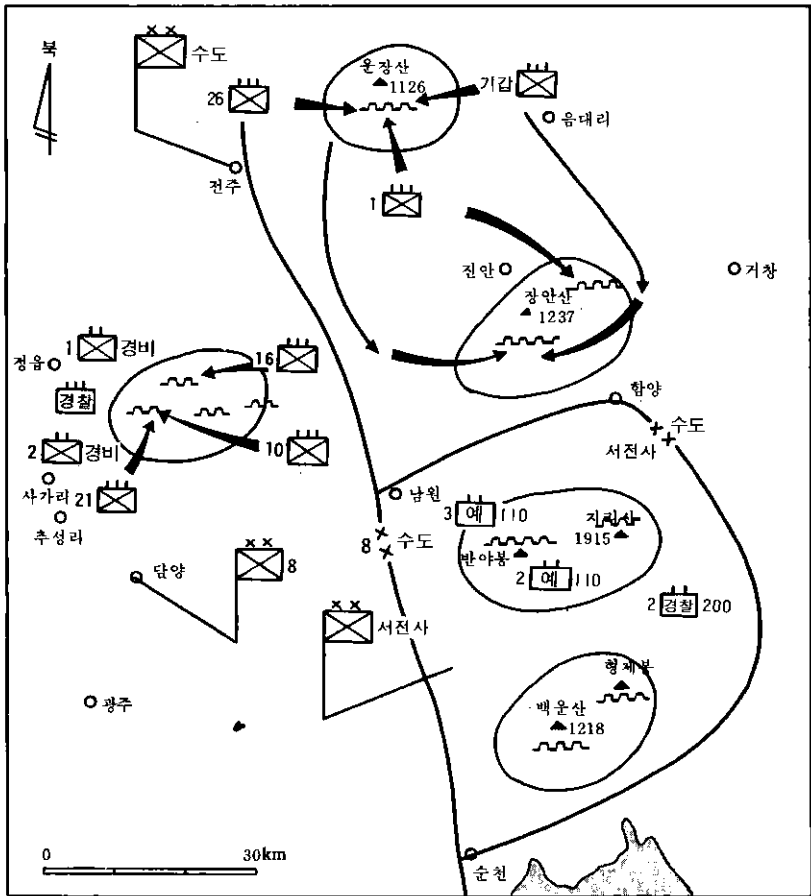
다음날 07:00, 일제히 공격을 재개한 수도사단 주력은 운봉산을 수색하였다. 이날의 공격에서 토벌부대는 고산 쪽으로 도주하는 공비주력을 추격하여 사살 13명, 포로 29명의 전과를 올렸다. 21일에도 수색전을 계속 전개한 수도사단은 주력을 남동쪽 성수산으로 진출시켜 다음날까지 이 일대를 탐색하면서 공비의 주력을 격멸하였다. 그러나, 공비의 일부잔당이 다시 남동쪽 15 km 지점의 장안산(장수 동쪽)으로 도주하자, 수도사단은 가용한 전 병력을 장안산에 집중투입하여 목표지역을 2중 포위한 다음 28일까지 5일 동안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수도사단은 제2기 전반기 작전을 통하여 도합 790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478명을 생포하였으며, 화기 114정과 백미 30가마를 노획하였으나, 사단도 전사 29명과 부상 29명의 피해가 있었다.

12월 31일 06:00에 제2기 후반기 작전을 개시한 수도사단은 그 이듬해 1월 4일까지 작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무렵, 공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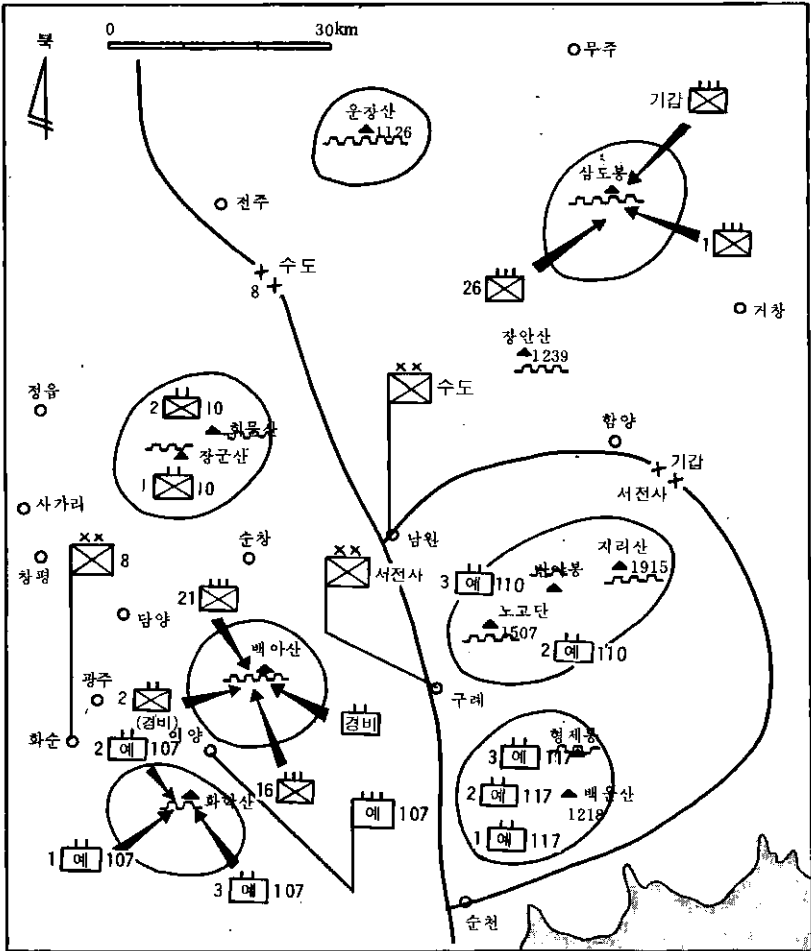
지리산으로 재집결하려는 기도가 좌절되자 삼도봉(거창 북서쪽 30 km)으로 잠입하여 새 근거지의 구축을 기도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은 이들을 격멸하기 위하여 기갑연대를 무주에, 제I연대를 거창에, 그리고 제26연대를 함양에 각각 전개한 다음, 삼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공격 첫날에는 큰 접전 없이 포위망을

요도 18 제 2기 전반기 작전 요도 (1951.12.19~30)



압축하고 중간목표를 탈취하였다. 다음날에는 지역내의 주봉을 수색하다가 공비의 주력을 포착하는 즉시 일격을 가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2일에는 도주하는 잔당을 추격하여 황석산(지리산 북쪽 20 km)에서 이들을 격멸하였다.

요도 19 제 2 기 후반기 작전 요도 (1951.12.31~1952.1.4)



1월 4일 수도사단은 제2기 작전을 종료하고 차기 작전지구인 지리산 일대에 재진입하기 위하여 거창(기갑연대)·운봉(제1연대)·함양(제26연대)에 3개 연대를 재배치하고 사단 전술지휘소를 장계리에서 남원으로 이동시켰다.

제8사단 : 제8사단은 노령산맥 남서쪽의 회문산·장군봉·신선봉·내장산 일대에 은거중인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17일까지 전술배치를 완료하였다. 이때 제10연대는 함양을 떠나 순창으로, 제16연대는 남원으로부터 갈담리(남원 서남쪽)로, 제21연대는 동면에서 추성리(담양 북쪽 5 km)로 각각 이동하였다. 그리고 배속부대인 제107예비연대와 제205경찰연대는 17일에 남원 사거리(장성 북쪽 14 km)·정읍을 연결하는 선에서 각각 지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전술적으로 중요시되는 길목을 차단하였으며,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를 비롯한 경찰부대들은 종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제8사단장의 제2기 작전개념은 수도사단이 목표지역을 전면포위하고 공비를 압축 격멸하는 것과는 달리, 3개 기동타격부대를 회문산에 집중투입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서쪽으로 구축하면서 전진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일부병력을 서쪽에 매복시켜 퇴주하는 공비들을 격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8사단은 12월 19일 06:00 임실-순창 선에서 9개 대대가 각각 담당지역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격 첫날 사단 주력부대는 회문산 부근의 공비 은거지 20개소를 파괴하고 종성리(회문산 북쪽 5 km), 금평(회문산 남쪽 4 km), 자양리(순창 북서쪽 8 km)선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제10연대는 장군봉 일대를 수색하여 17명을 사살하고 30명을 생포하였다. 이어서, 21일과 22일의 공격에서는 산내면(정읍군)과 북흥면(순창군) 일원을 수색하고, 23일에는 공비들의 주요거점인 신선봉(763고지 담양 북쪽 18 km), 내장산, 백양산을 집중공격하였다.

사단은 이 지역에서 24일까지 수색작전을 마친 다음 일부병력을 잔류시켜 재수색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주력으로 하여금 25일부터 목표로부터 공격개시선 방향으로 진출하면서 반복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제8사단은 전반기 작전을 일단락짓고 부대를 정비하게 되었다. 제2기 전반기 작전 기간중 제8사단의 종합전과는 공비 사살 417명, 포로 851명, 근거지 파괴 313개소에 이르렀고 그밖에도 무기와 탄약을 대량 노획하였다. 이에 비하여 사단의 피해는 전사상자 39명이었다.

전반기 작전을 마친 제8사단은 백야전 전투사령부로부터 “30일 06:00를 기하여 공격을 개시하여 전남지역의 백야산과 화학산 일대의 공비를 소탕하라.”는 후반기 작전을 위한 작전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제8사단장은 회문산에 은거한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제10연대를 회문산에 잔류시키고 나머지에 2개 연대와 배속부대로 백야산을 전면포위하기로 다짐하였으며, 제107예비연대로 하여금 화학산(CQ 1059) 지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연대는 27일에 회문산 지구를 인수하였다. 그 밖의 부대는 같은날 후반야에 행동을 개시하여 다음 작전지구인 백야산과 화학산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제16연대는 화순을 경유 원동-화순 간의 백야산 남쪽으로 이동하여 주력을 전개하고, 제21연대는 순창에서 창평으로 이동하여 백야산 북쪽에서 공격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205경찰연대는 옥과·원동으로, 제2경비대대는 사단 전술지휘소와 함께 화순으로, 제107예비연대는 사거리(장성 북쪽)를 떠나 나주를 경유 화학산으로 각각 이동하였다.

이렇듯, 지구별로 포위망을 형성하게 된 각 부대는 30일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그 이듬해 1월 3일까지 5일 동안 수색작전을 계속하였다.

이 기간중 화학산 지구에서는 접전상황이 경미하였으나 백아산, 모후산에서는 제16연대와 제21연대가 두 차례에 걸친 수색을 통하여 공비 사살 155명, 포로 202명의 전과를 올렸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 제2기 작전 기간중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지구에서 제110예비연대, 제117예비연대와 제200경찰연대로 지리산으로의 재집결을 기도하던 공비들을 격멸하고 아울러 이들의 주요거점을 수색하였다.

12월 19일, 제110예비연대 제3대대는 반야봉 동쪽 1585고지 부근에서 공비 50명을,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는 거림에서 공비 150명을 격멸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에는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가 노고산에서 공비 33명을 생포하였다. 제10예비연대 제2대대는 22일의 전투에서 거림 부근에 출현한 200명의 공비와 4시간 동안 교전을 치른 끝에 이들을 격퇴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26일과 27일 양일 사이에 천왕봉에서 약 200명의 공비를 포착하여 수도사단 제26연대와 합동으로 이를 격멸하였다. 그 후 제2기 후반기 작전에서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지리산 지구에서 저지부대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제2기 작전 기간중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전단살포 5백37만 매를 살포하고 연 49시간의 선무방송을 실시한 결과 공비 370여 명이 귀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 제3기 작전(1952. I. 4. ~ I. 31.)

1) 작전계획

호남지구의 이현상을 정점으로 한 공비집단들은 백야전 전투사령부가 펼친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의해 지휘체제가 와해되고 대부분의 근거지가 파괴되자, 유격활동에 유리한 지리산 지구로의 재잠입을 기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비의 동정을 확인한 백선엽 사령관은 지리산·백운산·덕유산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공비잔당을 격멸할 작전계획을 세웠다. 이에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작전계획 제3호(51. 12. 30.)를 하달하였다.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계획 제3호의 내용

1.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제1기, 제2기 작전으로 분산 도주한 공비의 잔당을 포획 섬멸하려 한다.
2. 수도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지리산, 백운산, 장안산 지역의 공비를 포위 섬멸하라.

단, D+3일까지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인계하는 대신 지리산 지구에서 작전중인 제110예비연대(-)와 제117예비연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라.

3. 제8사단은 D일 H시를 기하여 회문산-백야산-조계산-화학산 지구에서 공비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각개 격파하라.

단, D+3일까지 제1경비대대, 제2경비대대와 제107예비연대, 제36경찰대대, 칠보경찰대대 및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 소속 경찰부대를 통합 지휘하라.

4.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D일 H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덕유산·운장산 지구의 공비를 각개격파하라.

5. D일 H시는 다음과 같다.

- 수도사단 및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1952년 1월 6일 06:00.
- 제8사단: 1952년 1월 4일 04:00.

2) 작전실시

수도사단: 수도사단장의 작전개념은 사단주력으로 지리산과 백운산을 차례로 포위공격하는 한편 일부부대로 하여금 장안산, 팔

공산, 천황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격멸하기 위하여 지리산 지구 작전을 전반기로, 백운산 지구 작전을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수도사단의 전투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사단의 전투배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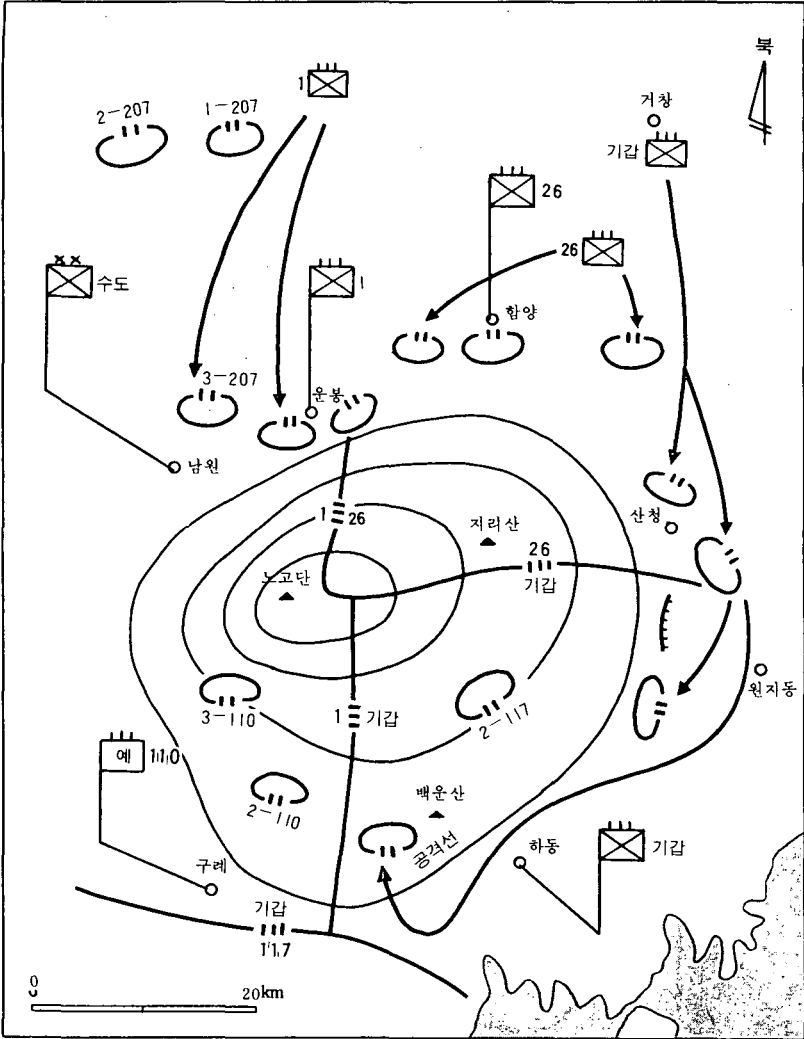
- 기갑연대: 지리산 동쪽에서 포위망 형성.
- 제I연대: 지리산 서쪽에서 포위망 형성.
- 제26연대: 지리산 북동쪽에서 포위망 형성.
- 제207경찰연대: 지리산 북쪽의 청량산, 팔공산, 장안산을 연하는 선에서 퇴로 차단.
- 제II7예비연대: 광양에서 백운산 지구의 퇴로 차단.

I월 6일 06:00 거창을 떠난 기갑연대는 산청을 경유, 지리산 남동쪽의 구곡산으로 이동하였다. 같은날 제I연대는 덕두산(운봉 남동쪽 5 km)과 주천(남원 남쪽 2 km)으로 이동하였으며, 제26연대는 함양·산청 선에 전개하여 목표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포위망을 압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수도사단은 I월 12일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지리산 중심지역인 삼정리(천왕봉 북서쪽 7 km), 천왕봉, 거림, 노고단, 반야봉을 연하는 선 일대를 수색한 후 22일까지 지리산 중심지역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계속한 결과 공비의 잔당을 일망타진하였다.

22일 14:00부로 지리산 지구 작전을 종료한 수도사단은 24일부터 백운산 지구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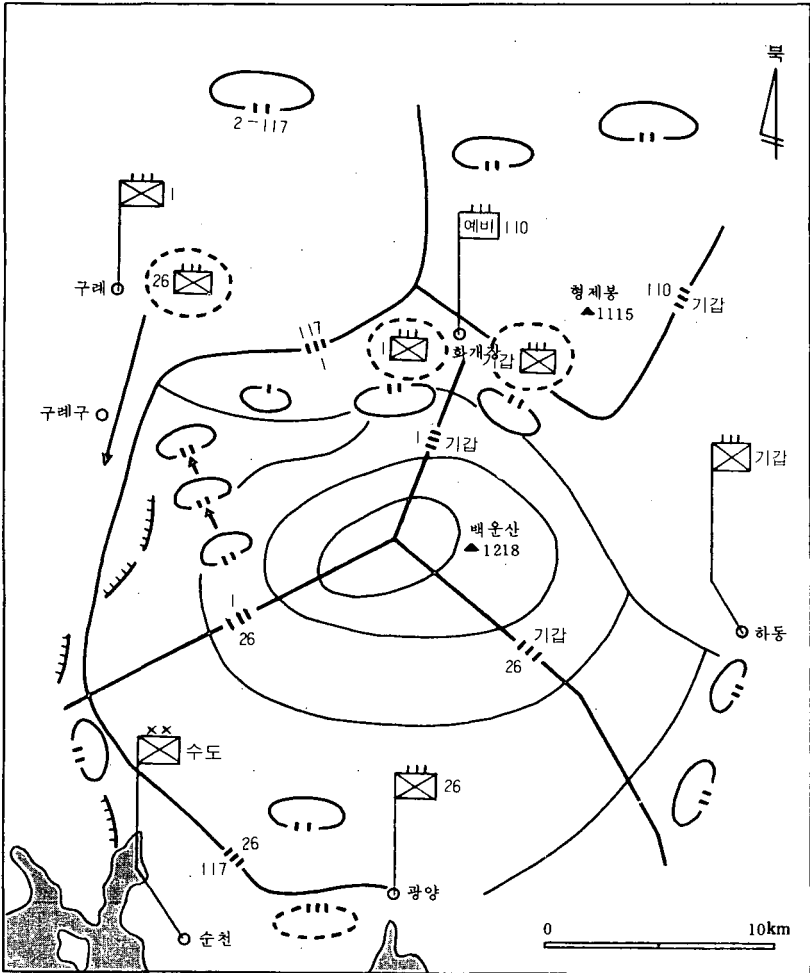
수도사단장은 백운산 지구 작전을 위하여 지휘소를 순천으로 옮기고 다음날 기갑연대를 화개장·하동·광양에, 제I연대를 그 북서쪽인 화개장·구례, 망릉리(구례구 남쪽 10 km)에, 그리고 제26연대

요도 20 제 3기 지리산 지역 작전 요도 (1952.1.6~22)



를 광양, 대구리(송주군 내면)에 각각 전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배속된 3개 예비연대는 저지진지를 점령하였고 지리산지구 경찰투사령부(제205경찰연대, 백아산 경찰대대, 전남 경찰대대)는 점령진지에서

요도 21 제 3기 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1952.1.24~2.1)



계속 거점 수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백운산에는 약 350여 명의 공비가 집결중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도사단은 24일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여 27일에는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다음날부터는 반복정밀수색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이보다 앞선 24일,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작전지시 제24호(52. I. 24)로 기갑연대와 제200경찰연대 제2대대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전환시켜, 이 부대에 경남 밀양 동북쪽 25 km 지점의 운문산에서 준동중인 공비 소탕임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수도사단(-)은 2월 1일에 백운산 지역 작전을 종료하고 제1연대를 구례에, 제26연대를 광양에, 제110예비연대를 용강리(화개장 북쪽 5 km)에, 제205경찰연대를 화개장에 집결시켰다.

제3기 작전 기간중 수도사단의 종합전과는 공비 사살 1,867명, 포로 1,155명과 장비 노획 경기관총 29정, 소화기 66정에 달하였으며, 사단의 피해는 전사 68명, 전상 96명이었다.

제8사단: 제8사단은 제3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문산(제10연대), 신선봉(제16연대), 백야산(제21연대), 화학산(제107예비연대), 조계산(제205경찰연대)의 5개 지구에 병력을 전개하였다.

제8사단의 전개상황

- 제10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순창): 회문산 서쪽에 3개 대대 배치.
- 제16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장성): 신선봉에 3개 대대 배치.
- 제26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옥과): 백야산 서쪽에 3개 대대 배치.
- 제107예비연대(연대 전술지휘소, 이양): 화학산과 그 동쪽 무명고지에 병력 배치.
- 제205경찰연대(연대 전술지휘소, 광천리): 조계산 일대에 병력 배치.

1월 4일 06:00에 일제히 공격을 감행한 제8사단은 1월 8일까지의 5일 동안에 공비 사살 71명, 생포 17명, 각종 무기 30정을 노획하는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백야산 지구 작전을 전개하던 제21연대는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지시(52. 1. 10)에 따라 회문산 지구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제8사단은 1월 10일부터 회문산-신선봉 일대에 3개 연대와 배속부대를 집중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제21연대는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부터 운장산 지구 작전임무를 인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8사단은 1월 말까지 신선봉·회문산·백련산·운장산·팔공산·성수산·장안산에서 공비소탕작전을 계속한 결과, 공비 사살 1,715명, 포로 1,972명과 각종 화기 노획 625정에 달하는 전과를 올린 반면, 전사 48명과 전상 5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제8사단은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122호(52. 1. 25)로 전선에 재배치되자 배속부대를 원대복귀시키고 부대이동 준비에 착수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제3기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1월 8일에 전술지휘소를 장계리에 설치하였다. 같은날 제9경비대대, 제203경찰연대, 제18경찰대대가 이 사령부에 배속되었다.

작전지역내의 공비는 제2기 작전기간중 수도사단과 제8사단에 의하여 타격을 받고 운장산·덕유산 일대로 분산 도주한 충남도당의 제68사단과 전북도당의 장수군당, 진안군당, 무주군당 그리고 거창·김천군당 유격대의 잔여병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간중 각 부대별 작전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9경비대대는 1월 9일 수도사단에서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로 배속이 변경되자 전술지휘소를 진안으로 이동시킨 후 운장산 지구로

부터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그로부터 2일째 되는 11일 12:30에 제9경비대대는 대불리(운장산 북동쪽 5km)에서 공비 11명을 사살하고 114명을 생포하였다. 1월 17일, 백야전 전투사령부 작전 지시로 운장산지구작전이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서 제8사단으로 인계됨에 따라 제9경비대대는 제8사단 제21연대로 배속이 전환되었다.

제203경찰연대는 1월 9일 유평리(산청 남서쪽 10km)에 일단 부대를 집결시켰다가 다음날 지휘소를 장계리(장수 북쪽)로 추진 설치하였다. 연대는 3개 대대로 덕유산을 포위한 후 이를 압축하면서 의심나는 지역을 반복수색하였다. 또한 제18전투경찰대대는 1월 8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무주·영동 간 보급로를 경비하다가 일부병력을 조항산(속리산 북쪽)과 그 서쪽 일대에 추진배치하여 공비들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제3기 작전 기간중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총 102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61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16정을 노획하였다.

(라) 제4기 작전(1952. 2. 4.~3. 14.)

1) 작전개요

1952년 1월 31일부로 제3기 작전을 종료한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 작전지시 제271호(52. 1. 20)에 의거 제8사단과 더불어 전선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기하게 되었다.

사령관 백선엽 중장(52. 1. 12 진급)은 이미 하달한 작전명령에 따른 제4기 작전(별칭, Rat Killer작전)을 전선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휘한 연후에 지휘권을 수도사단장에게 인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하달된 육군본부 작전지시로 제8사단이 2월 5일부로 전선으로 복귀하게 되자, 제4기 작전은 수도사단과 서남지구 전투사령부가 주동이 되어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백야전 전투사령부는 전투지경선을 재조정하고 수도사단

을 비롯한 가용병력을 재배치하였다.

이리하여 2월 4일에 제4기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2월 6일부로 수도사단에 그 임무를 인계하고 9일에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2) 작전실시(수도사단)

수도사단은 최초 백야전 전투사령부가 계획한 대로 백야산·모후산·조계산 지구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기로 하고, 2월 3일 사단 전술지휘소를 남원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더불어 제1연대는 조계산 북쪽지역에, 제26연대는 조계산 남쪽에 전개하여 4일 06:00에 조계산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공격 첫날, 양개연대는 남과 북에서 조계산을 포위하여 협공으로 목표를 점령한 후 7일까지 조계산 일대에서 반복수색을 계속하여 다대한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백야산 경찰대대는 백야산 서쪽에, 그리고 전남 경찰대대는 모후산에 각각 병력을 배치하여 공비의 탈출로를 차단한 가운데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남지구 전투사령부는 전술지휘소를 진안에 두고 제110예비연대, 제9경비대대, 제36경찰대대를 배속받아 운장산·고산에서 공비잔당을 격멸하였다.

그리고,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지휘소를 함양에 설치하고 제207경찰연대와 제18경찰대대를 배속받아 덕유산·장안산·천황산 지역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지리산지구 경찰전투사령부는 제205경찰연대가 주축이 되어 함양·남원·구례구·순천을 연하는 선 동쪽의 지리산·백운산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새로 창설된 경찰의 “손”부대(부대장: 손계천 총경)는 칠보·계림 양개 경찰대대를 지휘하여 전주, 임실, 남원, 담양, 정읍을 연하는 선에서 회문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경남 밀양의 신불산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한 수도사단의 기갑연대는 2월 15일에 작전임무를 마치고 원대복귀하여 호남지구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도사단이 주동이 된 제4기 작전은 3월 14일 종료되었으며, 수도사단은 작전책임지역과 경비부대 및 경찰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서남지구 전투사령부에 인계한 후에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였다.

이로써 육군은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 전투사령부를 전주에 설치한 이래 12월 초순부터 그 이듬해 3월 14일까지 3개월 만에 걸쳐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남부군을 비롯한 공비 주력을 격멸하였던 것이다.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총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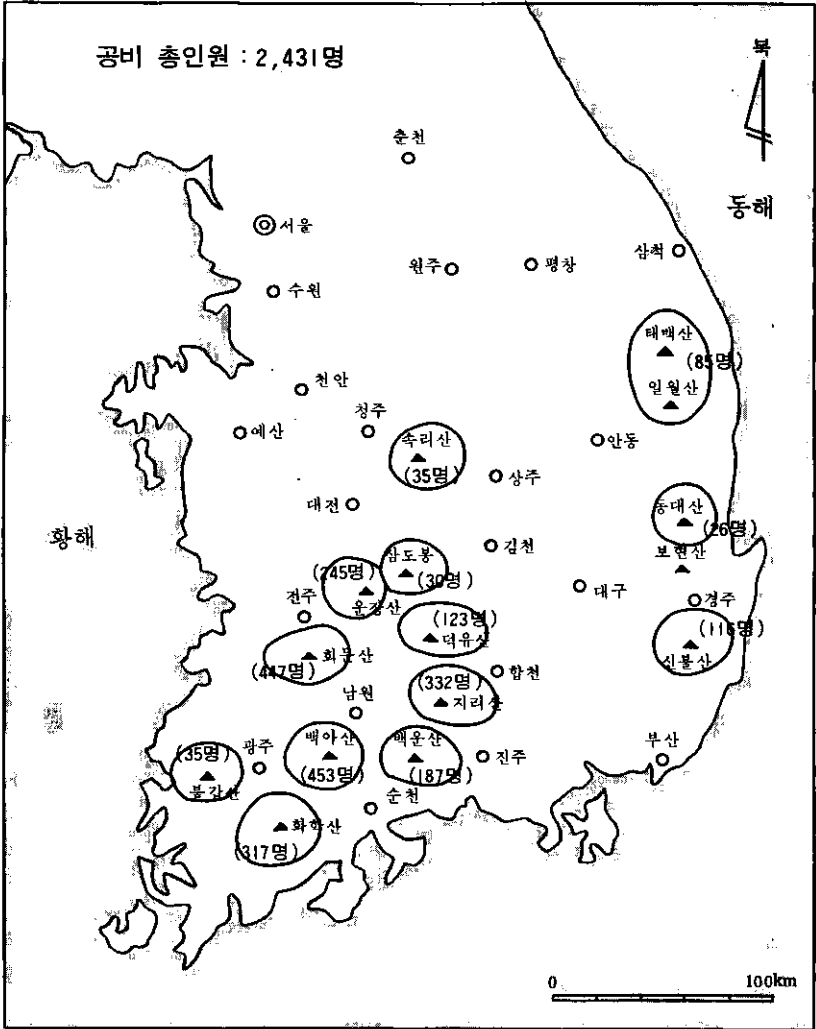
• 전 과

사	살	5,009	명
생	포	3,968	명
귀	순	45	명
각종 화기 노획		682	정(문)
은 거 지		341	개소

• 피 해

전	사	33	명
부	상	72	명

요도 22 백야전사 작전 완료후 공비 분포도 (1952.3.31)



라. 제1사단의 토벌작전(1952. 7. 13.~8. 4.)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1952년 3월 25일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발본적인 공비토벌작전이 완료되고 4월에 접어들자 지리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서도 새싹이 피어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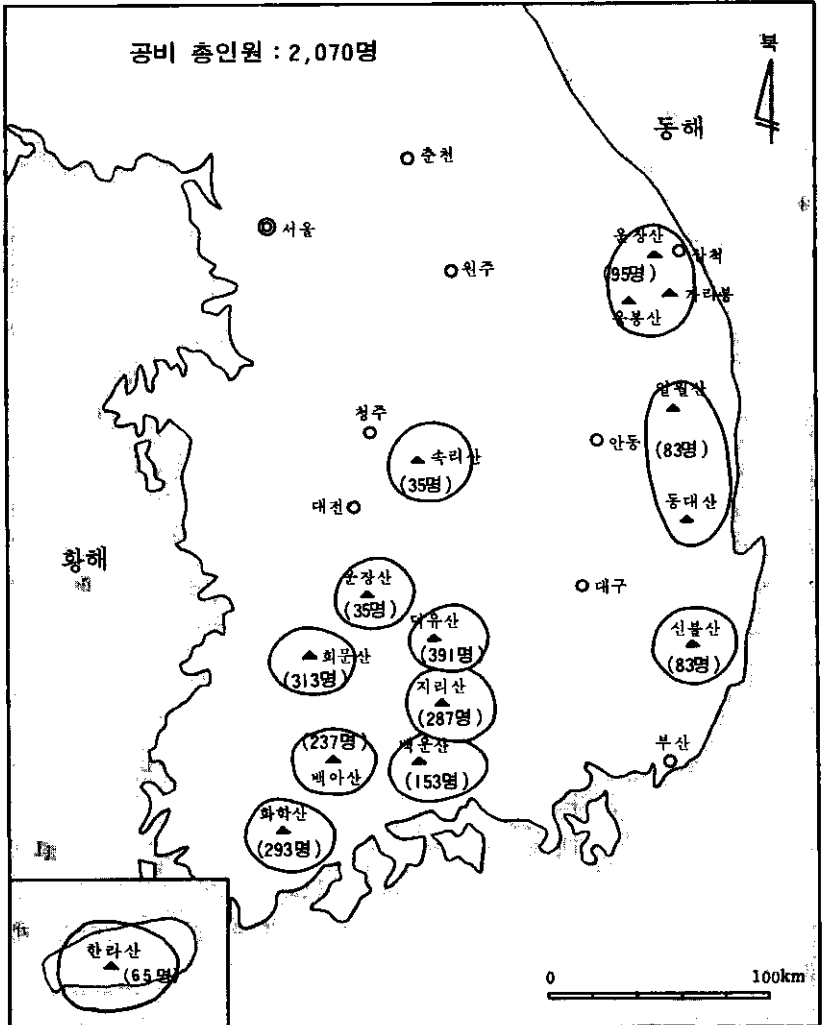
그 동안 토벌대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분산 은거중이던 소수의 공비들은 다시 행동을 개시하여 재편성을 서두르는 등 병력수습에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4월 24일에 실시될 지방의원 선거와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하여, 선거방해와 민심교란을 위한 유격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당시 공비들은 백야전 전투사령부의 토벌작전으로 남부군의 주력이 붕괴되자, 남부군 예하의 핵심부대인 제81사단은 김지회부대로, 제92사단은 박종하부대로 각각 개편하였고, 부대명칭도 남부군 원래의 독립제4지대로 변경하였다. 또한 전북도당의 유격대인 제45사단은 향미연대로, 제46사단은 복수연대로 개편되었다.

이들 공비들은 6월 초순에 이르러 산림이 무성해지자 조직체계를 가일층 강화하는 한편, 각처에서 차량을 기습하고 군의 보급로를 위협하는 유격활동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리산 지역에 있던 독립제4지대가 덕유산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게다가, 북괴는 대남공작원을 대폭 증가시키는 한편 오대산 남쪽 가리봉(DT 4314) 일대에 역마통신대를 배치하여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남하 또는 북상하는 공작원의 안내, 연락, 식량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영남지역의 일월산(ER 0972)과 신불산(CQ 0532) 지역에서도 소수의 공비들이 준동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활동은 경미하여 생존을 위한 보급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도 23 제1사단 작전전 국내 공비 현황 (1952.7.1)



(내) 토벌부대상황

제1사단은 1952년 7월 10일 경기도 전곡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여 서남지구 경비사령부에 배속되었다. 동 사단은 7월 13일 09:00를 기하여 예하 제11·제12연대로 하여금 지리산을 비롯하여 회문산·장안산·덕유산 등 호남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제15연대는 경남 밀양으로 이동하여 영남지구 경비사령부를 설치한 후 일월산·신불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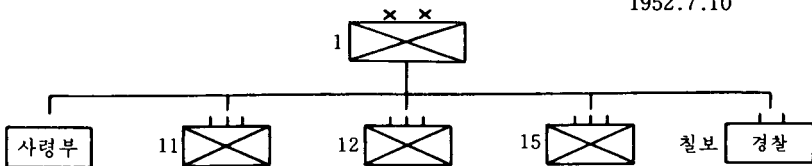
이처럼 본격적인 공비소탕작전을 펼치게 된 사단장은 연대단위에 1개 대대 규모의 기동예비대를 확보하도록 하고, 사단수색중대를 제11연대에, 칠보경찰대대를 제12연대에 배속하고 사단전차공격대대와 공병대대를 사단기동예비로 확보함으로써 유동적인 상황에 적응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제1사단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29

제 1 사 단 전 투 편 성 표

1952.7.10



지휘관 인적사항

부 대	직 책	인 적 사 항	비 고
제 1 사 단	사 단 장	육군준장 박임항	51. 7. 4 부임
제11연대	연 대 장	육군대령 최주종	52. 3. 20 부임
제12연대	연 대 장	육군대령 정영홍	51. 9. 1 부임
제15연대	연 대 장	육군대령 김진위	51. 5. 28 부임

(2) 작전경과

(가) 회문산 지구 작전

1952년 7월 13일 제II연대는 회문산 지구에서 출몰하는 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임실 북방 13 km 지점의 갈미산에 배치되었던 제I대대는 백련산(CQ 3537)을 경유하여 회문산 북동쪽으로 진출하였으며, 제2대대는 임실 남쪽의 오암리(CQ 4636)를 출발하여 회문산 동쪽에서부터 수색작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대예비인 제3대대는 7월 16일 제I·제2대대의 진출선과 보조를 맞추면서 회문산 북쪽으로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는 7월 13일부터 계속 회문산 동쪽 임실-순창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접적하지 못한 가운데, 7월 18일 05:00부로 회문산 지역 작전을 종료하고 제I2연대와 임무교대한 후 배속부대와 함께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작전을 위하여 임실(CQ 4441)로 이동하였다.

(나) 지리산 지구 작전

1952년 7월 18일 오후, 제II연대는 임실에서 지리산 동쪽 산청(CQ 9819)으로 다시 이동하여 이 곳에 연대·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산청(제I대대), 무등(CQ 9404:제2대대), 방종리(CQ 7915:제3대대)에 3개 대대를 배치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하던 경찰 3개 대대가 연대에 배속되었다.

지리산 지구 작전에 임한 연대장은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북·동·남의 3개 방향에서 포위하여 포위망을 서서히 압축하면서 목표내의 공비를 격멸한다는 작전개

념을 세웠다. 이에 따라 7월 19일 06:00에 예하 제2대대는 배속된 제203경찰연대와 더불어 목표 남쪽에서 행동을 개시하였고, 제1대대는 계림경찰대대와 함께 산청 부근에서 그리고 제3대대는 북쪽에서 각각 천왕봉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7월 20일 18:20, 제3대대는 천왕봉(CQ 8410) 일대에서 공비 20명을 격멸한데 이어서 7월 21일에도 천왕봉 북쪽 유평리(CQ 8714)에서 공비 80여 명과 교전하였으나 쌍방간에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공비들이 도주하면서 유기한 다량의 무기와 보급품을 노획하였다.

7월 23일 예하 3개 대대와 배속부대들은 최종목표인 천왕봉과 유평리 일대로 진출하였으며 다음날에는 목표지역 일대를 최종적으로 수색하였으나 집적이 없는 가운데 작전이 종결되었다. 이에 연대는 이날 10:00부로 제203경찰연대 제2·3대대와 계림경찰대대의 배속을 해제하고 잔여공비 소탕임무를 제203경찰연대에 인계한 뒤 일단 산청에 병력을 집결시켜 차후작전에 대비하게 되었다.

(대) 장안산 지구 작전

7월 25일 제11연대는 사단장 명령에 의해 경남 산청에서 전북 장수 동쪽 7km 지점에 있는 장안산(CQ 7342)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에 임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평정(장안산 남동쪽 12km)에서 장안산 남쪽으로, 제2대대는 은행정(장안산 동쪽 7km)에서 백운산을 거쳐 장안산 동쪽으로 그리고 제3대대는 920고지(장안산 남쪽 10km)에서 목표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책임지대를 수색하였다.

27일 제2대대는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던 수 미상의 공비를 격멸하였으며, 제3대대는 공비 은거지 2개소를 파괴하였다. 연대는 집적상황이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이 날로 장안산지구 소탕작전을 종결지었다.

(라) 덕유산 지구 작전

제11연대는 제203경찰연대 예하 2개 대대를 통합지휘하여 7월 28일 05:00부터 덕유산지구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1대대는 거창 북쪽 2 km 지점의 동변리에서 출발하여 위천-북상을 거쳐 덕유산(장수) 동쪽으로 진출하였고, 제2대대는 거창 서쪽 5 km 지점 상촌에서 금원산(CQ 8854)을 거쳐 덕유산 남쪽으로, 제3대대는 거창 남서쪽 7 km 지점의 고산(CQ 9248)에서 금원산을 경유하여 덕유산 남쪽으로 각각 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대에 배속된 제203경찰연대 제3대대와 제5대대는 덕유산 동쪽 15 km 지점의 구룡동과 골담(DQ 0569)에서 덕유산 동쪽의 궁항리(CQ 9666) 일대까지 진출하면서 예상되는 공비 은거지역을 수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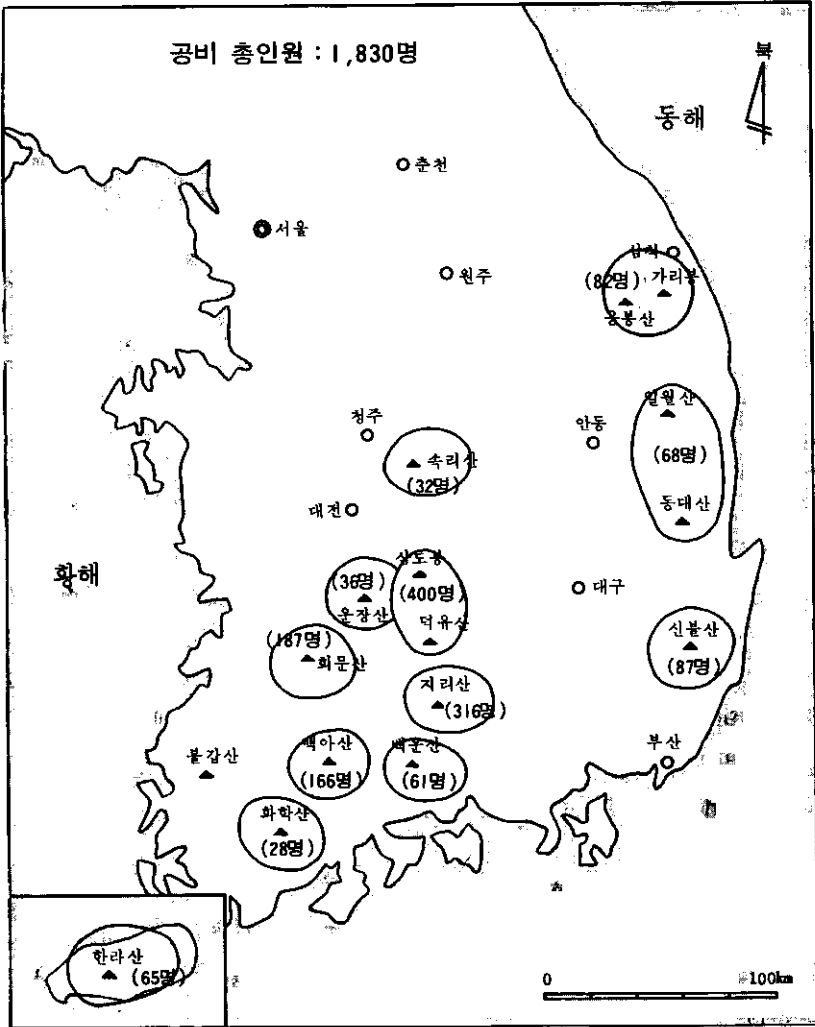
연대는 덕유산 지역의 작전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수색과 소탕에 중점을 두었으나 8월 3일까지 접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다음날 00:01에 작전을 종료하고 무주(CQ 8189)에 병력을 집결시켰다.

제1사단의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은 1952년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의 20 일 동안 제11연대가 주축이 되어 회문산·지리산·장안산·덕유산 일원의 잔여공비를 소탕하였으며 제12연대는 회문산·내장산(정읍)·장성 일대에서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을 통하여 사단은 공비 57명을 사살하였다.

한편, 경남 밀양에 본부를 두고 영남지구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던 제15연대는 동년 8월 9일에 이 지구에서의 공비소탕작전을 완료하였다.

제1사단은 1952년 8월 10일 무주를 떠나 충북 영동을 경유하여 경기도 연천으로 이동하였다.

요도 24 제 1 사단 작전 완료후 국내 공비 현황 (1952.8.4)



3. 태백산 지구 작전

가. 해병대의 안동·영덕 지구 작전

(1951. 1. 23. ~ 2. 13.)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1951년 1월 4일 수도서울이 다시 공산군의 수중으로 함락되고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남하하던 공산군과 오산-원주를 연하는 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중동부의 안동·영덕 일대 산악지대에서는 태백산맥을 타고 남하한 북괴군 제10사단과 그 이전 국군과 유엔군이 총반격을 단행하였을 당시에 퇴로를 잃은 북괴군의 낙오병 집단, 그리고 지방공비가 합세하여 안동-영덕 간에서 차량행군제대와 경찰관서를 습격하였으며 식량약탈과 살인,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저질러 후방의 치안질서를 교란하고 있었다.

(나) 토벌부대상황

중공군의 개입으로 원산·함흥 지구에서 부산을 경유 진해로 철수한 국군 해병대는 부대 재편성과 준비를 마치고 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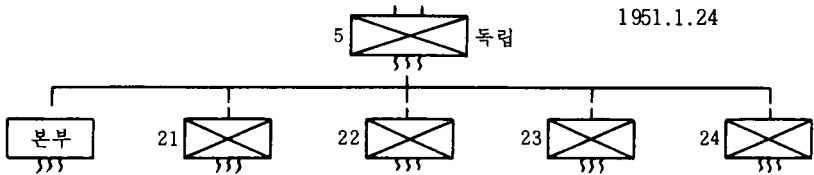
유엔군사령부는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사단을 포항으로 이동시키고, 이 사단으로 하여금 안동-영덕 간의 도로를 경비하

면서 지역내의 복귀 비정규군부대와 공비의 소탕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도 미 해병 제I사단을 증강하고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병 독립제5대대를 안동에 투입하여 미 해병 제I사단 제I연대에 배속시켰다.

국군 해병 독립제5대대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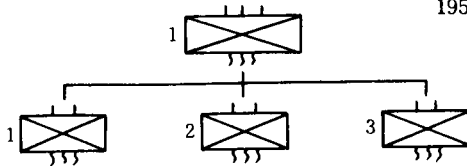
표 30 해병 독립 제 5 대대 전투 편성표 1951.1.24



또한 국군 해병 제I연대는 1월 26일 진해를 출발하여 영덕 남동쪽 3km 지점의 하저동(ER 3626)에 상륙하여 1월 29일에는 전투기지인 영덕에 집결하였다.

국군 해병 제I연대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해병 제 I 연대 전투 편성표 1951. 1. 29



(2) 작전경과

(가) 안동 지구 작전

미 해병 제1사단 제1연대에 배속된 한국 해병 독립제5대대(대대장:오명복 소령)는 미 해병 제1연대의 예비로서 안동-대구 간의 도로를 경계하고 이 지역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를 소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1951년 1월 25일 해병 독립제5대대는 안동 일대에 3개 중대(제21, 제23, 제24중대)를 배치하였다. 이와 별도로 1개 중대(제22중대)는 박격포 2문, 경기관총 2정을 배속받아 안동-의성간의 철로 및 도로의 경비와 부근 일대에 출몰중인 공비소탕 임무를 부여받고 암산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 무렵, 안동 남동쪽 12 km 지점의 기룡산(DR 8235)에 거점을 둔 공비(낙오병이 주축) 200여 명은 염하동(DR 8741, 안동 동쪽 12km 지점) 일대에서 출몰하면서 이 지역의 경찰 및 관공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속에서 1월 28일에는 공비 약 200명이 기룡산 북쪽 2 km 지점의 추목동(DR 8336) 부락을 습격하였다. 이때 이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던 안동 경찰토벌대는 송동으로 쫓겨나왔다.

이에, 해병 독립제5대대는 29일 05:00에 출동하였으며, 추목동 입구를 통과할 때 이 부근에서 매복중인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포위되었다.

그러나, 해병대는 과감하게 반격하여 포위망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병력이 공비의 후방으로 우회접근하여 압력을 가한 끝에 교전한 지 40분 만에 공비 8명을 사살하고 270고지를 탈환하였다.

2월 1일 해병 독립제5대대는 추목동 전투에 이어 점곡(DR 7930)

에서 두 번째로 공비와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 대대의 부대대장(이봉출 대위)은 박격포와 증기관총 각 1개 반으로 증강된 중대(제21중대)를 지휘하여 기룡산 남쪽 6 km 지점에 있는 의성군 점곡으로 출동하였다. 이때 제3소대(소대장:박천만 견습사관)가 점곡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이 곳에서 매복중인 공비 200여 명과 조우하여 교전이 시작되었다. 제3소대는 많은 병력이 우세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비들의 기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하여 경기관총을 최대로 이용하면서 백병전을 전개하였다. 얼마 후 중대의 지원병력이 도착되었으며 1시간여에 걸친 격전을 치른 끝에 마침내 공비를 격퇴하고야 말았다.

그 후, 해병 독립제5대대는 안동에서 영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안동으로 복귀하였다. 2월 13일 이 대대는 안동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을 종결하고 강구(ER 3423)로 이동하여 이 곳에서 인천으로 항진한 후 김포 지구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 영덕 지구 작전

국군 해병 제1연대가 영덕에 집결한 것은 1951년 1월 29일이었다.

이 무렵, 국군 제1군단은 영덕 북방 동해안 일대에서 작전중이었고 미 해병 제11포병연대는 포항-영덕 간을 수색중이었으며, 미 해병 제7연대는 영덕 남서쪽의 동대산(ER 2617)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었다.

해병 제1연대(연대장:김성은 대령)의 임무는 영덕-안동 간의 도로를 경계하고, 아울러 부근 일대에서 출몰하는 공비(낙오병이 주축)를 소탕하는 것이었다.

1월 30일 해병 제1연대는 제1대대(대대장:공정식 소령)를 영덕-안동 간의 34번도로를 따라 원전동(ER 1735)으로, 제3대대(대대장:김용국 소령)를 청송(ER 0531)으로 각각 진출시키고, 제2대대(대대

장: 염봉생 중령)를 연대예비로 하여 영덕에 집결보유하였다.

이때쯤 해병 제1연대는 안동 지역에서 작전하던 미 해병 제1연대의 작전책임지역인 황학산(DR 8924) 북쪽 3km 지점의 백자동(DR 8828)에 공비 400여 명이 출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연대는 2월 1일에 우선 제3대대로 하여금 증강된 1개 소대를 백자동에 출동시켜 공비의 준동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런데, 백자동의 공비들은 수색대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이미 백자동에 위치한 지서에 방화하고 황학산 일대의 패잔병과 합세한 후 그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다음날 연대장은 제3대대 부대대장으로 하여금 증강된 1개 중대를 지휘하여 전날 황학산 부근에 투입했던 1개 소대를 통합하여 이 일대의 공비들을 소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병력이 워낙 열세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기울어지자, 청송에 주둔중인 제3대대와 원전동에 있던 제1대대 제1중대를 청송에 투입하였다.

이와 같이 연대의 주력이 황학산과 청송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을 때, 공비들은 이 틈을 이용하여 영덕에 있는 연대본부를 기습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대예비로서 덕산동(ER 2125, 영덕군 달산면 소재) 부근에서 영덕으로 통하는 통로의 길목을 경비하던 제2대대의 1개 소대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덕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동대산 부근의 항동(ER 2320)에 북괴군 패잔병 2,000여 명이 집결하여 북상을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해병 제1연대장은 영덕, 청송 일대에서 발생한 사태의 위급함을 통감하고 급히 제1대대를 신양동(ER 2830)으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제2대대(제11중대 배속)로 하여금 영덕 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격멸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 대대는 2월 6일에 덕산동의 공비들을 격퇴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제9중대만을 백자동에 잔류시키고 다시 청송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와 협조하면서 소탕작전을 실시하

였다.

2월 7일, 항동에 집결하고 있던 공비들은 해병 제1연대의 신속한 배치와 공격으로 북상을 단념하고 동대산으로 잠입하였다는 것이, 제6중대에 귀순한 북괴 패잔병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해병 제1연대장은 동대산 공격을 결심하고 이날 12:00 제1대대(신양동)와 제2대대(덕산동)로 공격을 개시하여 동대산 서쪽 팔각산(ER 2321)을 점령하였다. 해병 제1연대는 그 여세를 몰고 계속 전진하여 다음날 12:00에는 신기를, 9일 16:00에는 최종목표인 동대산을 점령하였다. 이때 공비들은 토벌대의 강력한 소탕작전에 밀려 동대산 남쪽 5km 지점의 향로봉(ER 2312)으로 도주하였다.

해병 제1연대는 2월 12일 영덕 지구 공비소탕작전을 마치고 새로운 작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묵호로 이동하였다.

나. 제2사단의 안동 지구 작전 (1951. 2. 17.~4. 25.)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안동 지역에서 후방을 교란하고 있던 공비는 북괴가 남파했던 북괴군 제10사단, 남부군, 그리고 경북도당과 지역군당 소속의 공비들이었다.

북괴군 제10사단은 한국전쟁 초기 영남지구에 투입되었던 정규군부대이다. 이 사단은 1950년 9월 10일경 현풍 전투에서 대패하여 강원도 김화로 철퇴하던 중 국군 제17연대에 의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지리멸렬되어 방황하다가 북괴군 제2군단에 배속되었다.

이 사단은 1951년 1월 중순경 강원도 마차리 부근에서 국군의 공격을 받고 북괴 제2군단과 분리, 고립된 후 평창 부근에서 독자적으로 비정규전을 펼치다가 안동·의성 방면으로 침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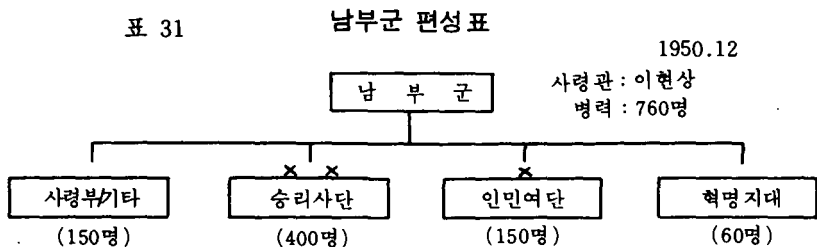
남부군은 전쟁 전 지리산지역에서 활동하던 제2병단의 개편부대이며 이 부대의 개편과정은 다음과 같다.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지리산 지구와 호남 일대에서 준동하던 제2병단(병단장: 이현상)의 공비들은 6·25 이후 북괴군이 낙동강 선까지 남하하자 정규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역전되자 태백산맥을 타고 월북하였다. 이들은 강원도 평강 북쪽의 후평리에서 이승엽(당시, 조선인민유격대 총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독립제4지대”로 재편성하여 다시 남하하였으며, 12월 말경에 충북 단양으로 진출하였다. 다음해 1월 3일 이들은 문경, 제천, 단양, 영천을 전전한 연후에 문경을 경유하여 2월 초에 이르러 속리산에 집결하였다.

이 무렵 독립제4지대는 “남반부 인민유격대”로 부대명칭을 바꾸었으나 다시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개칭함으로써 이때부터 이 부대를 “남부군”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부대는 부대명칭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이현상의 지휘하에 후방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하였다.

남부군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 창설일시: 1950. 11월 중순.
- 창설장소: 강원도 평강군 후평리(CT 3979).
- 인 원: 760명
 - 제2병단(장: 이현상) 잔여인원 200명, 의용군 낙오병, 지방당원을 규합 채편성.
 - * 조선인민유격대 총사령관 이승엽의 지시.
- 무 장: 경무장(소화기, 기관총, 수류탄 등).
- 임 무: 후방지역에서 군보급로 차단, 군사시설 및 부대, 관서 습격 등 후방교란.
- 명칭변경:
 - 최초창설시(50. 11.): 조선인민유격대 “독립제4지대”(통칭: 남반부 인민유격대).
 - 수안보·문경 주둔시(50. 12.~51. 1.): “조선인민유격대 남부군”으로 개칭(통칭: 남부군).
 - 백야사 작전 후(52. 1. 28.): “독립제4지대”로 환원.
 - * 그 후 제5지구당 창설(52. 5. 8.)의 모체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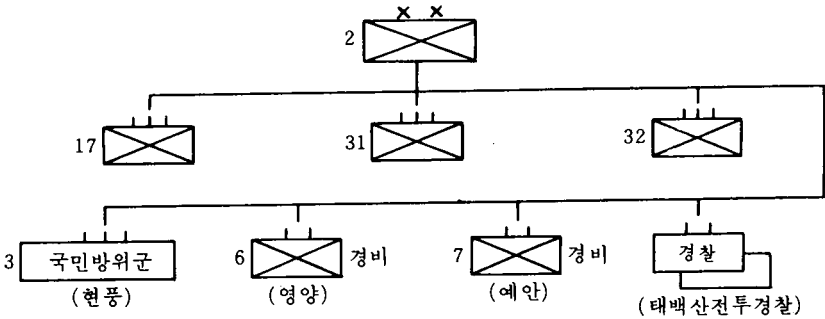
북괴는 남한 각 지역에서 전개한 비정규전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게 되자, 1951년 3월 초순에 유격전술에 능숙한 제1지대와 제3지대를 다시 남파하였는데 이들 부대의 병력은 1,700여 명에 달하였다. 남파 초기 일월산에 집결한 이들은 이미 남한 후방지역에서 행동중인 북괴군 제10사단, 남부군, 경북도당의 안동·영덕·영주·봉화군당 등과 합세하여 태백산, 일월산, 속리산을 위시하여 형제봉, 보현산, 동대산을 연하는 산악 일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경남 동부지역 신불산에는 약 100명의 공비가 준동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상당수의 북괴 패잔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토벌부대의 상황

국군 제2사단은 1951년 2월 13일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3호에 의거하여 풍기로부터 의성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미 제10군단 배속으로부터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 이때부터 제2사단은 후방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던 독립 제6·제7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병력 그리고 태백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예하의 경찰 2개 대대의 작전을 통제하여 영남 일대의 군 보급로 경비와 지역내의 공비를 소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제2사단 예하부대인 제32연대도 안동 지구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당시 제2사단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32 제 2 사 단 전 투 편 성 표 1950.2.13



지휘관 인적사항

부 대	직 책	인 직 사 항	비고
제 2 사 단	사 단 장	준 장 함 병 선	의 성
제 17 연 대	연 대 장	대 령 이 정 석	영 천
제 31 연 대	연 대 장	대 령 박 노 규 (3. 10 이전)	영 주
제 31 연 대	연 대 장	대 령 이 장 성 (3. 11 이후)	영 주
제 32 연 대	연 대 장	대 령 조 재 미	의 흥

(2) 작전경과

2월 16일 사단은 최초 제31연대와 방위군 제3연대로 하여금 후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제17연대와 제32연대를 보현산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소탕작전에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31연대는 안동·영주·풍기·단양으로 연결된 후보급로를 경계하기 위하여 2개 대대를 배치하고 1개 대대(제2대대)를 연대에비로서 영주에 집결보유하였다. 국민방위군 제3연대는 영양 북서쪽 20 km 지점의 현동(DR 9773)을 중심으로 하여 후보급로 경계에 임하였다. 이때 제1대대는 현동-예산(DR 8462), 제2대대는 현동-영양(ER 1057), 제3대대는 현동-내성(봉화 DR 7782) 간을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제32연대 제1대대는 2월 16일 의흥 북쪽 개산동(DR 7608)의 360고지에 은거하고 있던 공비 150여 명을 공격하였으며, 제3대대는 2월 21일 화수동(DQ 7898)에서 400여 명의 공비와 교전하였다. 또, 제2대대와 사단수색중대는 용수동(DQ 6690), 대울동(DQ 6983) 부근에 은거하고 있던 공비가 조림산(DQ 7696)을 거쳐 조락동(DR 8404)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추격하여 분산 격퇴시켰다.

제17연대 제3대대는 2월 22일 보현산 서쪽의 545고지 일대에서 은거중인 공비를 공격하였으며, 연대본부는 귀순권고 전단 20,000매를 경비행기로 공중살포하였다.

제2사단장은 청송 방면에서 북괴군 제10사단 병력이 북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이들을 원거리에서 차단 격멸할 작전개념하에 일월산(ER 0872, 1,219m) 부근에서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제2사단장은 2월 28일 영주에 전술지휘소를 설치하고 후보급로 경계를 담당하던 제31연대에 장갈령 부근에서 공비를 소탕하

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제31연대 제3대대는 28일 오후 현동에 대대 전술지휘소를 설치한 후 23:00 장갈령(DR 9959, 영양 서쪽 10 km 지점)에 차단선을 형성하여 공비의 북상을 기다리고 있었다. 3월 1일 06:00, 제3대대는 북상하는 공비 1,500여 명을 포착하자 지체없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불의의 일격을 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공비들은 일월산 서쪽의 동면리(ER 0274) 방향으로 분산 도주하였다.

신녕(DR 8088) 북쪽에 투입된 제32연대는 3월 1일 사단장 명령에 따라 일월산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08:00 제1대대는 연대작전의 일환으로 광희리(영주-울진 도로의 중간지점:ER 0988)에 차단선을 구축하여 대기하던 중, 4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공비들로부터 불의의 공격을 받아 일시 분산되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대장은 침착하게 병력을 수습한 후 직현리에 배치된 제2대대의 지원을 받아 격전을 치른 끝에 대치한 공비들을 격퇴하였다.

3월 3일 08:00 제17연대는 일월산 일대의 공비를 계속 추격하기 위하여 영양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대대를 광희리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제32연대 제1대대는 오미(DR 0874)로, 제7경비대대는 신부동(ER 0794)으로 이동함으로써 공비의 북상 탈출로를 3중으로 차단하였다. 제17연대 제3대대는 다음날 사란치(ER 1480)에서 공비 800여 명과 교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공비들은 분산되어 조항(ER 1383)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제2사단은 3월 5일부터 5일간 일월산-황악산-통고산 일대에 예하 3개 연대와 제7경비대대를 집중투입하여 북상을 기도하는 공비집단을 강타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처럼 국군 토벌부대의 강력한 북상 차단작전이 계속되자 공비들은 집단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삼삼오오로 분산하여 잠적해 버렸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자, 제2사단은 3월 10일에 일월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을

일단 종결짓고 각 부대로 하여금 다시 주보급로 경계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였다.

제2사단의 재배치상황

- 제31연대
 - 연대 전술지휘소: 영주.
 - 제1대대: 영주-풍기.
 - 제2대대: 풍기-단양.
 - 제3대대: 연대예비, 영주에서 집결대기.
 - 태백산지구 전투경찰대대(배속): 영주-안동.
- 제32연대
 - 연대 전술지휘소: 의성.
 - 제1대대: 신녕-의흥 간 도로 경비
 - 제3대대: 연대예비, 의성에서 집결대기.
- 제17연대: 경주-울산, 경주-영천 도로 경비.
 - * 3월 12일 제6연대와 임무교대한 후 춘양으로 이동.
- 제6경비대대: 경주로 이동.
- 제7경비대대: 영양으로 이동.
- 제5경비대대: 상주-김천 간 도로 경비.

3월 15일 제17연대 제2대대는 백련산 북서쪽의 장항(DR 9593)에서 약 1,100명의 공비와 격전을 치렀으며, 3월 19일에는 국민방위군 제3연대가 진보(ER 0441)에서 공비 400여 명과 교전한 끝에 이들을 태향산(ER 1238)으로 격퇴시켰다. 이 일전이 마무리된 다음 제2사단은 부대배치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즉, 제31연대를 영주에서 안동으로, 제32연대를 의성에서 제천으로 각각 이동시켰고, 제5경비대대를 김천에, 제6경비대대를 경주에, 제7경비대대를 삼척에,

전투경찰대대를 안동에 배치하여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일월산·보현산 일원의 공비들을 소탕한 제2사단은 4월 22일부터 충북 속리산 지역에서 준동하는 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제17연대는 속리산·구자산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2개 연대도 속리산에 배치되었다. 그 후 제2사단은 팔공산으로의 침투를 기도하던 공비를 격멸하였다.

4월 25일, 제2사단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제5, 제6, 제7경비대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다음날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였다.

다. 제9사단의 정선군 송계리 전투

(51. 3. 12.~3. 18.)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1951년 1월 중순경, 국군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했던 북괴군 제10사단을 비롯한 지방공비들은 제2사단의 안동지구 공비소탕작전으로 많은 피해를 내고 태백산 일대로 분산 도주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북괴로부터 평창 이북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들은 안동 북방의 석포 부근에서 제2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정선 방향으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보급에 대한 일체의 보장도 없이 국군과 전투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 퇴각하게 된 공비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이탈자가 속출하는 정황 속에서 오직 북쪽으로만 전진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의 총병력은 약 9,0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장비는 소화기를 비롯하여 약간의 박격포와 기관총과 무전기, 전

화기 등의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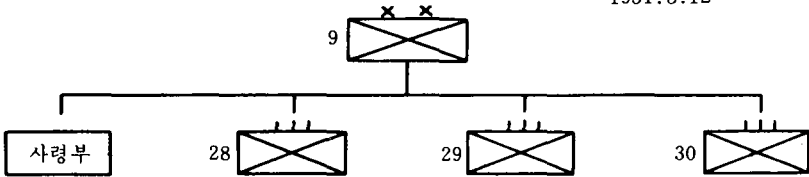
(나) 도벌부대의 상황

1951년 2월 26일 제9사단은 제1군단으로부터 제3군단으로 배속이 변경되어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DS 8748)로 이동하였으며, 이 정일 준장이 사단을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 제3군단은 리퍼(Ripper) 작전계획에 따라 속사리-횡계리-강릉에 이르는 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군단의 좌측방에는 미 제10군단이 우측방에는 국군 제1군단이 제3군단과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9사단의 전투편성은 다음과 같다.

표 33 제 9사단 전투 편성표 1951.3.12



(2) 작전경과

제9사단은 북괴군 제10사단의 주력으로 판단되는 약 2,000~3,000명의 공비가 신기리(ER 0633)에서 북상하여 평창동 일대에 은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이에 사단장은 3월 12일 02:00에 제29연대와 제30연대를 송계리 남동쪽의 석이암산(972고지, DR 8948)에서 북동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백북령(DR 9753) 사이에 배치하였다.

한편, 북괴군 제10사단의 주력은 이날 10:00쯤 북평 서쪽 10km 지점에 있는 삼화리(ER 0246)에서 청옥산(DR 9742, 1,404m) 방향으로 우회이동하는 한편, 이를 기만하기 위하여 일부병력으로 제29연대와 제30연대가 배치된 패병산 동쪽의 이기령과 백복령 남쪽지역에 대하여 양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29연대와 제30연대는 이들의 기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면의 양공부대에 대해서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북괴군 제10사단의 주력은 13일 11:00경 청옥산 일대에 집결하여 북상하고 일부병력은 금천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이날 18:00, 제30연대는 부수현-외도전(DR 9249) 선에, 제29연대는 구룡동(DR 9352)-갈재 선에 각각 병력을 재배치하여 청옥산에서 북상하고 있는 북괴군 제10사단 주력을 포착할 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제30연대는 다음날 밤이 깊어졌을 때 외도전 전방 장아리에 진출한 약 100명으로 추산되는 북괴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병력으로 제30연대의 추격을 저지하면서 도전리, 구룡리를 거쳐 직원리로 북상한 후 자정을 넘긴 03:00쯤에는 오히려 제29연대 전술지휘소를 기습하였다.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난 14일 05:00경에 수 미상의 북괴군이 제29연대 제1대대가 배치된 쌍계령(DR 9455)을 양공하는 사이에 증강된 1개 대대 규모의 북괴군이 백복령의 제9사단 차단선을 뚫고 산계리(DR 9759)로 진출하였다.

제9사단장은 2개 연대만으로는 광활한 산악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는 북괴군 비정규전부대를 격멸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16일 17:00에 사단예비로서 송현리(DR 8557)에 집결보유하고 있던 제28연대를 출동시켰다.

이때 제28연대는 산계리에 집결중인 공비들을 포착하자 곧 병력

을 집중투입하여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은 사방으로 분산되었다.

이들 중의 100여 명은 산계리 북쪽의 금전동으로 분산 도주한 다음 약 500명쯤 되는 비정규전 병력과 합류하여 기수문동(DR 8906) 방향으로 북상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비의 동정을 확인한 제29연대는 다음날 기수문리 북서쪽의 구화동(DR 8863) 일대에 차단선을 형성하였으며, 제28연대 제3대대는 금전동 방면으로 진출하여 포위망을 형성하고 이를 압축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북괴군 비정규군 600여 명은 기수문리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제9사단은 제29연대를 포위부대로서 만덕봉(DR 9162)－구화동－백암동을 연하는 선에 재배치한 후 포위압박부대인 제28연대로 동·서·남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3면에서 포위를 당한 북괴군 제10사단의 패잔병들은 최후발악적인 저항을 계속하였으나 대부분 사살되었으며, 포위망에서 탈주한 일부병력도 토벌부대의 적극적인 추격으로 인하여 소탕되었다.

이로써 지난 1월공세 때 국군 후방지역 깊숙히 침투하여 비정규전을 감행했던 북괴군 제10사단은 3개월 만에 지리멸렬되고 말았다.

그 후 국군 제9사단은 명주군 구정면 구산리(DR 8573)로 이동하였다.

작전기간중 제9사단의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242 3. 태백산 지구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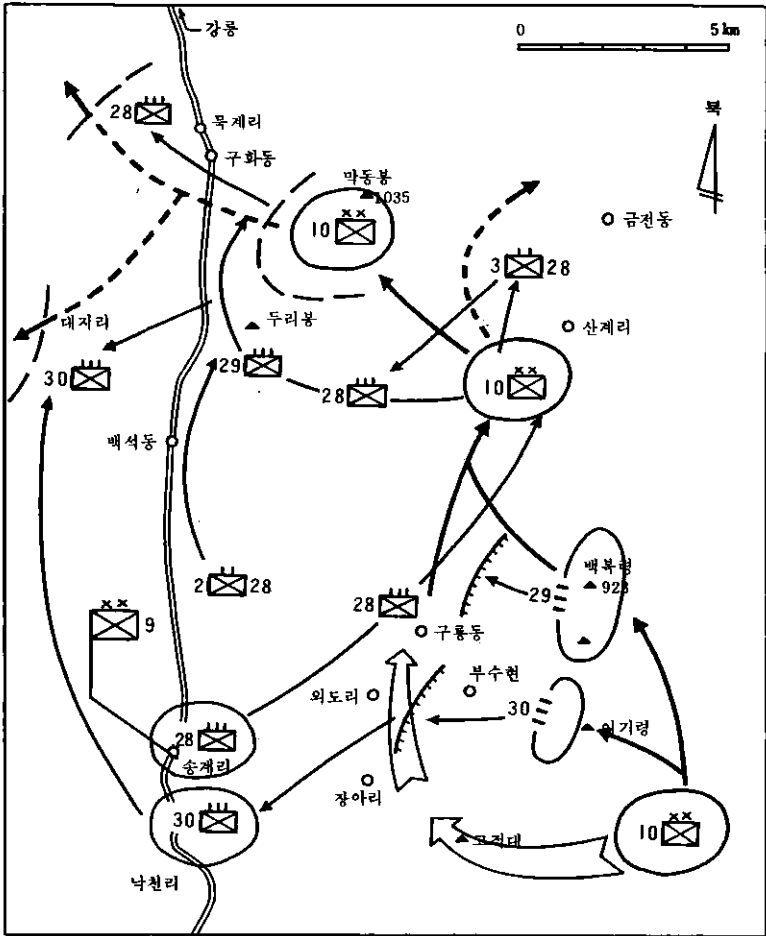
· 전 과

구	분	인 원 및 수 량
인 원	사 살	2,188명
	생 포	612명
	귀 순	2명
	계	2,802명
장 비	따 발 총	224정
	소 총	674정
	기 관 총	34정
	권 총	1정
	박 격 포	2문
	SCR-300 (통신기)	1대
	전 화 기	11대
	교 환 대	1대
	포 조 준 경	2개

· 피 해

구	분	인 원 및 수 량
인 원	전 사	115명
	부 상	264명
	실 종	77명
	계	456명
장 비	소 총	16정
	기 관 총	6정
	로 켓 포	1정

요도 25 정선 송계리지역 작전 상황도 (1951.3.12~18)



4. 제주도 지구 작전

가. 해병대작전(1951. 1. 14. ~ 3. 31.)

(1) 작전배경

(가) 공비준동상황

제주도 한라산 지역의 공비는 한국전쟁이 돌발한 후 해병대 토벌부대가 정규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떠난 1950년 말부터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고, 종래의 위축되었던 지하활동을 적극적인 유격활동으로 전환하여 경찰관서 습격과 식량약탈 등을 자행함으로써 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치안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당시, 한라산에 은거하고 있던 공비의 수는 약 8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들은 기후가 온화하면서도 지형이 험한 한라산 남동쪽 중턱과 서귀포 북방 서호리 일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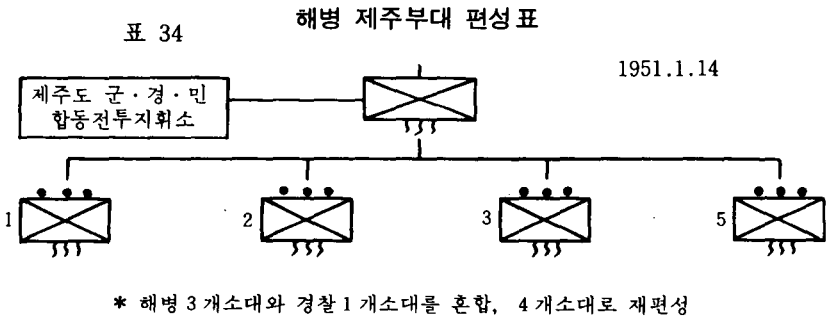
(나) 토벌부대의 상황

해병대사령부는 1950년 12월 15일 함흥에서 진해로 철수하여 부대정비에 임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제주도에서 공비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해지자, 6·25 개전 직전에 제주도에서 공비토벌작전을 담당했던 해병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1951년 1월 14일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부대를 제주도에 파견하였으며, 제주 해병부대장에는 권석기 해병중위가 임명되었다.

제주 해병부대는 제주경찰 공비토벌대의 1개 소대를 지원받아 4개 소대로 혼합 편성하고 제주도 군·경·민 합동 전투지휘소를 설치한 후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해병 제주부대의 전투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2) 작전경과

해병 제주부대의 제주도 지역 공비토벌작전은 1951년 1월 17일에 시작되었다. 군·경 합동토벌대는 한라산 남쪽 서귀포 부근에 공비토벌대 지휘소를 설치하고 한라산 남동쪽에 위치한 공비의 은거지를 중점적으로 수색하였다. 이때, 공비토벌대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제1소대를 서쪽에, 제2소대를 동쪽에, 제3소대를 남쪽에 각각 배치하여 소대단위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제1소대는 1월 27일 한라산 북서쪽 어승생악(BM 6697)에서 공비 20명과 40분간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하고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그 2일 뒤에 제2소대는 한라산 동쪽 사라악(BM 7494) 부근에서 공비 약 30명이 식량을 운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급습하여 3명을 사살하였다.

2월 10일, 제2소대는 사라악과 명통암 부근에서 공비의 은거지

를 발견하고 이를 기습하여 공비 15명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은거지에서 60여 명에 달하는 공비에게 역포위되어 고전하게 되었다. 이렇듯 위급한 상황하에서도 제2소대는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였으며, 인접지역에 있던 제1소대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공비들을 격퇴하였다. 이 교전에서 제2소대는 공비 2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해병부대도 10명의 전사자를 내는 피해가 있었다. 한편, 제3소대는 한라산 남쪽 수악동(BM 7789) 부근에서 공비 40명과 조우하여 사격전을 치른 끝에 공비 5명을 사살하였다.

해병 제주부대는 1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된 토벌작전에서 도합 50여 명의 공비를 사살하고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로써 1950년 말부터 준동하던 제주도 공비의 주력은 해병부대와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격멸되었다. 이 작전에서 살아 남은 일부 공비들은 지하에 다시 숨어들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되었다.

나. 육군 무지개부대 작전(1953. 2. 3.~5. 1.)

(1) 작전배경

(가) 공비의 준동상황

제주도는 한국전쟁이 돌발한 이후 제1훈련소가 모슬포로 이동(1951. 1. 22.)한 것을 비롯하여 많은 부대가 제주도에 주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공비들은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1951년 초 해병대의 제2차 공비토벌작전(1951. 1. 14.~3. 31.)으로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나, 1년 후인 1952년 초부터 이들은 공비두목 김성규(제9연대 탈주병)를 중심으로 다시 동조세력을 규합 보강(100여 명)하고, 세포조직을 정비하면서 최후발악적인 유격활동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즉, 공비들은 또다시 경찰관서의 습격과 식량약탈, 주민납치, 살인 등의 갖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1952년 여름 제주 방송국을 위시하여 서귀포 수력발전소, 훈련병 숙영지를 습격하는가 하면, 양민을 납치하고 식량을 약탈함으로써 30만 도민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군사작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나) 토벌부대 상황

제주도는 당시(1952년도) 상이장병 후생정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많은 피난민과 육지에서 임시로 이전한 교육기관 그리고 육군 제1훈련소를 비롯한 각군의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정과 질서유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그 동안 숨을 죽이고 지하에 숨어 있던 공비들이 다시 비정규전을 펼치면서 사회교란을 꾀하게 되었으니,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군은 1953년 1월 29일 대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를 제주도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내무부는 제주도 경찰국 관하에 제100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김원용 총경)를 설치하고 6개 전투경찰대대를 배속하여 무지개부대와 더불어 제주도내의 공비를 소탕하도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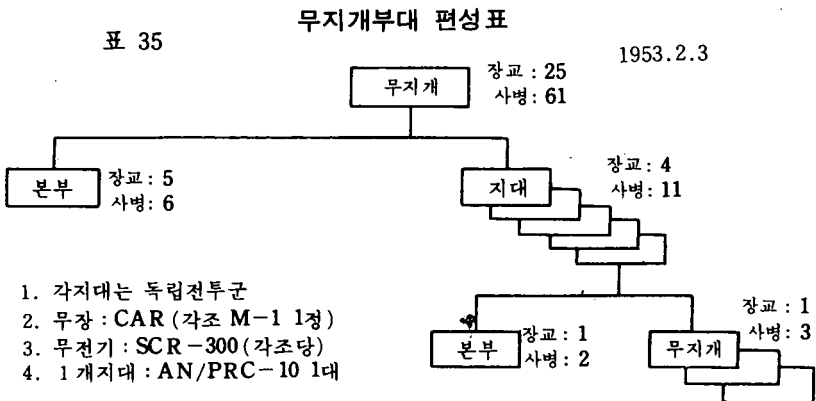
무지개부대: 이 부대는 1951년 11월, 당시 육군본부 작전국장 이용문 준장에 의하여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초에는 작전국 제6과 소속으로서 1952년 1월 대구에서 창설되었다. 이 부대의 구

성요원은 엄격한 자격기준에 입각하여 선발되어 미국에서 약 5개월간의 특수훈련을 받고 귀국하였다. 이 부대의 이름은 최초에는 비밀작전부대(통상명칭: 제9172부대)라 명명되었다. 초대 사령관에는 이기권 대령, 부사령관에 박창암 소령과 송정협 소령이 임명되었으며, 예하에는 공작대와 기습대의 2개 주요부대가 있었다.

이 부대는 한·미 연합작전을 협의하던 중 일부는 대구에서 동해안 작전을 위하여 이동하였고, 부대의 주력은 박창암 소령 지휘하에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주지역 공비토벌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무지개부대를 제주도 공비토벌작전에 투입하게 된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원호대상자인 상이장병의 후생정착지로 지정된 제주도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비소탕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만 하였으며, 둘째로 잘 훈련된 이 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부사령관 박창암 소령의 부대 현지실습의 건의를 육군본부에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참모총장(백선엽 중장)은 1953년 1월 25일부로 박창암 소령 지휘하의 육군본부 직할 특수부대를 육군본부 특명(제137호)으로 1953년 1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육군첩보부대(부대장:이철희 대령)에 배속하고 부대명칭을 무지개부대로 바꾸었다. 당시의 무지개부대 편성은 표35와 같다.

(2) 작전경과

무지개부대의 작전은 작전준비단계(제1호작전~제3호작전)와 공비 토벌작전단계(제4호작전~제7호작전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한 대로 실시되었다.

각 단계별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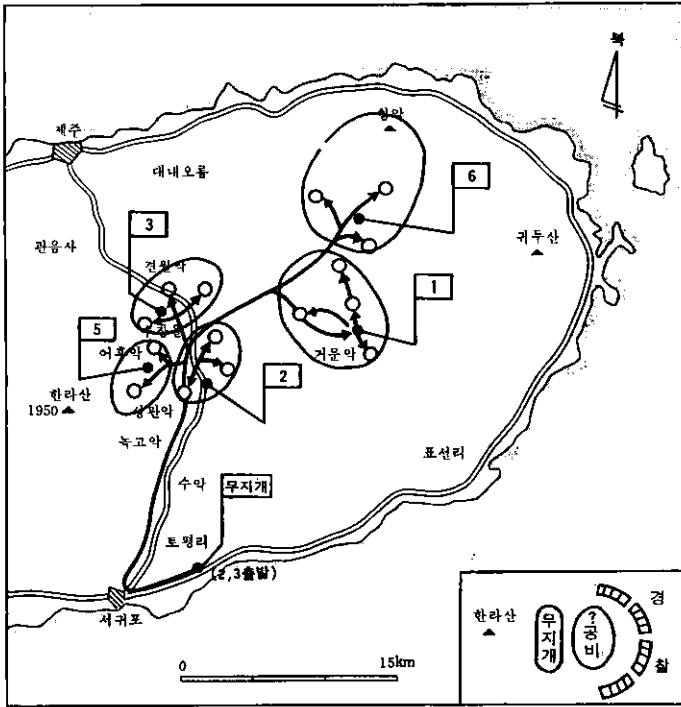
제1호작전: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공비 집결지 후방으로 침투하여 매복하고, 경찰이 외곽선을 형성하는 즉시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때 도주하는 공비는 매복중인 무지개부대가 전담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주로 첩보의 획득과 무지개부대가 매복한 내선 지역으로 공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라산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는 공비들의 유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준비작전이었다.

제2호작전: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한라산 동쪽 사면에 선정된 목표지대로 진입하여 수색전을 실시하였다. 경찰병력은 외곽선을 포위한 후 12시간 동안 일체의 작전행동을 중지하였다가 야간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양동을 실시하는 한편 12시간 후에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주작전지대의 기만과 지형숙지 그리고 공비를 토벌부대가 매복한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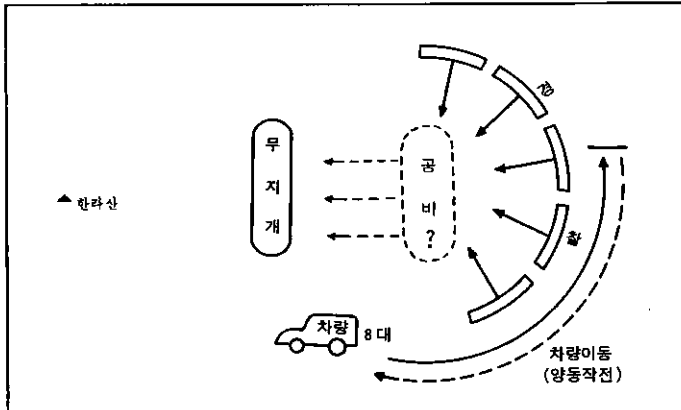
무지개부대 제1호 및 제2호작전 요도는 다음과 같다.

250 4. 제주도 지구 작전

요도 26 무지개부대 제1호 작전 요도



요도 27 무지개부대 제2호 작전 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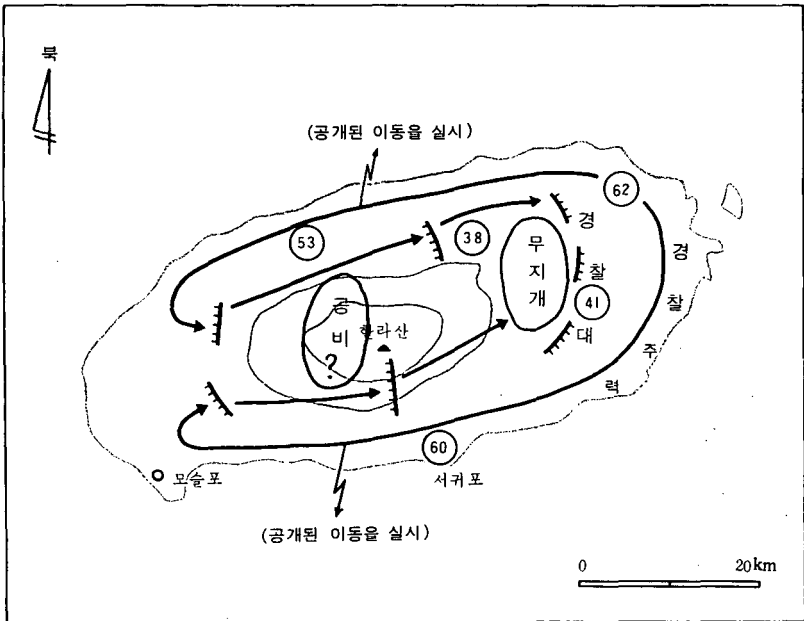


제3호작전: 이 작전에서는 경찰주력이 주동이 되어 한라산의 서쪽 사면으로 이동한 후 수색전을 반복하면서 지대내에 은거중인 공비들을 무지개부대가 매복하고 있는 한라산 동쪽의 내선지역으로 몰아붙였다. 이로써 무지개부대장은 한라산의 공비들이 동쪽 사면에서 서쪽 사면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때 경찰의 일부병력은 제주읍-한라산-서귀포에 이르는 선을 차단하였다.

이 작전에 의하여 공비의 주력이 동부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행동반경이 무지개부대가 토벌태세를 갖추어 대기중인 내선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이리하여 무지개부대의 본격적인 작전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은 경찰이, 동부지역은 무지개부대가 담당하게 되었다.

요도 28

무지개부대 제 3 호 작전 요도



제4호작전: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한라산의 병문대와 효돈천 그리고 동부의 외곽을 차단한 가운데 내선지역에서 수색전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포위망을 형성한 속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 무지개부대는 주로 토끼몰이식과 포위지역에 대한 절단분리의 방법을 병행하면서 수색전을 펼쳐나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무지개부대장 박창암 소령은 각지대의 협조하에 토끼몰이 형식의 수색전을 거의 매일같이 반복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비의 비밀거점과 식량의 은닉처가 발견되었다. 공비와의 조우전은 자주 일어났고 생포한 공비와 귀순자로부터 많은 첩보를 획득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지개부대는 점과 선에 의한 그물형 포위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무지개부대장은 그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이 작전을 통하여 대비정규전에서도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를 활용하여 내선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록 제주도라는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한국전쟁 기간중에 점의 연결을 통하여 형성한 전선을 전투지대로 전환시키는 전법을 최초로 구사하였던 것이다.

제4호작전 요도는 요도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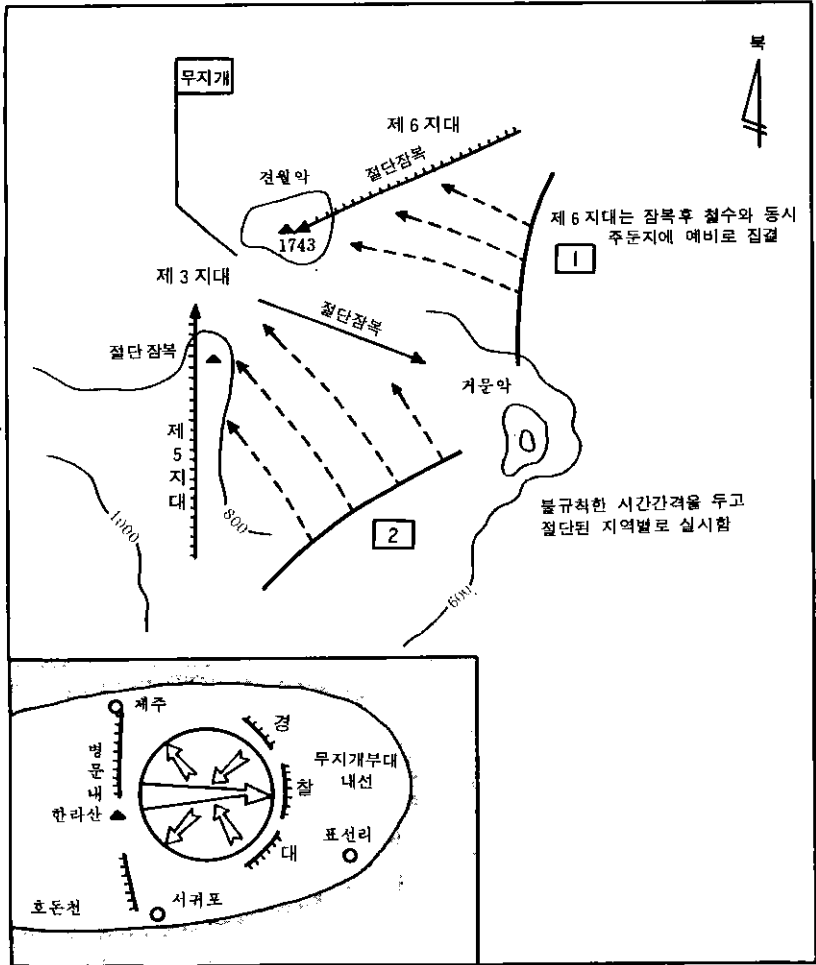
제5호작전: 무지개부대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은거지와 통로를 찾아내기 위하여 외선의 매복을 경찰에 전담시키고 내선지역에 대한 수색을 반복하였다.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의심나는 지역을 몇 갈래로 구분한 후 나사식으로 포위망을 압축하거나 토끼몰이식으로 중심을 향하여 수색하였다.

며칠간 계속된 이 단계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여러 조로 편조

요도 29

무지개부대 제 4 호 작전 요도



된 수색조가 최초 점령한 지점에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계획된 다음 거점으로 이동하면서 목표지역을 동시에 수색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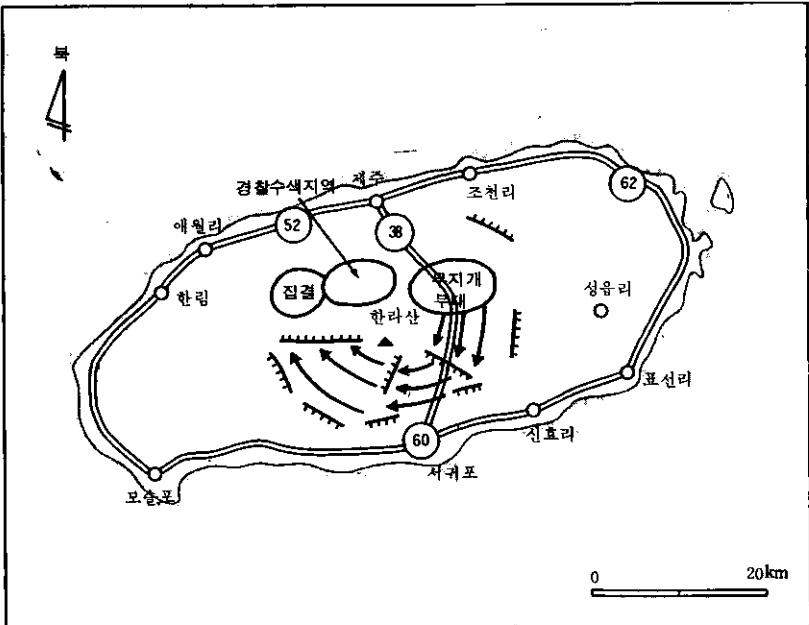
제7호작전: 이 작전은 무지개부대가 전개한 마지막 수색전이었다. 이른 봄에 하산하여 철수할 예정이던 무지개부대는 제6호작전의 전과를 계속 확대하다가 5월 1일에 한라산의 일주 수색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때, 무지개부대는 경찰토벌대에게 작전지역(내선)을 인계하여 외선 차단선을 축소시킨 가운데 한라산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의심나는 지대를 모두 수색한 다음 3일 야음을 이용하여 제주 경찰서에 집결하였다.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지형과 공비에 대한 상세한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한 연후에 작전행동을 개시하였으므로 기선을 제압한 유리한 상황하에서 수색전을 펼칠 수가 있었다.

제7호작전 요도는 다음과 같다.

요도 31

무지개부대 제 7 호 작전 요도



국군의 대유격전 특수부대인 무지개부대의 제주도 공비소탕작전은 1953년 2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작전에서 무지개부대는 특수정보 수집에 주력하고 귀순자 및 포로들의 심문에서 얻은 첩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전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라산에 잠복한 잔여공비들도 자진 하산 또는 귀순하게 되어 5년 2개월에 걸친 제주도 공비소탕작전은 종막을 고했다.

한국전쟁 기간중 국군 후방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전 병력은 낙오병을 포함하여 총 25,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지역은 주로 중·동부 산악지역과 경북 동해안지역 그리고 호남지역과 한라산 지역 일대였다.

이들은 군 보급로 차단, 군사시설과 부대집결지의 습격, 식량약탈, 양민학살 납치, 관공서 습격 등 전형적인 비정규전을 전개하면서 후방지역을 교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군과 유엔군은 전선에 투입된 전투부대를 후방에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선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기간중 동원된 국군과 경찰 병력은 총 9개 사단, 6개 유격대대, 10개 경비대대와 국민방위군 1개 연대 그리고 경찰 29개 대대였다.

이 작전 결과, 국군과 경찰은 공비 사살 7,667명, 포로 4,920명, 은거지 파괴 702개소, 각종 화기 노획 936정(문)의 전과를 거둔 반면, 국군은 전사 130명, 부상 170명, 실종 26명의 피해가 있었다.

이렇듯 북괴는 전쟁기간중에도 끊임없이 비정규전을 감행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국군의 전투력을 분산시키는 한편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내게 하였다.

제 4 장 휴전 후 공비소탕작전 (1953. 7.27. ~ 1956. 12. 31.)

개 요

1. 공비활동 상황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북괴는 우선 자체의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한에 있는 공비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박헌영과 이승엽 등 남로당계의 간부들을 모두 숙청함으로써 대남공작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때, 북괴는 전후복구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더우기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에 따라 북괴내에서도 김일성 권력구조에 파벌투쟁이 일게 되어, 대남공작을 강력히 전개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한편, 남한지역의 공비들은 곧 한국군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종전과 같이 산을 거점으로 한 활동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반적인 재산 공비집단의 정리와 조속한 월동준비를 위한 식량획득 등을 꾀하고 있었다. 이들 공비들은 대부분 휴전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그들 중 일부 간부들은 장기적인 활동을 각오하고, 지하당의 복구와 자체 사상무장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1953년 7월부터 9월까지, 공비들은 아군 후보급로상의 차량을 기습하여 각종 보급품을 약탈하는 한편, 지하당 및 세포당

지구당별 공비의 수

단위 : 명

지 구 당	인 원			지 역
	무 장	비무장	계	
계	752	226	978	
제 1 지구당	0	0	0	서울 · 경기
제 2 지구당	34	2	36	강원
제 3 지구당	22	5	27	충남 · 충북
제 4 지구당	77	5	82	경남 · 경북
제 5 지구당	619	214	833	전남북 및 충남 · 경남 일부

2. 토벌부대의 상황

가. 육 군

육군은 휴전 후 전열을 재정비하여 5개 군단 20개 사단의 대군으로 발전하였으며, 장비의 현대화, 지휘체제의 확립, 교육훈련의 강화 등 전투력을 증강하는 한편 제1·2군사령부와 교육총본부를 새로이 창설하여 전군을 작전·군수지원·교육의 3개 분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제2군에는 5개 관구와 10개 예비사단을 창설하여 전 육군의 군수지원 및 병력보충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후방지역의 경비와 무장공비의 소탕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해 군

해군은 휴전 후 곧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편제를 대폭 개편하

였다. 구형 함정을 퇴역시키고 호위 구축함을 비롯한 신형 함정을 도입하였으며, 현대전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진해공창을 준공하여 함정의 정비 능력을 향상시켰다.

1955년 3월에는 한국전쟁 초기부터 미 제95기동함대 사령관이 수행하던 해상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여, 이때부터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작전임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군의 임무는 해상을 통한 간첩침투를 봉쇄하고 북괴의 여하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해상을 방호하는 것이었다.

다. 공 군

공군은 휴전 후 현대 전술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1955년 8월 27일 F-86, T-33 등 제트 분사식 기종을 미 공군으로부터 처음으로 제10전투비행단에서 인수하였다. 그 후 C-46 수송기를 도입하여 제5공수전대를 창설하였고, 전술요격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항공관제통신 능력을 배양하여 항로교통통제소(ARTCC)를 미군으로부터 완전히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항공본창을 창설하여 후방지원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각종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공군대학을 창설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3. 토벌작전의 개요

휴전 후, 지리산을 비롯한 삼남지역에서는 계속적인 공비소탕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 잔당들이 양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민폐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군 보급로상의 보급차량을 기습하여 작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호남지역에서는 백야전사의 공비소탕작전

(51. 11. 23.~52. 3. 15.)에 뒤이어, 남원에 사령부를 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계속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휴전이 조인된 직후인 1953년 8월부터 3회에 걸쳐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주요 내용은 동년 8월 22일에 구례군 외곡리에서 김지회 부대의 부대장 조정기를, 9월 18일에는 지리산 벽점골에서 남한지역 공비의 총책임자 제5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이현상을, 11월 28일에는 산청군 사정리에서 의령을 습격한 부대장 이영회를 각각 사살한 것이다.

이 작전 당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그 예하의 제56연대를 하동 지역에, 제9경비대대를 원지동 부근에, 제11경비대대를 광양 일대에 각각 투입하여 공비의 보급로와 활동지역을 봉쇄하였고,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는 그 예하의 제1연대를 거창 북방 16 km 지점의 갈천리 일대에, 제2연대를 남원 오수리 일대에, 제3연대를 구례 상검리 일대에, 제5연대를 함양 일대에 각각 투입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작전 이후에도 공비들의 활동이 근절되지 않자, 육군본부에서는 호남지역의 잔비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하여 전방 1개 사단을 공비소탕부대로 투입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고탄리에서 정비중에 있던 제5사단이 육군본부 작전계획 제29호(1953. 11. 17.)에 의거하여 호남지역 공비소탕임무를 부여받고 출동하게 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1953년 12월 1일부로 제5사단을 모체로 한 박전투사령부를 남원에서 발족시켜, 제5사단장 박병권 소장을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종전에 호남지구 공비소탕을 담당하였던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박전투사령부에 통합하여 새로운 지휘체제를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공비소탕작전을 위해 12월 1일을 기하여 삼남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며, 제5사단은 12월 1일부터 3일 사

이에 제1제대(사단사령부 및 3개 연대)가 남원 및 기타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하였고, 제2제대(지원부대)가 12월 11일까지 이동을 완료하였다.

박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은 3단계로 구분하여,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166 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박전투사령부는 작전기간 중 박병권 소장이 육사고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1954년 3월 7일부로 한신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한전투사령부로 개칭되었다.

1954년 5월 26일 한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이 끝나고 한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그 뒤를 이어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맡은 제2군사령부에서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로 하여금 공비의 잔당을 소탕하도록 하였으며,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1955년 3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인 잔적소탕을 실시하여 후방지역 공비의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1955년 4월 1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해체되고 이어서 동년 7월 1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해체됨에 따라, 잔여 공비의 소탕과 남파공비의 지리산 지역에서의 아지트 이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경찰기동대가 남원의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가 위치했던 자리에 동년 7월 1일 창설되었다.

경찰기동대의 구성은 종전의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잔여인원과 각도 경찰관서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56년 9월 7일 해체될 때까지 호남지역 공비소탕작전을 담당하였다. 공비들은 1956년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이 소탕되어 그 이후로 잔여 공비의 조직적인 활동은 전혀 없었다.

1.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1953. 12. 11. ~ 54. 5. 25.)

가. 제1단계 작전 (1953. 12. 11. ~ 1954. 2. 10)

(1) 작전 배경

(가) 작전지역의 특징

기 상: 작전기간중의 기상은 지리산을 비롯한 덕유산, 백운산 등의 고산지대에서는 흐린 날씨가 대부분이었으며, 평지에는 부슬비나 눈이 자주 내렸으므로 도로는 진흙탕이 되어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었다. 산악지대에서는 청명한 날씨에도 눈으로 말미암아 시계가 아침 저녁으로 평균 2m 정도, 주간에는 10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날씨가 흐릴 때에는 1m 이내로 극히 제한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발생하는 짙은 안개는 토벌부대의 수색작전에 많은 제한 사항이 되었다.

고산지대의 평균기온은 영하 4℃ ~ 12℃였으며 일몰 후에는 기온이 급강하하고, 눈보라로 인하여 작전부대에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숙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었다.

지 형: 생략.

주민의 동향: 이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작전부대에 적극적인 협



지리산 설경

조를 아끼지 않았으나 불온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여·순 반란사건 및 한국전쟁 이후에는 불온사상을 품은 주민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들은 수차에 걸친 소탕작전 및 검거 등으로 대부분이 타진되었으나, 공비의 활동지역에 민가가 근접해 있고, 공비와 민간인과의 친·인척관계로 인하여 그들과 내통하는 자가 많아 토벌부대의 작전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다.

(내) 공비의 상황

1) 제1단계 작전시 공비의 전투서열

제 1 단계작전시 공비의 전투서열

소 속	직 급	성 명
조 국 출 판 사	사 장	박 영 발
전 북 도 당	위 원 장	박 준 작
제 995 부 대	부 대 장	김 태 규
남 원 군 당	위 원 장	조 병 하
제 727 부 대	군당위원장	강 경 규
이 영 회 부 대	부 대 장	미 상
전 남 도 당	위 원 장	김 선 우
전 남 부 대	부 대 장	임 정 운
남 태 준 부 대	부 대 장	남 태 준
광 양 부 대	부 대 장	한 만 길
순 천 군 당	위 원 장	이 명 석
덕유산소지구당	위 원 장	박 찬 봉
복 수 연 대	연 대 장	김 수 남
노 영 호 부 대	부 대 장	노 영 호
진 안 군 당	위 원 장	최 재 호
전 남 서 부 도 당	위 원 장	박 감 출
백아산 소지구당	위 원 장	미 상
곽 용 철 부 대	부 대 장	곽 용 철
광 주 시 대	위 원 장	미 상
곡 성 군 당	위 원 장	김 지 수
전남도당남부지도부항미연대	연 대 장	노 용 관

소 속	직 급	성 명
순 창 군 당	위 원 장	홍 송 학
김 제 군 당	위 원 장	미 상
정 읍 군 당	위 원 장	민 응
고 령 군 당	위 원 장	미 상
임 실 군 당	위 원 장	김 정 기
학 수 부 대	부 대 장	미 상
중부지구 기동부대	부 대 장	김 용 철
전남 남부주재당	위 원 장	미 상
두봉산소지구당	위 원 장	양 혜 창
부 안 군 당	위 원 장	미 상

2) 공비의 준동상황

병 력: 박전투사령부는 1953년 말 지리산 및 덕유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비를 805명으로 판단하였다.

장 비: 작전지역내에서 준동하는 공비들은 약 73%가 무장하였으며, 장비는 중화기 43정과 소화기 509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활동상황: 8월부터 계속된 군경의 소탕작전에 의하여 지역내 공비들의 조직이 붕괴상태에 이르자, 복귀는 조직체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남한 공비의 최고기관이었던 제5지구당을 9월 초에 해체하고 그 대신 조국출판사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예하 각 지구당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나, 세포망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군의 소탕작전이 있게 되자, 이들은 작전 초기부터 일체의 횡적 연락망이 두절되었다.

이렇게 세포조직이 파괴되자, 이들 공비들의 표면적인 활동은 중지되었으며, 그들은 오직 남아 있는 지하 세포망을 보존시키는 데 전력을 다할 뿐이었다.

지역별 공비의 수

단위 : 명

지 역	무 장 인 원	비무장인원	계
지 리 산 지 구	214	80	294
덕 유 산 지 구	98	45	143
형 제 봉 지 구	97	43	140
회 문 산 지 구	53		53
모후산·조계산지구	51	9	60
전 남 동 부 지 구	34	22	56
영 광·장 흥 지 구	20		20
운 장 산 지 구	19	20	39
계	586	219	805

보 급:공비들의 보급상태는 추수기부터 초겨울에 이르는 동안에 약탈한 식량이 1954년 1월 하순에 이르러 거의 소비되자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 동안 그들이 약탈했던 보급품은 다음과 같다.

식량은 백미 압맥 등 주식에 있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확보하고 있었고 부식은 주로 식염 된장 등이었다.

의류 역시 약탈에 의하여 충당하였는데, 1953년 5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에 약탈한 총 수량은 2,015점이었다. 이 의류량은 지역 내 공비 800여 명에 대해 1인당 약 2~3점씩 배당할 수 있는 양으로서, 크게 곤란을 받지 않았다.

무기 및 탄약은 토벌부대의 주둔지 및 군·경 차량을 습격하여 충당하였으며, 1953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약탈한 내용 및 수량은 중화기 및 소총이 도합 260정, 실탄이 2,817발이었다. 그러나, 무기는 폐품이 많고 원거리 사격이 불가능하였으며, 중기관총은 탄약 소비량이 많아 사용에 제한을 받았다.

이 밖에 중요한 약탈품으로서는 현금, 귀금속 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차량을 기습하거나 민가에 침입하여 약탈하며, 주로 의약품의 구입과 지하 특수공작비로 사용되었다. 1953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탈한 금품은 현금 100여 만 원, 시계 49개, 기타 라디오, 재봉틀 등 상당수에 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금품은 이들 공비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들이었다.

사 기: 공비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확고한 자들이었으나, 핵심간부들이 사살 또는 생포된 후로 그 동요가 심하였고, 이번 소탕작전에 이르러서는 정신적·물질적 양면으로 타격을 받아 가능한 작전부대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주로 은신에만 치중하는 등 그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다.

(대) 토벌부대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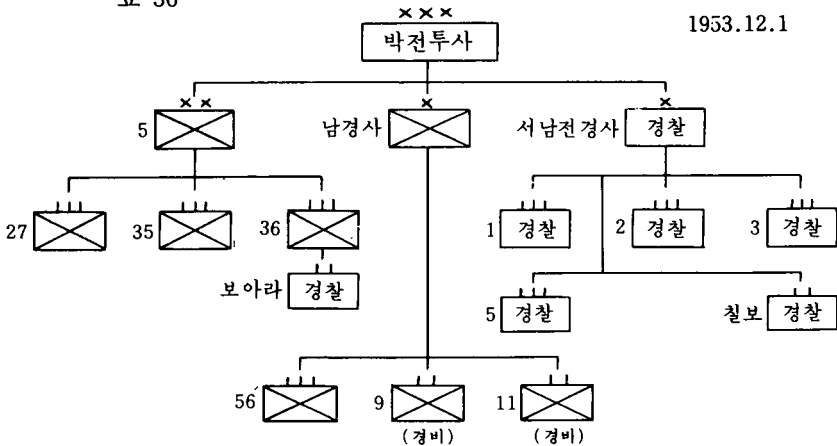
1) 토벌부대의 전투서열

부 대	직 급	계 급	성 명
박전투사령부	사령관 겸 5사단장	소 장	박병권
박전투사령부	부사령관 겸 전방지휘소장	준 장	한 신
제 5사단 제27연대	연 대 장	대 령	최영규
제 5사단 제35연대	연 대 장	대 령	박창원

부 대	직 급	계 급	성 명
제 5 사단 제36연대	연 대 장	대 령	김동혁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사 령 관	준 장	유해준
제 56 연 대	연 대 장	대 령	허영순
제 9 경비대대	대 대 장	중 령	김성욱
제 11경비대대	대 대 장	중 령	이창범
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신상묵
제 1 연 대	연 대 장	총 경	김준종
제 2 연 대	연 대 장	총 경	차일혁
제 3 연 대	연 대 장	총 경	김영춘
제 5 연 대	연 대 장	총 경	이승우

2) 박전투사령부의 전투편성

표 36 박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 (1) 1953.12.1



3) 전투능력

개 요: 박전투사령부의 주력인 제5사단은 신병 기초훈련을 마친 자와 일선에서의 전투 경험자가 각각 50%에 달하였다. 또한, 기동력이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고탄리에서 13주간에 걸쳐 실시한 부대정비 및 교육을 통하여 심신을 연마하였고, 대유격작전 전술의 숙달은 물론 지급된 각종 개인장비의 운용에도 능숙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는 호남지구에서 장기간의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한 풍부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대로서 적의 전술을 간파하는 데 능통하였고 지리산·덕유산·백운산 등 산악지형의 지리에도 밝았다.

보 급: 보급은 작전부대를 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차량수송에 의해 원활히 추진되었으나, 중대급 이하 소부대까지의 보급은 교통로가 미비한 관계로 인력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평균 소요시간이 5~8시간이나 걸렸다. 특히, 강설 및 강우시에는 시계가 1~2m로 제한되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는 보급운반보다도 절벽에서의 추락 방지가 선결문제였고, 대형과 방향 유지에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특수피복을 보급하여, 작전부대의 보급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사 기: 제5사단 장병들은 장기간의 전방전투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꼈으나, 사단에서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정기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호남지역으로 이동한 후에는 점차로 이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작전은 정규전인 아닌 공비의 소탕작전으로서 적의 저항은 경미하였으며, 작전기간중에 공비를 생포하거나 많은 전과를 세운 장병에게는 훈장과 전공 상

금을 수여하고 포상휴가 등을 실시하여 전투의욕을 고취시켰으므로 사기는 높았다.

(2) 작전 경과

개 요: 박전투사령부는 제1단계 작전으로 제5사단이 지리산과 반야봉 및 덕유산 지역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노고단(1507m)과 백운산 지역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회문산과 신선봉(내장산)·모후산·조계산 지역을 담당하여 각각 공비소탕 작전임무를 전개 하도록 하였다.

(가) 반야봉 지역 작전

제5사단 제27연대는 지리산의 서쪽에 위치한 반야봉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 작전임무를 부여받았다. 반야봉은 지리산(1,915m, 천왕봉)으로부터 서쪽으로 15 km 떨어진 해발 1,728 m의 고지로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수의 공비가 은거하고 있었다.

제27연대는 이 작전을 위하여 운봉 동쪽 7 km 떨어진 신인월리(CQ 733247)에 연대 전투지휘소를 개소하였으며, 최초로 제1대대는 운봉 남쪽 2 km 지점의 용은동(CQ 6619)에서, 제2대대는 당흥리(CQ 7817)에서, 제3대대는 산덕리(CQ 6819)에서 각각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제1대대는 1953년 12월 11일 남쪽의 남경사 예하 제56연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D+I선(요도: 33 참조)의 목표를 향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제2대대는 연대의 동쪽에서 강계동(CQ 7916) 부근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후 접적없이 D+I선의 목표에 도착하였고, 제3대대는 연대의 예비로서 매동(CQ 7520) 일대에서 집결대기 하고 있었다.



도벌부대 출동광경

동 연대는 계속 목표지역을 향하여 포위망을 압축해 가면서, 2월 14일에는 반야봉 일대의 D+3선에 도착하여 12월 15일~16일의 2일간에 걸쳐 반야봉 주변 일대에 대한 정밀수색을 실시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 연대는 기간중 계속해서 반야봉 일대의 주요지점에 1일 58~145개조의 야간매복조와 11~30개조의 주간수색조를 운용하였다.

작전기간중에 제1대대 수색대의 1개 분대가 1954년 1월 1일 반야봉 서쪽 1km 지점에서 2차에 걸쳐 4명의 공비를 발견하였으나 그들은 전원 도주하였으며, 모포 2매와 쌀 2되를 노획하였다.

동 연대는 제1단계 반야봉 지역 공비소탕작전에서, 8회에 걸쳐 16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3명을 사살하고 6명을 생포하였으며 개인화기 5정을 노획하였다.



공비의 만행을 피해 나온 피난민

(나) 지리산 지역 작전

제35연대는 지리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지리산은 해발 1,915 m로서 고지 능선을 따라 경남 함양군·산청군·하동군의 3개 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많은 공비가 은거하고 있었다.

동 연대는 이 작전을 위하여 전투지휘소를 산청 남쪽 18 km 지점에 위치한 동신(CQ 945042)에 두고, 최초에 제1대대는 산청(CQ 962194)에, 제2대대는 자양(CQ 997016)에, 제3대대는 대하(CQ 942054)에 위치하였다가, 12월 11일 소탕작전을 위해 각각 지리산 정상 방향인 서쪽으로 10 km씩 진출하며 수색작전을 전개하여, D+1일에 목표까지 도달하게 하였다.

동 연대는 계속 인접부대인 제27연대 및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예하 제56연대와 연락을 유지하고, 지리산 정상을 향하여 포위망을 압축해 나가면서 수색을 전개하여, 12월 16일에 지리산 정상(1,915m)에 도달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 연대는 기간중 계속해서 지리산 일대에 대한 수색 및 매복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전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대수색중대는 12월 17일 19:30경 지리산 북쪽 10 km 지점의 새동(CQ 861200) 일대를 수색하던 중, 공비 4명을 발견하여 그 중 1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12월 19일 07:00, 연대수색중대는 지리산 북쪽 6 km 지점의 광점동(CQ 869168) 일대를 수색중에 공비 5명을 발견하여 교전하였으나, 공비는 전원 도주하였으며 CAR 2정을 노획하였다.

1954년 1월 1일에는 제2대대 통신대가 지리산 동남쪽 2 km 지점의 법계사(CQ 876093)에서 유선 가설작업을 하던 중 공비 3명을 발견하여 추격하였으나 전원이 도주하였으며, 제2대대 수색대가 지리산 남쪽 4 km 지점에 위치한 거림(CQ 836057)을 수색중 장총 1정을 습득하였다.

1월 28일 05:00, 제2대대 제6중대는 지리산 남쪽 12 km 지점의 삼거리(CP 865988)에 잠복중 공비 9명을 발견, 교전 끝에 1명을 생포하였다.

동 연대는 지리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에서 20회에 걸쳐 46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2명을 사살하고 23명을 생포하였으며, 장비는 소화기 14정을 노획하였다.

(대) 노고단 지역 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예하 제56연대는 지리산 서쪽의 산맥을 따라 남쪽지역에 대한 공비소탕 작전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지역에는 해발 1,507 m의 노고단을 비롯한 1355고지 등에 공비가 은거하고 있었다.



토벌부대의 포위망 압축장면

동 연대는 12월 11일 이 작전을 위하여 전투지휘소를 하동(CP 8681)에 두고, 동쪽의 제35연대, 북쪽의 제27연대와 각각 연락을 유지하면서, 노고단 지역 일대를 최종목표로 하여 제1대대를 서, 제2대대를 동, 제3대대를 중앙에 배치한 후 각각 수색작전을 전개하게 하였다.

제1대대는 구례(CP 611943)－상죽(CP 658974) 간을, 제2대대는 정서리(CP 815945)－묵계리(CP 863963) 간을, 제3대대는 중기(CP 734975)－가탄(CP 765958) 간을 연하는 지역 일대에 대하여 최초수색을 실시한 후 대기하고 있었다.

동 연대는 12월 12일 각 대대별로 지정된 지역을 따라 수색을 실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밀수색을 실시하면서 12월 16일에는 최종목표인 노고단 및 1335고지에 도달하였으나 공비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 연대는 기간중 계속해서 노고단 및 1355고지에서 적의 출몰

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 1일 54~100개조의 야간매복조와 12~45개조의 주간수색조를 운용하였다.

그 결과, 12월 24일 13:00 제1대대는 구례군 화엄사(CQ628020) 부근을 수색중 공비 20명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은 토벌부대와외의 전투를 회피하고, 노고단 하단 차일봉(CR 640205) 방향으로 전원 도주하였다.

그리고 12월 28일 07:00 연대 유격대원 12명이 구례 동남쪽 10 km 덕림리(CP 660858) 지점에서 남태준 부대의 공비 3명과 교전을 벌여 1명을 사살하였다.

1954년 1월 6일 15:25경에는 제3대대 제12중대가 노고단 서북쪽 월계(CQ 646103) 지점을 수색중 구례군당 광영철 부대원 4명을 생포하고 소화기 2정을 노획하였다.

기간중 연대는 노고단 지역 공비소탕작전에서 5회에 걸쳐 33명의 적과 조우하여 그 중 2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5정을 노획하였다.

(라) 백운산 지역 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예하 제9 및 제11경비대대는 백운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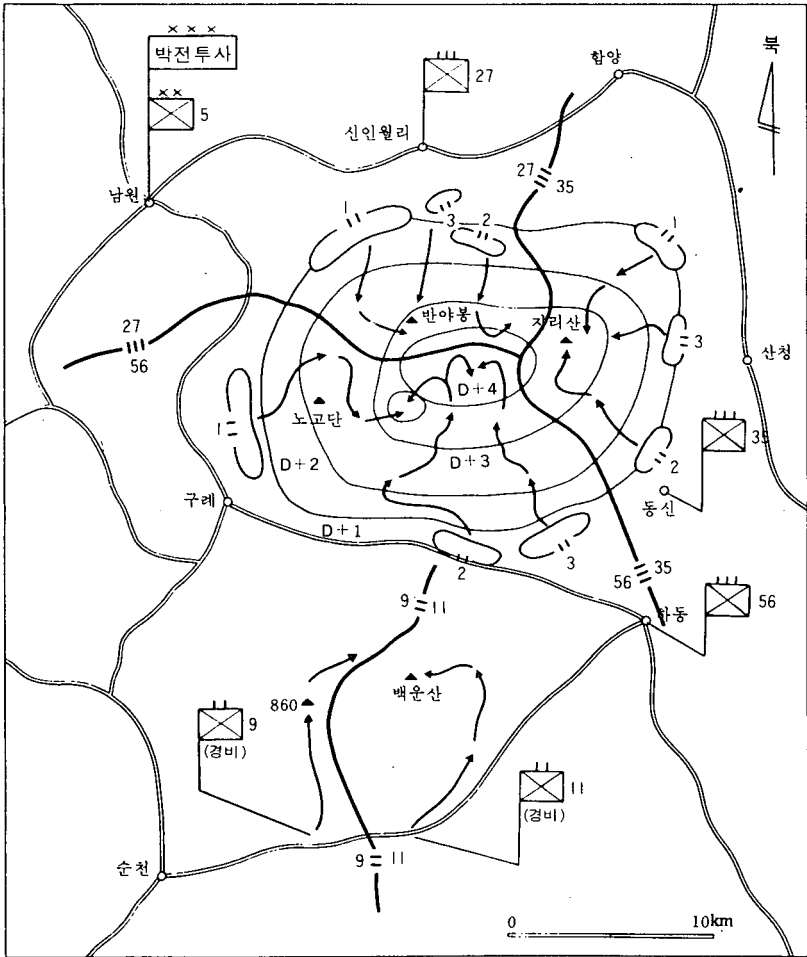
백운산은 해발 1,218 m로서 지리산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0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로 뻗은 능선이 구례군과 광양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백운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을 위해 제9경비대대의 지휘소는 압곡(CP 662732)에, 제11경비대대의 지휘소는 울곡(CQ 747732)에 두고, 2개 대대가 작전지역의 동쪽과 서쪽에서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점차 압축, 백운산을 목표로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백운산의 서쪽지역을 담당한 제9경비대대는 1일 25~77개조의

야간매복조와 14~17개조의 주간수색조를 운용하였다. 또한, 백운산의 동쪽지역을 담당한 제11경비대대는 1일 25개조의 야간매복조와 17개조의 주간수색조를 운용하였다.

요도 33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1953.12.11~16.)



12월 19일 20:00, 제9경비대대는 백운산 서쪽 9 km 지점의 마사치(CP 660830)를 수색중 공비 10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였다.

1월 22일 00:30, 제II경비대대 제I중대도 백운산 서쪽 5 km 지점의 성불사(CP 699833) 부근에서 매복중, 공비 20명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하였으나 오히려 전사 1명, 부상 3명의 피해만 입었을 뿐이었다.

1954년 1월 29일 20:40, 제9경비대대 매복조는 백운산 서남쪽 8 km 지점 하조(CP 683810)에서 공비 8명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여 교전을 전개한 끝에 그 중 공비 1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백운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에서 제9 및 제II경비대대는 10회에 걸쳐 57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4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8정을 노획하였다.

(배) 덕유산 지역 작전

제36연대는 1953년 12월 11일부터 연대 단독으로 덕유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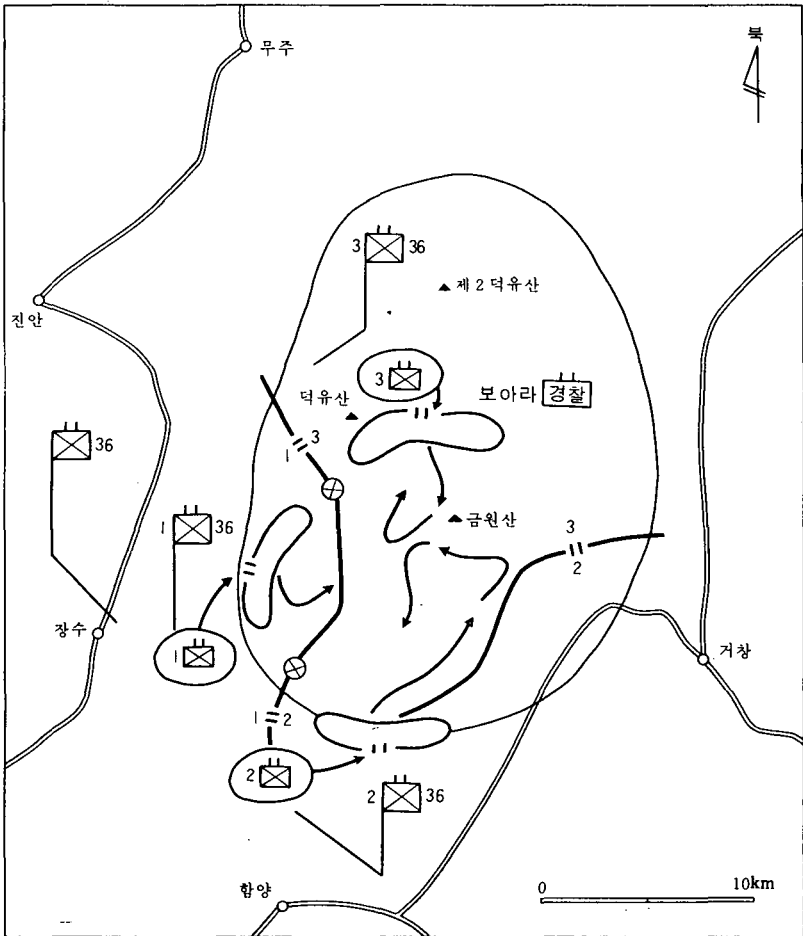
덕유산은 지리산으로부터 50 km 북쪽에 떨어진 해발 1,508 m의 고지이며, 북쪽으로 10 km 떨어진 곳에 해발 1,594 m의 제2덕유산(일명, 북덕유산)이 있다. 이 지역은 전라북도 무주군에 속하며 덕유산을 비롯한 많은 산들이 산맥을 이루고 있고, 이 산맥을 따라 경남 거창군과 경북 금릉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등의 5개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지리산과 같이 많은 공비가 은거하고 있었다.

동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장수(CQ 6745)에 설치한 후 최초 제I대대를 장안리(CQ 7345), 제2대대를 원산리(CQ 8136), 제3대대를 양악리(CQ 790612)에 두고 여기에서부터 각각 행동을 개시하여 덕유산

및 월봉산(CQ 8354), 금원산(CQ 8954) 지역을 목표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해 가면서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동 연대는 작전기간중 1일 55~105개조의 야간매복조와 18~37개조의 주간수색조를 운용하였으며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도 34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1953.12.11~16.)



12월 13일 08:00, 제1대대 제3중대는 덕유산 북쪽 1 km 지점(CQ 808593)에서 수 미상의 공비와 교전 끝에 공비 1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고 소화기 2정을 노획하였다.

1954년 1월 21일 14:20에는 덕유산 동북방 1 km 지점(CQ 883660) 지점에서 제7중대 제1소대 수색조가 양곡 29가마를 발견, 노획하였다.

또한, 동 수색조는 안성장 북쪽 6 km 지점 마산리(CQ 815754)에서 공비 15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전원 도주하였다.

동 연대는 덕유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에서 6회에 걸쳐 33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7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5정을 노획하였다.

(배) 회문산·신선봉·조계산·모후산 지역 공비소탕작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는 전투지휘소를 순창에 두고, 예하 4개 전투경찰연대를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제1·2연대가 전북의 정읍 순창 지역에 있는 신선봉 및 회문산 지역을 담당하고, 제3, 5연대가 전남의 승주, 화순 지역의 조계산 모후산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찰 제1연대가 담당한 신선봉(CQ 085273)은 내장산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고지로 해발 763 m이며, 동서로 뻗은 능선을 따라 전북과 전남의 도 경계선을 이룬다. 제1연대는 전투지휘소를 담양 북쪽 용금동(CQ 1215)에 두고, 제1대대가 신선봉 동남쪽 서지(CQ 1426)에서, 제2대대가 신선봉 능선 바로 남쪽에서, 제3대대가 신선봉 북쪽 내장리(CQ 1234)에서 각각 신선봉 및 내장사 일대의 목표를 향하여 포위망을 형성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요도: 35 참조)

경찰 제2연대가 담당한 회문산(일명, 장군봉; CQ 283289)은 순창군과 임실군의 경계지점으로 해발 839m이며, 남원으로부터 30 km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연산(CQ 2824)에 두고, 회문산을 목표로 제1대대가 남쪽, 제2대대가 동북쪽, 제3대대가 서북쪽에서 포위망을 형성하여 축차적인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경찰 제3연대가 담당한 조계산(CP 463738)은 해발 887m로서 순천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0 km 떨어진 승주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에 송광사, 선암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동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옥령(CP 4178)에 두고 조계산을 향하여, 제1대대가 서쪽 방향에서, 제2대대가 남동방향에서, 제3대대가 동북 방향에서 포위망을 형성하여 축차적인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요도: 36 참조)

경찰 제5연대가 담당한 모후산(CP 345777)은 해발 919 m로서 남북으로 뻗은 능선이 승주군과 화순군의 경계를 이룬다. 동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벽송리(CP 2570)에 두고, 목표인 모후산을 향하여 제1대대가 서남, 제2대대가 북, 제3대대가 동남 방향에서 각각 포위망을 형성하여 축차적인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기간중,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의 작전은 제1·2·3연대가 각각 1회, 제5연대가 3회의 접적이 있었을 뿐, 대부분은 해지역 경찰요원에 의한 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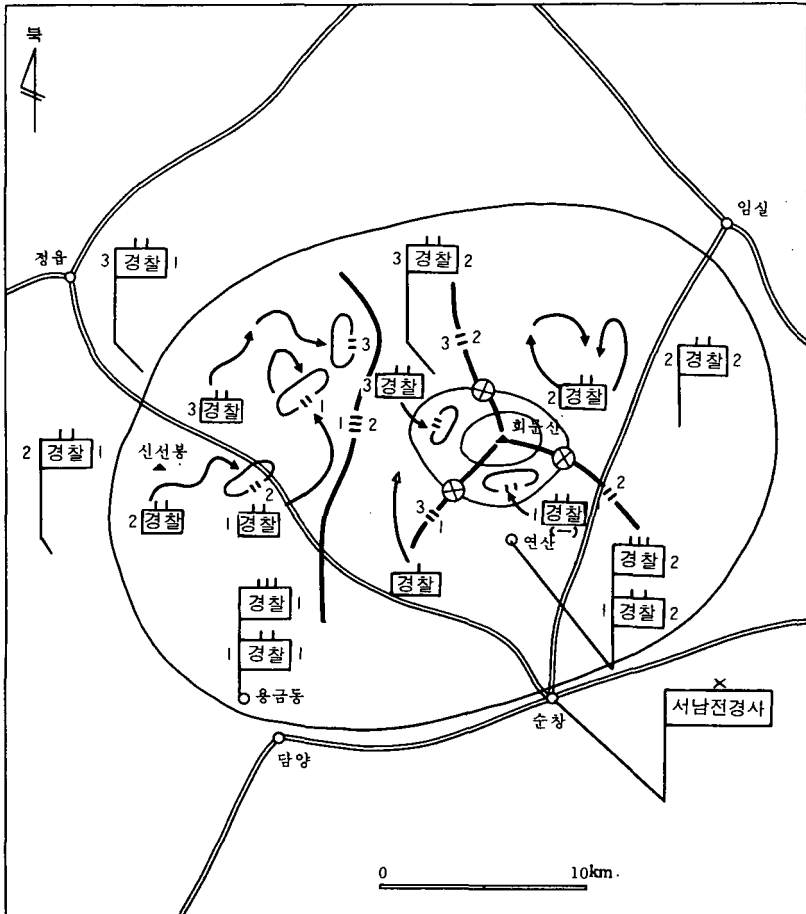
12월 11일 06:00, 경찰 제3연대 제1대대는 조계산(CP 462773) 일대에 대해 포위망을 압축해 나가던 중, 공비 20명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공비 3명을 사살하고 무반동총 1문, CAR 소총 1정, 99식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1954년 1월 7일 23:50, 경찰 제5연대는 운봉 남쪽 1 km 지점의 준행(CQ 652215)에서 공비 15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공비들은 전원 분산 도주하였다.

1월 8일 14:30, 경찰 제2연대 제2중대는 회문산 서남쪽 3 km 지점의 여분산(CQ 233287)에서 공비 아지트를 발견하여 99식소총 1정, 공비문서 200여 점 등을 포함한 물품을 다수 노획하였다.

1월 10일 16:30, 경찰 제5연대 예하 고창부대가 태인(CQ 165475) 일대를 수색중 공비 10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공비 2명을 사살하고 소총 1정을 노획하였으며, 22:30, 함양 동남방 3km의 목현(CQ 872279)지점에서 함양 경찰대는 공비 6명과 조우하여, 교전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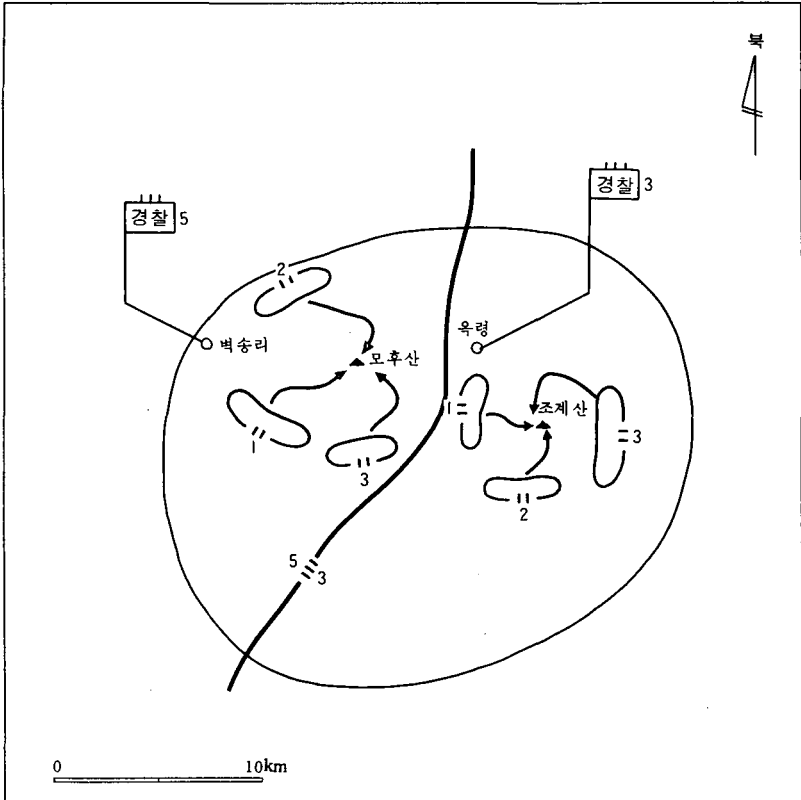
요도 35 신선봉·회문산 지역 작전 요도 (1953.12.11~16.)



에 공비 3명을 사살하고 CAR 소총 1정 등 소화기 3정을 노획하였으며, 작전부대도 전사 1명의 피해를 입었다.

1월 13일 21:00에는 거창 동방리(DQ 011540)에 공비 15명이 침투하였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해지역의 행정경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포위망을 형성하고 교전하였으나 공비는 교묘히 탈출 도주하였다.

요도 36 조계산·모후산 지역 작전 요도 (1953. 12. 11~16)



1월 21일 21:30, 덕유산 서쪽 4 km 지점의 효자촌(CQ 792700)에 공비 13명이 출현했다는 신고에 의거, 지역 경찰대가 출동하였으나, 공비는 이미 물품을 약탈하여 도주한 후였다.

1월 22일에도 23:30분에, 장계 행정 경찰대는 장계(CQ 649238) 지점에 공비 5명이 침투하였다는 주민 신고에 의거 출동하였으나, 여기에서도 공비는 이미 민가에서 각종 물품을 약탈하여 도주한 후였다.

1월 26일 02:00, 행정 경찰대는 백운산 북쪽 6 km 지점의 적금(CP 768907)에서 침투한 공비 10명과 교전을 벌였으나 전원 도주하였다.

1월 31일 22:00 보암 경찰대는 하동 북쪽 16 km 지점의 묵계리(CP 877964)에 침투한 공비 8명과 교전 끝에 공비 1명을 사살하고 MI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귀순공비들, 여공비는 남파된 심리전 요원



공비 최후의 순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는 제I단계 공비소탕 작전기간중 총 18회에 걸쳐 119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1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3명이 귀순하였고, 소화기 16정, 기관총 2정, 무반동총 1정 공비문서 200점 등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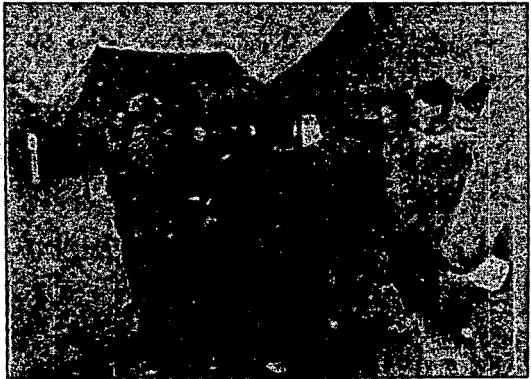
(사) 심리전 작전

박전투사령부는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심리전 공작을 대적심리전과 대민심리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 대적심리전

대적심리전의 주안점은 첫째 공비의 사기와 전투의욕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사상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특수전단을 작성살포하고, 둘째 공비의 불안과 변절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전단살포와 아울러

전략 및 전술방송을 실시하며, 셋째는 공비의 향수심을 조장하고 재생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형태의 귀순공작을 실시하고, 귀순자에 대해서는 원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선무공작을 실시하는 장면

대적심리전의 실적은 육군본부로부터 대적

특수전단 “특별작전은 드디어 개시되었다”를 위시하여 28종의 전단을 수령, 항공기(L-19)로 지리산·백운산·덕유산·회문산 등지

귀 순 증

이 귀순증은 그대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한다. 언제든지 그대들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조국대한의 품안으로 돌아올려고 결심했을때는 국군이나 경찰에 이것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는 동포는 특별히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우대하라고 나는 이미 계엄지구 군경에게 지시하였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백 선 연



(C-220)

귀순할 때 사용하도록 만든 전단

에 살포하고, 그 일부는 수색대에 의해 지상에서 살포되었다.

그리고, 방송은 전략방송과 전술방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전략방송은 남원 방송국 및 광주 방송국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드디어 토벌작전은 개시되었다', '삶의 길을 택하라', '각 도당 위원장들이여 그대의 대오를 거느리고 돌아오라', '토벌작전은 철저하다' 등이었다.

전술방송은 확성기 팀 5개조가 실시하는 전략방송과 보조를 같이하였다.


2) 대민심리전

대민심리전의 주안점은 첫째 작전지역내의 주민에 대하여 군사기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사령부의 임무가 공비로부터 주민의 재

귀순방법




1. 귀순증을 가지고 오라. 한장으로 여러사람이 같이와도 좋으며 한장도 가지지 못하였으면 배라를 보고서 귀순하였다고 말하라.
2.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기를 버리지 말고 등예다매고 오라.
3. 두손을 높이 들고 국군이나 경찰이 있는곳에 가까이 오면서 대한민국만세를 부르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백 선 업



귀순방법을 알리는 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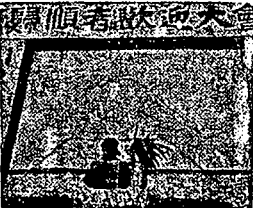
산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는 것과, 작전간의 포로 처우에 있어서 단순 가담자는 훈방 귀가조치한다는 등에 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작전부대에 협조를 하여 주도록 유도하고 공비와 인척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그들에게 귀순을 종용하도록 하며, 둘째 민간조직을 강화하여 산에 있는 공비의 지하침투와 오염들의 침투를 방지하며 민간인과 공비의 이간을 획책하고, 셋째 적성지구 주민 및 입산자 가족에 대한 회유 포섭과 신뢰심을 조장시켜 귀순을 종용하며, 넷째 작전지구 주민의 구호대책을 확립하는 것들이었다.

대민심리전의 실적은 작전지역내의 1개 시 18개 군에 대하여 심리전 요원을 1개 군에 3명씩 파견하고 심리전 장교가 각각 2개 군씩을 담당하여 전단을 배포하였으며, 민중계몽과 각종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여 민중조직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광기 4287년 1월 20일 지 리 산 특 보 제 13호 C-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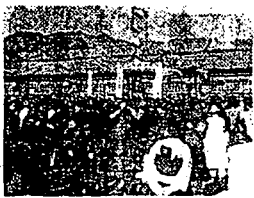
이외 전향민이면 이들의 가족 친척 친구
친구도

원장 남상원 등
전순진단단의 위
니다 귀순장관
히 거행되었을



이것이 11월 11일의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시내에



순천 귀순자 환영대회 성대한 풍경

순천 귀순자 환영대회 성대한 풍경

“지리산 특보”의 기사내용

(3) 작전결과

(가) 작전성과

박전투사령부의 제I단계 작전은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2월 1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박전투사령부는 이 작전에서 재산공비의 25%에 해당되는 200여 명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비들의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어 타지역으로 분산 도주하기에 이르렀다.

(나) 전과 및 피해

제I단계 작전기간중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제 I 단계 작전기간중의 전과 및 피해

• 전 과

인원 단위 : 명

구분	부대별		5 사단	남경사	서 남 전경사	행정경찰	계
	종별						
인 원	사	살	27	11	16	37	91
	생	포	64	14	12	18	108
	귀	순	4	4		15	23
	계		95	29	28	70	222
물 자	소 화 기 (정)		117	25	32	105	279
	중 화 기 (정)		14	1		5	20
	탄 약 (발)		1,154	775	1,848	4,379	8,156
	식 량 (kg)		491	19	7	55	572

• 피 해

인원단위 : 명

구분	종 별	부대별		5 사단	남경사	서 남 전경사	행정경찰	계
		전 사	부 상					
인 원	전 사	33	11				21	65
	부 상	30	3				18	51
	실 종						1	1
	계	63	14				40	117
장 비	소화기(정)		3				15	18
	탄 약(발)						104	104

나. 제2단계작전(1954. 2. II. ~ 3. 3I.)

(1) 작전배경

(가) 공비 상황

제2단계 작전시 공비의 전투서열과 병력 및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비의 전투서열 (1954년 2월 II일 기준)

() : 비무장인원

지 역 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지리산지구	조국출판사	사 장	이주현	14명
	지리산주재당	위원장	정기석	5명

지역 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경남도당	위원장	조병아	19명(1)
지리산지구	중부소지구당	〃	권숙현	6 명
	남원군당	〃	이병호	13명
	임실군당	〃	오훈경	9 명
	995 부대	부대장	김태규	31명
	727부대	〃	장을수	26명(4)
	야지공작대	대 장	배팔만	14명(1)
	이영회부대	부대장	곽창학	6 명
백운산지구	전남도당	위원장	김선우	32명(15)
	전남부대	부대장	임종운	24명
	남태준부대	〃	남태준	44명(3)
	광양부대	〃	한암길	29명(5)
	순천부대	〃	미 상	19명(4)
덕유산지구	전북도당	위원장	방준표	26명
	항미연대	연대장	오용관	20명
	북부지구당	위원장	박창봉	12명
	노영호부대	부대장	노영호	14명
	박문학부대	부대장	박문학	14명
	진안군당	위원장	한길찬	22명(8)
회문산지구	전북도당남부지도부	부 장	남재민	16명(5)
	순창군당	위원장	현송학	3 명
	김제군당	위원장	신현근	4 명(1)
	정읍군당	위원장	정 응	15명(1)

지 역 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고창군당	위원장	계종만	12명
	부안군당	위원장	김적성	10명
백아산지구	전남서부도당	위원장	박갑준	9명(1)
	백아산지구당	위원장	미 상	23명(9)
	광주시당	위원장	미 상	8명(5)
	곡성군당	위원장	김지수	12명(7)
	곽용철부대	부대장	곽용철	4명(2)
화학산지구	전남남부주재당	위원장	미 상	32명(14)
	두봉산소지구당	위원장	양우창	3명
	중부지구기동대	대 장	김동길	16명
운장산지구	복수연대	연대장	김수남	18명
계	7개지구 36개부대			

2) 공비의 병력수

단위 : 명

지 역 별	인 원	비 고
지 리 산 지 구	143	비무장 : 6명
백 운 산 지 구	148	비무장 : 27명
덕 유 산 지 구	108	비무장 : 8명
회 문 산 지 구	60	비무장 : 7명
백 아 산 지 구	56	비무장 : 24명
화 학 산 지 구	51	비무장 : 14명
운 장 산 지 구	18	
계	584	비무장 : 86명

3) 공비 준동상황

박전투사령부가 실시한 제I단계 공비소탕작전의 결과로 공비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완전히 분산되었으며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공비집단의 세력간에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날이 갈수록 귀순자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비들은 다년간 산악지대에서 생활한 자들로서, 토벌군과의 접촉을 피하여 심산으로 분산 은거중이던 병력을 재집결시키려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자 최후 발악으로 토벌부대의 포위망을 뚫고 민가에 침입하여 식량과 금품을 약탈하였다.

(내) 토벌부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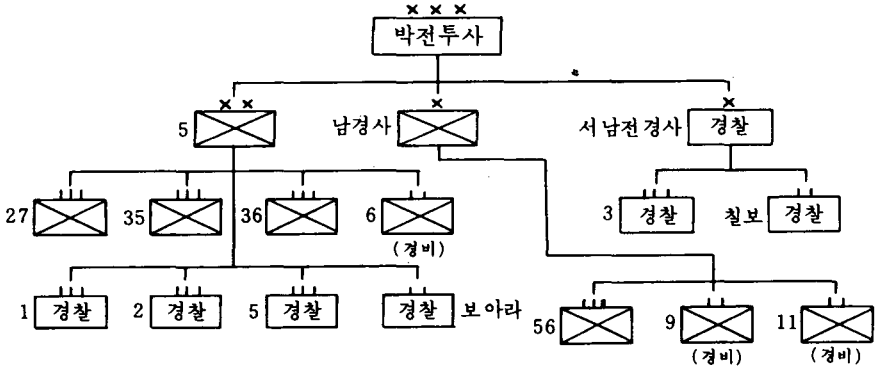
1) 토벌부대의 전투서열

부 대	직 급	계 급	성 명
박전투 사령부	사령관 겸 제 5 사단장	소 장	박병권
박전투사령부	부 사 령 관	준 장	한 신
제 5 사단 제27연대	연 대 장	대 령	최영규
제 5 사단 제35연대	연 대 장	대 령	박창원
제 5 사단 제36연대	연 대 장	중 령	김동혁
남부지구 경비 사령부	사 령 관	준 장	유해준
제 56연대	연 대 장	대 령	김 인
제 9 경비대대	대 대 장	중 령	김성각
제 11경비대대	대 대 장	중 령	최명도

부 대	직 급	계 급	성 명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사령부	사 령 관	경무관	신상목
경찰 제 1 연대	연 대 장	총 경	김준종
경찰 제 2 연대	연 대 장	총 경	차일혁
경찰 제 3 연대	연 대 장	총 경	김영춘
경찰 제 5 연대	연 대 장	총 경	이승우

2) 박전투사령부의 전투편성

표 37 박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 (2)



3) 병력 및 장비

• 병 력

단위 : 명

부대	구분	장 교	사 병
5	사 단	733	11,973
남	경 사	281	5,428
사 남 전 경 사		273	4,633
계		1,287	22,034

• 장 비

단위: 정

부대 \ 구분	소 화 기	중 화 기	계
5 사 단	10,948	880	11,828
남 경 사	4,951	408	5,359
서 남 전 경 사	4,187	71	4,258
첩 보 대	272	25	297
계	20,358	1,384	21,742

• 차 량

단위: 대

구 분	총 보 유 수	사 고 차 량	출동대기차량
계	765	298	467

4) 작전개요

박전투사령부의 제2단계 작전은 1954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제5사단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의 경찰 3개 연대를 배속받아 반야봉을 비롯하여 노고단, 덕유산, 백운산 지역을 담당하고,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지리산 지역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조계산 및 회문산 지역을 각각 담당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2) 작전경과

(가) 반야봉·노고단 지역 작전

제27연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의 경찰 제2연대와 경찰 제5연대를 배속받아, 비교적 공비가 많이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반야봉 및 노고단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

였다.

반야봉 지역은 제I단계 작전시에 제27연대가 담당했던 지역으로 연대는 지형에 숙달되어 있었으며, 노고단 지역은 제I단계 작전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의 제56연대가 담당하였던 지역이었다. 제27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계속 신일월리에 두고 있었으며, 경찰 제2연대는 구례 동쪽 5 km 떨어진 상죽(CP 653974)에, 경찰 제5연대는 화개장(CP 750948)에 각각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2월 11일, 제27연대는 공비의 은거지로 예상되는 6개 지역을 울치, 천운산골, 피아골, 빗장골, 형제봉, 황장산으로 선정하고 군·경합동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접적 없이 집결지로 귀대하였다.

다음날인 12일에도, 제27연대는 은거 예상지역 6개소를 반복 수색하였으나, 공비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27연대는 최초 노고단 및 반야봉을 연하는 능선의 남쪽지역인 피아골 및 화엄사골 지역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한 후, 재차 수색 및 매복을 통하여 유동하고 있는 공비의 소탕을 시도하였으며, 2월 하순부터 3월 사이에는 노고단 및 반야봉을 연하는 능선 북쪽 지역인 뱀사골·황봉 등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 중의 전과는 주로 야간매복조에 의하거나 생포된 공비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는 과정에서 획득되었으며, 주요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4년 2월 18일, 제27연대 제2대대 제6중대 수색조는 반야봉 동남쪽 3 km 불무장동(CQ 705050) 지점을 수색중 공비 10명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3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6정을 노획하였다.

다음날인 2월 19일에는 경찰 제2연대 제1중대가 하동 서북방 10 km 지점의 고사리(CP 795864)를 수색중 적 10명을 발견하고 교전하였으나 공비는 전부 도주하였다.

14:20 제9중대가 선봉(CP 740807)을 수색중 제I중대와 조우하였던 공비 10명을 재차 발견하여 교전 및 추격 끝에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2월 27일 13:05, 제27연대 제I대대 제4중대는 반야봉 동쪽 2km (CQ 719098) 지점을 수색중 야지트에서 공비 5명이 사격을 가한 후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사살 2명과 생포 1명, MI 소총 2정, CAR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3월 4일 01:30, 경찰 제2연대는 죽전리(CP 763782)에서 적 4명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였다.

3월 29일, 제27연대 제2대대 제7중대 수색조가 18:00 구례 화엄사골 (CQ 646061)을 수색하던 중 공비 2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2명을 생포하고 CAR 소총 1정과 99식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동일 18:00에는 제7중대 수색조 13명이 배야골(CQ 686153)



사살된 공비의 시체

을 수색하던 중, 적 14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공비 2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5정을 노획하였다.

제2단계 작전기간중, 제27연대는 작전지역내에서 16회에 걸쳐 77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17명을 사살하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화기는 20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제5지구당 해체후 남한공비를 지휘하던 조국출판사 고문 박영규와 노동신문사 주필 주영희, 지리산주재당 위원장 정기석 등의 거물급 공비들이 사살 및 생포되었다.

(나) 지리산 지역 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제2단계 작전시 예하의 제56연대와 제9 및 제11경비대대를 투입하여 지리산(1,915 m, 천왕봉)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지리산 지역은 제1단계 작전시 제5사단 제35연대가 담당하였던 지역으로서, 작전지역을 지리산 주봉을 동서로 연하는 능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남쪽은 제56연대가, 북쪽은 제9경비대대와 제11경비대대가 담당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전방지휘소를 산청에 두고(주지휘소: 남원), 제56연대 지휘소는 계속 하동에, 제9경비대대 지휘소를 메동(CQ 760200)에 두도록 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2월 11일 06:00에 작전을 개시하여 책임지역내의 공비 예상은거지역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의 지리산 지역 작전은 주로 수색과 매복 위주의 작전으로, 비교적 접적사향이 적은 편이었으며 주요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2일 09:00, 제56연대 제2대대 제8중대는 지리산 남쪽 15 km 지점의 수리봉(CP 870959) 지역을 수색중 공비 3명을 발견하여 5분간 교전 끝에 3명을 사살하고 CAR 소총 2정을 노획하였으며, 중대원 1명이 전사하였다. 그리고 3월 9일 16:00, 제56연대 제1대대 제3중대는 지리산 서남쪽 10 km 지점의 이방산(CQ 957078)에서 적 3명을 발견하여 10분간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2정을 노획하였다. 3월 19일 10:50에는 제56연대 제2중대 수색조가 산청 남쪽 2 km 지점 내동(CQ 981161)에서 적 3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전원 생포하고 M1 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제56연대 제2대대는 계속해서 은거 예상지점을 수색중 3월 23일 소속 불명의 공비로부터 기습을 받아 전사 1명 부상 2명의 피해를 입었다.

(다) 백운산 지역 작전

제5사단 제35연대는 제2단계 작전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의 경찰 제I연대를 배속받아 백운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담당하였다. 백운산 지역은 제I단계 작전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의 제9 및 제II경비대대가 담당하였던 지역이며, 제I단계 작전시 지리산을 담당했던 제35연대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와 서로 지역을 바꾸어 작전을 하게 되었다.

이때, 제35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광양에, 제I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구례에 두고 2월 11일 06:00부터 제2단계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35연대는 백운산(1,218m)을 중심으로 한 반경 7km내에서 총 30여 회에 걸친 교전으로 피아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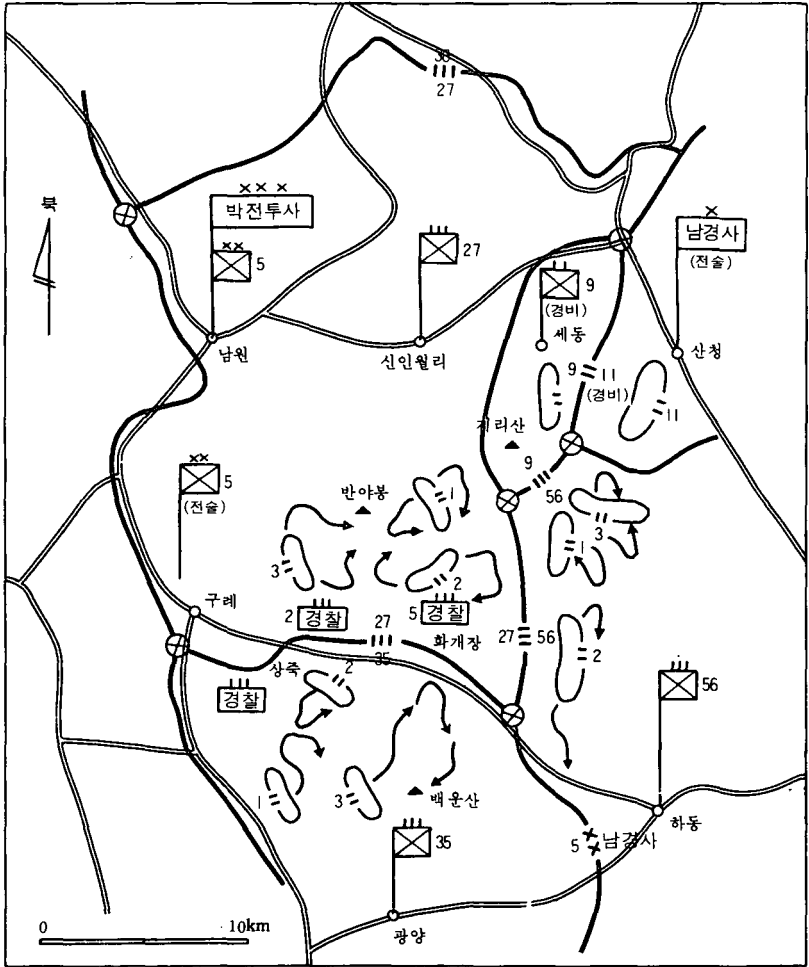
한편, 경찰 제I연대는 구례 남쪽 10km 떨어진 천황봉(CQ 6387) 일대에서 공비와 조우하여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작전부대는 주로 주간에는 은거 예상지역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공비들의 출현 예상지점인 “목”에 매복조를 설치 운용하였다. 기간 중 주요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4년 2월 11일 23:30, 경찰 제I연대 제2대대 제5중대는 반산(CP 598868)에서 공비 7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99식소총 1정을 노획하였다.

2월 13일 07:00, 제35연대 각 대대는 집결지에서 행동을 개시하여 제I대대가 목표 867고지(CP 7787)를 수색하던 중, 제2중대가 백운산 부근(CP 746846)에서 공비 10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이들은 내해골(CP 771945)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제2대대는 목표 1053고지, 1124고지, 861고지를 수색중, 10:00에 제5중대가 백운산 서북쪽 7km 지점의 등가우리봉(CP 689846)에서 공비 10명을 발견하여 교전하였으나 이들은 백운산 서북쪽의 형제봉(CP 707867)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요도 37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1954. 2. 11~21)



제2대대 제7중대는 12:30 백운산 서북쪽 선창(CP 681881)에서 경비와 조우하였으나 이들은 2~3명씩 분산 도주하였으며, 중대원 1명이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대는 이들을 계속 추적하여 15:30 구

레 남쪽 5 km 떨어진 동주우리봉(CP 627897)에서 공비 14명을 재차 발견하여 교전 끝에 생포 1명 사살 2명 소화기 3정을 노획하였다.

2월 20일, 제35연대는 백운산 서쪽 1 km의 심원(CP 736932) 일대를 수색중 09:50 제2중대가 공비 10명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했으나 모두 도주하였다. 제7중대도 동일지점에서 수색중 공비 13명을 발견하여 교전을 하는 등 3차에 걸쳐 20여 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교전 끝에, 생포 6명, 사살 4명, 소화기 4정을 노획한 반면, 중대원 1명이 전사하였다.

한편, 동일 12:15~12:55 사이에 제4중대는 한재(CP 728860) 부근을 수색중, 3차에 걸쳐 공비와 조우하여 생포 4명, 사살 1명, 소화기 3정을 노획하였으나, 아군 1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편, 박진투사령부는 백운산 지역에서 공비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3월 27일 제27연대에 배속되었던 경찰 제5연대를 백운산 지역으로 이동시켜 제35연대에 배속시켰다.

제2단계 작전간, 제35연대는 총 38회에 걸쳐 181명의 적을 발견하여, 그 중 17명을 사살하고 64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55정, 중기관총 3정, 무반동총 2정을 노획하였다.

(라) 덕유산 지역 작전.

제36연대는 제6경비대대와 보아라 전투경찰대대를 배속받아 제2단계 작전에서 덕유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 작전임무를 부여받았다.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계속해서 장수(CQ 6644)에 두고 덕유산(1,508m)과 제2 덕유산(1,594m, CQ 8767) 지역에 대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배속된 보아라 전투경찰대대는 대대지휘소를 명천(CQ 8166)에 두고 덕유산 북쪽 금평리(CQ 8171)와 지산리(CQ 6868) 일대에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6경비대대도 제36연대의 통제하에 무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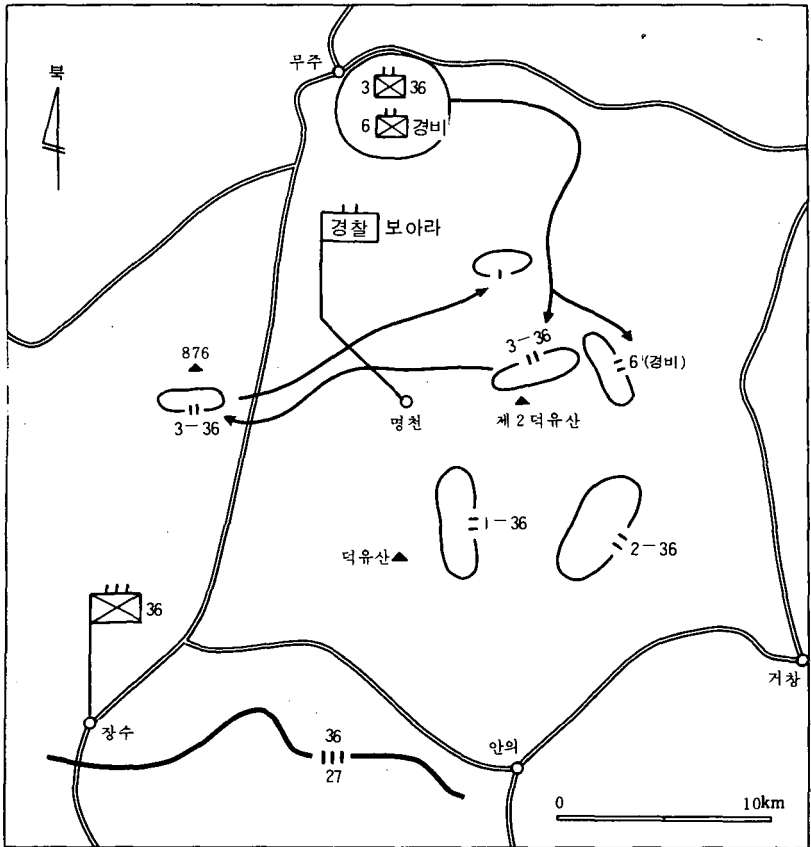
304 I.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서 제2덕유산을 거쳐 덕유산에 이르는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덕유산 지역 작전은 주로 덕유산과 제2덕유산의 중간지역인 원통사(CQ 8365)와 동업령(CQ 8464) 그리고 월성(CQ 8758) 지역에서 공비들과 대부분 조우하였으며, 특히 제2단계 작전 초기인 2월 14

요도 38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1954.2.11~21.)



일에는 제3대대 매복조가 원통사 지역에서 매복중 공비 10명과 조우하여 2차에 걸친 교전을 실시하였으나 성과 없이 제3대대 매복조만 11명이 전사하고 작전지역을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때 발생한 전사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던 차량이 이동 도중 다시 공비의 기습을 받아 전사 2명과 기관단총 1정 그리고 2½톤 차량 1대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3월 6일에는 월성(CQ 878581) 지역에서 덕유산지구당 북부 소지구당 소속의 이명재가 귀순하였다. 제36연대는 이 귀순자를 이용하여 월성 지역 공비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하여 공비 3명을 생포하고 소화기 4정을 노획하였다. 3월 23일에는 제6경비대대 소속 2½톤 차량 2대가 덕유산 서북쪽 15 km 지점의 박대골(CQ 763752)에서 나무를 운반하던 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을 때, 공비 16명의 기습을 받아 차량이 파괴되어 민간인 3명과 경비대대 요원 2명이 전사하였다.

제36연대는 제2단계 작전간 덕유산 일대에서 총 21회에 걸쳐 117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27명을 사살하고 24명을 생포(귀순자 4명 포함)하였으며, 각종 소화기 35정을 노획하였다.

(바) 조계산·모후산 지역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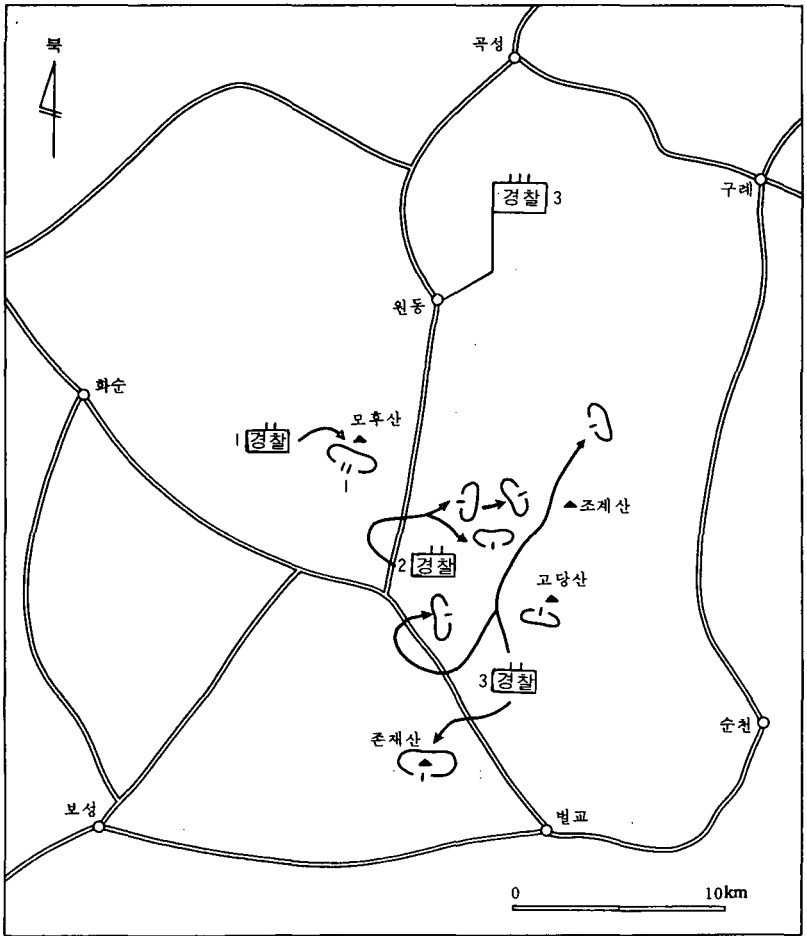
조계산 지역 공비소탕작전은 제2단계 작전에서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 예하의 경찰 제3연대가 담당하였다. 모후산 지역은 제1단계 작전시 경찰 제5연대가 담당했으나, 이 연대가 반야봉 지역 작전을 위해 제5사단 제27연대에 배속됨으로써 경찰 제3연대가 모후산까지를 포함하여 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찰 제3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원동(CP 391821)에 두고 조계산·모후산·고동산(709m, CP 4668)·존재산(704m, CP 3857) 일대에 대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동 연대는 이 지역 작전에서 비교적 공비와 접촉사항이 경미하였다.

306 1.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2월 28일 조계산 동쪽 1km 지점에 있는 선암사(CQ 489739)에서 공비 3명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3명 전원을 생포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조계산 동북방 15 km 지점인 축내(CP 501799)에서 공비 10명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10명 전원을 생포하였다. 이들 중에는

요도 39 조계산·모후산 지역 작전 요도 (1954.2.11~21.)



조계산 소지구당 위원장 이상률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 제3연대는 제2단계 작전기간중 총 2회에 걸쳐 13명의 적과 조우하여 13명 전원을 생포하고 소화기 9정을 노획하였다.

(배) 기타 행정경찰대 작전

박전투사령부는 앞서 기술한 5개 작전지역 외에서도 경찰서 또는 지서 단위의 경찰요원에 의하여 해지역에 출몰하는 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소탕작전은 무주·임실·부안·곡성·광양·화순·강진 등지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무주·장수·곡성에서는 20여 명의 공비가 집단 행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을 경찰대가 발견하여 교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14일 14:00, 남원 경찰대 2명과 수지 경찰대 3명은 민병대 100여 명과 함께 남원군 수지면 초리(CQ 512100) 지점을 수색중, 공비 21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전원 사살하였다. 한편, 장수 경찰대 경찰 30명은 장계 서북쪽 5km의 상평당(CQ 685867) 지점을 수색중, 공비 20명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공비 15명을 사살하고 소제 기관단총 2정과 소화기 8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장수 경찰대는 2월 20일 23:20 오봉리(CQ 701599) 지점에서 공비 20명을 발견하였으나 이들은 전원 도주하였으며, 광양 경찰대도 2월 21일 01:30 추동(CP 743773)에서 공비 7명을 발견하였으나 전원 도주하고 말았다.

3월 14일, 안성 지서에서는 장계 동쪽 5km 떨어진 지보동(CQ 772551)에 공비 15명이 침입하여 물품을 약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출동하여 현장으로 갔으나, 공비들은 전원 도주하였다. 기타 부안 및 구례 지역에서 경찰과 공비간에 3회의 접촉사항이 있었으나 성과는 없었다.

제2단계 작전간, 지역 단위의 행정경찰대는 총 25회에 걸쳐 135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54명을 사살하고 16명을 생포하였으

며, 6명이 귀순하였다. 장비는 소제 기관총 2정을 비롯한 소화기 44정을 노획하였다.

(사) 심리전 작전

박전투사령부는 제2단계 공비소탕작전시에도 계속해서 심리전 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작전성과를 얻었다. 제2단계 작전시의 심리전은 제1단계 소탕작전으로 흩어져 혼란상태에 빠지게 된 공비들의 전의를 더욱 상실시키고, 귀순을 종용하며, 민간인과의 분리공작을 꾀함으로써 소탕작전에서 큰 효과를 거두었다.

1) 대적심리전

대적심리전의 주안점은 제1단계 작전시와 동일한 방침 아래 실시되었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박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귀순증” 외 11종의 대적 특수전단 2,405,000매를 수령하여, 항공기(L-19)로 지리산·백운산·덕유산·회문산 등 공비 준동지역에 공중살포하였으며, 일부는 지상작전 요원에 의해 살포하였다.

그리고 전략방송은 제1단계 작전시와 같이 남원 방송국 및 광주 방송국을 통하여 “계속 투쟁의 망상을 버려라”, “토벌전은 철저하다”, “산에 남은 옛 동지들에게”의 다수의 제목으로 13회에 걸쳐 주당 3시간 15분간을 실시하였다.

전술방송은 확성기 5개 팀을 편성, 공비들의 동정을 고려하여 이동방송을 실시하였다. 한편, 수시로 적성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대민방송을 실시하여 공비와 주민과의 분리를 꾀하였다. 방송내용은 “계속 투쟁의 망상을 버려라”, “각도당 위원장들에게”, “삶의 길을 택하라”, “XX지구 주민들에게” 외 여러 제목으로 996회 564시간 4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확성기반 5개 팀의 각부대 지원상황은 다음과 같다.

확성기반의 지원실적

지 원 반	피지원부대	기 간	지 역
제1.2.4.5 팀(4)	남경사 56연대	1954.2.11-2.20	지 리 산
"	35 연 대	1954.2.21-3.10	백 · 운 산
제 3 팀	27 연 대	1954.2.11-3.31	반야봉 · 노고단

2) 대민심리전

대민심리전의 주안점은 주민과 공비간을 분리시켜 공비를 고립시키고, 공비와 인척관계가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귀순을 종용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2단계 공비소탕 작전에서도 제1단계 작전시와 같이 심리전 요원을 군 단위에 3명씩 파견하고, 심리전 장교 1명이 2개 군을 담당하여 계속 임무를 수행하였다. 즉, 전단의 배포와 민중계몽 및 각종 시청각 교육의 실시 그리고 민중조직을 지도 육성하였다.

한편, 제1단계 작전시 조직된 국민자위대를 한층 강화하고 기간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자기 부락의 자체방위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비와 내통하는 자와 이적 행위자를 적발하여 작전부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분산되어 방황하는 여러분!
지도자없이 헤매지 말고
가까운 경찰지서나 또는 군
부대에 안심하고 돌아오라!
주민들이 도와줄 것이다.**
-백전투사령부-

귀순 권고문

**작전지구 주민여러분!
당신들 이웃에 산사람들이
나려오면 친절히 군경에게
안내하여 그들을 구출
하십시오.**
-백전투사령부-

귀순 안내문

여 주민 3,740명을 관람시켰다. 그리고, 임실 경찰서에 귀순한 공비 이상훈의 환영대회를 개최하여 공비와 그들의 가족들이 이를 보고 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자유세계>, <재건화보> 등 8종류 2,386,000 매의 대민전단을 배포하여 자유진영의 소식과 유엔의 한국원조 소식을 민중에게 주지시키고, 한글교본 46,000부를 수령하여 작전지구에 매호당 1부씩 배포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문맹퇴치사업에도 기여하였다.

(3) 작전결과

(가) 작전성과

제2단계 작전은 1954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50 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박전투사령부는 작전기간중 정확한 첩보에 의해 적정을 파악한 후에 주도면밀하게 포위망을 형성한 뒤 압축해 나가면서 수색작전을 실시한 결과, 동 작전지역에 은거중이던 공비의 50%에 해당하는 290여 명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였고 효율적인 심리전으로 귀순자를 많이 획득하였다.

박전투사령부는 이 작전에서 특히, 지리산 지역 공비조직의 핵심인 조국출판사 고문 박영규를 비롯한 거물급 간부 30여 명을 사살 및 생포하여 그들의 조직을 와해시키고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다.

(나) 전과 및 피해

박전투사령부가 제2단계 공비소탕작전에서 거둔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제 2 단계작전시의 전과

인원 단위 : 명

구분	종별	대별	제 5 사단	남경사	서남전경사	행정경찰	계
		인원	사 살	45	10	6	25
	포 로	120	6	29	20	175	
	귀 순	5		2	25	32	
	계	170	16	37	70	293	
장비 및 물자	소화기(정)	180	34	35	105	354	
	중화기(정)	13			2	15	
	탄 약(발)	995	205	184	1,215	2,599	
	폭 물(kg)	140.4	1.5	8.2	35.8	185.9	

제 2 단계작전 기간중 거물급 공비 생포자 및 사살자 명단

소속	구분	직 위	성 명	종 별	작전부대	작전일시
조국출판사		고 문	박영규	사 살	제27연대	54.3.19
노동신문사		주 필	주영희	생 포	제27연대	54.2.23
지리산주재당		위원장	정기석	사 살	제27연대	54.2.19
다압소지구당		위원장	김이수	사 살	제35연대	54.3.2
남태준부대		부대장	남태준	생 포	제35연대	54.3.8
승룡부대		부대장	정우생	생 포	제27연대	54.2.11
진호부대		부대장	송덕용	생 포	제35연대	54.2.14
727 부대		부대장	장을수	귀 순	구해경찰서	54.2.22

314 I.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소속 \ 구분	직 위	성 명	종별	작전부대	작전일시
박 문 학 부 대	부 대 장	박문학	사살	제 36 연 대	54.2.26
광 양 부 대	부 대 장	한만길	"	제 36 연 대	54.3.2
제 305 부 대	부 대 장	김학수	생포	제 36 연 대	54.3.7
제 307 부 대	부 대 장	순종옥	"	제 36 연 대	54.3.7
조 계 산 부 대	부 대 장	이상울	"	경찰 3 연 대	54.3.10
남태준부대 제 2 대대	대 대 장	최영만	사살	제 35 연 대	54.2.13
전 남 도 당	부 위원 장	엄형기	"	제 35 연 대	"
전 북 도 당 남 부 지 도	부 위원 장	정석진	"	전북경찰대	54.3.10
순 천 부 대	부 대 장	이병재	생포	제 35 연 대	54.3.12
995 부 대	부 대 장	김태규	"	제 27 연 대	54.3.29
곽 소 부 대	부 대 장	곽창학	사살	남경사56연대	54.3.10
진 안 군 당	위 원 장	최재호	"	보아라경찰대	54.3.29
진 안 군 당	부 위원 장	한길찬	"	"	"
광 양 부 대	부 대 장	김용균	"	제 35 연 대	54.3.2
광 양 부 대	부 부 대 장	구재균	"	"	"
전 남 부 대	부 대 장	김종한	"	"	"
순 천 부 대	부 부 대 장	김기종	"	"	54.2.14
임 실 군 당	부 위원 장	오훈맹	"	임실경찰서	54.2.19
광 양 군 당	5 부 대 장	유영호	생포	제 35 연 대	54.3.2
광 양 군 당	제 5 부 부 대 장	김응호	"	"	"
광 양 군 당	제 1 부 대 장	손정복	"	"	54.3.4
다압소지구당	부 대 장	안승열	"	"	54.3.10
조 계 산 부 대	부 대 장	강용호	"	서남전경사	54.3.10

소속 \ 구분	직 위	성 명	종별	작전부대	작전일시
조 계 산 부 대	부 대 장	이영호	생포	서남전경사	54.3.14
보 성 군 당	위 원 장	박개열	"	남원경찰대	"
보 성 군 당	조직부장	박춘식	"	"	"

제 2 단계작전시의 피해

인원 단위 : 명

구분 \ 대별		제 5 사단	남경사	서남전경사	행정경찰	계
인 원	전 사	23	3		4	30
	부 상	22	3	2	10	37
	실 종				1	1
	계	45	6	2	15	68
장비및물자	소화기(정)	9			13	22

다. 제3단계작전(54. 4. 1. ~ 5. 25.)

(1) 작전배경

(가) 공비 상황

1) 개 요

한전투사령부는 공비들이 제2단계 작전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1954년 4월 1일에는 240여 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덕유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상태에 놓이게 되어 적극적인 작전을 회피하였다. 그리고 생존한 공비들도 대부분 야지침투를 획책하며 연명하다가 앞으로 다가올 녹음기를 이용하여 북한으로 도주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2) 병력 및 장비

작전지역내 생존한 공비는 총 241명이며, 장비는 소화기 216정과 공용화기 3정으로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작전지역내의 공비병력

1954. 4. 1기준

구분 지구별	부 대 명	병 력(명)			비 고
		무장	비무장	계	
지리산	조국출판사	9	0	9	기술서기 박남진
	925군부대	11	0	11	부 대 장 한종기
	727부대	8	2	10	부 대 장 이강경
	전남지리산부대	3	0	3	위 원 장 정하석
	야지공작대	3	1	4	조 장 서강력
	남원군당	8	0	8	부위원장 박남진
	중부소지구당	2	0	2	
	경남도당	8	0	8	대 장 임견택
	계	52	3	55	
백운산	전남도당	13	0	13	위 원 장 송서우
	항미연대	14	2	16	참 모 장 김병국
	지하조	2	0	2	
	계	29	2	31	
덕유산	전북도당	9	0	9	위 원 장 오영관
	항미연대	20	0	20	부 대 장 오영관
	노영호부대	14	0	14	부 대 장 노영호
	임실군당	2	0	2	위 원 장 김정기
	진안군당	15	0	15	유격지도부장 이재현

구분 지구별	부 대 명	병 력 (명)			비 고
		무장	비무장	계	
	기 타	3	0	3	
	계	63	0	63	
운양산	복수부대	5	0	5	김 제 부
자작산	전북도당 남부지도부	3	6	9	
	순창군당	3	6	9	
	계	6	12	18	
회문산	정읍군당	8	5	13	지 도 원 이판암
	고창군당	5	0	5	지 도 원 온동호
	부안군당	5	0	5	위 원 장 안동호
	기 타	27	0	27	이 종 세 김상철
	계	45	5	50	
모후산	전남서부도당	6	0	6	박 신 출
화학산	전남서부주재당	11	0	11	대 대 장 정일체
	도봉산소지구당	2	0	2	
	계	13	0	13	
총 계	27개부대	219	22	241	장비: 소화기216정, 중화기3문

(나) 토벌부대 상황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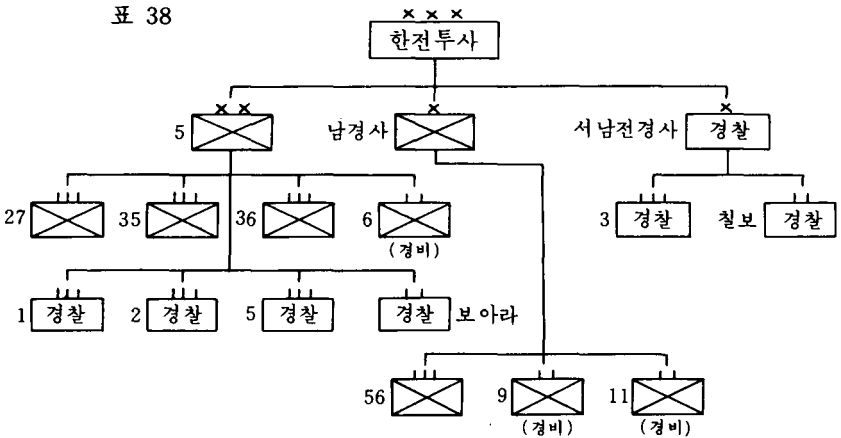
한전투사령부는 제2단계 작전을 종료한 후, 작전계획 제3호(54. 3. 18. 12:00)를 하달하여 4월 1일부터 제3단계 공비소탕작전에 들어갔다. 한전투사령부는 주력부대인 제5사단으로 하여금 공비가 많이 은거하고 있는 덕유산·지리산 및 백운산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3개 연대를 배속시켰다.

기타 지역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일부병력과 지방 행정경찰로 하여금 지역내의 주요거점에 배치하여 철저한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출몰이 예상되는 촌락 주위에 작전병력을 매복시켜 야지로 침투하는 공비를 소탕하여 주민을 보호하였으며, 각 연대에서는 1개 중대 규모의 기동타격대를 예비로 확보하였다.

2) 전투편성

한전투사령부의 전투 편성표

표 38



(2) 작전경과

개 요: 한전투사령부의 제3단계 공비소탕작전은 1954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당시의 작전지역은 제5사단 제27연대가 반야봉과 노고단 지역을 계속 담당하였으며, 제35연대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 1개 연대를 배속받아 계속 백운산 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36연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 경찰 2개 연대를 배속받아 덕유산

지역을 계속 담당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지리산 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는 3개 연대를 제5사단에 배속 시키고 잔여 1개 연대와 칠보전투경찰대대으로써 회문산 및 신선봉(내장산) 일대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담당하였다.

(가) 반야봉·노고단 지역 작전

제5사단 제27연대는 제3단계 작전시에도 반야봉 노고단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담당하였다. 다만, 제2단계 작전시 배속되었던 경찰 제2연대 및 경찰 제5연대가 덕유산 지역에 대한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배속이 해제되었다.

제27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제2단계 작전시까지 위치했던 신인월리에서 반야봉 서쪽 8 km 지점의 정산(CQ 606085)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4월 1일 04:00 제3단계 작전을 개시하여 공비의 은거가 예상되는 노고단(CQ 690055)·화엄사골(CQ 638055)·내동리(CQ 694037)·뱀사골(CQ 723108)·세걸산(CQ 678173)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접적사항이 없었다. 동 연대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대대를 반야봉에서 노고단까지의 중간지역인 내동리(CQ 6610)에서 묘봉치(CQ 6512) 지역을, 제2대대가 노고단 남쪽 화엄사골 및 피아골(CQ 7202) 지역을, 제3대대가 반야봉 동북쪽 뱀사골 및 세걸산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작전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나 역시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월 12일, 제27연대는 한전투사령부의 지시에 의거 제3대대가 담당하고 있던 뱀사골 지역을 남경사의 제11경비대대에 인계하고, 노고단 서북쪽의 차일봉(CQ 6404) 및 묘봉치(CQ 6509)로 이동하게 되었다. 4월 17일에는 동 연대의 전방지휘소를 정산(CQ 604088)에서 차량 6대를 이용하여 구례 북쪽 5 km 지점인 상대(CQ 584020)로 이동하였다.

4월 24일 09:00, 제3대대 제10중대 제1소대가 반야봉 서쪽 1 km

지점을 수색중 공비 1명을 발견하고 이를 생포하였다. 생포된 공비는 삼승부대원 박홍근(22세)이었으며, 이 공비의 진술에 의하여 노고단 북쪽 1 km 지점(CQ 675068)을 수색하던 중 공비 5명이 침입하였다는 민간인 신고에 의하여 제12중대와 운봉 경찰대가 출동하였으나, 공비들은 엄계(CQ 660210)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22:45, 엄계 부근에서 매복중인 운봉 경찰대가 도주한 공비를 다시 발견하여, 그 중 제925부대원 김제호를 생포하였다.

5월 3일, 동 연대는 한전투사령부의 지시에 의거 제1대대를 백운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35연대에 배속시켰다. 제27연대는 3단계작전 기간중 노고단 및 반야봉 지역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14명의 적과 조우하여, 그 중 1명을 사살하고 4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8정을 노획하였다.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지 뱀사골 전경

(나) 지리산 (천왕봉) 지역 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제3단계 작전시에도 제2단계 작전지역과 동일한 지리산 지역을 담당하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전방지휘소를 계속 산청에 두었으며, 예하의 제56연대는 하동에, 제9경비대대는 덕전리(CQ 7814)에, 제11경비대대는 향양리(CQ 9218)에 전투지휘소를 각각 위치시켰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4월 1일 04:00를 기하여 제3단계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제56연대 제1대대와 제11경비대대는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산청 남쪽 5 km 지점의 웅석봉(CQ 482132, 1,099m) 일대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4월 12일, 한전투사령부의 작전지시에 의거, 제11경비대대가 제 27연대 지역인 뱀사골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의 전투지경선이 서쪽으로 조정되었다.

4월 17일, 제56연대는 반야봉과 지리산을 연하는 능선 남쪽지역에 대해 일제히 작전을 재개시하였다. 작전지역은 제1대대가 동쪽의 지리산(1,915m) 지역을, 제2대대가 중앙의 의신(CQ 773053) 지역을, 제3대대가 서쪽의 목동(CQ 730045) 지역을 담당하여 수색작전을 실시하였다.

4월 29일 제56연대 제1대대는 산청 북방 10 km 지점의 덕갈산(CQ 9736)에 노영호 부대 14명이 출현하였다는 민간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4월 30일 03:00 차량으로 이동, 04:00 그 곳에 도착하여 작전을 전개하였으나, 공비는 이미 도주한 후였다.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제3단계 작전간 지리산 지역 일대에서 3회에 걸쳐 17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1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소화기 1정을 노획하였다. 생포된 공비는 지리산 지구당 부위원장 방경덕(31세)과 경남도당 연락당원이었다.

(대) 백운산 지역 작전

제35연대는 제3단계 작전시에도 계속 백운산 지역에 대한 공비 소탕작전을 담당하였으며, 제2단계 작전시 연대 지휘하에 있던 경찰 제1연대가 배속이 해제되고 그 대신 경찰 제5연대가 배속되었다. 동 연대는 전투지휘소를 계속 광양에 두고 4월 1일 06:00에 작전을 개시하여 백운산(CP 7485)을 비롯한 주변의 고지와 은거 예상지점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접적사항이 없이 귀대하였다.

백운산 지역 작전은 주로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2~3 km 지역내에서 작전이 이루어졌으며, 백운산 남쪽 10 km 지점의 항죽리(CP 7878) 지역과 서남쪽 10 km 지점의 광풍정(CQ 6582) 지역에서도 일부 접적사항이 있었다.

4월 4일, 제35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수색조는 내회골(CP 785846)에서 수색중, 공비 4명을 발견하여 2분간 교전 끝에 2명을 생포하고 2명을 사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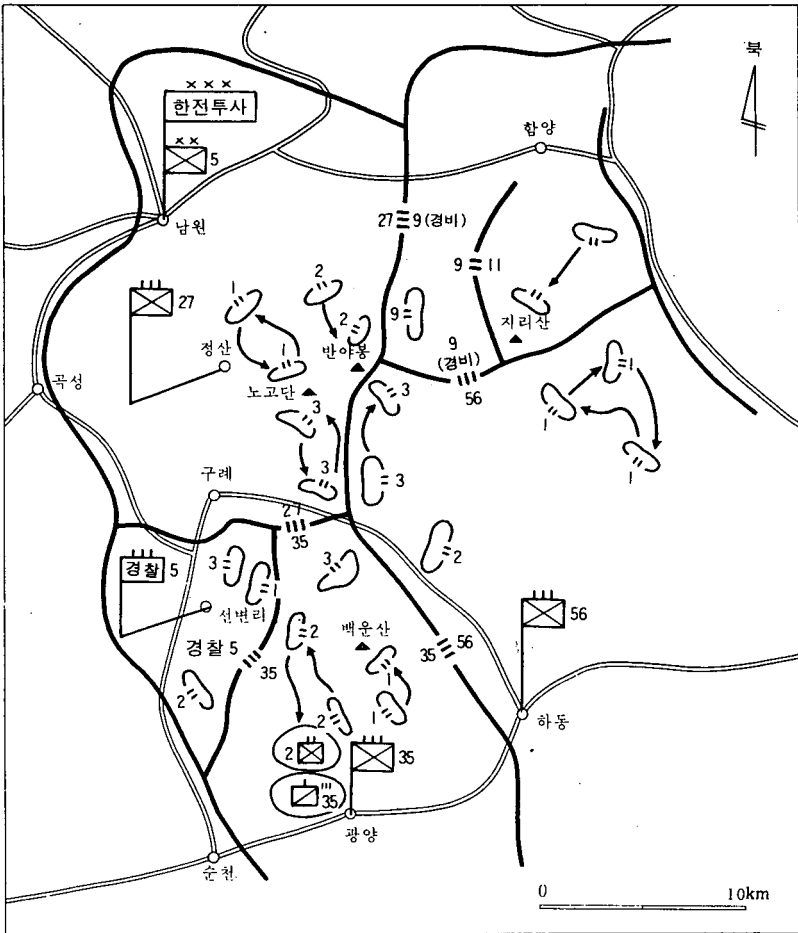
이 전투에서 생포된 공비는 전남도당 연락 부장 김희주와 경리원 박홍태였으며, 사살된 자는 전남도당 위원장 김선우와 선전부장 김덕수이었다.

4월 5일 10:00에는 제35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수색조가 매남(CP 736797) 지점을 수색중에 공비 7명을 발견 10여 분 간 교전하였으나 공비들은 죽천리(CP 755776)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수색조가 계속 추격하여 죽림(CP 753780) 지점에서 남태준부대 제1대대장 배참배(27세)와 대대원 김재석(21세)을 생포하고, 소화기 2정을 노획하였다. 이때 남태준부대 오파석(23세)이 귀순하였다.

제 35 연대는 한전투사령부의 지시에 의거하여 경찰 제5연대를 4월 15일 06:00부로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사령부에 지휘권을 이양하였다.

제35연대는 제3단계 공비소탕작전간 총 13회에 걸쳐 24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4명을 사살하고, 16명을 생포하였으며 각종 소화기 14정을 노획하였다.

요도 40 지리산·백운산 지역 작전 요도 (1954.4.1~11.)



(해) 덕유산 지역 작전

제36연대는 제3단계 작전시에도 덕유산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계속 담당하였으며, 제6경비대대와 보아라 전투경찰대대 그리고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의 경찰 2개 연대가 동 연대에 배속되었다. 배속된 경찰 2개 연대 중 제I연대는 덕유산 서쪽의 876 고지 일대를, 제2연대는 장수(CQ 6645) 서쪽의 덕태산(CQ 5949) 지역을 각각 담당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제36연대는 전투지휘소를 장수 북쪽 화음리(CQ 721509)에 두고, 제6경비대대는 무주 서쪽 대소리(CQ 703852)에, 보아라 전투경찰대대는 진안(CQ 590650)에 각각 전투지휘소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경찰 제I연대는 진안 북쪽 월포(CQ 645695)에, 경찰 제2연대는 진안 남쪽 하평창(CQ 561521)에 각각 전투지휘소를 설치하였다.

4월 8일, 한전투사령부 작전지시 제28호(54. 4. 5.)를 접수한 제5사단은 작전지시 제24호(54. 4. 8.)를 하달하여, 백운산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하고 있던 제35연대 제2대대와 연대수색중대를 동 연대에 추가로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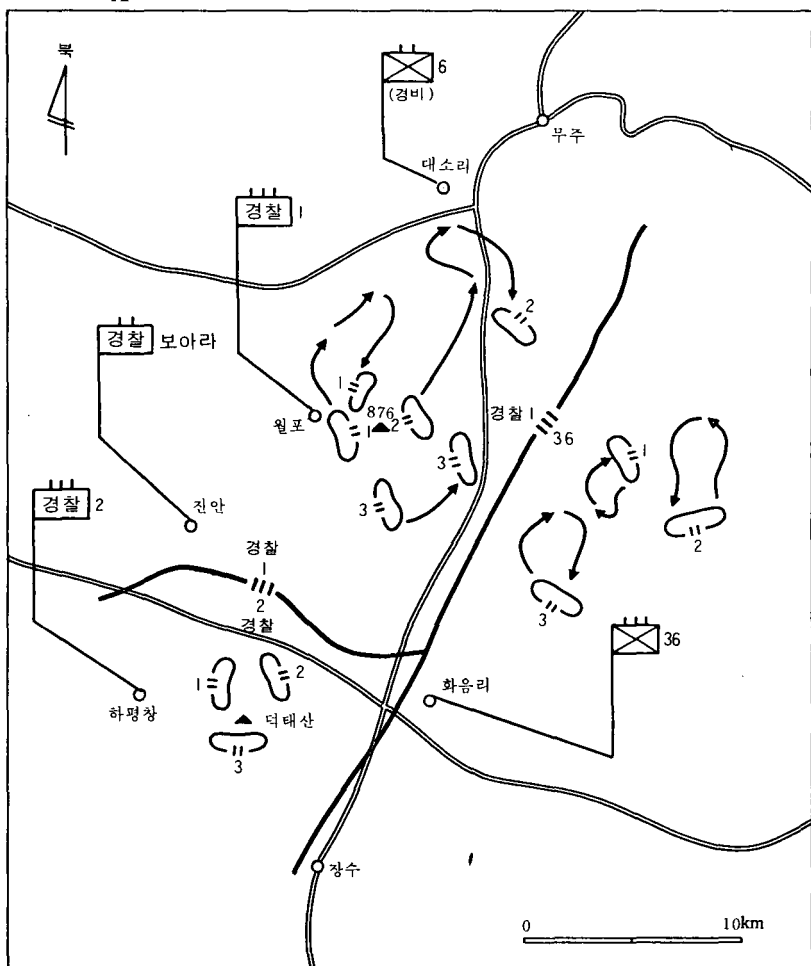
기간중 주요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월 4일 14:00, 제36연대 제I대대 제4중대는 함양 동북쪽 10 km 지점의 남재(CQ 946377) 지역을 수색하던 중, 이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아 전사 3명의 피해를 입었다. 제4중대원들은 이들을 추적하여 16:30경 최초 조우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1 km 떨어진 윗도복(CQ 938368)에서 18㎡의 공비를 발견하고 교전하였으나, 이때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5월 10일, 제36연대 제3대대 제9중대원 12명이 제2덕유산에서 남쪽으로 2 km 떨어진 동업령(CQ 874647)에서 잠복하던 중, 공비 20명을 발견하여 교전하였으나 전사 3명의 피해만 입었을 뿐 성과는 없었다.

5월 12일 16:25, 제36연대 제2대대 제5중대 제3소대가 덕유산 남쪽 5 km 지점의 거망산(CQ 858508) 일대를 수색하던 중 노영호부대로 판단되는 공비 20명과 조우하여 교전하였으나, 공비들은 부근 금원산(CQ 863528, 1353m)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제2대대는 도주

요도 41 덕유산 지역 작전 요도 (1954.4.1~11.)



하는 그들을 계속 추적하다가 교전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1km 떨어진 거망산(CQ 861507)에서 재차 교전한 끝에 5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나, 토벌부대도 이 전투에서 4명이 전사하였다.

이와같이, 덕유산 지역에서는 노영호부대로 판단되는 공비 20여명이 4회에 걸쳐 집단으로 출현하여, 수색 및 매복하는 토벌부대를 역으로 기습하여 전사 10명의 피해를 입힌 후 작전지역을 이탈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제3단계 토벌작전간 제36연대는 덕유산 지역 일대에서 총 7회에 걸쳐 83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5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였다.

(예) 회문산·신선봉 지역작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는 제3단계 토벌작전시 예하의 경찰 제3연대로 하여금 회문산·신선봉 지역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칠보전투경찰대대는 계속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지휘하에 칠보 발전소 일대에 대한 시설경계 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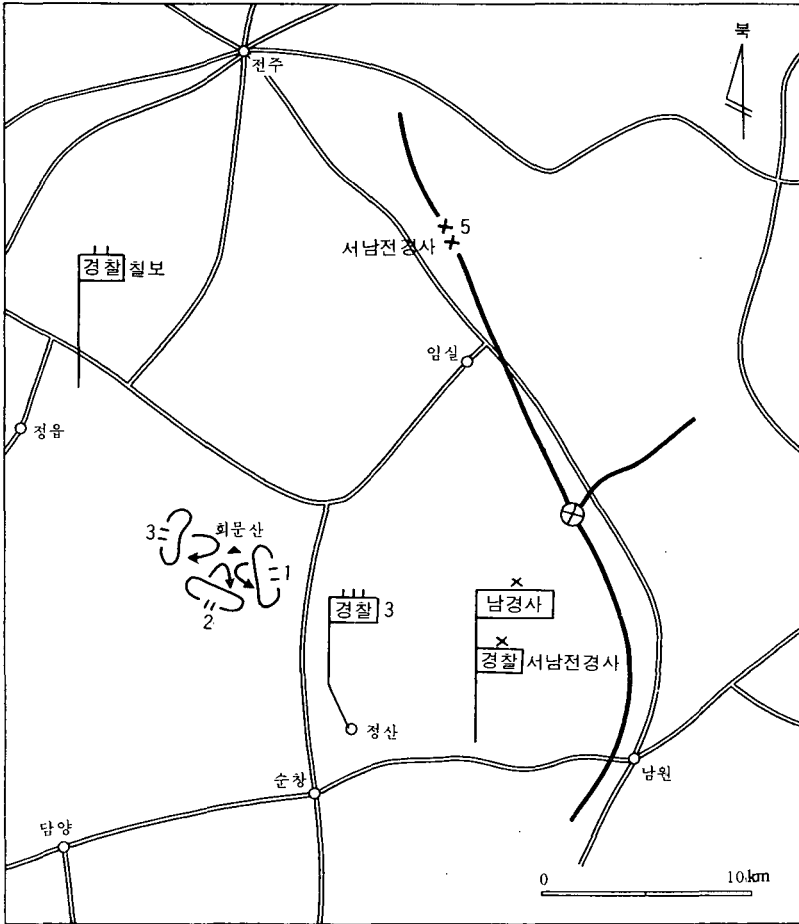
한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예하의 잔여경찰 3개 연대는 한전투사령부 지시에 의거, 경찰 제1연대 및 제2연대가 덕유산 지역을 담당한 제36연대에 배속되고, 경찰 제5연대는 백운산 지역을 담당한 제35연대에 배속되었다. 경찰 제3연대는 연대 전투지휘소를 순창 북쪽 5 km 지점에 있는 정산(CQ 330210)에 두고, 각 대대는 4월 2일 07:00에 회문산(CQ 2730) 일대의 공비 은거 예상지점에 대한 수색작전을 개시하였다. 동 연대의 작전은 주로 회문산과 신선봉(내장산) 간의 중간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주간에는 공비들의 은거 예상지점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매복을 실시하였다. 한편, 주민 신고조직을 강화하여 공비가 출현하였다는 신고에 의해 작전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4월 26일 12:40, 제2대대 제5중대가 순창군 구림면 안운리 산악

지역을 수색하던 중 공비 2명을 발견하였으며, 이들 중 남부지도원 배운기(40세)를 생포하고 곽일연(36세)을 사살하였다.

동일 13:00, 김제군 오산면 매산동 오산부락(CQ 160617)에 공비 4명이 비밀 아지트에 잠적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전남

요도 42 회문산·신선봉 지역 작전 요도 (1954.4.1~11.)



경찰 사찰계 형사대 12명이 출동하여 3일간 수색한 끝에 공비 3명을 생포하고 1명을 사살하였다.

경찰 제3연대는 제3단계 작전기간중 총 5회에 걸쳐 12명의 공비와 조우하여, 그 중 5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였다.

(배) 기타 행정경찰대의 작전

당시, 행정경찰대는 지역 단위로 배치된 경찰서 및 지서의 경찰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지역 토벌부대의 작전통제하에 공비 토벌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주 경찰서는 주민 신고조직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공비 연대장을 사살하였다. 즉, 4월 27일 12:00 전주 경찰서는 전주 북방 20 km 지점의 반복부락(CQ 377817) 민가에 복수연대장(김수남, 30)이 잠입하였다는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경찰 3명이 출동하여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사살하였다.

또한, 전북 경찰대는 생포한 공비를 활용하여 공비의 잔당을 사살한 예도 있었다. 즉, 전북 경찰대는 체포한 공비 최평국의 진술에 따라 전주 서남방 10 km 지점인 488고지(CQ 213570)에 공비 1명이 은거중임을 알아 내고, 4월 28일 16:00 대원 7명이 이 지역을 포위한 후 귀순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사살하였다. 사살된 이 공비는 김제군당 지도원 김득수(36세)였다.

이 반면에, 4월 29일 09:40 함양 경찰서 안의지서 경찰관 7명이 안의에서 동쪽으로 3 km 떨어진 중동(CQ 957434) 지점을 수색하던 중, 노영호부대로 추측되는 공비 14명을 발견하고 교전하였으나 토벌부대만 전사 2명의 피해를 입었을 뿐, 공비들은 도주하였다. 이 공비들은 14:00에도 안의 남쪽 4 km 지점의 웅천부락(CQ 963384)에 출현하여 보급품을 탈취한 후, 덕갈산(CQ 966362)으로 잠입하였다.

그 후, 함양 경찰대원 36명이 덕갈산을 수색하였으나 공비를 발

견하지 못하고 귀대하는 도중, 이들 공비로부터 오히려 불의의 기습을 받아 토벌부대는 전사 2명의 피해를 입었다.

제3단계 토벌작전간, 각 지역 단위 행정경찰대는 총 16회에 걸쳐 50명의 공비와 조우하였으며, 그 중 4명을 사살하고, 10명이 귀순하였다.

(사) 심리전 작전

한전투사령부는 제3단계 공비토벌작전에서도 심리전 작전을 계속병행하여 많은 작전성과를 거두었다. 대적 및 대민심리전의 주안점은 제1·제2단계와 동일하였으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적심리전

한전투사령부는 육군본부로부터 수령한 지리산 특보 “나는 그리운 가정, 부모형제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라는 귀순공비의 석방감상문을 비롯하여, 14종류 2,845,000매의 대적전단을 지리산·백운산·덕유산·회문산·모후산 등 공비 활동지역에 공중살포(L-19)하였으며, 각 부대 수색대 및 첩보대(HID)를 통하여 지상에서도 살포하였다.

전략방송은 제3단계 토벌작전시에도 남원 방송국 및 광주 방송국을 통하여 “춘기 대토벌작전은 개시되었다”, “주검 속을 헤매는 당원들에게” 등 여러 종류의 내용을 14회에 걸쳐 연 3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전술방송은 대적방송용 확성기 5개 팀을 덕유산 지구 집중공세에 맞추어 덕유산 지역에 3개 팀을, 지리산 지역에 1개 팀을, 회문산 지역에 1개 팀을 각각 배속 운용하였으며, 방송내용은 “춘기 대토벌작전은 개시되었다”, “산에 남은 옛 동지들에게”, “주검 속을 헤매는 당원들에게”, “노영호부대원들에게” 등으로, 대적방송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적방송 중에 시간을 내어 “XX 지구 주민에게”

라는 제목으로 대민 선무방송도 병행하였다. 전술방송은 5개 팀이 946회에 걸쳐 연 578시간 30분간 실시하였다.

2) 대민심리전

한전투사령부는 제2단계 토벌작전시 각 시·군에 파견하였던 심리전 장교를 제3단계 토벌작전시에는 예하 각 연대 및 독립대대(전투경찰대 포함)에 배속하여, 해당 전투지대내에 전단 살포·대민 계몽 공작·각종 시청각을 이용한 공작·민간조직의 지도 등 적성 지구 주민의 교화 및 선무활동에 주력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한전투사령부는 이미 편성된 국민자위대를 강화하여, 부락 자체방위·공비와 내통한 자 및 이적 행위자 적발·첩보통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공비토벌작전에 적극 협력하도록 계몽 및 선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전투사령부는 부락별로 강연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일반민중을 토벌작전에 적극 협력하도록 계몽시키는 한편, 심리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입산자 가족들에게는 신뢰심을 가지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입산한 친척에게 귀순을 종용하게 하였다.

부락단위 강연 및 좌담회실적

구 분	실시회수	시 간	참가주민
강 연 회	166회	연 201시간50분	14,940명
좌 담 회	231회	연 298시간25분	10,161명

한편, 한전투사령부는 시사에 어두운 적성지구 산간부락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순회상영하여 국내외 소식을 알려주고, 상영 후에는 대민계몽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한전투사령부가 실시한 영화 순회상영은 총 58회 연 107시간 10분을 실시하였으며, 참가 주민

은 39,000여 명이었다.

기간중 대민전단 배포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대민전단 배포실적

단위 :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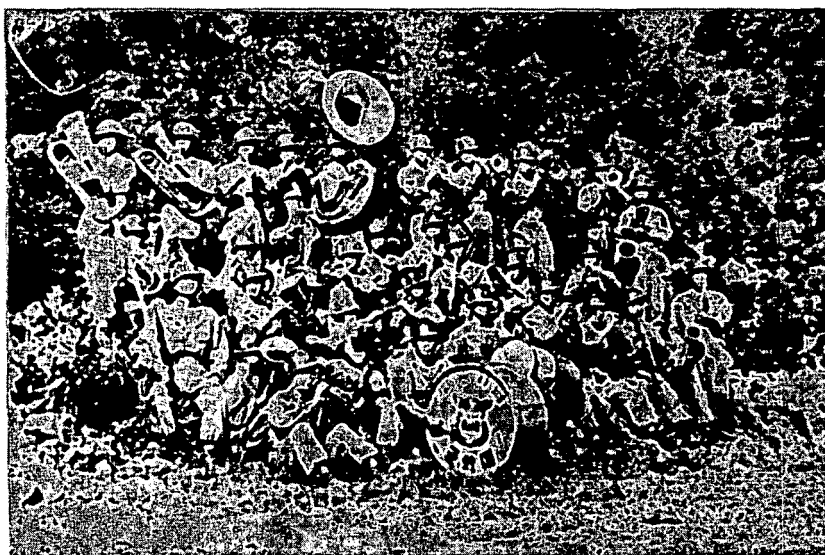
자유세계	한국원조소식	5·6월달력	포 스테	계
3,097,000	32,500	110,000	13,500	3,253,000

기간중 살포된 전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리산 특보> 제26호 (54. 4. 5)
 - 보라! 빛나는 거사를.
 - 전 임실군당 책임지도자 이재홍.
 - 전 남원군당 위원장 주경호.
 - 전 전북도당 연락과장 길병순.
- * 상기 3명에 대한 귀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였음.
- 주간신보 <자유세계> 제159호 (54. 4. 19)
 - 한국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호주 외상 한국정치회의 참가에 앞서 그 회의 목적을 명시)
 - 세계 군비 축소를 위한 미·영의 노력과 요청.
 - 사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한국군 장교 250명 도미 유학.
 - 공산측의 흉계 폭로(반공 애국자 납치기도 사진).
 - 이승만 대통령 미 군사고문단을 표창.
- * 상기 내용을 게재하였음.
- <지리산 특보> 제30호 (54. 4. 20)
 - 빨치산의 전체 지도자 박영규는 드디어 죽고 말았다.
 - 박영규의 경력 및 소지장비 소개.
- <자유세계> 제161호 (54. 5. 3)

332 I.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 한국 정치회의 개최.
- 중공의 유엔가입 거부이유.
- 사설(내일의 지도자).
- 미군 기념일.
- 소련 첩보원 서독에 정치적 망명 보호를 요청.
- 소련, 호주와 외교 단절.
- 중공의 살인행위 유엔에서 비난.



정훈공작대 일원으로 맹활약한 제5사단 군악대 요원들

(3) 작전결과

(가) 작전성과

한전투사령부의 제3단계 토벌작전은 1954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한전투사령부는 이 토벌작전에서 90여 명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였으며, 전남도당 남태준부대 제2대대를 비롯하여 12개 부대를 전멸시켰다. 그러나, 잔여공비 140여 명은 분산되어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들은 병력을 재집결시켜 잔여부대를 통폐합하는 등 부대개편을 실시하여 그들의 활동을 재개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한편, 한전투사령부는 6개월간에 걸친 호남지역 공비토벌작전을 마친 후 5월 26일 해체되고, 제5사단은 전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호남지역 잔여공비에 대한 토벌작전 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동 사령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와 제6경비대대 그리고 지역 행정경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나) 전과 및 피해

제3단계 작전기간중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전 과

구분	대별	제 5 사 단	남 경 사	서남전경사	행정경찰	계
인원	사 살(명)	18	5	3	0	36
	생 포(명)	28	3	5	7	43
	귀 순(명)	1			12	13
	계 (명)	47	8	8	29	92

334 I. 박전투사령부의 작전

구분		대별	제1사단	남경사	서남전경사	행정경찰	계
장비	소화기(정)		65	20	10	41	136
	중화기(문)		3				3
	탄 약(발)		474	1,176	11	,006	2,667

• 피 해

구분		대별	제 5 사단	남 경 사	서남전경사	행정경찰	계
인원	전 사(명)		18	1		7	26
	부 상(명)		17			5	22
	계 (명)		35	1		12	48
장비	소화기(정)		3			2	5

작전기간중 전멸된 공비집단

일 자	부	대	비 고
1953.12. 1	경남도당	직속 안산부대	노영호부대에 합류
12. 8	전남 서부도당	광주시당	
12.31	경남도당	덕유산 소지구당	
1954. 1.18	전남 서부도당	북부주재당	
1.18	전남 서부도당	김병역부대	
1.22	전남도당	직속 박소부대	
2.16	경남도당	직속 천소부대	
2.20	전북도당	유격지도부	
3.	전남도당	전남부대	

일 자	부 대	비 고
3. 3	경남도당 덕유산 소지구당 박문수 부대	
3. 5	전남도당 다압소지구당	
3. 8	전남도당 남태준부대 3 대대	
3. 9	경남도당 직속 광소부대	
3. 9	경남도당 직속 이영희부대	
3.10	전남도당 직당 광동철부대	
3.10	전남 서부도당 중부지구 기동대	
3.22	전남도당 광양부대	
3.26	전남도당 순천부대	
4. 1	전남도당 남태준부대 제 2 대대	
4. 7	전남도당	
4. 9	전남지리산 주재당부	해체와 동시 삼승부대 로 개편
4. 9	995부대	"
4. 9	727부대	"
4.19	경남도당 중부 소지구당	지하침투
4.27	전북도당 김제군당	
5. 9	전북도당 복수연대	
5. 9	전남 지리산 주재당부 야지공작대	
5.12	경남도당	
4.22	두봉산 소지구당	
5.24	곡성군당	지하침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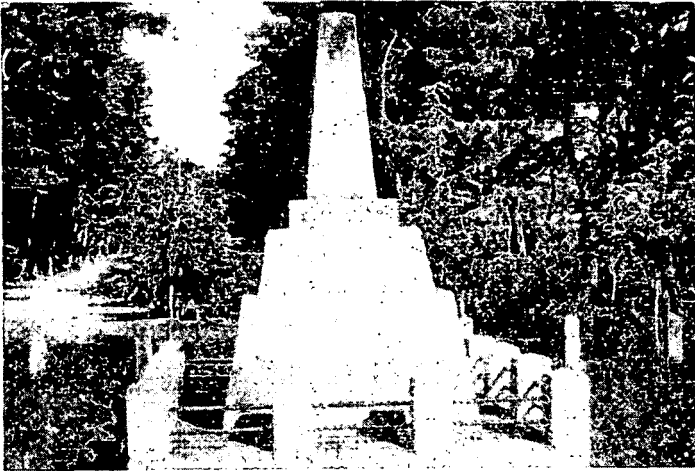
작전종료 후 공비병력 판단표

(1954. 5. 25 기준)

지구별	구 분	부 대	병 력 (명)		
			무 장	비무장	계
지 리 산		조 국 출 판 사	5	0	5
		삼 승 부 대	12	1	13
		남 원 군 당	8	0	8
		계	25	1	26
덕 유 산		항 미 연 대	28	0	28
		노 영 호 부 대	11	0	11
		임 실 군 당	3	0	3
		진 안 군 당	7	0	7
		기 타	2	0	2
	계	51	0	51	
회 문 산		남 부 지 도 부	8	1	9
		변 산 주 재 당	7	1	8
		부 안 군 당	6	0	6
		정 읍 군 당	5	0	5
		순 창 군 당	2	0	2
		고 령 군 당	12	0	12
	계	40	2	42	
백 운 산		남 태 준 부 대	5	0	5
		삼 승 부 대	4	0	4
		계	9	0	9
화 학 산		남 부 주 재 당	11	0	11
		서 부 도 당	5	0	5
		계	16	0	16
총		계	141	3	144



지리산 전적기념관 전경



하동지구 충훈비

2.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작전

(1955. 2. 1. ~ 3. 31.)

가. 작전배경

(1) 개요

1954년 10월 31일에 창설된 제2군사령부는 1955년 2월 1일을 기해, 육군본부로부터 관할지역내의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제2군은 박전투사령부의 공비소탕작전(1953. 12. 11. ~ 1954. 5. 25.) 이후에도 잔여공비들이 계속 후방지역에서 식량을 약탈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공비소탕작전을 계획하였다.

(2) 공비상황

1955년 초, 남한지역내 무장공비는 종전과 같이 남한 전체를 5개 지구당으로 분할, 운용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경기지역의 제1지구당과 충청지역의 제3지구당의 공비는 전멸되었으며, 강원지역의 제2지구당과 영남지역의 제4지구당 그리고 호남지역의 제5지구당 지역에 잔존한 공비들이 겨우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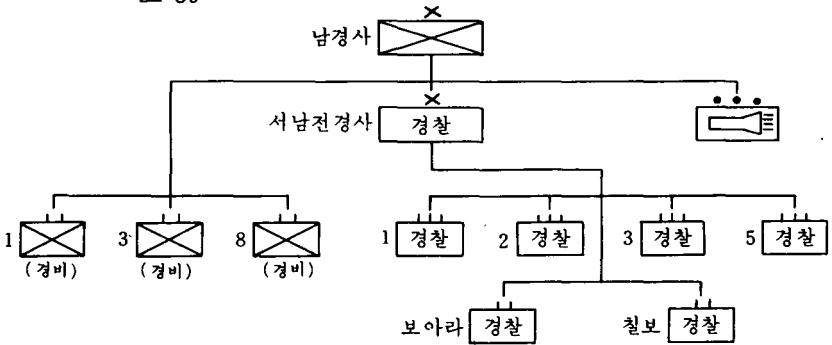
특히, 그중에서도 호남지역의 제5지구당 관내에 공비들이 가장 많이 은거하고 있었다.

(3) 토벌부대 상황

제2군사령부는 1955년 초 호남지역에 준동하고 있는 잔존공비를 해빙기 이전에 소탕할 목적으로 제2군사령부 작전명령 제4호(해빙기작전)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하달하였다.

이 무렵,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한전투사령부가 1954년 5월 26일 해체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작전임무를 인수받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통합지휘하여 공비소탕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해빙기 작전을 돕기 위하여, 제2군사령부에서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에 심리전 1개 소대를 배속하였으며, 토벌부대의 전투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9 남경사 전투편성표



나. 작전경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남원(CQ 5621)에 사령부를 두고, 예하의 제1경비대대는 내장산(CQ 0729) 일대에서, 제3경비대대는 임실 및

회문산(CQ 2830) 일대에서, 제8경비대대는 구례와 백운산(CP 7484) 일대에서 각각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도 남원(CQ 5318)에 사령부를 두고, 4개 경찰연대와 칠보경찰대대 및 보아라 경찰대대가 덕유산 일대에서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기간중 주요 공비토벌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5년 3월 3일 12:40, 화순 경찰대는 전남 화순군 동면 성치리(CP 250815) 지점에서 공비 1명을 생포하고 1명을 사살하였으며, 16:00에는 또다시 동일지점에서 공비 3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3월 7일에는 정읍 경찰대가 정읍군 정주읍 소소동(CR 063373)에서 공비 2명을 생포하고 CAR 소총 2정을 노획하였다. 동일 16:00 정읍 경찰대는 내장산 남쪽 5 km 지점의 성암리(CQ 121194) 일대에서 공비 2명을 생포하고 CAR 소총 3정을 노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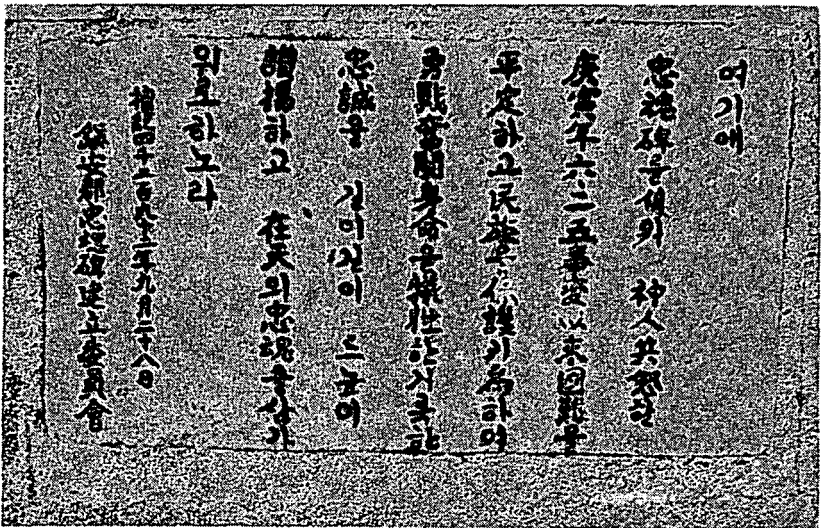
3월 12일 22:30, 남원 경찰대는 남원에서 동쪽으로 1.5 km 떨어진 장항리(CR 719195)에서 공비 1명을 생포하였다.

다. 작전결과

(1) 작전성과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기간중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한 결과 47명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이로써, 작전지역내에 잔존하는 공비는 최초 106명에서 59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들은 주로 태백산 일대와 덕유산 지구에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내의 공비가 대부분 격멸되어 공비토벌작전이 종료되고, 1954년 후반기부터 1955년 전반기까지 관구 및 예비사단 등 향토방위 부대가 창설되자 공비토벌부대들은 해체되었다. 즉, 1955년 4월 1



진안군 충훈비문

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9호에 의하여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해체되었으며,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는 1955년 6월 2일 남원 광한루에서 지리산 지역 공비토벌작전에서 산화한 군·경·관·민의 호국영령을 봉안한 충훈각 제막식을 거행하고 1955년 7월 1일부로 해체되었다.

이와는 달리,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해체에 따른 임무대행을 위하여 해체 당일(7월 1일) 동일장소에 경찰기동대가 창설되었다. 이 기동대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해체시 공비토벌부대에 잔류하기를 희망한 510명의 대원과 각도에서 차출한 2,263명의 경찰관 등 총 2,773명의 병력으로 기동대 사령부와 3개 연대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전·남북, 경남 일원에 대한 잔여공비의 토벌과 북괴에서 남파한 대남공작대의 지리산 지역 침투 및 재집결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전과 및 피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기간중 실시한 작전결과 전과 및 피해는 다음과 같다.

· 전 과

인 원 (명)				장 비 (정)	비 고
사살	생포	야지 침투	계	64	*야지침투 인원은 산에있는 공비에서 삭제
15	21	11	47		

· 피 해

인 원 (명)			장 비(정)
전 사	부 상	계	
5	10	15	1

3. 소멸기 공비토벌작전

(1955. 7. 1. ~ 1956. 12. 31.)

가. 작전배경

(1) 공비상황

1955년 2월 1일, 남한지역내 106명에 달하던 공비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의 토벌작전으로 3월 31일에는 59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7월 1일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해체된 것을 계기로 야지에 분산, 잠적하고 있던 공비들이 재입산하여 산을 거점으로 계속 투쟁하던 공비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그 동안 와해되었던 조직을 재건하고 잔여병력을 수습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 토벌부대 상황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및 서남지구 전투경찰대의 해체와 더불어 1955년 7월 1일 창설된 경찰기동대는 남원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호남지역에 남아 있는 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전방에서 창설되어 호남지역으로 이동한 제31예비사단(전남·광산, 55. 4. 19.)과 제35예비사단(전북 완주, 55. 6. 6.)도 전남·전북의 책임지역내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나. 작전경과

1955년 하반기부터 1956년 12월 31일까지 공비 소멸기에 실시되었던 주요 토벌작전은 다음과 같다.

(1) 1955년 하반기 작전(7월~12월)

경찰기동대는 7월에 이르러 공비들의 활동이 증가되자 이들의 토벌작전에 전력을 다하였다. 즉, 7월 19일 경찰기동대는 정읍군 입암면(CQ 2228)에서 전북 제1유격대 지도부장 박관쇠를 사살함으로써 제1유격지도부를 궤멸시켰으며, 동년 8월 16일 전북 정읍군 와동면(CQ 1949)에서 전북 향미연대원 김화자(27)를 생포하였다. 그리고 9월 16일에는 정읍군 와동면 용호리(CQ 1849) 지점에서 전북 향미연대원 김만수(22)가 경찰기동대에 귀순하였다.

정읍 경찰대는 9월 18일 궁사리(CQ 0950) 지점에서 전북 향미연대원 최기삼을 사살하였다. 포항 경찰대는 동년 10월 23일 경북 청송군 마남면 중기동(ER 0712)에서 제4지구당 북부지도부 조직지도원 최해석(28)을 생포하고, 같은날 경북 청송군 마남면 중기동(ER 1513)에서 소속 불명의 공비 지한조를 생포하였다.

동년 11월 7일 전북 정읍 경찰대는 전북 정읍군 입암면 장재리(CQ 0129)에서 전북 남부지도부 지도원 조병남을 사살하고, 마지막으로 11월 15일 04:00에 경남 경찰대는 경남 동래군 온천동(EP 0896)에서 제4지구당 북부지도부 제5소지구당 조직지도원 성명삼을 생포함으로써, 1955년 하반기의 공비토벌작전은 종료되었다.

(2) 1956년도 작전

(가) 강원도 지역(제2지구당)

1956년 6월 14일 16:00경, 강원도 삼척군 미노면 고천리(ES 0441)에 소속 불명의 공비 3명이 출현하여 물품을 약탈한 후 남서쪽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동일 22:00에는 경찰 3명이 강원도 원성군 서화면 홍양리(DS 1334)에 있는 민가에서 잠복근무중, 부근을 배회하는 공비 3명과 교전하여 전원을 사살하고 소총 3정을 노획하였다.

그 후 8월 5일 02:40분경, 공비 3명이 강원도 영월군 신덕면 두봉리(DS 7121)에 출현하여 물품을 약탈한 후 도주하였다. 이들 공비 중의 2명은 동월 8일 12:00에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DS 7818)에서 강원지구 특무대에 의하여 생포되었으며, 그들은 제2지구당 소속 안영주와 박소덕임이 밝혀졌다.

(나) 경남·북 지역(제4지구당)

1956년 1월 7일 10:30, 경북 경찰대는 경북 청송군 부남면 중거리 판자골(ER 1572)에 여자공비 3명이 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들을 전원 생포하였으며, 동월 27일 07:00에는 경북 봉화군 재산면 남진리(DR 9670)에서 제4지구당 소속 공비인 김현국(26세)을 생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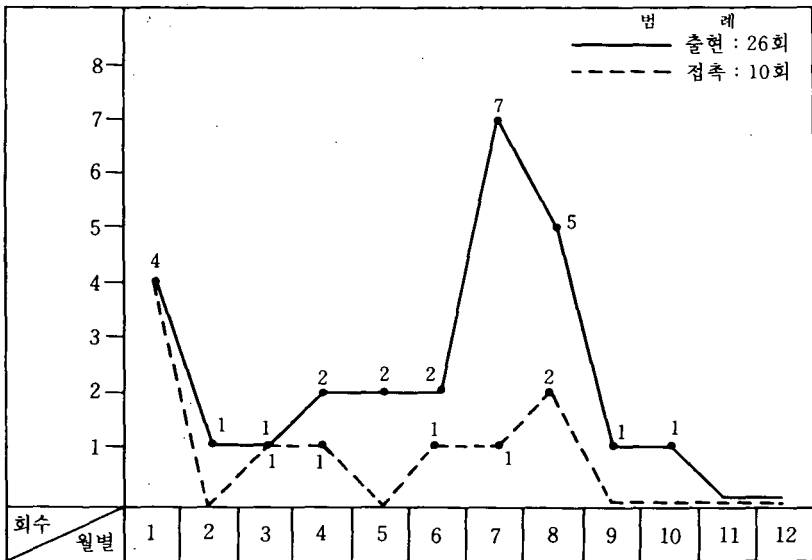
그 후, 경북 경찰대는 6월 5일 10:00에 경북 청송군 부남면 중거리(ER 1712)에서 공비들의 아지트를 발견하여 무기 5정을 노획하였고, 8월 6일 05:00에는 경북 청송군 현서면(DR 9903)에서 공비 1명(박호석)을 사살하였다.

(다) 전남·북 지역(제5지구당)

1956년 7월 12일 15:30, 전북 경찰대는 정읍군 입산면(CQ 0428)

을 수색하던 중 항미연대 소속 박근수를 사살하고, 박근자·고상진 등 2명을 생포하였다. 그리고, 8월 23일에는 전북 순창군 풍산면 인민위원장이었던 박명수가 순창 경찰서 풍산지서에 귀순하였다.

표 40 공비출현회수 및 작전부대와 접촉회수 (1956년도)



다. 작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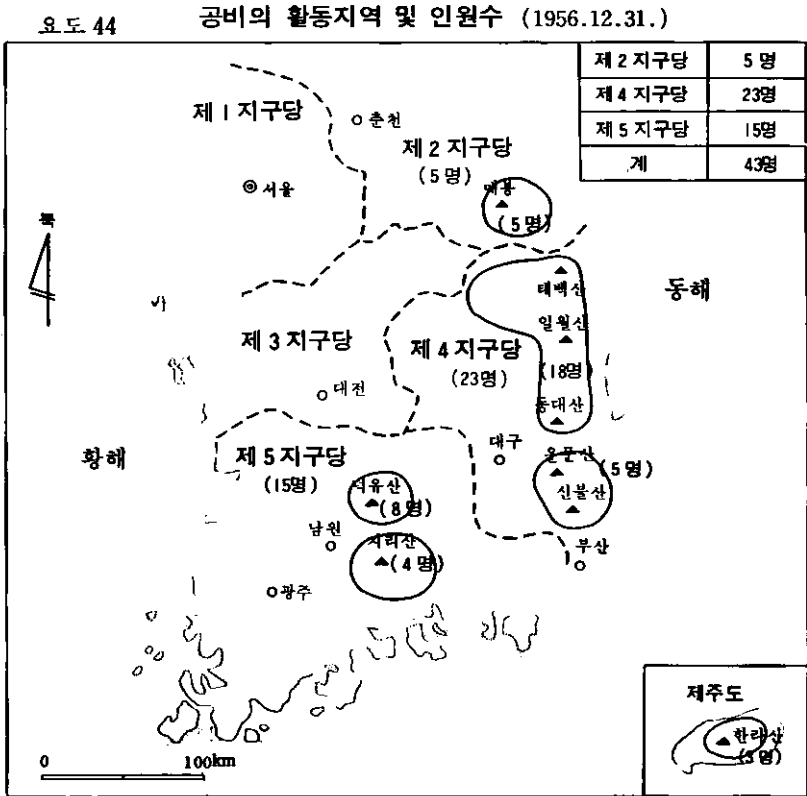
(1) 작전성과

1956년 12월 말, 잔여공비는 경찰기동대를 비롯한 지역경찰과 기타 기관에 의한 계속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격멸되어 43명으로

348 3. 소멸기 공비소탕작전

감소되었으며, 이들은 각 지구에 분산 은거하면서 단순히 생명유지만을 위한 소극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능력과 분산된 조직으로서는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비롯하여 지하당 복구와 기타 북괴 노동당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재개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비의 명맥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1956년 12월 31일을 기준한 공비의 최종적인 활동지역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작전기간중 전멸된 공비부대는 다음과 같다.

전멸된 공비부대

연 도	부 대 명	비 고
1955년	• 조국출판사	잔여 3명 삼승부대로 편입 (1월)
	• 제 3 지구당 (충남북지역)	1 월
	• 전북 남부지도부 부안군당	1 월 15일
	• 전남 남부주재당	2 월 15일
	• 전북도당	3 월 7 일
	• 전북도당 순창군당	3 월
	• 전남도당 삼승부대	〃
	• 전남도당 남태준부대	〃
	• 전남도당 남부지도부	〃
	• 전북도당 정읍군당	〃
	• 전남도당 서부지도부	〃
	• 전북도당 남원군당	4 월 1 일
	• 전북도당 제 2 유격지도부	4 월
	• 전북도당 제 1 유격지도부	7 월 13일
	• 북괴군 노동당 남파대남공작대(6명)	10월 9일
1956년	• 제 2 지구당 (강원도) 원성군 귀래면당	4 월
계	• 16개부대	

제 5 장 무장간첩 침투 봉쇄작전 (1957. 1. 1. ~ 1960. 4. 19.)

개 요

1. 무장간첩 침투 활동

1956년 말 남한내에서 활동하던 무장공비가 한국군의 지속적인 소탕작전으로 거의 섬멸되자, 북괴는 1957년 여름부터 대남 공작 기구를 재정비하여 무장간첩을 남한에 침투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의 침투방법으로는 동·서 해안을 통한 해상침투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초목이 무성한 녹음기에는 휴전선을 통한 지상 침투 방법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재일 조총련(1955. 5. 15. 결성)에 거액의 공작금을 투입하여 그들을 대남공작에 이용하는,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침투한 무장간첩들의 임무는 종전처럼 첩보수집에 국한하지 않고 민·관간의 이간,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 풍조의 조성, 특정인물과 특정정당에 대한 모략선전, 그리고 국내의 지식인을 의식적으로 접촉하여 소위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고, 반정부적인 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혁신계 용공분자들을 포섭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괴는 대남 공작수법에서도 종전의 방법을 다소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장기 공작반 외에 단기 공작반을 병행 침투시켰다.
- 남파 전에 6개월 이상의 장기 밀봉교육을 실시하였다.
- 공작금 소지 액수는 미화를 200~300불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 한화를 5~10만원 정도로 증가시키는 추세를 보였다.
- 남한에 침투한 후의 접선방법은 무인 포스트를 사용하였다.
- 남한에 있는 월북자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주로 젊은이들을 포섭하여 월북시켰다.
- 남파간첩은 거점을 구축한 후 남한의 친척 및 안면 있는 자를 포섭하여 이들로 하여금 간첩활동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들 자신은 즉시 월북하였다.

2. 한국군 상황

가. 육 군

1957년 초 육군은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북괴 무장간첩의 침투를 봉쇄하기 위하여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으로 구분하여 무장간첩에 대한 침투 봉쇄작전을 실시하였다.

전방지역에서는 비무장지대를 통한 무장간첩의 지상침투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각 부대마다 지역내의 예상 침투로와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수색 및 매복활동을 강화하였고, 또 그들의 침투를 거부하고 침투흔적을 손쉽게 발견하기 위하여 경보장비와 장애물을 설치 운용하였다.

후방의 해안지역에서는 관할지역 향토사단의 해안경계부대가 무장간첩선의 예상 접안지역이나 무장간첩의 수중침투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지역경찰과 협동으로 대간첩 작전에 임하였고, 항구와 포구의 입출항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

화하였다.

후방의 내륙지역에서는 관할 향토사단 주관하에 무장간첩의 활동거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그들의 침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깊은 산중의 독립가옥이나 산간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진료, 이발, 영화상영, 반공강연 등을 실시하여 주민을 계몽 및 지도하고 주민 신고망을 조직하여 무장간첩 출현시 즉각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첩 강조기간을 매년 정기적으로 설정하여 반공강연, 반공표어 및 포스터 현상모집 등으로 장병의 방첩의식을 고취시키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홍보활동과 신고망 강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나. 해 군

해군은 1958년 초 급격히 증가하는 북괴 무장간첩의 해상침투에 대비하여 2차에 걸친 해상 경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상침투를 봉쇄하기 위하여 전 해상에 대한 초계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동·서해의 북방한계선 해역에는 경비정을 증가 배치하여 남하 또는 북상하는 간첩선을 조기에 포착하여 격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비정의 영해침범과 어선납치 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매년 주기적으로 방첩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해군 자체교육은 물론 어민과 도서주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의아선박 발견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 등, 민·관·군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연말연시를 포함한 취약시기에는 해상경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해군은 전력증강을 위하여 1958년 7월에 건조한 기뢰부설함 1척을 비롯한 각종 함정과 함포 등을 보강하였고, 동년 10월과 12월에는 진해공창에서 정찰용 비행기 6대를 제작하여 함대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하였으며, 1960년 초에는 2개 전대를 신설하여 합대사령부를 보강하였다.

해군은 어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1958년 3월에 서해지구 어로보호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해에서도 동년 12월에 어로저지선을 북으로 조정(북위 38°33'00")하고 어로보호작전을 실시하여, 북괴 경비정의 어선납치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어민의 소득증가에 기여하였다.

다. 공 군

공군은 1958년 무술작전이라는 작전명칭으로 전력증강계획을 수립하여 공군사상 최대규모의 전력증강을 꾀하였다.

1958년 3월 1일 1개 정찰비행대대가 수원기지에서 창설된 것을 비롯하여, 동년 8월 1일에는 1개 전투비행단이 김포기지에서, 1개 구조비행대대가 오산기지에서 창설되었으며, 동년 10월 20일 1개 전술통제 비행전대가 사천기지에서 창설되었다.

또한, 1960년 4월 15일 F-86D 요격기에 의한 전투요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요격비행대대가 수원기지에서 창설되어 전투비행단에 예속되었다. 그리고, 1957년 7월 31일 강릉의 레이다 기지를 주한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시작하여 1959년 7월 15일 오산의 중앙방공관제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내의 전 관제경보망을 완전히 인수하여 운용하였다.

한편, 공군은 1959년 초부터 육군의 제1야전군에 항공지원 작전본부(ASOC)를 설치하여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지원 작전체제를 개선하고, 전방항공통제관(FAC)을 파견하는 등, 공지 작전기구의 설치 운용으로 지상군작전 지원체제를 강화하였다.

1. 육상침투 봉쇄작전

가. 개 요

육상침투 봉쇄작전은 전방지역 침투 봉쇄작전과 후방의 내륙 및 해안지역 침투 봉쇄작전으로 구분하였다.

전방지역 침투봉쇄작전은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침투하는 무장간첩의 침투를 봉쇄하는 작전으로, 주로 경기도 파주군, 고양군, 양주군, 강화군 등 임진강 및 해상을 통하여 침투해 오는 무장간첩과 김화 및 춘천지역에서 출현하는 무장간첩을 대상으로 하여 작전을 전개하였다.

후방의 내륙 및 해안지역 침투 봉쇄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덕유산 등지에서 공비활동을 하다가 민가에 출현하였던 잔여공비와 아산만, 부안반도 등의 서해안 지역에 침투하였던 무장간첩과의 작전이 대부분이었고, 포항 등 동해안과 전방 군사지역을 통해 내륙 깊숙히 침투한 무장간첩과의 작전도 일부 포함되었다.

전방지역과 후방의 내륙 및 해안지역에 침투를 기도하였거나 출현하였던 무장간첩들은 해당지역에 배치된 전방부대 및 후방지역의 향토예비사단과 경찰관서에 의하여 대부분 사살 및 체포되었다.

나. 작전경과

(1) 전방지역 침투 봉쇄작전

1957년 초부터 1960년 4·19 이전까지 실시된 주요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육군 및 경찰이 해안에서 실시한 대간첩 작전 사항도 포함되었다.

(가) 파주 광탄지역 무장간첩사건

이 사건은 1958년 4월 28일 14:25 파주 경찰서 작전요원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 있는 야산에서 무장간첩 2명을 체포한 사건이다.

이때 체포된 간첩들은 노동당 계통의 대남 간첩으로서 노동당 중앙당 연락부에서 9개월간의 밀봉교육을 받고 권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뒤, 4월 22일 목선을 타고 경기도 파주군 광탄 부근의 임진강변으로 침투하여 접선 목적지를 찾기 위하여 잠복중 상기 지점에서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 간첩의 임무는 무인 포스트 설치, 지하당 조직 자료수집, 침투 루트 개설 및 비밀 아지트 설치, 군·경 배치상황에 대한 자료수집, 월북자 가족 또는 극빈자 포섭 등이었다.

이들로부터 노획한 장비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

노획품 현황

품명	수량
권총	2정
권총실탄	30발
칼빈소총	2정
칼빈소총실탄	30발
수류탄	1발
사진기	1대
필름	3통
국군복장	2벌
미화	125불
한화	20만원
명예제대증	1매
시민증	1매

체포 간첩 인적사항

성명	나이	본적	소속	비고
김학념	29세	평남, 숙천	노연동락당부	
이순행	30세	강원, 홍천	"	

(나) 고양 무장간첩사건

이 사건은 1958년 6월 8일 고양 경찰서 경찰기동대가 경기도 고양군 관내에서 한강 연안을 따라 남하 침투하던 간첩 4명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전 끝에 그 중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한 사건

이다.

이들 무장간첩의 임무는 그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침투한 무장간첩 유기동(1958. 5. 11. 체포)과 접선하여 이를 대동 월북하고, 부차적으로는 민심교란, 관민이간, 사회혼란조성 등의 임무를 띤 무장간첩 2명을 남한에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한편, 이미 체포된 간첩 유기동은 동년 5월 2일 남한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후의 민심동향과, 남한 정계내의 소위 평화통일론을 반대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한 후, 6월 8일 경기도 고양군 한강 연안에 북괴가 남파한 간첩선이 도착되면, 이 선박을 타고 월북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때, 경찰과 교전중에 생포된 간첩 박경찬(30세, 평남 강서 출신)과 사살된 진복수는 북괴 내무성 계열의 대남 무장간첩이며, 그 외 사살된 2명은 그 이전에 침투한 유기동과 접선한 후 재월북할 목적으로 남파된 호송요원이었다.

(ㄸ) 김화 무장간첩사건

이 사건은 1958년 6월 13일 무장간첩 우무홍이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CT 690310)지역에 위치한 제9사단 검문소에 귀순한 사건이다.

북괴군 상사인 그는 남파 당시 3명 1개조로 편성된 조의 조장으로 김화지구 일대의 국군 방어시설 및 병력 배치상황과 도로망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침투되었다. 그러나, 그는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귀순을 결심하고 다른 조원 2명에게 함께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조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소지했던 권총으로 그들을 사살한 후 혼자 귀순하였다. 이때 우무홍이 사살한 무장간첩은 북괴군 특무상사 김수길과 조원 강재구였다.

(라) 춘성 무장간첩사건

이 사건은 1958년 6월 24일 03:30, 춘천 경찰서가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에서 무장간첩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한 사건이다.

이때, 춘천 경찰서장 최난수 총경은 사북면 거주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대원 13명을 이끌고 상기 지점에 도착하여 간첩 2명을 발견한 후, 약 2시간 30분 동안 접전한 끝에 육군중위로 가장한 '이' 모를 사살하고 육군소위로 가장한 '최' 모를 생포하였다. 이 작전에서, 춘천 경찰서는 권총 2정을 비롯한 수류탄 4발과 나침반 2개 그리고 시계 1개 및 군복 2벌을 노획하였으며, 춘천 경찰서장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순직하였다.

(마) 강화도 무장간첩사건

1958년 9월 15일 01:00, 해안경찰대는 경기도 강화군 교지면 동석리 해안에서 무장간첩 6명이 상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교전끝에 격퇴시켰다. 즉, 해안경찰대원은 이때 강화도 서쪽의 북괴지역인 불당포지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군 교지면 동석리 해안에 무장간첩 4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남하하여 상륙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곳에 상륙하여 그들의 상륙을 엄호하기 위하여 대기중이던 다른 간첩 2명이 해안경찰대에 사격을 가하여 쌍방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그 동안에 간첩들은 전원 북으로 도주해 버렸다. 이 작전에서 해안경찰의 피해는 없었다.

(바) 강화도 근해 여간첩 체포사건

1958년 9월 28일 06:00, 육군 해안경비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무장간첩선 1척을 나포하고 1명의 여간첩을 생포하였다.

육군 해안경비정은 상기 일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내려오는 북괴 무장간첩선을 발견하고 즉각 이를 추적하여 약 1시간

30분 간에 걸친 교전 끝에, 1명(기관장)을 사살하고 무장간첩선 1척을 나포(승조원 5명 승선)하였다.

이때, 생포한 인원은 선장·부선장·공작조장·안내자 등 4명의 승조원과 이들이 침투시키려던 여간첩 김난열(32세)이었다. 조사 결과, 여간첩 김난열은 서울에서 여자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전쟁시에 월북하여 북괴 노동당 특수정치부에서 밀봉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여간첩은 서울, 부산 등지에서 고급요정·빠·다방 등을 합법적으로 경영하면서 국내 거물급 인사와 고급관리 및 요인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었으며, 이들이 승선했던 간첩선은 민보성 경찰국 제913부대 소속의 선박으로서 9회에 걸쳐 남한을 왕래한 사실이 이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사) 파주 수리지역 무장간첩사건

1958년 10월 12일 11:30, 파주 경찰서에서는 경기도 파주군 수리면에 무장간첩이 출현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장 지휘하에 수색작전을 펼치던 중, 동일 20:00 무장간첩 2명을 발견하여 교전한 끝에 모두 사살하였다. 이 작전에서 파주 경찰서 박우재(43세) 경사가 순직하였다.

(아) 임진강 무장간첩사건

1958년 11월 4일 22:10, 미 제1기병사단은 사단 작전지역인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앞 임진강에서, 미 제1기병사단 정보대원 2명과 파주 경찰서 형사 2명이 북괴간첩 수상침투 경계용 보트에 승선하여 경계하던 중, 강 북쪽에서 역시 보트를 타고 내려오는 2명의, 괴한을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괴한들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므로 경계근무조는 도주하는 보트를 향해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도주하던 그들도 이에 응사하여 쌍방간에 교전이 벌

어졌다. 그러나, 야간이므로 그들의 사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12:00경, 미 제1기병사단은 전일 야간의 교전현장 일대를 수색하다가 교전지점으로부터 약 8 km 떨어진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남쪽 임진강 연변에서 2구의 시체를 확인하고 소제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복면 등 23개 종류의 무기 및 장비를 습득하였다. 이들 시체와 노획품은 전날(4일) 밤의 교전에서 사살된 2명의 무장간첩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휴대품을 점검한 결과 이들 가운데 45세 가량의 시체는 간첩이고, 32세 정도로 보이는 시체는 무장 호송대원으로 판단되었다.

(재) 마차산 및 백학지역 무장간첩사건

1959년 6월 19일 보병 제8사단은 작전명령 제2호(취잡기 작전)에 의거, 책임지역내로 침투한 간첩 색출을 위한 작전을 45일 동안 전개하였다. 이 기간중에 동사단은 경기도 양주군 마차산 일대에서 무장간첩 3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동년 9월 27일 제8사단 수색중대 제6소대 정찰대는 경기도 고양군 백학(CT 173178)에서 은거중인 무장간첩 노산만(26세)을 체포하였다.

(재) 파주 적성지역 무장간첩사건

1959년 8월 30일 제20사단 제78포병대대 'B' 포대는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에서 간첩 2명을 사살하였다.

이 작전은 무건리(CT 9399)에서 화목을 채취하던 주민 김중원이 B포대에 “초원지대에 이상한 군복 차림의 괴한 2명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전개되었다.

이 신고를 접수한 B포대는 인근 주둔 특무대요원 7명과 더불어 포위망을 형성한 뒤 자수를 종용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불응하고

권총과 수류탄으로 계속 대항하므로 이들을 포위한 군부대 병력은 이들 2명을 사살하였다. 이들은 권총 2정을 위시한 각종 장비 42점을 휴대하고 있었다.

(가) 양주 송산골 무장간첩사건

1959년 8월 31일 보병 제20사단 제61연대 제10중대 하사 신도출 외 3명은 경기도 양주군 송산골(CT 206057)에서 야간경계근무중, 북괴 특수정찰대 소속 무장간첩인 특무장 김진섭을 생포하고 권총 외 7개 품목을 노획하였다.

(2) 내륙 및 해안지역 작전

내륙 및 해안지역 작전은 전방지역이나 해상을 통하여 내륙 또는 해안으로 침투한 무장간첩이나 내륙지역 일부에서 준동하는 무장공비에 대해 군 또는 경찰이 전개한 작전이며, 육군이 해안에서 실시한 간첩선 나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기간중 실시된 주요 작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논산 잠복 여공비 체포사건

1957년 6월 4일, 공주 경찰서 형사대는 한국전쟁 당시 양민 30여 명을 살해한 여자공비를 체포하였다.

체포된 황모(37세) 여자공비의 본적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 상산리였으며, 그녀의 남편은 한국전쟁 당시 남로당원으로 암약하다가 경찰이 실시한 토벌작전에서 사살된 바 있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녀는 1950년 7월 9일 당시 북괴군 점령하에 있던 전북 무주군 안성면 상산리 여맹원에 가입하고, 동년 7월 12일 피신중인 애국지사 김무한의 은신처를 북괴군에게 밀고하여 살해한 다음, 이어 그의 부친을 미류나무에 결박하여 죽였다. 동년 10월 23일 국군이

이 지역을 수복하자 이 여자공비는 안성면의 지방공비와 같이 안성면 내당리에 있는 덕유산에 입산하여 비밀 아지트를 구축한 뒤, 안성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관과 지방 애국청년 등 30여 명을 살해하였다.

1955년 2월 15일, 그녀는 국군의 공비토벌작전으로 산을 거점으로 한 공비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논산으로 침투하였으며, '이언례'라는 가명으로 논산을 화지리에 거주하는 내중숙부 안재룡 집에 은신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녀는 다시 양민으로 가장하고 논산을 대교리 거주 강기운과 동거하던 중 신분이 탄로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가평 무장간첩사건

1957년 7월 1일 23:00, 가평 경찰서 소속 경찰대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복괴 무장간첩 3명을 발견하여 그중 1명을 사살하였다. 이때, 도주한 무장간첩 2명은 7월 3일과 6일에 인근 부락에 재출현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가평 경찰서장은 이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대원 16명을 가평군 가평면 전내부락에 매복시켰다.

7월 8일 21:05경, 매복조가 거동이 수상한 2명을 발견하고 “누구냐?” 하고 수하를 하는 순간, 이들은 권총으로 응사하면서 대항하였다. 쟁방은 20 분간에 걸쳐 교전하였으나 무장간첩이 교묘히 부락 뒤로 도주함으로써 끝내 그들을 사살하지 못하였다. 가평 경찰서는 이들 무장간첩 2명을 사살 또는 체포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경찰관 140명을 동원하였으나 이들을 색출하지 못하였다.

(다) 포항 무장간첩사건

1958년 5월 20일 경북 경찰은 고무 보트를 타고 포항 동북쪽 해

안으로 상륙하려는 무장간첩 3명을 발견하여 그들 중 1명을 생포하고 2명을 사살하였다.

경북경찰은 이미 체포된 북괴 무장간첩 김모로부터, 동년 6월 19일 저녁 포항 동북쪽 해안에 북괴 간첩선이 도착하여 본인과 접선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에, 경북경찰은 경북도경국장 지휘 아래 80명의 무장경찰과 50명의 사복경찰을 동원하여 상륙 예상지점에서 매복 대기하였다. 동일 22:00경, 경북 경찰대는 고무 보트를 타고 상륙하는 무장간첩 3명을 발견하고 해군 경비정 지원하에 군·경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이들 중 박수암(38세)을 생포하고 이복길(35세), 김국선(35세) 등 2명을 사살하였으며, 권총(미제) 및 CAR 소총 각 1정씩과, 고무 보트 그리고 나침반과 실탄 다수를 노획하였다.

이들 무장간첩의 임무는 이미 체포된 간첩 김모와 접선하여 김을 북한으로 호송하는 한편, 2명의 무장간첩을 남파하는 것이었다고 생포된 호송요원이 진술하였다.

(라) 평화통일 공작대원 체포사건

1958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 간에 걸쳐 해안경계부대와 경찰은 평화통일 공작임무를 띠고 남파된 대남 공작대원 4명을 체포하였다.

이흥식(38세): 이 자는 본적이 전남 나주군 다도면 마산리이며, 한국전쟁 당시 전북 군산시 명월동에 거주하다가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시 월북하였다. 1958년 7월 25일, 이흥식은 그에게 평화통일 공작임무가 부여되자 한화 15,000원을 가지고 평양을 출발하여 동년 8월 5일 전북 부안군 산내면 변산 해수욕장으로 상륙하다가 해안경계부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김병기(31세): 이 자는 본적이 전북 부안군 산내면 진저리이며,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이천읍에 거주하다가 9·28 서울 수복시 월북하여, 1958년 초 3개월간의 밀봉교육을 받고 황해도 해주를 경유하여 전북 부안군 산내면 해안에 상륙 도중 해안경계부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때, 이 자가 휴대한 장비는 권총 1정(소제)과 실탄 27발, 위조 전북도민증 및 위조 제2국민병수첩 그리고 한화 6만원 등이었다.

백기홍(36세): 이 자는 전남 영광군 흥능면 계마리에 본적과 주소를 둔 자로서 1956년 4월에 월북하였으며, 특수 공작교육을 받고 일단 남하하였다가 1956년 7월 30일 재차 월북한 뒤, 평화통일 공작임무를 띠고 서해를 경유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해안으로 상륙하다가 해안경계부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노획품은 미화 637달러와 한화 20만원 등이었다.

엄주성(36세): 이 자는 본적이 전북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이며 한국전쟁 당시 개성시 고령동으로 이주한 자이었다. 1958년 7월 19일, 평화통일 공작임무를 부여받은 이 자는 평양을 출발하여 동년 7월 22일 군산에 상륙하였다가 이틀 후인 24일 군산 경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때, 그는 한화 94,380원과 위조 전북도민증, 위조 제2국민병수첩 및 위조 명함과 위조 인장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

(바) 서해안 무장간첩선 나포

1958년 10월 15일 17:00 서해안을 경비중인 육군부대는 북상중인 북괴 무장간첩선을 발견하고 약 1시간에 걸쳐 교전을 벌인 끝에, 간첩선을 나포하였으며, 선장 전영순(54세) 외 3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 나포된 무장간첩선은 북괴군 최고사령부 정찰국 소속의 대남 간첩선으로서 고성능 엔진을 장치한 선박이다. 그

들은 이 선박을 이용하여 노동당 중앙위원회 특수정치부에서 모종의 연락 임무를 받은 후 호남 일대에 거점을 두고 암약중인 간첩과 접선할 목적으로 남한에 침투하는 연락간첩을 호송하는 한편, 서해와 남해안의 해안 침투가 용이한 지점을 정찰한 후 월북하는 도중 육군 해안경비정에게 발견된 것이라고, 생포된 간첩이 진술하였다.

이 무장간첩선은 1958년 들어 수차에 걸쳐 남한을 왕래하였으며, 북괴의 새로운 공작수법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포섭하여 월북시킨 다음, 단기간의 간첩교육을 실시하여 남파시키는 등, 그들이 목적하는 월북학생의 호송에도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교전에서, 육군 해안경비대는 CAR 소총 1정과 권총 2정 그리고 수류탄 4발과 위조 증명서를 노획하였다.

(배) 아산만 입과도 무장간첩선 사건

1958년 11월 18일, 인천 수상경찰서 소속 북괴간첩 해상루트 봉쇄대가 서해안의 웅진군 대부면 제부도 서남쪽 10km 지점의 입과도 부근에서 북괴 무장간첩선을 불심검문 중 봉쇄대 조장이 북괴 간첩선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1월 18일 04:00경, 인천 수상경찰서 소속의 장봉준 경위가 인솔하는 북괴간첩 해상루트 봉쇄대 소속대원 11명이 소형 경비정인 관악호와 육박호로 입과도를 중심으로 한 부근 일대를 초계하던 중, 전방 300m 해상에서 북괴 간첩선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 1척을 포착하고 국적과 선명을 알리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었다. 이에, 장 경위는 이재권·박연손 두 형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정체불명의 선박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여 정체를 밝힐 것을 계속 종용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선원 1명이 “고기잡이 나온 인천배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거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장 경위가 배에 오르면서 불심검문을 하려는 순간 돌연 배 안의

방장 속에서 권총과 기관총 등으로 집중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격에 당황한 장 경위와 두 형사는 휴대하였던 권총과 수류탄으로 대항하였으며, 무장간첩선에 오른 장 경위는 간첩 1명을 사살한 직후 그들이 사격한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이때 요란한 총성에 놀란 육박호가 엄호사격을 가하였으며, 무장간첩선은 기관총을 쏘면서 장 경위를 태운 채 북쪽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 교전에서 경찰경비정은 선체 수개소에 피해를 입었으며, 장봉준 경위가 납치된 이외에 이재권, 박연손 두 형사와 육박호의 조타수인 전종호 순경이 중경상을 입고 급거 출동한 또 다른 경찰경비정 편으로 후송되었다.

이 작전에서, 경찰경비정이 상상외로 큰 피해를 입은 원인은 경비정에 중화기가 장비되어 있지 않은데다 선체마저 노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 산청 무장공비 출현사건

1959년 5월 30일 00:40, 산청 경찰대 관할지역인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에 공비 3명이 출현하여 식량을 약탈하여 갔다. 이때, 현지 주민의 인명 피해나 납치는 없었다.

이 공비들 속에는 여자공비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민들이 말하는 인상착의로 보아, 이들은 종전에 이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잠적했던 이일영 부대의 잔당 이흥이, 이용조, 정순덕(여)으로 판단되었다.

주민으로부터 간첩 출현 신고를 접수한 작전부대에서는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포위망을 형성한 후 이를 압축하는 한편, 경찰기(L-19)를 이용하여 “귀순하면 생명과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전단을 살포하면서 귀순을 종용했으나 그들은 교묘히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였다.

㉠ 부안 무장간첩사건

1959년 8월 4일 10:30 부안 경찰서는 전북 부안군 산내면 운호리에 있는 편산 굴신봉에서 간첩 2명과 교전하여 1명을 사살하였으나, 1명은 도주하였다. 부안 경찰은 끈질긴 추적을 계속한 끝에 18:30분경, 운호리 마동부락에 잠입한 나머지 1명의 간첩을 사살하였다. 이 교전에서, 부안 경찰은 권총 2정(비제)과 실탄 10발, 그리고 수류탄 2개와 나침반 및 위조 도민증과 위조 신분증을 노획하였다.

다. 작전 결과

1957년 1월 1일부터 1960년 초(4, 19. 이전)까지 전개된 육군의 지상침투 봉쇄작전은 휴전선을 통한 무장간첩 침투를 효과적으로 봉쇄하였고, 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침투한 무장간첩도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경 협동작전으로 그 대부분을 사살 또는 생포하였다. 이로써, 북괴가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한 내에서 민심교란, 테러, 전복활동 등을 획책하려던 그들의 흥계는 여지없이 좌절되고 말았다.

2. 해상침투 봉쇄작전

가. 개 요

해군은 해상을 통한 무장간첩의 침투활동을 봉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어떠한 형태의 해상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함대사령관 예하의 동해 해역에는 동해경비분대(TU 98. 3. 2)를, 서해 해역에는 서해경비분대(TU 98. 3. 3)를, 남해 해역에는 남해경비분대(TU 98. 3. 1)를 배치하여 각각 동·서·남해 해역에서 해상작전에 임하도록 하였다.

나. 작전경과

해군은 1957년부터 1960년 초(4. 19. 이전)까지 동해에서 3건, 서해에서 4건의 해상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해 해역작전

(가) 속초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

개 요: 1958년 7월 10일 16:00경에, 속초 동쪽 34마일 해상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을 경비중이던 임진함(PF 66함, 함장:대령 최동화)이 북상중인 무장간첩선 1척을 발견하여, 동 선박을 나포하고

간첩 전원을 생포하였다.

- 작전경과: 7. 10. 16:09; 북방한계선 근해를 경비하던 임진함이 속초 동북방 34마일 해상(38°18' 00" N, 129°18' 00" E)에서 북상중인 의아선박을 발견하고 검색하기 위해 접근함.
- 16:12; 의아선박을 임진함 우현에 계류시켜 검색한 결과, 의아선박은 우리 어선으로 위장한 북괴 간첩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선박을 나포하고, 간첩(승조원) 7명을 생포하였으며 다량의 무기를 노획함.
 - 16:30; 나포한 간첩선과 생포 간첩을 묵호 경비부로 예인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임진함은 무장간첩선 1척(북괴군 경찰국 소속 장수호)을 격침하고 무장간첩 7명을 생포하였으며 기관총 등 총 12종 838점의 장비 및 물자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둔 반면, 해군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획품현황

품명	수량
기관총 (미제)	1 정
다발총	1 정
칼빈소총	2 정
권총	1 정
고무보트	1 척
수류탄	13 발
소화기실탄	812 발
카메라	1 대
시계	3 개
쌍안경	1 개
현금 (한화)	4 만 환

간 첩 선 제 원

구 분	제 원
선 박 구 조	목조발동선(어선형태)
전 장	12 미 터
폭	2.5 미 터
중 량	13 톤
속 력	12 - 15 노트
기 관	클라이슬러(미제) 120마력 2대

(나) 울릉도 근해 무장간첩선 격침

개 요: 1958년 9월 8일 10:10에, 울릉도 서쪽 13마일 해상에서 동해를 경비중이던 한산함(PCEC 53함, 함장:중령 방성극)이 무장간첩선을 발견하고, 격전 끝에 동 선박을 격침시키고 무장간첩 6명을 사살 및 생포하였다.

작전경과: 9. 8. 10:10; 임원진 동쪽 해상을 경비하던 한산함이 울릉도 서쪽 13마일 해상(37°30' 00" N, 130°30' 00" E)에서 남하중인 의아선박을 발견하고 추적함.

- 11:53; 한산함은 추적 도중 기관을 정지하고 정선한 의아선박에게 접근함.
- 11:57; 한산함이 정지중인 의아선박의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200 m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의아선박은 돌연 최대속력으로 한산함에 접근하면서 로켓포 및 기관총사격과 수류탄을 투척해 음.
- 11:58; 한산함은 적성 선포와 동시에 사격을 개시함.
- 12:00; 한산함의 사격으로 간첩선이 대파되면서 발화함(위치

: 37°17' 00" N, 130°02' 00" E).

- 12:00; 파괴된 간첩선에서 간첩(승조원)이 물에 뛰어드는 것을 확인함.
- 12:12; 간첩선은 연료탱크가 폭발하여 연소중이며 그 동쪽 30m 해면에 간첩 4명이 떠 있고, 남쪽 50m 해면에 한산함의 하사(당시 2등조장) 박근배가 떠 있음. 간첩선은 계속 연소중이며 가끔 폭음이 들려 옴.
- 12:15; 하사 박근배를 구조함.
- 12:25~12:50; 수중의 간첩 4명을 구조하고, 교전중에 행방 불명이 된 해군 1명을 구조하기 위해 부근 해역을 수색하면서 함정의 피해상황을 조사함.
- 12:51; 부상자 치료가 급하였으므로 행방불명자의 수색을 단념하고 묵호로 향함.
- 17:41; 묵호 외항에 도착하여 부상자와 생포 간첩을 묵호 경비부에 인계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한산함은 간첩선 1척(북괴 노동당 연락부 제988부대 소속 김성호)을 격침시켰으며 무장간첩 4명을 생포하고 2명을 사살하였다. 또한, 장비는 경기관총 외 6종 342점을 노획하였다.

한편, 해군의 피해는 1명이 실종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단정 1척이 큰 피해를 입었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 획 품 현 황

품 명	수 량
경 기 관 총 (미 제)	1 정
기 관 총 실 탄	300 발
권 총	2 정
칼 빈 소 총	2 정
다 발 총	1 정
수 류 탄 (중 공 제)	35 발
고 무 보 트	1 척
현 금 (한 화)	50 만 환

간 첩 선 제 원

구 분	제 원
선 박 구 조	목조발동선(어선형태)
전 장	14 미 터
폭	2.5 미 터
중 량	8 톤
속 도	8 ~ 10 노트
기 관	소제 디젤엔진 200마력 2대

(대) 거진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

개 요: 1958년 11월 24일 01:39, 동해 북방한계선 근해를 경비 하던 해군의 경기함(DE 71함, 함장:대령 한문식)이 거진 동북쪽 20

마일 해상에서 남하중인 무장간첩선을 발견하고, 교전 끝에 동선박을 나포하고 간첩 전원을 사살 및 생포하였다.

작전경과: 11. 24. 01:39; 북방한계선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 경기함이 레이더로 의아선박을 포착하여 추적함.

- 02:27; 경기함은 의아선박을 계속 추적하여 3 km 이내로 가까와지자 “불을 켜서 신호하라.”고 지시했으나 불응하므로 공포탄을 발사함.
- 02:40; 약 1km까지 접근한 경기함이 “정지하라”, “전원 갑판 위로 나와 손을 들어라.” 하고 방송하였으나, 의아선박은 경기함 후방으로 도주하므로 함포 1발을 발사하여 명중시킴으로써 의아선박은 반파되고 기관이 정지되면서 정선하였음(위치: 38°35′ 00″ N, 128°51′ 00″ E).
- 02:50; 의아선박에 접근하여 북괴간첩선임을 확인한 경기함이 “전원 갑판에 나와 손을 들어라.”라고 방송하고, 구명자켓을 간첩선에 던져주면서 “입고 물에 뛰어들라.”고 하였으나 불응하므로 기관단총으로 공포를 발사함.
- 03:00; 경기함의 승조원이 간첩선을 관측하여 간첩 6명 중 1명이 부상을 당하여 앉아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간첩 1명이 수류탄을 투척해 오므로 경기함은 즉각 응사하여 3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나머지 간첩 1명은 수중으로 뛰어들었음.
- 04:21; 수중으로 뛰어든 간첩 1명을 구조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함.
- 06:15; 부상한 간첩 2명을 수중에서 구조하여 생포함.
- 07:10; 간첩선을 경기함 우현에 계류시켜 사망자를 수색함.
- 07:40; 사망한 간첩시체 4구를 단정을 내려 인양함.

374 2. 해상침투 봉쇄작전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해군의 경기함은 무장간첩선 1척 (북괴 노동당 연락부 제998부대 소속 제2광명호)을 나포하고 간첩 2명을 생포하였으며 4명을 사살하고 경기관총 외 7종의 노획품을 획득하였다. 한편, 해군의 피해는 8명이 경상을 입었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획품현황

품명	수량
경기관총	1정
칼빈소총	2정
M ₁ 소총	1정
권총	1정
수류탄	13발
쌍안경	1개
구명익	3개
실탄	1박스

간첩선제원

구분	제원
선박구조	목조발동선(어선형태)
전장	14미터
폭	3미터
중량	15톤
속도	10노트
기관	디젤엔진(소제) 300마력 1대

(2) 서해 해역작전

(가) 소연평도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

개 요: 1958년 9월 17일 21:30,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를 경비중 이던 가덕함(LSM 605함, 함장:소령 송병훈)이 소연평도 서쪽 18마일 해상에서 북상중인 무장간첩선을 발견하여, 동 선박을 나포하고 간첩 전원을 생포하였다.

- 작전경과: · 9. 17. 21:30; 가덕함은 소연평도 서쪽 18마일 해상, 동 함정의 동쪽 3마일 지점(37°36′ 05" N, 125°21′ 30" E)에서 북상중인 의아선박을 레이다로 포착하고 전속력으로 추적함.
- 22:00; 가덕함은 의아선박을 나포하고 가덕함 우현에 계류시켜 검색한 결과 어선을 가장한 북괴 간첩선으로 판명되어 간첩(송조원) 3명을 생포함.
 - 22:45; 무장간첩선을 예인하여 백령도 근해로 향함.
 - 9. 18. 14:58; 백령도 근해에서 두만함(PE 61함)을 만나 무장간첩 3명과 간첩선을 인계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해군의 가덕함은 무장간첩선 1척(북괴 내무성 사회안전국 제613부대 소속 장인호)을 나포하고 무장간첩 3명을 생포하였으며 권총 외 3종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이 작전에서 해군의 피해는 없었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획품현황

품명	수량
간첩선	1척
권총	1정
권총실탄	16발
수류탄	5발

간첩선제원

구분	제원
선박구조	목조범선(어선형태)
전장	7미터
폭	1.5미터
중량	2톤
속도	미상
기관	미상

(나) 서해 옹도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

개요: 1959년 7월 19일 10:20 서해 경비임무를 마치고 인천을 출항하여 진해로 복귀중이던 해군 한산함(PCEC 53함, 함장: 중령 임영호)이 서해 서산 앞 옹도 남서쪽 7마일 해상(안면도 북서쪽 24마일 해상)에서 남하중인 무장간첩선과 조우하여, 교전 끝에 동 선박을 나포하고 간첩 전원을 생포하였다.

작전경과: · 7. 19. 10:20; 한산함이 서해 옹도 남서쪽 7마일 해상에서 남하중인 의아선박을 발견함.

- 10:23; 의아선박을 추적하여 정선을 명령하였으나, 의아선박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사격을 가하여 음.
- 10:31; 한산함은 전속력으로 의아선박을 추적하면서 사격을 개시하여 이때부터 쌍방은 50분간 치열하게 교전함. 한산함은 이 교전에서 3인치포 25발, 40밀리포 112발, 20밀리포 및 소총사격을 실시하였음.
- 11:18; 해군 함포에 명중된 간첩선이 정선함.(위치: 36°34' 15" N, 125°57' 00" E)
- 11:20; 간첩 4명이 수영으로 한산함에 승선함.
- 11:46; 간첩선을 인천으로 예인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한산함은 무장간첩선 1척(북괴 노동당 연락부 소속 심창호)을 나포하고 간첩 4명을 생포하였으며 경기관총 외 6종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한편, 해군은 선체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획품현황

품명	수량
경기관총	1정
칼빈소총	1정
권총	1정
수류탄	4발
단도	2개
실탄	6발
간첩선 (전마선)	1척

간 첩 선 제 원

구 분	제 원
선 박 구 조	목조발동선(어선형태)
전 장	13 미 터
폭	4 미 터
중 량	9 톤
속 력	7.5 노트
기 관	디젤엔진(소제) 80마력 1대

(대) 소연평도 근해 무장간첩선 격침

개 요: 1959년 7월 24일 22:30, 연평도 근해를 경비하던 독도함 (LSM 603함, 함장: 소령 이하영)이 소연평도 남서쪽 15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무장간첩선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이를 격침하였다.

- 작전경과: · 7. 24. 22:30; 연평도 서쪽 근해를 경비하던 독도함이 남서쪽으로 남하하는 의아선박을 발견하고 추적하면서 정선을 명령하자, 동선박은 7노트에서 14노트로 속도를 돌연 증가시키면서 지그재그로 도주하므로 독도함도 전속력으로 계속 추적함.
- 7. 25. 00:50; 독도함이 의아선박에 40밀리포 2발로 위협사격을 가하자 의아선박에서도 즉각 기관총 및 다발총으로 응사하여 왔으며, 상호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무장간첩선이 격파되어 정선하였음.(위치: 37°27' 30" N, 125°29' 00" E).
 - 03:15; 독도함은 기함인 노량함(PCEC 51함, 함장: 중령 김용선)에게 전투경과를 무선으로 보고하고 간첩선을 감시하면서 주위를 순회함.

- 03 : 28~03:43; 사건 현장에 도착한 노량함이 격파된 간첩선을 검색하기 위하여 단정을 내려 접근하려는 순간 간첩선에서 갑자기 사격을 가하여 왔으므로, 노량함은 즉각 이에 응사함. 이때 검색관(해병소위) 1명이 부상함.
- 04 : 47; 독도함이 격파된 간첩선 주위를 순회하면서 감시함.
- 06 : 10; 독도함이 램프(상륙함의 앞문)를 내려 간첩 1명을 구조함.
- 06 : 55; 노량함이 부상간첩 1명을 구조하고 파괴된 간첩선 선체 일부를 인양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해군은 무장간첩선 1척(북괴 노동당 연락부 소속 대진호)을 격파하였으며 간첩 5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한 외에 중기관총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였다. 한편 해군의 피해는 부상 1명이었다.

주요 노획품은 다음과 같다.

노획품현황

품명	수량
중기관총	1정
다발총	1정
칼빈소총	1정
수류탄	8발

간 첩 선 제 원

구 분	제 원
선 박 구 조	목조발동선(어선형태)
전 장	13 미터
폭	4 미 터
중 량	20 톤
속 력	8 노 트
기 관	디젤엔진 150마력 1대

(태) 비압도 부근 영해침투 복괴 경비정 격퇴

개 요: 1959년 8월 18일 10:33,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를 경비 중이던 거문함(LSM 606함, 함장: 소령 황무상)이 비압도 남서쪽 5마일 해상(소청도 남동쪽 16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입한 복괴 경비정을 격퇴하였다.

- 작전경과: · 8. 18, 09:43; 서해경비를 담당한 거문함은 농무로 인해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비압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정선 대기중, 백령도 전탐기로부터 거진함 부근에서 소속 불명의 의아선박 1척이 포착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 10:33; 안개가 조금 개자, 거문함은 의아선박을 탐색하기 위해 이동하였으나 시계가 1마일 이내로 제한되어 관측이 불가능함.
 - 10:40; 안개가 걷히자, 거문함은 본함으로부터 남동쪽 4마일 떨어진 우리 영해내에 복괴 경비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전투 배치 후 추적을 개시함. 이때, 거문함의 위치는 북방한계선

남방 1.7 마일 지점인 우리 영해내에 위치하고 있었음.

- 11:52; 북괴 경비정이 거진함을 향해 먼저 사격을 개시하여, 그 첫발이 거진함 후방 약 300m 지점에, 다음 3발이 거진함 전방 약 500m 지점에 떨어짐.
- 11:55; 거문함이 전화력으로 응사하자 약 20분간에 걸쳐 상호 맹렬한 포격전이 전개됨.
- 12:20; 다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 교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북괴 경비정은 비압도 후방으로 도주함. 거문함은 북방한계선 남방 약 2마일 해상(37°39′ 07" N, 125°00′ 45" E)에서 계속 북괴 경비정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함.
- 14:21; 전투배치 해제 및 상황을 종료함.

전과 및 피해: 이 작전의 결과, 적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0여 발 이상의 포탄이 북괴 경비정에 명중되거나 부근에서 폭발하였으므로 상당한 인명 및 선체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군의 피해는 전무하였다.

다. 작전결과

작전성과: 해군의 해상침투 봉쇄작전은 1957년 1월 1일부터 1960년 초(4, 19. 이전)까지 7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중 해군은 6척의 간첩선을 나포 또는 격침시키고 30여 명의 무장간첩을 사살 및 생포함으로써, 북괴군의 해상을 통한 간첩침투 활동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해상을 봉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과 및 피해: 이 기간 중 해군의 전과 및 피해는 다음 표와 같다.

· 전 과

구 분		동 해	서 해	계
인 원	사 살 (명)	6	5	11
	생 포 (명)	13	9	22
	계	19	14	33
장 비	간 첩 선 (척)	3	3	6
	중 화 기 (정)	3	2	5
	소 화 기 (정)	13	5	18
	수 류 탄 (발)	61	17	78

· 피 해

단위 : 명

구 분		동 해	서 해	계
인 원	전 사	0	1	1
	부 상	8	9	17
	계	8	10	18

* 장비 피해 없음.

부 록

1. 주요대비정규전일지
2. 참 고 문 헌
3. 색 인

주요 대비 정 규 전 일 지

(1945. 8. 15~1960. 4. 19)

연월일	제 목	내 용
1945. 11. 20.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해방 후 조선공산당은 당자금을 조달하고 남한의 경제혼란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위폐 1,200만원을 발행하였다. 그 이듬해 5월 4일 위폐범 일당이 검거되었다.
1946. 1. 18.	학병동맹사건	신탁통치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게 좌익학병동맹이 충기를 난사하여 유혈충돌을 일으켰다.
9. 12.	이승만 박사 저격사건	공산당원 김광명·김영수 등이 이승만 박사를 저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9. 23.	9월 총파업사건	공산당의 지령으로 서울·대구·부산을 비롯한 남한전역의 철도·통신·생산기관 등이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10. 1.	대구폭동사건	9월 총파업의 연장으로서 대구에서는 공산당의 사주로 시민과 좌익세력이 대구 경찰서를 강점하는 등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으며, 그 후 성주·칠곡·고령·영천·경산·의성 등 경북 일대의 도시로 이동 경찰관서를 습격하였다.
		* 사망 83명, 부상 87명, 재산피해 30억 원.

386 1. 주요대비정규전일지

- | | | |
|-------------------|---------------------|--|
| 10.16. | 조병옥 경무부장
피격사건 | 조선공산당 산하 민청 소속의 유주열·이송락 등이 조병옥에게 수류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에 그쳤다. |
| 11.13. | 장택상 경무총감
피격사건 | 민청 소속의 김용암·최인식 등이 수도권관구 경찰청장 겸 제1경무총감 장택상에게 수류탄을 투척,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 |
| 10.31.~
11.12. | 전남지역에 대구
폭동 소요파급 | 광주를 비롯한 목포·광산·장성·보성 등 전남지역 주요도시에서도 대구 폭동사건의 영향을 받아 약 21,280여 명의 폭도가 도내 15개 경찰서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습격하였다.
* 민간인 사망: 40명, 폭도 검거: 1,000명 |
| 1947. 2. 5. | 경무부내 남로당
세포사건 | 경무부 총무국 장비과 근무 조정의 순경 외 남로당 세포조직 일당 20명이 체포되었다. |
| 3. 1. | 3·1 폭동 및 총
파업 사건 | 3.1절을 맞아 좌익계열이 전국적으로 찬탁 및 반미시위를 자행하였으며, 좌·우익 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
| 6.14. | 부산경찰서장
피살사건 | 부산경찰서장 권위상이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정봉석에게 피살되었다. |
| 8.28. | 진천폭동사건 | 충북 진천에서 좌·우익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좌익계열 700여 명이 우체국·금융조합·우익인사의 주택 등을 습격하였다.
* 민간인 사망: 2명, 부상: 57명, 건물 파괴: 19동, 폭도 체포: 192명. |

11. 1. 인민해방군사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 주요도시에
서 요인 암살 및 무기탈취 등을 획책
하던 소위 인민해방군 조직 일당 157
명이 일망타진되었다.
12. 1. 포천지역 38도선 소련군을 포함한 북괴군 300명이 38도
남침사건 선을 월경, 포천군 창수면에 침입하여
청년 20여 명을 납치하고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하였다.
1948. 2. 7. 2·7 폭동사건 남한만의 총선거가 확실시되자 북한
공산당은 2월 7일을 기하여 살인, 방화,
각종 교통 및 통신시설의 파괴, 경찰관
서 및 공공기관의 습격 등을 남로당에
지령, 전국적인 폭동을 자행하였다.
* 경찰관 및 공무원 사망: 29명, 통신
및 철도시설 파괴: 107개소.
- 3.28. 인민혁명군사건 김일광·이혁기 등을 중심으로 군내부
에 좌익세력을 침투 및 포섭하여 남한
내에서 폭력혁명을 획책하던 공산당원
42명을 검거하였으며, 그 중에는 국방
경비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4. 3. 제주도 폭동사건 남로당 김달삼·이덕구 일당이 경비대
좌익분자들과 내통하여 제주도 전역에
서 살인·파괴·습격 등을 자행하고
경찰관서와 공공기관을 점령하는 등
좌익분자들의 발호가 극에 달했던 사
건으로, 완전소탕까지는 5년 이상이 걸
렸던 큰 폭동사건이었다.
- 5.10. 5.10 총선 좌익분자들이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사건	방해할 목적으로 전국적인 유혈폭동을 일으켜 사회혼란을 조성 일부지역은 선거가 무효화되었다.
5.15 ~7.23.	제11연대 제주 지구 공비소탕 작전	4·3 폭동사건의 초기 진압작전이 실패하자, 수원 주둔 제11연대가 출동, 70여 일 동안 소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연대장이 피살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복귀하였다.
7.28. ~12.29.	제9연대 제주도 지구 공비소탕 작전	경비대 사령부는 제9연대를 주력으로 한 제주지구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군내부 좌익세포 체포: 80명, 공비 사살: 107명, 공비 생포: 276명.
9.30.	창군전후 군내부 세포사건	국방경비대내의 이병주·하재팔 등 공산당 세포분자를 검거하였다.
10.19.	여수·순천 반란사건	국군 제14연대내의 좌익세포 조직책 지창수가 부대내 좌익세력 및 여수·순천 일대의 남로당 핵심분자들과 합세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최악의 무장반란사건으로 10월 27일 진압되었다.
10.30. ~11.30.	호남방면 전투사령부 공비소탕 작전	여수·순천 반란사건의 주동자 및 반란군이 지리산·백운산·덕유산 지역으로 잠입하자, 육군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호남 및 지리산 일대의 반란군을 소탕하였다.
11. 2.	제4연대 나주지구 파견대 반란	광주 주둔 제4연대 소속 나주지구 파견대 좌익분자 40명이 반란을 일으킨

- 사건
- 11.2.~ 대구반란사건
1949. 1.30. 후 지리산으로 도주하였다.
대구 주둔 제6연대내의 곽종진·이동백 등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고 소수의 동조자와 같이 팔공산 일대로 도주하였다.
11. 5. 개성경찰서 상도지서 습격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공작대가 상도지서를 습격하고 도주하였다.
- 11.14. 오대산지구 인민유격대 제1차 침투 180명의 인민유격대가 오대산 경유 태기산 지역까지 남하하였으나 제6여단 제8연대에 의해 대부분 격멸되고 소수 패잔병은 제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 공비 사살: 17명, 생포: 15명.
- 12.29.~ 제2연대 제주도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동한 제2연대는 1949. 2.28. 지구 공비소탕 효과적인 선무공작과 홍보활동으로 많은 공비를 귀순시키는 한편 토벌작전을 병행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1949. 1.18. 거물 간첩 이재복 체포 박헌영의 지령을 받고 암약중이던 간첩 이재복을 체포하였다.
3. 1. 호남·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 육군본부는 3월 1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각각 1949. 1.18.~5. 9. 공비소탕작전 설치하고 경남 및 지리산 지구와 호남지구 일대에서 준동하는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3. 2. 제주도 지구 전투사령부 공비소탕작전 육군본부는 제2연대를 주축으로 독립제1유격대대·제주경찰·해군으로 제주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선무심리전과 적극적인 공세작전, 특히 민·관·군 혼성부대인 민보단을 편성 운

- 용하여 공비두목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하였다.
- 4.18. 남로당 국회 프락치 사건 김약수·노일환·이문원을 위시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남로당과 접선하여 외국군 철수를 책동하다 체포되었다.
5. 4. 국군월북사건 제1여단 제8연대 제1대대장 표무원 소령과 동 연대 제2대대장 강태무 소령이 병력의 일부를 이끌고 춘천·홍천 북방에서 월북하였다.
5. 6. 북괴군 개성 침공사건 북괴군 2,000여 명이 송악산의 연봉을 타고 38도선 이남 300m 지점의 292고지를 점령하였다.
6. 1. 북괴 인민유격대 제2차 침투사건 인민유격대 400여 명이 제2차로 오대산 지역으로 침투를 시도하였으나 38도선 부근에서 국군에 의해 격멸되고 잔여공비들은 북상 도주하였다.
6. 7. 보은경찰서 산외 지서 습격사건 산외면 주민 조봉철이 공비들과 합류하여 산외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 2명을 살해하였다.
7. 6. 북괴 인민유격대 제3차 침투사건 200여 명의 인민유격대가 오대산 지역으로 침투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사살되고 30여 명만 중봉산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 7.20. 거창·경주 폭동 사건 남로당의 지령으로 거창·경주 등지에서 폭동사건이 발생하여 살인·방화·파업이 자행되었다.
8. 4. 북괴 인민유격대 제4차 침투사건 김달삼이 이끄는 정예 유격대원 300여 명이 경북 일월산에서 지방공비와 합

- 세, 경북 보현산으로 침투하였다. 제 8 연대는 흥천군 공작산에서 이들 중의 일부를 격멸하였다.
- 8.12. 북괴 인민유격대 인민유격대는 경기도 가평군 명지산 제 5,6 차 침투 부근으로 침투할 의도하에 선발대 15 명(5 차), 후속부대 40 명(6 차)으로 침투조를 편성, 명지산을 경유 용문산까지 침투하였으나, 20 여 명은 사살되고 잔여공비들은 응봉산을 경유 북상 도주하였다.
- 8.29. 진주지구 해병대 해병대 1 개 대대는 진주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중 10 월 27 일 공비의 기습을 받았으나, 공비 6 명을 사살하고 이들을 격퇴시켰다.
- ~12.26. 작전
9. 1.~ 태백산지구 전투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충북·강원 일대의 태백산에서 준동하는 인민유격대와 공비를 소탕하였다.
1950. 3.15. 사령부 작전
- * 3월 15일 :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 해체
- 9.20. 북괴 인민유격대 이호제가 지휘하는 북괴 인민유격대 제 7 차 침투사 (제 1 군단 소속) 360 여 명이 태백산맥을 따라 침투하였으나 국군에 의해 대부분 섬멸되고 100 여 명은 보현산의 김달삼 부대와 합류하였다.
- 9.22. 중요기관 프락치 남로당원 유택규에 의해 공무원·회사원·경찰관·신문기자 등 60 여 명이 포섭되어 활동중 검거되었다.
- 9.28. 북괴 인민유격대 50 여 명의 유격대가 강원도 양양군 현

- | | | |
|------------------------|-----------------------------------|--|
| | 제 8 차 침투사
건 | 북면으로 침투하였으나 국군 제 8 사단
에 의해 격멸되고 잔여공비는 북상 도
주하였다. |
| 9.28.~
1950. 3.15. |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작전 | 호남·지리산 지구에 준동하던 공비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남원
에 설치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는
이 지구에 대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
하였다. |
| 11. 6. | 북괴 인민유격대
제 9 차 침투사
건 | 북괴는 침투로를 해상으로 바꾸어 경
북 영일군 지경리 해안으로 인민유격
대 100 여 명을 해상침투시켜 보현산
지구의 김달삼부대와 합류시켰다. |
| 12.28.~
1950. 6.25. | 해병대 제주지구
공비소탕 | 해병대 사령부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
| 1950. 2. 6. | 대남공작대 검거 | 무장폭동을 획책하던 대남공작대 총책
최영추와 그일당 195 명이 체포되었다. |
| 2.11. | 인민공작대
남파사건 | 무장봉기를 획책하던 이은순을 포함한
일당 7 명이 체포되고 다량의 무기가
압수되었다. |
| 3.16.
~3.23. | 제 8 사단 제 21
연대의 김달삼
부대 소탕작전 | 제 8 사단 제 21 연대는 태백산맥을 따
라 북상중인 김달삼부대를 청선군 반
론산 지역에서 섬멸하였다. |
| 3.27. | 거물간첩 김삼룡
이주하 체포 | 남한의 공산당 활동을 배후에서 조종
하던 박헌영의 직계 거물간첩 김삼룡·
이주하가 체포되었다. |
| 3.28. | 북괴 인민유격대
제 10 차 침투사
건 | 북괴는 김상호·김무현을 부대장으로
한 인민유격대 700 여 명을 오대산 및
방대산으로 침투시켰으나 제 8 사단에 |

의해 격멸되었다.

* 북괴 인민유격대는 1948.11.14~1950. 3.28까지 10 차례 걸쳐 총 2,345 명을 남파시켰으나 대부분 사살 및 생포되었고 일부 잔여인원은 지방공비와 합세하였다.

- | | | |
|--------|-------------------|--|
| 3.28. | 제 10 연대의 | 북괴는 김달삼부대의 북상을 엄호하기 위하여 김상호부대를 침투시켰으나, 제 8 사단 제 10 연대에 의해 평창군 동대산과 황병산·오대산 일대에서 섬멸되었다. |
| ~4. 9. | 김상호부대
소탕작전 | |
| 4. 5. | 제 21 연대의 | 인민유격대 제 7 차 침투부대로서 보현산에 은거하던 이호제부대는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의 소탕작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북상중, 제 8 사단 제 21 연대에 의해 정선 지역의 청옥산·두타산·중봉산 일대에서 섬멸되었다. |
| ~4. 9. | 이호제부대
소탕작전 | |
| 4. 5. | 여간첩 김수임
사건 | 북괴 외무부상 이강국의 정부인 김수임이 미모를 이용하여 남한 주둔 미군 헌병사령관과 위장결혼한 후, 군·경의 기밀을 누설시키다가 체포되었다. |
| 5.15. | 거물간첩 성시백
사건 | 북괴의 지령을 받고 활동중이던 간첩 성시백 일당 111 명이 체포되었다. |
| 6.10. | 제 21 연대의 | 북괴는 6·25 전면남침 10 여 일을 앞두고 제 766 군부대 약 30 여 개 분조(1 개 분조당 5~7 명)를 오대산·계방산·방대산 지역으로 침투시켰다. 국군 제 8 사단은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
| ~6.20. | 분조침투 유격
대 소탕작전 | |

		펼쳐 그 대부분을 격멸하였다.
10. 4. ~ 1951. 3.30.	제 II 사단의 호남지구 공비 소탕작전	제 II 사단은 배속된 경비대대 및 경찰과 합동으로 호남·지리산 일대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 거창사건 발생 : 1951. 2.10~11(제 II 사단 제 9 연대 제 3 대대)
10.16. ~11.22.	제 5 사단의 영남 지구 공비소탕 작전	제 5 사단은 경남 서부 및 지리산 지역, 포항·영주 지역, 김천·거창·영동 지역 일대에 3 개 연대를 분산 배치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11.23. ~12.17.	제 9 사단의 대둔 산 및 경북지역 공비소탕작전	제 9 사단은 대전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 28 연대를 충남 및 대둔산 지역에, 제 29 연대를 경북 김천 및 왜관 지역에, 제 30 연대를 경북 영주 및 문경 지구에 투입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1951. 1.14. ~3.31.	해병 제주지구 공비소탕작전	해병 1 개 중대 규모와 제주경찰 1 개 소대는 군·경 혼합편성된 토벌부대를 편성하고, 군·경·민 합동지휘소를 설치하여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1.23. ~2.23.	해병대의 안동· 영덕 지구 공비 소탕작전	미 제 1 해병사단에 배속된 한국 독립 제 5 해병대대는 안동 및 영덕 지구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2.17. ~4.25.	제 2 사단의 안동 지구 공비소탕 작전	제 2 사단은 경찰 2 개 대대를 작전통제하여 안동 및 보현산·일월산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3.12. ~3.18.	제 9 사단의 정선 ·송계리 지역	국군 제 9 사단은 해병 및 제 2 사단의 공비소탕작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 공비 소탕작전 태백산맥을 따라 정선군 송계리 일대까지 북상한 패잔병(북괴군 제 10 사단 소속)을 격멸하였다.
- 11.30.~ 백야전 전투사령 호남지역에서 남부군을 비롯한 각 도
1952. 3.15. 부의 호남지구 당유격대가 창궐함에 따라 설치된 백
공비소탕작전 야전 전투사령부는 배속된 수도사단·
제 8 사단·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2 개
경찰전투사령부 병력으로 지리산을 비
롯한 호남지역 공비의 대부분을 격멸
하였다.
1952. 7.13. 제 1 사단의 호남 제 1 사단은 제 11· 제 12 연대로써 지리
~8. 4. 및 영남지역 공 산· 회문산· 덕유산 등 호남지역에서,
비소탕작전 제 15 연대로써 일월산· 신불산 등 영
남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
다.
1953. 2. 3.~ 육군 무지개부대 대유격작전부대인 무지개부대는 제주
~5. 1. 제주도지역 도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한라산의 공
공비 소탕작전 비를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5 년여에 걸
친 제주도 공비소탕작전은 종막을 고
하였다.
1953. 8.31. 정국은 간첩사건 동양통신사 및 연합신문사 주필인 정
국은은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여 북괴에 제공하
다가 1953년 8월 31일에 검거되었다.
- 12.11.~ 박전투 사령부의 호남지역에서 공비활동이 점차 활발해
1954. 5.25. 공비소탕 작전 지자 육군본부에서는 박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 5 사단을 비롯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를

		배속시켜 지리산·회문산·덕유산·모후산·조계산·백운산 지역에서 공비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1954. 8.25.	천안 무장공비사건	무장공비가 천안에서 출현하여 양민 2명을 살해하고 경찰관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10.10.	서울 괴뢰간첩단 사건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던 송정국과 그 일당 6명이 체포되었다.
1955. 2. 1. ~3.31.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공비소탕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서남지구 경찰대와 심리전 소대를 배속받아 내장산·회문산·백운산·덕유산 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5.10.	어선피격사건	북괴 경비정이 한국 어선단을 공격하여 1척이 침몰하고 4척이 실종되었다.
5.22.	장성 지역 침투 공비 사살	전남 영광에 상륙하여 장성으로 침투한 공비 6명 중 1명을 경찰이 사살하였다.
7. 1. ~12.31.	55년도 하반기 공비소탕작전	남부지구 경비사령부가 4월 1일에, 서남지구 경찰대가 7월 1일에 각각 해체됨에 따라 2군 예하 향토사단과 경찰기동대가 주로 호남지역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9.21.	간첩 이상환 체포	북괴의 주소 대사 이상조의 동생 이상환이 육군대위로 가장하여 암약하다가 체포되었다.
1956. 1. 7.	청송 지역 공비 생포	경북경찰은 청송군 부남면 중거리 판자골에서 여자 공비 3명을 생포 하였다.

- 6.14. 원성 지역 공비 사살 강원경찰은 원성군 서화면 홍양리에서 공비 3 명을 사살하고 소총 3 정을 노획하였다.
- 7.12. 정읍 지역 공비 생포 진북경찰은 정읍군 입산면에서 공비 1 명을 사살하고 2 명을 생포하였다.
8. 8. 영월 지역 공비 생포 강원도 지구 특무대는 영월군 상동면에서 공비 2 명을 생포하였다.
- 11.17. 영광 도발사건 북괴 미그-15 기 2 대가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연습기(F-51) 1 대를 격추하였다.
1957. 4.16. 어선납치사건 북괴 무장경비정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인 어선 1 척을 나포하였다.
6. 4. 여공비 체포 공주경찰은 논산에서 한국전쟁 기간중 양민 30 여 명을 살해한 여자공비 1 명을 체포하였다.
7. 1. 가평 무장간첩사건 가평 경찰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무장간첩 3 명을 발견하고 1 명을 사살하였으나 2 명은 도주하였다.
1957. 7.24. 무장간첩선 격침 해군은 연평도 근해에서 무장간첩선 1 척을 격침시키고 간첩 2 명을 생포하였다.
8. 2. 간첩 김정제 사건 치안국 경무과장을 지낸 거물간첩 김정제가 체포되었다.
9. 4. 해군침투 첩보단 사건 박상혁·정진세는 해군부대에 출입하면서 군사기밀을 수집하던 중 체포되었다.
11. 9. 동해안 어선 납치사건 북괴 함정은 동해 거진 앞바다에서 명태잡이 어선 8 척(어부 47 명)을 납치하

- 7.10. 속초 근해 무장 간첩선 나포
해군 임진함은 속초 동쪽 34 마일 해상에서 북상중인 무장간첩선 1 척을 나포하고 승무원 7 명을 생포하였다.
- 7.24. 평화통일 공작대원 체포사건
~8. 9. 해안경계부대와 경찰은 평화통일 공작 임무수행을 부여받고 전북 부안·고창·군산 지역으로 침투하던 대남공작대원 4명을 생포하였다.
9. 8. 울릉도 근해 무장간첩선 격침
해군 한산함은 울릉도 서쪽 13 마일 해상에서 무장간첩선과 교전 끝에 간첩선을 격침시키고 무장간첩 4 명을 사살, 2 명을 생포하였다.
- 9.15. 강화도 무장간첩사건
해안경찰대는 경기도 강화군 교지면 동석리 해안에서 무장간첩 6 명과 교전하였으나, 이들은 해상으로 도주하였다.
- 9.17. 소연평도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
해군 가덕함은 소연평도 서쪽 18 마일 해상에서 북상중인 무장간첩선을 나포하고 간첩 3 명을 생포하였다.
- 9.28. 강화도 근해 간첩선 나포
육군 해안경비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무장간첩선 1 척을 나포하고 1 명의 여간첩과 승조원 5 명을 생포, 1 명을 사살하였다.
- 10.12. 파주 지역 무장간첩사건
파주경찰은 경기도 파주군 수리면에서 무장간첩 2 명을 사살하였다.
- 10.15. 서해안 무장간첩선 나포
서해안을 경비중이던 육군부대는 북상중인 무장간첩선을 교전 끝에 나포하고 무장간첩 4 명을 사살, 1 명을 생포하였다.

- | | |
|---|---|
| <p>II. 4. 임진강 무장 간
첩사건</p> | <p>미 제 1 기병사단은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에서 보트를 타고 남하하던 무장간첩 2 명을 사살하였다.</p> |
| <p>II. 18. 아산만 입파도
무장간첩사건</p> | <p>인천 경찰 소속 해상루트 봉쇄조가 서해안의 웅진군 대부분 제주도 서남쪽 10km 지점의 입파도 부근에서 북괴 무장간첩선을 불심검문중, 조장이 북괴 간첩선에 의해 납치되었다.</p> |
| <p>II. 24. 거진 근해 무장
간첩선 나포</p> | <p>해군 경기함은 동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무장간첩선과 교전 끝에 간첩선을 나포하고 간첩 4 명을 사살, 2 명을 생포하였다.</p> |
| <p>12. 6. 어선 납치사건</p> | <p>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6 척(선원 36 명)이 북괴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다.</p> |
| <p>1959. 5.30. 산청 무장공비
사건</p> | <p>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에 무장공비 3 명이 출현하여 식량을 약탈한 후 도주하였다.</p> |
| <p>6. 17. 마차산 및 백학
지역 무장간첩
사건</p> | <p>제 8 사단은 양주군 마차산에서 무장간첩 3 명을, 9월 27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백학에서 무장간첩 1 명을 체포하였다.</p> |
| <p>7. 19. 서해 옹도 근해
무장간첩선 나포</p> | <p>해군 한산함은 서해 서산앞 옹도 남서쪽 7 마일 해상에서 남하중인 무장간첩선과 교전 끝에 간첩선을 나포하고 간첩 4 명을 생포하였다.</p> |
| <p>7. 22. 팔공산 공비사건</p> | <p>손대주·김윤수 등 영남지방에서 활동하던 간첩 일당 11 명이 검거되었다.</p> |

- 7.24. 소연평도 근해
무장 간첩선 격침
해군 독도함과 노랑함은 소연평도 남서쪽 15 마일 해상에서 남하하는 무장 간첩선을 격침하고 간첩 5 명을 사살, 2 명을 생포하였다.
8. 4. 부안 무장간첩사건
부안경찰은 전북 부안군 산내면 운호리에 있는 편산 굴신봉에서 무장간첩 2 명을 사살하였다.
8. 8. 어선 납치사건
북괴 무장선박이 서해 휴전선 부근 해상에서 새우잡이를 하던 어선 7 척을 납치하였다.
- 8.18. 비압도 부근 영해
침투 북괴경비정
격퇴
해군 거문함은 서해 비압도 남서쪽 5 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입한 북괴경비정과 교전하여 격퇴하였다.
- 8.30. 파주·양주 지역
~8.31. 무장간첩사건
제 20 사단은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에서 무장간첩 2 명을 사살하고 다음날 양주군 송산골에서 무장간첩 1 명을 생포하였다.
- 10.30. 위장자수간첩사건
간첩 김승균은 자수를 가장하고 군병력과 작전상황을 파악하는 등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 11.13. 어선납치사건
북괴경비정이 동해상에서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2 척을 납치하였다.
- 11.26. 무장간첩선 격침사건
해군은 서해로 침투한 북괴공작선 1 척을 교전 끝에 격침시키고, 공작원 2 명을 사살, 4 명을 생포하였다.
1960. 1. 9. 군 기밀 탐지간첩체포
군수물자 및 철도 현황 등 군 기밀을 탐지하던 간첩 민범식이 검거되었다.

참고 문헌

- | | | |
|---------------|--------------|---------------------------|
| 공비 연혁, | 육군본부, | 1971. 10. 15. |
| 대침투작전, | 육군본부, | 1978. 11. 15. |
| 공비토벌사, | 육군본부, | 1954. 3. 30. |
| 창군역사, | 육군본부, | 1980. 8. 18. |
| 한국전쟁사(구판 1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68. 12. 30. |
| 한국 전쟁사(7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74. 12. 10. |
| 대공 30년사, | 보안사령부, | 1978. 12. 20. |
| 북괴 도발 30년, | 북한연구소, | 1978. 4. 1. |
| 북괴 대남도발사, | 내외통신사, | 1980. 5. 30. |
| 북한총람, | 북한연구소, | 1983. 4. 30. |
| 한국전쟁,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87. 12. 25. |
| 한국전쟁 요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86. 11. 5. |
| 오뚜기역사, | 제 8 사단, | 1980. 4. 30. |
| 제5사단 부대역사, | 제 5 사단, | 1979. 1. 10. |
| 청성역사, | 제 6 사단, | 1978. 12. 30. |
| 제2군사(1·2권), | 2 군 사령부, | 1955. 10. 25. 1957. 9.30. |
| 육군발전사, | 육군본부, | 1970. 5. |
| 육군역사 사진집(1권), | 육군본부, | 1970. 1. 30. |
| 해병전투사(1권), | 해병대사령부, | 1962. 6. 15. |
| 해군사(3권), | 해군본부, | 1961. 12. 20. |
| 공군사(2권), | 공군본부, | 1964. 7. 22. |
| 국방사(1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84. 11. 10. |
| 한국경찰사(2권), | 내무부, | 1973. 10. 21. |
| 좌익사건실록, | 대검찰청, | 1965. 10. 20. |

군사지(제12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6. 9. 30.
군사지(제16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8. 10.
참전자 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11. 10.
한국 전쟁과 노동당,	김 점 곤,	1973. 9. 15.
한국전 비사,	병학사(사사끼 하루다까),	1977. 8. 10.
제주도지,	제주도청,	1982. 2. 10.
남원군지,	남원군청,	1982. 10.
순창군지,	순창군청,	1982. 2. 25.

부록 3

색 인

인명

- ㄱ
- 강경규 : 265
 강기운 : 362
 강용호 : 314
 강재구 : 357
 강진 : 17
 강차완 : 178
 강철 : 74
 계종만 : 294
 고근홍 : 123
 고길훈 : 73, 75
 고백규 : 164
 고상진 : 347
 고시백 : 164
 고시복 : 114
 공국진 : 93
 공정식 : 229
 광동철 : 335
 광영철 : 276
 광용철 : 265, 294
- 곽일연 : 327
 곽종진 : 39, 42
 곽창학 : 293, 314
 구재균 : 314
 권숙현 : 293
 권오직 : 14
 권위상 : 16
 길병순 : 331
 김갑순 : 89, 90
 김관오 : 155
 김광명 : 15
 김광철 : 189
 김구 : 22
 김국선 : 363
 김기주 : 190
 김기중 : 314
 김난열 : 359
 김달삼 : 27, 29, 30, 45, 46, 51,
 52, 56, 58, 59, 69, 70,
 113, 121, 124, 125, 126,
 129, 131, 139, 141, 145,
 146

- 김덕균 : 94
 김덕수 : 322
 김동길 : 294
 김동진 : 190
 김동하 : 72, 73
 김동혁 : 269, 295
 김동희 : 189
 김두봉 : 11
 김두열 : 78
 김두환 : 23
 김득수 : 328
 김만수 : 345
 김무한 : 361
 김무현 : 46, 116, 118, 119, 120,
 139
 김민성 : 69
 김백일 : 77, 103, 111, 123
 김병국 : 316
 김병기 : 364
 김병역 : 334
 김상겸 : 61
 김상철 : 317
 김상호 : 46, 116, 117, 130, 131,
 132, 133, 139
 김상홍 : 189
 김석완 : 189
 김석원 : 22
 김선우 : 265, 293, 322
 김성각 : 295
 김성규 : 59, 70
 김성옥 : 269
 김성은 : 72, 96, 97, 98, 229
 김성철 : 158
 김세철 : 178
 김수길 : 357
 김수남 : 265, 294, 328
 김승길 : 188
 김약수 : 4, 5
 김양하 : 9
 김영로 : 135
 김영수 : 15
 김영춘 : 269, 296
 김용국 : 229
 김용관 : 70
 김용균 : 314
 김용배 : 123, 189
 김용선 : 378
 김용암 : 15
 김용철 : 266
 김웅수 : 178
 김원봉 : 22, 26
 김원용 : 189, 247
 김은국 : 5
 김응호 : 314
 김의봉 : 70
 김이수 : 313

406 3. 인명색인

- 김익렬 : 54
김익태 : 74
김 인 : 295
김인중 : 25
김일광 : 25
김일성 : 3, 10, 11, 22, 44
김재명 : 189
김재봉 : 5
김재석 : 322
김적성 : 294
김정기 : 266, 316
김제부 : 317
김제호 : 319
김종석 : 25, 38
김종오 : 155
김종한 : 314
김좌진 : 23
김준중 : 269, 296
김중원 : 361
김지수 : 265, 294
김지회 : 31, 32, 49, 76, 78, 83,
85, 86, 89, 90, 92, 93,
99, 219, 261
김진섭 : 36
김진위 : 39, 40, 221
김철순 : 86
김철훈 : 1, 2, 4
김태규 : 265, 293, 314
김태일 : 30
김포길 : 74
김학념 : 356
김학수 : 314
김학준 : 168
김혜일 : 189
김현국 : 346
김형일 : 23, 108
김 홍 : 190
김화자 : 345
김효석 : 103
김희주 : 322
김희준 : 168
L
남일주 : 25
남재민 : 293
남충열 : 26
남태준 : 265, 293, 313, 322, 334,
335, 336, 349
노산만 : 360
노영목 : 189
노영호 : 265, 293, 316, 321, 325,
329, 334, 336
노응관 : 265
□

문갑송 : 17
 문상길 : 29, 30, 54, 56
 문학동 : 189
 민기식 : 155, 158
 민병찬 : 190
 민 용 : 266

ㅂ

박갑준 : 294
 박갑출 : 265
 박개열 : 315
 박경찬 : 357
 박근배 : 371
 박근수 : 347
 박근자 : 347
 박기병 : 168
 박기순 : 188
 박남진 : 316
 박동무 : 102
 박노규 : 234
 박로웅 : 188
 박명경 : 188
 박명수 : 347
 박문수 : 335
 박문학 : 293, 314
 박병권 : 261, 262, 268, 295
 박병기 : 178
 박서권 : 178
 박소덕 : 346
 박수암 : 363
 박승훈 : 31
 박신출 : 317
 박연손 : 365
 박영규 : 312, 331
 박영발 : 265
 박우재 : 359
 박익군 : 188
 박임항 : 221
 박정제 : 190
 박 종 : 102
 박종락 : 14
 박종민 : 94
 박종하 : 219
 박준작 : 265
 박진경 : 54, 55
 박찬봉 : 265
 박창봉 : 293
 박창암 : 248
 박창원 : 268, 295
 박천만 : 229
 박춘식 : 188, 315
 박치옥 : 178
 박판쇠 : 345
 박현영 : 5, 7, 8, 9, 12, 18, 19,
 101

408 3. 인명색인

- 박호석 : 346
박홍근 : 319
박홍식 : 23
박홍태 : 322
방경덕 : 321
방성극 : 370
방준표 : 176, 293
배운기 : 327
배참배 : 322
배팔만 : 293
백기홍 : 364
백남권 : 108, 112
백남운 : 9
백달현 : 42
백선엽 : 186, 188, 209, 215, 249, 286, 287
백인기 : 78
백인엽 : 78
- 入
- 서강력 : 316
서정남 : 73
서종철 : 158
서태한 : 189
성명삼 : 345
소정우 : 178
- 손계천 : 216
손정복 : 314
손종옥 : 314
송덕용 : 313
송병훈 : 375
송서우 : 316
송요찬 : 59, 61, 188
송정협 : 248
송진우 : 6
송호림 : 78
송호성 : 35, 77
신상목 : 189, 269, 296
신상철 : 117
신성문 : 103
신태영 : 144
신하균 : 22
신현근 : 293
신현준 : 71, 96
심학인 : 158
심언봉 : 108
-
- 안동준 : 22
안동호 : 317
안승열 : 314
안영주 : 346
안일천 : 26

- 안재룡 : 362
 안재홍 : 6
 안창관 : 96
 양우창 : 294
 양혜창 : 266
 엄주성 : 364
 엄형기 : 314
 여운형 : 6, 7, 8, 9
 엄봉생 : 230
 엄필수 : 19
 오광선 : 22
 오덕준 : 33, 155, 164
 오영관 : 316
 요용관 : 293
 오익경 : 168
 오일균 : 30, 53, 54, 58
 오정방 : 22
 오진우 : 138
 오판석 : 322
 오훈경 : 293
 오훈맹 : 314
 왕익권 : 22
 우교봉 : 188
 우무홍 : 357
 원용덕 : 77, 81, 93
 원종린 : 4
 유기동 : 357
 유봉순 : 85
 유영준 : 9
 유영호 : 314
 유재홍 : 67, 108, 109, 113, 114,
 117
 유주열 : 15
 유진희 : 5
 유춘근 : 189
 유해준 : 269, 295
 유흥수 : 168
 윤기덕 : 5
 윤종호 : 188
 윤치영 : 23
 윤태현 : 135
 은동호 : 317
 이강경 : 316
 이강수 : 26
 이관술 : 14
 이기권 : 248
 이극성 : 94
 이근양 : 62
 이기만 : 188
 이덕구 : 27, 65, 69, 70, 71
 이동백 : 41
 이동순 : 189
 이동호 : 78
 이동화 : 188
 이동휘 : 1, 2
 이 룡 : 188

- 이명석 : 265
 이명재 : 304
 이문교 : 25
 이범석 : 37, 38
 이병선 : 189
 이병제 : 314
 이병주 : 24
 이병호 : 293
 이복길 : 363
 이봉출 : 229
 이봉직 : 188
 이상율 : 314
 이상철 : 158
 이성우 : 189
 이성열 : 165
 이수영 : 26
 이순행 : 356
 이승만 : 15, 331
 이승엽 : 101, 232
 이승우 : 269, 296
 이언례 : 362
 이영 : 5, 7, 26
 이영삼 : 42
 이영호 : 315
 이영희 : 261, 335
 이용문 : 247
 이원재 : 14
 이유성 : 94
 이윤락 : 54
 이응조 : 366
 이응준 : 24
 이일영 : 366
 이장성 : 234
 이재권 : 365
 이재복 : 31, 39
 이재일 : 188
 이재현 : 316
 이재홍 : 331
 이정석 : 234
 이정일 : 51, 139, 142, 143
 이정택 : 39, 40
 이정호 : 188
 이종록 : 188
 이종익 : 189
 이주일 : 164
 이주현 : 292
 이창범 : 269
 이창정 : 164
 이철희 : 249
 이청천 : 22, 144
 이춘경 : 114, 117
 이관암 : 317
 이하영 : 378
 이학회 : 189
 이혁기 : 22, 25, 26
 이현상 : 100, 102, 152, 208, 232,

- 261
- 이형근 : 123, 129, 130, 139, 155
- 이 호 : 103, 144
- 이호재 : 43, 46, 50, 121, 135, 136,
137, 139, 144, 146
- 이홍식 : 363
- 이홍이 : 366
- 이희권 : 33
- 임견택 : 316
- 임병근 : 188
- 임부택 : 117
- 임영호 : 376
- 임용택 : 4
- 임정운 : 265
- 임종운 : 293
- 임창순 : 178, 189
- ㅈ
- 장경근 : 103
- 장도영 : 155
- 장봉준 : 365
- 장을수 : 293, 313
- 장택상 : 15, 23
- 전부일 : 189
- 전영순 : 364
- 전종호 : 366
- 정 강 : 188
- 정금모 : 102
- 정기석 : 292, 313
- 정 백 : 7
- 정석진 : 314
- 정수정 : 69
- 정순기 : 189
- 정순덕 : 366
- 정영홍 : 221
- 정우생 : 313
- 정운영 : 9
- 정 용 : 293
- 정일권 : 81, 87, 93, 311
- 정일체 : 317
- 정하석 : 316
- 조경순 : 79, 90
- 조두원 : 101
- 조병남 : 345
- 조병옥 : 15, 23
- 조병하 : 265, 293
- 조봉암 : 4, 5
- 조석원 : 189
- 조성화 : 164
- 조신영 : 9
- 조재미 : 234
- 조정기 : 261
- 조창필 : 40
- 주경호 : 331
- 주재선 : 190

412 3. 인명색인

주종건 : 5
주언필 : 14
주영희 : 313
주형래 : 190
지창수 : 31, 32, 33
지한조 : 345
진두대 : 74
진복수 : 357

추

차갑준 : 41
차동준 : 189
차만석 : 188
차문석 : 188
차일적 : 189
차일혁 : 178, 269, 296
채병덕 : 103
최경록 : 56
최경만 : 39
최난수 : 358
최남근 : 38
최남수 : 93
최덕신 : 155, 168
최동화 : 368
최명도 : 295
최석용 : 168
최송기 : 189

최수암 : 26
최영규 : 26, 269, 295
최영만 : 314
최영의 : 94
최영희 : 178, 188
최용국 : 25
최익한 : 7
최재호 : 265, 314
최주종 : 221
최치환 : 30, 103, 189
최평국 : 328
최해석 : 345
최홍희 : 23

하

하재팔 : 24
하정환 : 189
한길찬 : 293, 314
한만길 : 265, 314
한명학 : 4
한문식 : 372
한병갑 : 188
한석기 : 188
한 신 : 262, 268, 295
한암길 : 293
한웅진 : 83, 85, 86, 90, 92
한종기 : 316

- 한철동 : 190
 함병선 : 64, 67, 70, 155, 234
 함용익 : 188
 함준호 : 92, 93
 허성택 : 9
 허영순 : 269
 허 현 : 7, 9
 현송학 : 293
 홍송학 : 266
 홍순석 : 31, 34, 49, 76, 85, 86,
 87, 89, 92, 93, 99
 황무상 : 380

지명

- 가
 가리봉 : 219
 가리산 : 113
 가리왕산 : 109
 가산 : 40
 가삼리 : 162
 가인봉 : 181
 가평 : 362
 각희산 : 124
 간성지구 : 138
 갈담리 : 202
 갈매봉 : 109
 감악산 : 76
 강계동 : 271
 강구 : 229
 강릉 : 107, 111, 166, 353
 강원 : 21, 151
 강진 : 307
 강화군 : 354
 계방산 : 107, 116, 138, 139,
 140
 개성 : 19
 개인산 : 118
 거망산 : 325, 326
 거림 : 208, 210, 274
 거림-세석 : 196
 거진 : 372
 거창 : 76, 81, 83, 85, 87,
 88, 102, 120, 204,
 206
 경기 : 21
 경남 : 76, 90, 99, 162
 경북 : 51, 152, 162
 경북서구지역 : 157, 166
 경북지구 : 50, 142
 경산 : 21
 계동 : 6

414 3. 지명색인

계족산	: 169	881고지	: 74
고령	: 21	887고지	: 281
고사리	: 298	920고지	: 223
고산	: 216	938고지	: 198
고양군	: 354, 357	950고지	: 74
고양산	: 112	958고지	: 124
고양산-임계	: 123	984고지	: 195
고중리	: 165	1052고지	: 119
고제	: 94	1053고지	: 301
고지		1124고지	: 301
270고지	: 228	1134고지	: 198
312고지	: 160	1355고지	: 275
380고지	: 182, 198	1394고지	: 73, 74
416고지	: 181	1585고지	: 208
418고지	: 181	1594고지	: 278
488고지	: 328	1728고지	: 271
535고지	: 116	1806고지	: 158
545고지	: 235	고창	: 77
581고지	: 180	고천리	: 346
638고지	: 182	고탄리	: 270
650고지	: 198	고흥	: 35
662고지	: 179	곡성	: 37, 76, 81, 184, 307
700고지	: 180	공기리	: 109
734고지	: 198	광작산	: 113, 114
760고지	: 180	공주	: 21, 81
763고지	: 280	관대리	: 46
861고지	: 301	관풍령	: 120
867고지	: 301	광동	: 129

- 광양 : 35, 49, 76, 77, 81, 92, 169, 170, 194, 210, 213, 300, 307
 광양군 : 100
 광정동 : 274
 광주 : 21, 31, 47, 33, 173, 174
 광주비행장 : 200
 광탄면 : 355
 광희리 : 236
 패관산 : 88, 89, 169
 구곡산 : 195, 210
 구례 : 76, 77, 83, 92, 95, 194, 196, 210, 213, 300, 341
 구례구 : 196, 216
 구룡산 : 161, 224
 구자산 : 238
 구절리 : 124
 국사봉 : 178, 180
 국사봉지구 : 176, 177, 181, 182
 군산 : 75
 군위 : 21
 궁사리 : 345
 궁항리 : 224
 금산 : 165, 172, 176, 178, 179
 금산리 : 165
 금옥치리 : 46
 금월리 : 181
 금원산 : 224, 325
 금정리 : 162
 금평 : 206, 303
 기룡산 : 228
 기수문리 : 241
 김천 : 40, 158, 162
 김천·포항지구 : 40
 김포기지 : 353
 김화 : 354, 357
- L
- 나주 : 173
 남재 : 324
 남전리 : 161
 남원 : 37, 64, 73, 76, 77, 81, 83, 93, 169, 179, 194, 197, 199, 216, 340, 341, 344
 남원-구례-순천 : 187
 내곡리 : 170
 내대리 : 184, 194
 내동 : 300, 319
 내삼포리 : 116
 내장리 : 181
 내장산 : 181, 182, 206, 224,

416 3. 지명색인

- | | | | |
|-----|---|-------|---|
| | 340 | | 168, 179, 203 |
| 내해골 | : 301 | 대불리 | : 215 |
| 내회골 | : 322 | 대성리 | : 370 |
| 노고단 | : 76, 87, 210, 271,
297, 318, 319 | 대소리 | : 324 |
| 노고산 | : 208 | 대전 | : 48, 156 |
| 노인봉 | : 131, 132 | 대평리 | : 165 |
| 논골 | : 183 | 대포리 | : 366 |
| 논산 | : 176 | 댓재 | : 135 |
| 능다리 | : 180 | 덕갈산 | : 328 |
| | ㄷ | 덕곡리 | : 179 |
| | | 덕두산 | : 198, 210 |
| | | 덕산리 | : 170 |
| | | 덕유산 | : 47, 49, 76, 80, 85,
86, 87, 94, 104, 150,
167, 172, 214, 219,
224, 266, 271, 279,
280, 285, 297, 303,
304, 308, 317, 324,
326, 329, 339 |
| 단성 | : 160, 169 | 덕태산 | : 324 |
| 단양 | : 94, 142, 235 | 덕항산 | : 123, 124 |
| 달궁 | : 76, 90, 95 | 도순 | : 60 |
| 달성군 | : 20 | 도제리 | : 161 |
| 담양 | : 77, 173, 202 | 돈암장 | : 15 |
| 당천리 | : 179 | 돌오름 | : 73, 74 |
| 당흥리 | : 271 | 동가우리봉 | : 301 |
| 대관령 | : 137, 140 | 동대산 | : 131, 132, 229, 231,
233 |
| 대교리 | : 362 | | |
| 대구 | : 17, 20, 38, 39, 40,
47, 48, 157, 176,
177 | | |
| 대구리 | : 212 | | |
| 대궁산 | : 139 | | |
| 대둔산 | : 151, 156, 157, 163, | | |

- 동두천 : 19
 동면리 : 236
 동명 : 40
 동방리 : 283
 동산리 : 181
 동석리 : 358
 동업령 : 304, 324
 동주우리봉 : 303
 두타산 : 135
 딱섬 : 14
 둔철산 : 116
 등촌리 : 196
- ㄹ
- 러시아 : 1, 2, 4, 5
- ㄱ
- 마동 : 367
 마산 : 148, 160, 194
 마산리 : 280, 363
 마차리 : 110, 232
 마차산 : 360
 만복대 : 198
 만복부락 : 328
 망룡리 : 210
 매남 : 322
- 매봉 : 271, 300
 매막재 : 124
 매봉산 : 118
 맹현봉 : 118
 명조 : 161
 명지산 : 45
 명천 : 303
 모스크바 : 1, 2, 12
 모슬포 : 29, 47, 53, 55, 61, 64, 66
 모후산 : 208, 216, 271, 281, 305, 329
 목남 : 180
 목동 : 321
 목현 : 282
 묘봉치 : 319
 무건리 : 360
 무등 : 222
 무성리 : 180
 무스개 : 74
 무주 : 76, 172, 203, 204, 224, 307
 무주군 : 81
 묵계리 : 283
 묵계리-운수리 : 196
 묵호 : 371
 문경 : 232
 문수산 : 141, 161

418 3. 지명색인

문암산	: 118		170, 209, 210, 213,
문정리	: 198		271, 276, 277, 285,
			297, 300, 301, 303,
		ㅂ	308, 317, 318, 322,
			326, 329, 341
박대골	: 305	백자동	: 230
박지산	: 109	백학산	: 182
반론산	: 124, 146	뱀사골	: 298, 319
반산	: 301	벌교	: 35, 49
반선리	: 89, 90	법계사	: 196
반야봉	: 76, 83, 210, 271,	벽소령	: 198
	272, 297, 298, 318,	벽송리	: 281
	319	변산	: 172, 363
반화동	: 182	보래령	: 109
발왕산	: 112	보성	: 35, 36, 49
방곡리	: 198	보성군	: 100
방대산	: 46, 117, 138	보현산	: 45, 46, 47, 51, 116,
방종리	: 222		134, 145, 148, 233
배야골	: 219	북흥면	: 206
백덕산	: 109	봉평	: 119
백련산	: 214	부산	: 47, 48, 75
백령도	: 375	부안	: 176, 307, 354
백봉령	: 239	부안지구	: 171, 178, 182
백아산	: 104, 167, 170, 208,	부운리	: 198
	216	부전리	: 181
백아산-모후산일대	: 202	북상	: 94
백운산	: 17, 35, 49, 76, 80,	북평	: 137
	92, 93, 97, 104, 169,	불갑산	: 167, 173

- 불당마을 : 196
 불발령 : 119
 비압도 : 380, 381
 비학리 : 174
 入
 사라악 : 245
 사북 : 358
 사자봉 : 182
 사자산 : 110
 사정리 : 261
 산내면 : 89, 206, 364
 산덕리 : 271
 산천장 : 162
 산청 : 76, 81, 83, 94, 103,
 222, 273, 300, 321
 삼도봉 : 76, 204
 삼량진 : 173
 삼봉산 : 198
 삼정리 : 210
 삼지 : 77
 삼척 : 142
 삼당령 : 137
 상대 : 319
 상주 : 162
 상평당 : 307
 상해 : 2
 쌀오름 : 74
 상산리 : 361
 상선봉 : 182
 쌍암리 : 180
 서귀포 : 64, 70, 72, 73, 245
 서면 : 107
 서산면 : 172
 서울 : 3, 7, 18
 서울-강릉도로 : 119, 130, 131,
 139
 서정리 : 148
 석문리 : 109
 석이암산 : 239
 선봉 : 299
 선창 : 302
 섬진강 : 77
 성산포 : 55, 61, 66, 72
 성수산 : 214
 성주 : 21
 성지리 : 341
 세골산 : 198
 세걸산 : 319
 세오름 : 73
 세전리 : 162
 소공동 : 14
 소련 : 3, 257
 소백산 : 150
 소백산맥 : 149

- | | | |
|-------|--|----------------------------------|
| 소소동 | : 341 | ○ |
| 소면평도 | : 375, 378 | |
| 속리산 | : 150, 162, 167, 233, 238 | 아산만 : 354 |
| 속초 | : 190, 368 | 악양 : 160, 185 |
| 송계리 | : 153, 238, 239 | 안덕 : 77 |
| 송산골 | : 361 | 안동 : 51, 142, 151, 152, 232, 235 |
| 송정리 | : 195 | 안동-대구 : 228 |
| 송현리 | : 240 | 안동-영덕 : 152 |
| 수동 | : 94 | 안동·영덕지구 : 226 |
| 수리면 | : 359 | 안동지구 : 51 |
| 수리봉 | : 300 | 안의 : 83, 88, 94, 203 |
| 수원 | : 19, 48, 54, 58 | 안흥 : 109 |
| 순창 | : 173, 176, 177, 202 | 압곡 : 236 |
| 순천 | : 17, 31, 34, 49, 77, 170, 194, 196, 216 | 압록 : 77 |
| 시산리 | : 200 | 애월 : 73 |
| 시천면 | : 170 | 양구 : 156, 157 |
| 신녕 | : 236 | 양덕 : 46 |
| 신부동 | : 236 | 양양 : 46, 130 |
| 신불산지역 | : 217, 220, 221 | 양평 : 157 |
| 신선봉 | : 206, 213, 214, 271, 281, 319, 326 | 양촌 : 179 |
| 신양동 | : 230 | 어두운마루 : 63 |
| 신영리 | : 180 | 여당리 : 124, 129 |
| 신인월리 | : 271, 298 | 여수 : 17, 31, 32, 33, 37, 49, 194 |
| 십원 | : 303 | 여수·순천 : 31, 35, 38 |
| | | 여수항 : 32 |
| | | 염하동 : 228 |

- 영남 : 21, 149
 영남지역 : 157
 영덕 : 152, 226, 230
 영동 : 203
 영등포 : 18
 영암 : 174
 영월 : 110, 121, 142
 영주 : 150, 161, 165, 235
 영천 : 21, 234
 영해 : 169
 예천 : 142
 오대산 : 45, 46, 47, 51, 100,
 107, 116, 117, 134,
 138, 150
 오대산지구 : 50
 오동리 : 60, 64, 65
 오백장군 : 73, 74
 오봉리 : 307
 오부 : 94
 오산 : 353
 오산부락 : 327
 오산-원주 : 226
 옥과 : 77
 옥동 : 160
 옥령 : 281
 옹도 : 376
 와동면 : 345
 와룡리 : 170
 왕산 : 198
 외곡리 : 261
 외일양리 : 179
 용강리 : 213
 용문산 : 45
 용수동 : 235
 용추봉 : 181
 운교리 : 110, 364
 운봉 : 89, 184, 206
 운봉면 : 89
 운암산 : 180
 운장산 : 201, 203, 214, 216
 운장산지구 : 201
 운학리 : 110
 운호리 : 368
 울릉도 : 370
 울진 : 142
 응봉산 : 109
 응석봉 : 76, 160, 194, 321
 원등 : 305
 원산·함흥지구 : 226
 원전동 : 229
 원주 : 107, 108, 156, 166
 원지동 : 193
 월명암 : 182
 월성 : 304
 월출산 : 174
 월포 : 324

422 3. 지명색인

- | | | | |
|-------------|---|--------|----------------------------|
| 위미리 | : 64 | 입석리 | : 89, 170 |
| 위천 | : 83, 86 | 입암면 | : 345 |
| 윗도복 | : 324 | 입암산 | : 80, 104 |
| 유평리 | : 215, 223 | 입파도 | : 365 |
| 울곡리—영동—마산리 | : 174 | | |
| 울전리 | : 118 | ㅈ | |
| 을지로 | : 13 | | |
| 을지로2가 | : 15 | 자양 | : 160, 273 |
| 음대리 | : 203 | 자양리 | : 206 |
| 응복산 | : 130 | 장갈령 | : 236 |
| 의귀리 | : 67 | 장계 | : 172, 283 |
| 의성 | : 232 | 장계리 | : 215 |
| 의신 | : 321 | 장곡리 | : 119 |
| 이르쿠츠크 | : 1 | 장군봉 | : 181, 206 |
| 이방산 | : 300 | 장기 | : 160 |
| 인제 | : 46 | 장성 | : 137, 174, 224 |
| 인천 | : 8, 19, 49, 70, 376,
377 | 장수 | : 76, 81, 303, 307,
324 |
| 일월산 | : 45, 50, 51, 111, 141,
220, 221, 225, 233 | 장안산 | : 76, 203, 209, 223 |
| 일월산—황학산—통고산 | : 236 | 장암리 | : 341 |
| 임계 | : 124, 137 | 장재리 | : 345 |
| 임실 | : 307, 340 | 장항 | : 75, 236 |
| 임실—회문산—장군봉— | | 전·남북지역 | : 76, 81, 344 |
| 신선봉일대 | : 201 | 전남지역 | : 169 |
| 임원진 | : 148 | 전북지역 | : 162, 169 |
| 임진강 | : 354 | 전주 | : 172, 177, 197 |
| 입산면 | : 346 | 정산 | : 319, 326 |
| | | 정선 | : 153 |

- 정수산 : 70
 정읍 : 176, 177, 202
 제주 : 17, 73
 제주도 : 26, 27, 28, 29, 30,
 31, 47, 48, 52, 53,
 54, 59, 60, 61, 62,
 63, 64, 67, 69, 70,
 71, 72, 75, 99, 153,
 244, 245, 246, 247,
 248, 256
 제주도지구 : 48, 52, 64, 67, 68,
 70, 71
 제주읍 : 61, 62, 63, 64, 65,
 66, 70, 72
 제주읍-한라산-서귀포 : 251
 제천 : 177, 183, 238
 조계산 : 213, 216, 271, 281,
 295, 305
 조락동 : 235
 조림산 : 235
 조운암 : 182
 조천지구 : 62, 63
 조항 : 236
 존재산 : 305
 종성리 : 206
 주천 : 210
 죽령 : 161
 죽림 : 322
 죽전리 : 299, 322
 중경 : 8
 중기동 : 345
 중동 : 328
 중문 : 73
 중문리 : 74
 중문면 : 63
 중봉리 : 129, 136
 중봉산 : 45, 112, 136
 중봉산-죽지령 : 123
 지경리 : 45
 지리산 : 17, 35, 41, 47, 49,
 76, 85, 89, 94, 95,
 100, 105, 111, 149,
 150, 151, 152, 167,
 206, 209, 266, 308,
 317, 329, 338
 지리산지구 : 49, 76, 77, 80, 81,
 83, 84, 96, 104, 106,
 167, 169, 210, 297,
 300
 지보동 : 307
 지산리 : 303
 진부리 : 119, 139
 진안 : 172, 203
 진양군 : 97
 진저리 : 364
 진주 : 71, 76, 81, 83, 94,

424 3. 지명색인

	97, 98, 99, 150, 167, 170, 172, 173	충주-대전-전주 : 191
진주-남원	: 172	충주-상주 : 191
진주지역	: 96	치악산 : 109
진해	: 96, 376	칠곡 : 21, 40
		칠봉산 : 76

ㄷ

차일봉	: 319
창령	: 148
창령군	: 97
창촌리	: 160
천마산	: 76, 198
천안-강경	: 191
천왕봉	: 83, 210, 222, 223, 301
천왕봉-반야봉-노고단	: 196
천정동	: 95
철원지구	: 45
청송	: 229
청암	: 160
청옥산	: 126, 135, 146, 240
청양산	: 161
청주	: 47, 107, 172
춧대봉	: 165
추성리	: 206
춘천	: 47, 121, 156, 190
충북	: 162

ㅋ

큰말고개	: 116
큰재	: 135
	ㅌ
탑동리	: 132
태기산	: 107, 108, 109, 116
태능	: 23, 47
태백산	: 46, 47, 50, 51, 111, 152, 233
태백산맥	: 45, 50, 100, 107, 111, 116, 134, 144, 148, 149, 157
태백산지구	: 51, 142, 144, 145, 151
태향산	: 237

ㅍ

파도리	: 195
-----	-------

- 판운리 : 110
 판자골 : 346
 팔공산 : 17, 40, 42, 209
 팔봉리 : 116
 평강 : 151
 평사리 : 200
 평양 : 10
 평창동 : 239
 포항 : 158, 160, 161, 363
 풍기-상주 : 191
 풍기-단양 : 235
 풍악 : 161
 피바위고개 : 89
 피아골 : 298
- ㅎ
- 하금리 : 165
 하동 : 37, 76, 77, 80, 83,
 94, 100, 184, 194,
 210, 321
 하동군 : 273
 하바로프스크 : 1, 2
 하사머리 : 124
 하작동 : 124
 하저동 : 227
 하평창 : 324
 한계지역 : 156
- 현대악 : 74
 한라산 : 27, 48, 49, 52, 54,
 57, 60, 65, 66, 67,
 70, 71, 74, 157, 244,
 246, 251, 252, 254,
 256
 한라산지구 : 67, 68, 73
 한림 : 55, 63, 66, 72
 한림지구 : 73
 한재 : 303
 함안군 : 97
 함양 : 76, 81, 83, 87, 106,
 169, 170, 172, 197,
 199, 206, 216, 273
 함양지구 : 40
 향로봉 : 230, 231
 향양리 : 321
 향죽리 : 322
 험촌 : 160
 현동 : 235
 현동리 : 161
 현서면 : 346
 형제봉 : 195, 233, 298, 301
 호기리 : 199
 호남 : 49, 99, 149, 333
 호남지구 : 49, 81, 90, 151, 187,
 190, 217, 260, 344
 호리 : 160

426 3. 지명색인

- | | | | |
|------|--------------------------------------|---------|---|
| 홍천 | : 108, 156 | 황해도 | : 27 |
| 화개 | : 94 | 회문산 | : 80, 104, 167, 173,
181, 201, 207, 213,
214, 224, 280, 285,
308, 319, 326, 329,
330, 340 |
| 화개장 | : 83, 90, 100, 199,
210, 213, 298 | 회문산-신선봉 | : 214 |
| 화수동 | : 235 | 회문산지구 | : 216, 222, 297 |
| 화순 | : 37, 173, 307 | 효곡리 | : 98 |
| 화엄사골 | : 319 | 효자촌 | : 283 |
| 화천 | : 156, 157, 324 | 후평리 | : 232, 233 |
| 화학산 | : 167, 207, 213 | 휴천면 | : 170 |
| 활기리 | : 135 | 홍양리 | : 346 |
| 황병산 | : 131, 132 | 홍정산 | : 107, 109, 114 |
| 황석산 | : 205 | | |
| 황점부락 | : 85 | | |
| 황학산 | : 230 | | |

□ 編纂 및 執筆

主 幹：戰 史 室 長 金 淇 玉

執 筆：責 任 編 纂 委 員 鄭 錫 均

對非正規戰史

1988年 12月 10日 印刷

1988年 12月 20日 發行

發行人 尹 錫 宇

發行人 서울特別市東大門區清涼里23洞山5의 7
國 防 部 戰 史 編 纂 委 員 會

印刷處 서 라 벌 印 刷 株 式 會 社

〈非 賣 品〉